

저자 成無己

국역 오준호

해제 오준호

국역

# 傷寒明理論



9 788959 703975  
ISBN 978-89-5970-397-5 (PDF)



비매품

95510



한국한의학연구원

---

# Table of Contents

## 원문·국역

상한명리론 서문 傷寒明理論序	1.1
상한명리론 목록 傷寒明理論目錄	1.2
상한명리론 권1 傷寒明理論卷一	1.3
01 발열 發熱 第一	1.3.1
02 오한 惡寒 第二	1.3.2
03 오풍 惡風 第三	1.3.3
04 한열 寒熱 第四	1.3.4
05 조열 潮熱 第五	1.3.5
06 자한 自汗 第六	1.3.6
07 도한 盜汗 第七	1.3.7
08 두한 頭汗 第八	1.3.8
09 수족한 手足汗 第九	1.3.9
10 무한 無汗 第十	1.3.10
11 두통 頭痛 第十一	1.3.11
12 항강 項強 第十二	1.3.12
13 두현 頭眩 第十三	1.3.13
14 흉협만 胸脇滿 第十四	1.3.14
15 심하만 心下滿 第十五	1.3.15

16 복만 腹滿 第十六	1.3.16
17 소복만 少腹滿 第十七	1.3.17
18 번열 煩熱 第十八	1.3.18
상한명리론 권2 傷寒明理論卷二	1.4
19 허번 虛煩 第十九	1.4.1
20 번조 煩躁 第二十	1.4.2
21 오뇌 懊惱 第二十一	1.4.3
22 설상태 舌上胎 第二十二	1.4.4
23 육혈 衄血 第二十三	1.4.5
24 열 噦 第二十四	1.4.6
25 해 欬 第二十五	1.4.7
26 천 喘 第二十六	1.4.8
27 구토 嘔吐 第二十七	1.4.9
28 계 悸 第二十八	1.4.10
29 갈 渴 第二十九	1.4.11
30 진 振 第三十	1.4.12
31 전율 戰慄 第三十一	1.4.13
32 사역 四逆 第三十二	1.4.14
33 곽 厥 第三十三	1.4.15
34 정성 鄭聲 第三十四	1.4.16
35 섬어 譫語 第三十五	1.4.17
36 단기 短氣 第三十六	1.4.18
상한명리론 권3 傷寒明理論卷三	1.5

37 요두 搖頭 第三十七	1.5.1
38 계종 癰瘡 第三十八	1.5.2
39 불인 不仁 第三十九	1.5.3
40 직시 直視 第四十	1.5.4
41 울모 鬱冒 第四十一	1.5.5
42 동기 動氣 第四十二	1.5.6
43 자리 自利 第四十三	1.5.7
44 근척육순 筋惕肉瞤 第四十四	1.5.8
45 열입혈실 熱入血室 第四十五	1.5.9
46 발황 發黃 第四十六	1.5.10
47 발광 既發狂 第四十七	1.5.11
48 곽란 霍亂 第四十八	1.5.12
49 축혈 畜血 第四十九	1.5.13
50 노복 勞復 第五十	1.5.14
상한명리약방론 권4 傷寒明理藥方論卷四	1.6
상한명리약방론 서문 傷寒明理藥方論序	1.7
제탕방론 諸湯方論	1.7.1
계지탕방 桂枝湯方	1.7.1.1
마황탕방 麻黃湯方	1.7.1.2
대청룡탕 大靑龍湯	1.7.1.3
소청룡탕 小靑龍湯	1.7.1.4
대승기탕방 大承氣湯方	1.7.1.5
대시호탕방 大柴胡湯方	1.7.1.6

소시호탕 小柴胡湯方	1.7.1.7
치자시탕방 梔子豉湯方	1.7.1.8
과체산 瓜蒂散	1.7.1.9
대함흉탕 大陷胸湯方	1.7.1.10
반하사심탕 半夏瀉心湯方	1.7.1.11
인진호탕방 茵陳蒿湯方	1.7.1.12
백호탕 白虎湯方	1.7.1.13
오령산 五苓散方	1.7.1.14
이중환 理中丸方	1.7.1.15
사역탕 四逆湯方	1.7.1.16
진무탕 眞武湯方	1.7.1.17
건중탕 建中湯方	1.7.1.18
비약환 脾約丸方	1.7.1.19
저당탕 抵當湯方	1.7.1.20

## 해제·출판

해제	2.1
일러두기	2.2
출판사향	2.3

## 傷寒明理論序 상한명리론 서문

余嘗思歷代明醫,迴骸起死,祛邪愈疾,非曰生而知之,必也祖述前聖之經,才高識妙,探微索隱,研究義理,得其旨趣,故無施而不可.且百病之急,無急於傷寒,或死或愈,止於六七日之間,十日以上.故漢張長沙感往昔之淪喪,傷橫夭之莫救,撰爲傷寒論一十卷,三百九十七法,一百一十三方,爲醫門之規繩,治病之宗本.然自漢逮今,千有餘年,唯王叔和得其旨趣,後人皆不得其門而入,是以其間少於注釋,闕於講義.自宋以來,名醫間有著述者,如龐安常作卒病論,朱肱作活人書,韓祗和作微旨,王寔作證治,雖皆互有闡明之義,然而未能盡張長沙之深意.

내가 전부터 생각건대, 역대 명의(明醫)들은 죽음에 이른 자를 살리고 병사를 제거해 질병을 낮게 하였으니 '태어나면서부터 깨우친 경지'라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앞선 성인(聖人)들의 경문(經文)을 계승한 사람이다. 또한 뛰어난 재주와 심오한 학식으로 은미한 진리를 탐구하고 이치를 연구하여 종지(宗旨)를 얻었기 때문에 치료하여 낫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것이다. 모든 질병의 위급함 중에서 상한(傷寒)보다 더 위급한 것이 없으니, 죽거나 낫는 것이 6 - 7 일 사이에 결정되고 10일이 지나야 낫게 된다. 그러므로 한(漢)나라 장사(長沙) 태수였던 장중경(張仲景)은 지나간 죽음을 통감하며 요절한 이들을 구하지 못한 것에 상심하여 《상한론》 10권을 지어 397가지 치법과 113가지 처방을 담았다. 이것이 의문(醫門)의 규범이자 치료의 근본이 되었다. 그러나 한나라에서 지금까지 천년의 시간 동안 오직 왕숙화(王叔和)만이 그 종지(宗旨)를 얻었고, 후인(後人)은 모두 그 문호(門戶)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동안 주석이 적었고 풀이가 없었다. 송(宋)나라 이후로 명의(名醫)들이 간혹 저술을 두었다. 예를 들어 방안상(龐安常)은 《상한총병론(傷寒總病論)》을 지었고, 주굉(朱肱)은 《남양활인서(南陽活人書)》를 지었으며, 한지화(韓祗和)는

《상한미지론(傷寒微旨論)》을 지었고, 왕식(王寔)은 《상한증치(傷寒證治)》를 지었다. 이들은 모두 각각 일부분씩 글의 의미를 드러냈으나 중경의 깊은 뜻을 모두 다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聊攝成公,家世儒醫,性識明敏,記問該博,撰述傷寒,義皆前人未經道者,指在定體分形析證,若同而異者明之,似是而非者辯之,釋戰慄,有內外之診,論煩躁,有陰陽之別,譚語鄭聲,令虛實之灼知,四逆與厥,使淺深之類明.始於發熱,終於勞復,凡五十篇,目之曰明理論,所謂真得長沙公之旨趣也,使習醫之流,讀其論而知其理,識其證而別其病,胸次了然而無惑,顧不博哉.余家醫業五十載,究旨窮經,自幼迄老,凡古今醫書,無不涉獵,觀此書義理燦然,不能默默,因序其略.

요섭(聊攝)의 성무기(成無己)는 대대로 유의(儒醫) 집안 사람으로, 성품이 명민하였고 지식이 해박하여 《주해상한론》을 찬술하였으니 다른 것이 모두 이전 사람들이 말하지 못한 것이었다. 본체를 정하고 유형을 나누며 증상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은 명확히 하였고, 맞는 듯하지만 틀린 것들은 분별해 놓았다. 전율(戰慄)을 풀이하며 내외의 진단을 두었고, 번조(煩躁)를 설명하며 음양의 구분을 두었다. 섬어(譫語)와 정성(鄭聲)은 허실(虛實)이 분명하도록 하였고, 사역(四逆)과 곁(厥)은 얇고 깊은 구분이 분명하도록 하였다. 발열(發熱)에서 시작하여 노복(勞復)으로 끝을 맺은 이 50편을 "명리론(明理論)"이라고 이름 붙였으니 중경의 뜻을 참으로 얻은 것이다. 의학을 익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명을 읽도록 하여 그 이치를 알게 하고, 증상을 인식하도록 하여 그 질병을 구분하게 하면 가슴 속이 또렷해져 의혹이 사라지니 어찌 이로움이 넓지 않겠는가. 우리 집안이 50년 째 의업(醫業)을 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늘그막까지 경문(經文)의 뜻을 궁리해 왔다. 고금의 의서를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 책을 보니 이치가 눈부시게 드러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서 그 대략을 서문으로 적는다.

歲在壬戌八月望日,錦屏山,嚴器之序.

임술년 8월 보름에 금병산(錦屏山)에서 엄기지(嚴器之)가 서문을 적다.

右注解傷寒論十卷,明理論三卷,論方一卷,聊攝成無己之所作,自北而南,蓋兩集也.予以紹熙庚戌歲入都,傳前十卷於醫者王光廷家,泊守荊門,又於襄陽訪後,四卷得之.望聞問切治病處方之要,舉不越此.古今言傷寒者,祖張長沙,但因其證而用之,初未有發明其意義.成公博極研精,深造自得,本難素靈樞諸書,以發明其奧,因仲景方論,以辯析其理,極表裏虛實陰陽死生之說,究藥病輕重去取加減之意,毫髮無遺恨,誠仲景之忠臣,醫家之大法也.

이 《주해상한론(注解傷寒論)》 10권, 《명리론(明理論)》 3권, 《논방(論方)》 1권은 요섭(聊攝) 사람 성무기(成無己)의 저술로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은 것이다. 나는 소희(紹熙) 경술(庚戌, 1190)년 도성으로 들어가 《주해상한론》 10권을 의원 왕광정(王光廷)의 집안에서 전해 받고 이로부터 대문을 닫고 소중히 지켰으며, 또 양양(襄陽)에 방문한 뒤에 《명리론》과 《논방》 4권을 얻었다.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진단과 병을 치료하고 처방하는 치법의 요점이 모두 이 책들을 뛰어넘지 못하였다. 고금에 상한(傷寒)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장사(長沙)의 장중경(張仲景)을 조술한다고 하지만, 그저 증상에 따라 치료할 뿐 애초에 중경의 뜻을 발명(發明)하지는 못하였다. 성무기 공께서는 넓고 깊게 연구하여 자득(自得)의 경지까지 깊숙이 나아가신 분으로 《난경(難經)》·《소문(素問)》·《영추(靈樞)》와 같은 책을 근본으로 삼아 그 심오한 의미를 발명(發明)하셨으며 중경의 방론을 가지고 《상한론》의 이론을 변증하고 분석하였다. 표리·허실·음양·생사의 설명을 지극히 하고, 약과 병의 경중·선택·가감의 뜻을 궁리하여, 터럭만큼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다. 성무기 공께서는 참으로 중경의 충직한 신하이고 이 책은 의가(醫家)의 큰 강령이다.

士大夫宦四方,每病無醫.予來郴山,尤所歎息,欲示之教,難於空言,故刊此書,以爲楷式,使家藏其本,人誦其言,天橫傷生,庶乎免矣.成公當乙亥丙子歲,其年九十餘,則必生於嘉祐治平之間,國家長育人材,命醫立學,得人之效,一至于此,則天下後世,凡所謂教養云者,可不深加之意也夫.

사대부로서 전국 각지에 부임해야 하는데 병을 앓을 때마다 의사가 없었다. 내가 침산(郴山)에 부임했을 때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책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싶어도 공허한 말이 되는 어려움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간행하여 모범으로 삼아, 집집마다 이 책을 소장하



게 하여 사람마다 그 글귀를 외우게 한다면 아마 요절하여 죽는 경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성무기 공은 을해(乙亥, 1155)년과 병자(丙子, 1156)년 즈음에 90세가 되었으므로 분명 가우(嘉祐)나 치평(治平) 연간에 태어난 것이다. 국가(國家)가 인재를 기르고 의학(醫學)을 사명으로 하여 인재를 얻은 효과가 모두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가르치고 기른다"고 하는 천하 후세의 모든 이들은 더 깊게 연구하고 덧붙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開禧改元五月甲子, 歷陽張孝忠書.

개희(開禧) 원년 5월 갑자(甲子)일에 역양(歷陽) 장효충(張孝忠) 쓰다.

## 傷寒明理論序畢

상한명리론 서문 마침

## 傷寒明理論目錄 상한명리론 목록

第一卷:發熱、惡寒、惡風、寒熱、潮熱、自汗、盜汗、頭汗、手足汗、無汗、頭痛、項強、頭眩、胸脇滿、心下滿、腹滿、少腹滿、煩熱.

제일권:발열, 오한, 오풍, 한열, 조열, 자한, 도한, 두한, 수족한, 무한, 두통, 항강, 두헌, 흥협만, 심하만, 복만, 소복만, 번열.

第二卷:虛煩、躁煩、懊憹、舌上胎、衄、嘔、咳、喘、嘔吐、悸、渴、振、戰慄、四逆、厥、鄭聲、譫語、短氣.

제이권:허번, 조번, 오뇌, 설상태, 늑, 열, 해, 천, 구토, 게, 갈, 진, 전율, 사역, 귤, 정성, 섬어, 단기.

第三卷:搖頭、瘕瘕、不仁、直視、鬱冒、動氣、自利、筋惕肉瞤、熱入血室、發黃、發狂、霍亂、畜血、勞復.

제삼권:요두, 계종, 불인, 직시, 울모, 동기, 자리, 근척육순, 열입혈실, 발황, 발광, 곽란, 축혈, 노복.

第四卷:諸湯方論.目錄〔終〕.

제4권:제탕방론. 목록 마침.

傷寒明理論目錄終

상한명리론 목록 끝

# 傷寒明理論卷一〔江陵朱氏校刊本〕상한명 리론 권1〔강릉주씨교간본〕

金聊攝成無己撰

| 금 요섭 성무기 지음



## 發熱 第一 01 발열

傷寒發熱,何以明之.發熱者,謂怫怫然發於皮膚之間,熇熇然散而成熱者是也.與潮熱寒熱若同而異,與煩躁相類而非,煩躁者在內者也,潮熱之熱,有時而熱,不失其時,寒熱之熱,寒已而熱,相繼而發,至於發熱,則無時而發也.

상한의 발열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발열(發熱)은 피부 사이에서 답답(怫怫)하게 나타나 화끈화끈(熇熇) 흠어지며 열이 나는 것이다. 조열(潮熱)·한열(寒熱)과는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고, 번조(煩躁)와는 같은 부류이나 같지 않다. 번조는 속에 있는 것이다. 조열의 열은 정해진 시간에 열이 나는데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한열의 열은 오후에 끝난 뒤에 열이 나는데 서로 이어져 나타난다. 발열의 경우에는 아무 때고 나타난다.

有謂翕翕發熱者,有謂蒸蒸發熱者,此則輕重不同,表裏之區別爾.所謂翕翕發熱者,謂若合羽所覆,明其熱在外也,故與桂枝湯發汗以散之.所謂蒸蒸發熱者,謂若薰蒸之蒸,明其熱在內也,故與調胃承氣湯攻下以滌之.其發熱屬表者,即風寒客於皮膚,陽氣怫鬱所致也.其發熱屬裏者,即陽氣下陷,入陰中所致也.觀其熱所從來,而汗下之證明其辨焉.若熱先自皮膚而發者,知邪氣之在外也,若熱先自裏生而發達於表者,知邪氣之在裏也,舉斯二者,爲邪氣在表在裏而發熱也.惟其在表在裏俱有發熱,故邪在半表半裏者,亦有發熱之證.何者,以表證未罷,邪氣傳裏,裏未作實,是爲半表半裏,其發熱者,或始自皮膚而漸傳裏熱,或始自內熱而外連於表.蓋邪氣在表發熱者,則表熱裏不熱也,邪氣在裏發熱者,則裏熱甚而達於表也,其在半表半裏發熱者,則表裏俱發熱,而但熱又輕於純在表者也.經雖云,"發熱惡寒者,發於陽也,無熱惡寒者,發於陰也",然"少陰病始得之,亦有反發熱"者,蓋亦屬其表也,特與麻黃細辛附子湯發汗者是已.

'흠흠발열(翕翕發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증증발열(蒸蒸發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경증이 같지 않고 표리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흠흠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깃털을 모아 덮인 것 같다"는 말이니 열이 겉에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계지탕(桂枝湯)으로 땀을 내어 흠어준다. '증증발열'이라

고 하는 것은 "연기로 찌는 듯하다"는 말이니 열이 속에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으로 공하(攻下)하여 씻어낸다. 발열이 표증(表證)에 속하는 경우는 풍한(風寒)의 사기가 피부에 침입하여 양기(陽氣)가 풀어지지 못한 결과이다. 발열이 이증(裏證)에 속하는 경우는 양기가 무너져 내려 음분(陰分) 속으로 들어간 결과이다. 열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발한을 해야 하는 병증인지 공하를 해야 하는 병증인지 분명히 판별된다. 만약 열이 먼저 피부에서 생겨난 경우는 사기(邪氣)가 겉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열이 먼저 속에서 생겨나 겉까지 나타난 경우는 사기가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사기가 겉이나 속에 있어 열이 나는 경우이다. 사기가 겉에 있거나 속에 있는 경우에 발열이 있으므로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어도 발열의 증상이 있다. 어째서인가. 표증이 아직 풀어지지 않았는데 사기가 속으로 전경(傳經)되고 이증은 아직 실하지 않은 것이 반표반리이다. 이곳의 발열은 처음에 피부에서 나다가 점차 속으로 전경되어 열이 나기도 하고, 처음에 속에서 나던 열이 겉까지 다다르기도 한다. 사기가 겉에 있어 열이 나면 겉에는 열이 나지만 속에는 열이 나지 않는다. 사기가 속에 있어 열이 나면 속에서 열이 심하여 겉에까지 이른다.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어 열이 나면 겉과 속 모두에서 열이 나지만 사기가 겉에만 있어서 나는 열보다는 가볍다. 경문(經文)에서 비록 "발열과 오한이 있으면 병이 양분(陽分)에서 생겨난 것이고, 발열 없이 오한만 있으면 병이 음분(陰分)에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소음병(少陰病)을 처음 얻었을 때도 도리어 열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역시 표증에 속하는 듯하다. 바로 마황부자세신탕(麻黃細辛附子湯)을 주어 땀을 내는 경우가 그것이다.

發熱爲陽寒<sup>1</sup>之常也,一或陰陽俱虛,與其下利新汗後,又皆惡其發熱也.經云,"脈陰陽俱虛,熱不止者死","下利發熱亦死".內經云,"汗出輒復熱,而脈躁疾,不爲汗衰,狂言不能食,此名陰陽交,交者死也".斯亦發熱也,詎可與尋常發熱一概而論耶,醫者更當明辨之.

발열은 상한에서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나 음양맥이 모두 허한 경우나 하리가 있거나 새로 땀을 낸 뒤에는 모두 열이 나는 것이 좋지 않다. 경문(經文)에서 "음양의 맥이 모두 허(虛)하고 열이 멎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였고, "하리(下利)를 하며 열이 나도 죽는다."라고 하였다. 내경(內經)에서 "땀이 난 뒤에 곧 다시 열이 나고 맥이 조금하게 빠르며, 땀을 내도 병이 쇠퇴하지 않고 미친 소리를 하며 먹지 못하는 것을 음양교(陰陽交)라고 한다. 음양교는 죽을 병이다."라고 하였다. 이것도 발열이지만 어찌 일반적인 발열과 한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가. 의사는 재삼 분명하게 판별하여 알아야 한다.

1. 陽寒 : \*傷寒 ※대성본 ←

## 惡寒 第二 02 오한

傷寒惡寒,何以明之.惡寒者,風寒客於榮衛之中也.惟其風寒客於榮衛,則洒淅然惡寒也,惟其榮衛之受風寒,則嗇嗇然不欲舒也.

상한의 오한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오한은 풍한(風寒)이 영위(榮衛) 사이에 침입한 것이다. 풍한이 영위에 침입하여야만 오싹하게〔洒淅然〕 오한이 들고, 영위가 풍한을 받아야만 오슬오슬(嗇嗇然) 움츠리려고 한다.

其惡寒者,非寒熱之寒也,又非惡風也.且惡風者,見風至則惡矣,得以居密室之內,幃帳之中,則坦然自舒也.至於惡寒者,則不待風而寒,雖身大熱而不欲去衣者是也.寒熱之熱<sup>1</sup>,謂寒熱更作,熱至則寒無矣.其惡寒雖發熱,而不欲去衣也,甚則至於向火被覆,而猶不能遏其寒也.所以然者,由陰氣上入陽中,或陽微,或風虛相搏之所致也.

오한은 한열(寒熱)에서의 '한(寒)'과 다르고, 오풍(惡風)과도 다르다. 오풍은 바람을 쏘이는 것을 싫어하므로, 밀폐된 방 안이나 장막 가운데 머무르게 하면 편안하게 해소된다. 오한의 경우에는 바람이나 추위와 무관하니, 몸에서 심하게 열이 나도 옷을 벗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한열에서의 '한'은 오한과 발열이 번갈아 생기는 것을 말하므로 열이 나는 동안에는 오한이 없다. 그러나 오한은 열이 나더라도 옷을 벗으려 하지 않고 심하면 불을 마주하고 이불로 덮어도 여전히 추위를 막을 수 없다. 그러한 이유는 음기(陰氣)가 위로 올라 양분(陽分) 속으로 들어왔거나, 양기가 약해졌거나, 풍사(風邪)와 허해진 원기가 서로 다투는 결과이다.

惡寒一切屬表,雖裏證悉具,而微惡寒者,亦是表未解也,猶當先解其外,俟不惡寒爲外解,乃可攻裏也.經曰,"發熱而惡寒者,發於陽也,無熱而惡寒者,發於陰也".謂如傷寒,"或已發熱,或未發熱,必惡寒者",謂繼之以發熱,此則發於陽也."若惡寒而踰,脈沈

細而緊者",此則發於陰也.在陽者可發汗,在陰者可溫裏.惡寒雖悉屬表,而在表者亦有虛實之別,若汗出而惡寒者,則爲表虛,無汗而惡寒者,則爲表實,表虛可解肌,表實可發汗.

오한은 모두 표증(表證)에 속한다. 비록 이증(裏證)이 모두 갖추어져 있더라도 약간의 오한이 있다면 겉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 이 때 먼저 표증을 풀어야만하고, 오한이 사라져 겉이 풀리기를 기다린 뒤에야 이증을 공하(攻下)할 수 있다. 경문에 "발열과 오한이 있으면 양분(陽分)에서 생겨난 병이고, 발열 없이 오한만 있으면 음분(陰分)에서 생겨난 병이다."라고 하였다. 가령 상한(傷寒)일 때 "이미 발열이 있든 아직 발열이 없든 반드시 오한이 있다."라고 하여 발열(發熱)로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양(陽)에서 생겨난 병이고, "오한이 있으며 몸을 웅크리고 맥이 침세(沈細)하며 긴(緊)하다."라고 한 것은 음(陰)에서 생겨난 병이다. 사기가 양에 있으면 발한시킬 수 있고, 음에 있으면 온리(溫裏)시킬 수 있다. 오한이 모두 표증에 속하지만 사기가 겉에 있는 경우에도 허실의 차이가 있다. 만약 땀이 나면서 오한이 있는 경우는 표허(表虛)이고, 땀이 나지 않고 오한이 있는 경우는 표실(表實)이다. 표허에는 해기(解肌)시키고, 표실에는 발한(發汗)시켜야 한다.

又有止稱背惡寒者,背者胸中之府,諸陽受氣於胸中,而轉行於背.內經曰,"人身之陰陽者,背爲陽,腹爲陰,陽氣不足,陰寒氣盛,則背爲之惡寒".若風寒在表而惡寒者,則一身盡寒矣,但背惡寒者,陰寒氣盛可知也.經所謂"少陰病一二日,口中和而背惡寒者,當灸<sup>2</sup>之",處以附子湯者是矣.又或乘陰氣不足,陽氣內陷入陰中,表陽新虛,有背微惡寒者,經所謂"錫寒<sup>3</sup>無大熱,口燥渴,心煩,背微惡寒者,白虎加人參湯主之"者是也.二者一爲陰寒氣盛,一爲陽氣內陷,又何以明之也.且陰寒氣盛,則不能消耗津液,故於少陰病則曰口中和也.陽氣內陷,則灼燦津液爲乾,故於太陽病,則口燥舌乾而渴也.二者均是背惡寒,要辨陰陽寒熱不同者,亦於口中潤燥可知.



또 배오한(背惡寒)이라고만 하는 것이 있다. 등은 '흉중지부(胸中之府)'로서 모든 양(陽)은 가슴 속에서 기를 받아 등에서 흐른다. 《내경》에서 "사람 몸에 음양이 있으니, 등은 양(陽)이 되고 배는 음(陰)이 된다. 양기가 부족하여 음한(陰寒)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등에 오한이 든다."라고 하였다. 풍한(風寒)이 겹에 있어 오한이 들 때는 온 몸에 모두 오한이 있다. 그러므로 등에만 오한이 드는 것은 음한의 기운이 왕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문에서 "소음병 1 - 2일에 입안이 건조하지 않고 등이 시린 경우는 땀을 떼야 한다."라고 하고 부자탕(附子湯)을 처방한 것이 이것이다. 또 더러 음기(陰氣)가 부족한 틈을 타 양기(陽氣)가 안으로 내려앉아 음분으로 들어가 표양(表陽)이 막 허해져서 등에 약간 오한이 드는 경우가 있다. 경문에서 "상한에 큰 열은 없고, 입이 건조하고 목이 마르며, 가슴이 답답하고 등에 약간 오한이 드는 경우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 두 가지에서 전자는 음한(陰寒)의 기운이 왕성한 것이고 후자는 양기(陽氣)가 안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다시 구분할 것인가. 음한의 기가 왕성하면 진액을 소모하지 않으므로 소음병에는 "입안이 건조하지 않고(口中和)"라고 하였고, 양기가 안으로 내려앉으면 진액을 태워 말리므로 태양병에는 입과 혀가 마르고 갈증이 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등에 오한이 들지만, 서로 다른 음양한열을 구분하는 요점이 입안이 촉촉한지 건조한지 임을 알 수 있다.

1. 熱 : \*寒 ※문맥상 ←

2. 灸 : \*灸 ※상한론 ←

3. 錫寒 : \*傷寒 ※상한론 ←

## 惡風 第三 03 오풍

傷寒惡風,何以明之.黃帝鍼經曰,"衛氣者,所以溫分肉,充皮膚,肥腠理,司開闔者也".  
風邪中於衛也,則必惡風.何者,以風則傷衛,寒則傷榮,爲風邪所中,於分肉不溫而熱  
矣,皮毛不充而緩矣.腠理失其肥,則疎而不密,開闔失其司,則泄而不固,是以惡風也.

상한의 오풍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황제침경》에서 "위기(衛氣)는 분육(分肉)을 덥히고 피부를 충실하게 하며, 주리(腠理)를 살찌우고 개합(開闔)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풍사(風邪)가 위분(衛分)에 적중되면 반드시 오한하게 된다. 왜냐하면 풍(風)은 위분(衛分)을 손상시키고 한(寒)은 영분(榮分)을 손상시키므로 풍사에 적중되면 분육은 덥혀지지 않고 뜨거워지고, 피부는 충실해지지 못하고 느슨해진다. 주리가 살찌워지지 못하면 성글어져서 치밀하지 못하게 되고, 개합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새어 나가서 견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오풍(惡風)이 생긴다.

是惡風惡寒二者,均爲表證,其惡風則比之惡寒而輕也.惡寒者,齶齶然增寒也,雖不當風,而自惡寒.其惡風者,謂常居密室之中,幃帳之內,則舒緩而無所畏也,一或用扇,一或當風,淅淅然而惡者,此爲惡風也.然惡寒則有屬於陽者,有屬於陰者,及至惡風則,悉屬於陽,非若惡寒之有陰陽也.三陰之證,並無惡風者以此也.

오풍(惡風)、오한(惡寒) 두 가지는 모두 표증(表證)이나 오풍이 오한에 비해 가볍다. 오한은 오슬오슬(齶齶) 추위를 싫어한다. 바람을 맞지 않아도 스스로 추위를 싫어한다. 오풍은 평소 밀폐된 방이나 장막 안에 있으면 편안하고 불편한 것이 없다. 하지만 부채를 부치거나 바람을 맞으면 오싹하여(洒淅) 싫다고 하는 것이 오풍이다. 그리고 오한은 양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음에 속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풍은 모두 양에 속하므로 음·양의 구분이 있는 오한과 차이가 있다. 삼음(三陰)의 병증에 모두 오풍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惡風雖悉在表,而發散又自不同.若無汗而惡風者,則爲傷寒,當發其汗.若汗出而惡風者,則爲中風,當解其肌.裏證雖具,而惡風未罷者,猶當先解其外也.又有發汗多亡陽,與其風濕,皆有惡風之證.蓋以發汗,多漏不止,則亡陽,外不固,是以惡風也,必以桂枝加附子湯,溫其經而固其衛.風濕相搏,骨節疼煩,濕勝自汗而皮腠不密,是以惡風也,必以甘草附子湯,散其濕而實其衛.由是觀之,惡風屬乎衛者可知矣.

오풍이 모두 표증(表證)이지만, 발산시키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만약 땀이 나지 않고 오풍이 있는 경우는 상한(傷寒)이니 땀을 내야 한다. 만약 땀이 나면서 오풍이 있는 경우는 중풍(中風)이니 해기(解肌)시켜야 한다. 이증(裏證)이 있더라도 오풍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는 오히려 먼저 외사(外邪)를 풀어야 한다. 지나친 발한으로 생긴 망양(亡陽)이나 풍습(風濕)으로 생긴 병에도 모두 오풍의 증상이 있다. 발한으로 땀이 줄줄 흘러 멎지 않으면 망양이 생기는데, 걸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오풍이 생기므로 계지가부자탕(桂枝加附子湯)으로 경맥(經脈)을 덥히고 위기(衛氣)를 굳건히 해야 한다. 풍과 습이 서로 다투면 뼈마디에서 통증과 열이 생기는데, 습이 우세하면 자한(自汗)이 나면서 주리가 조밀하지 못하여 오풍이 생기므로 감초부자탕(甘草附子湯)으로 습을 흘리고 위기(衛氣)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이를 보건대 오풍이 위분(衛分)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寒熱 第四 04 한열

傷寒寒熱,何以明之.寒熱者,謂往來寒熱也.經曰,"邪正分爭,往來寒熱者",言邪氣之入也,而正氣不爲之爭,則但熱而無寒也.乃有熱而寒者,謂其正氣與邪氣分爭,於是寒熱作矣.爭則氣鬱不發於外,而寒熱爭焉,爭甚則憤然而熱,故寒已而熱作焉,茲乃寒熱之理也.或謂寒熱者,陰陽爭勝也,陽勝則熱,陰勝則寒,此陰陽之爭也.何則,蓋以寒爲陰而熱爲陽,裏爲陰而表爲陽.邪之客於表者爲寒,邪與陽相爭,則爲寒矣.邪之入於裏者爲熱,邪與陰相爭,則爲熱矣.其邪半在表半在裏,外與陽爭而爲寒,內與陰爭而爲熱矣.表裏之不拘,內外之不定,或出或入,由是而寒熱且往且來也.是以往來寒熱屬半表半裏之證.邪居表多則多寒,邪居裏多則多熱,邪氣半在表半在裏,則寒熱亦半矣.審其寒熱多少,見其邪氣淺深矣.小柴胡湯,專主往來寒熱,而又立成諸加減法,亦爲邪氣在半表半裏,未有定處,往來不常.

상한의 한열(寒熱)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한열은 한열왕래(寒熱往來)를 말한다. 경문(經文)에서 "사기(邪氣)와 정기(正氣)가 나뉘어져 다투면 오한과 발열이 왕래한다."라고 하였다. 사기(邪氣)가 침입하였으나 정기(正氣)와 다투지 않으면 열만 나고 오한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열이 나면서 오한이 있는 것은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나누어져 다투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한열이 생겨난다. 다투면 기가 울체되어 겉으로 발산되지 못하여 한과 열이 다투게 되고, 다툼이 심하면 분이 나서 열이 생기므로 오한이 다한 뒤에 열이 생겨난다. 이것이 한열의 이치이다. 한열(寒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양이 다투어 승부하는 것으로, 양이 이기면 열이 나고 음이 이기면 오한이 든다. 이것이 음양의 다툼이다. 어째서인가. 한(寒)은 음이 되고 열(熱)은 양이 되며, 속(裏)은 음이 되고 겉(表)은 양이 된다. 사기가 겉에 침입하면 한이 되므로 사기와 양(陽)이 서로 다투면 오한이 생긴다. 사기가 속으로 들어가면 열이 되므로 사기와 음(陰)이 서로 다투면 발열이 생긴다. 사기가 겉과 속에 걸쳐 있으면, 겉으로는 양(陽)과 다투어 오한이 되고 속으로는 음과 다투어 발

열이 된다. 겉과 속에 구애받지 않고 안팎에 머무르지 않아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면 이로 인해 오한과 발열이 생겨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한열왕래(寒熱往來)는 반표반리의 증상에 속한다. 사기가 표(表)에 많이 머물면 오한(惡寒)이 많고, 이(裏)에 많이 머물면 발열(發熱)이 많으며, 반표반리에 머물면 오한과 발열이 반반씩 생긴다. 그러므로 오한과 발열의 많고 적음을 살펴 사기의 깊고 얇음을 알 수 있다. 소시호탕(小柴胡湯)은 오로지 한열왕래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다시 여러 가감법을 둔 것은 사기가 반표반리에서 정처 없이 일정하지 않게 오고 가기 때문이다.

又寒熱如瘧，與夫發熱惡寒，皆似而非也。然寒熱如瘧者，作止有時者也，及往來寒熱，則作止無時，或往或來，日有至於三五發者，甚者十數套，與瘧狀有以異也。至於發熱惡寒者，爲發熱時惡寒並不見，惡寒時熱不見也，不若此熱已而寒，寒已而熱者。雖然，應往來寒熱，屬半表半裏，當和解之，又有“病至十餘日，而結熱在裏，復往來寒熱者，亦可與大柴胡湯下之”，不可不知也。

또 '학질과 같은 한열'과 '발열오한'의 증상은 모두 한열왕래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학질과 같은 한열은 정해진 시간에 발작하고 멈추지만, 한열왕래는 불시에 생겨나고 잦아든다. 또 한열왕래가 나타났다 물러났다 하는 것이 하루에 3 - 5차례에서 심하면 10여 차례인 것도 학질과 같은 한열과 다른 점이다. 발열오한의 경우에는 열이 날 때 오한이 함께 나타나지 않으며 오한이 들 때 열이 나타나지 않으니, 발열이 멈춘 뒤에 오한이 나고 오한이 멈춘 뒤에 발열이 나는 한열왕래와는 다르다. 비록 한열왕래가 반표반리에 속하여 화해(和解)시켜야 하지만, "병이 든 지 10여일이 되어서 속에서 열이 맺혀 다시 한열왕래가 생긴 경우에 대시호탕을 주어 공하시킬"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 潮熱 第五 05 조열

傷寒潮熱,何以明之.若潮水之潮,其來不失其時也.一日一發,指時而發者,謂之潮熱,若日三五發者,即是發熱,非潮熱也.潮熱屬陽明,必於日晡時發者,乃爲潮熱.陽明者,胃屬土,應時則王於四季,應日則王於未申.經曰,"陽明居中土也,萬物所歸,無所復傳".蓋邪氣入胃,謂之入府,府之爲言聚也,若府庫之府焉.邪氣入於胃,而不復傳,邪氣鬱而爲實熱,隨王而潮,是以日晡所發潮熱者,屬陽明也.

상한의 조열(潮熱)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조열은 조수(潮水)에서의 '조(潮)'와 같아 때를 어기지 않고 밀려든다. 하루 1번 생겨나며 때에 맞추어 나타나므로 조열이라고 한다. 만약 하루에 3 - 5번 생겨난다면 이것은 발열이지 조열이 아니다. 조열은 양명에 속하며, 반드시 해질녘에 발생하여 조열이 된다. 양명은 위(胃)로서 토(土)에 속하여, 한 해 동안에는 사계(四季)에 왕성하고, 하루 동안에는 미시(未時)에서 신시(申時)에 왕성하다. 경문에서 "양명은 가운데 토(土)에 머문다. 모든 것이 그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사기(邪氣)가 위(胃)에 들어가는 것을 "부에 들어갔다(入府)"라고 하는데, 부(府)는 모였다는 뜻으로 곳집과 같다. 사기가 위(胃)로 들어가서 다시 전해지지 않으면 사기가 울체되어 실열이 생겨나고 왕성한 기운을 따라 밀려든다. 따라서 해질녘에 조열이 생겨나 것은 양명에 속한다.

惟其屬陽明,故潮熱爲可下之證.經曰,"潮熱者實也",又曰,"潮熱者,此外欲解也,可攻其裏焉",又曰,"其熱不潮,未可與承氣湯".即此觀之,潮熱屬於胃者,昭然可見焉.雖然,潮熱爲裏實可下之證,一或脈浮而緊,與其潮熱而利,或小便難,大便溏者,皆熱未全入府,猶帶表邪,當和解其外,外解已而小便利,大便鞭者,乃可攻之.

조열은 양명에만 속하므로 하법을 써야 하는 증상이다. 경문에서 "조열(潮熱)은 실증이다."라고 하였고, 또 "조열은 겉이 풀리려는 것이다. 이증(裏證)을 공하시켜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또 "조열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승기탕(承氣湯)을 쓸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았을 때 조열이 위에 속하는 것을 분명

하게 알 수 있다. 조열이 비록 속이 실(實)하여 하법을 써야하는 증상이나, 더러 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하거나, 조열이 나면서 설사를 하거나, 혹은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대변이 무른 경우도 있다. 이것은 모두 열이 완전히 부(府)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표사(表邪)를 끼고 있는 것이니 겉을 화해시켜야 한다. 겉이 풀어진 뒤에 소변이 잘 나오고 대변이 단단해지면 공하시킬 수 있다.

或謂潮熱有屬太陽少陽者乎.少陽王於寅卯,太陽王於巳午,若熱於此時發者,爲邪未入胃,豈得謂之潮熱,必待日晡所發者,乃謂之潮熱,見其邪在胃也.遇疾值病,詳而驗之,始見得眞也.

혹자가 조열이 태양이나 소양에 속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하였다. 소양은 인시(寅時)와 묘시(卯時)에 왕성하고, 태양은 사시(巳時)와 오시(午時)에 왕성하다. 만약 열이 이 시간에 나타난다면 사기가 아직 위(胃)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 어찌 조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해질녘이 되어서야 나타나는 것을 조열이라고 하니, 사기가 위(胃)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병에 대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비로소 진실을 알 수 있다.

## 自汗 第六 06 자한

傷寒自汗,何以明之.自汗者,謂不因發散而自然汗出者是也.內經曰,"陽氣衛外而爲固也".衛爲陽,言衛護皮膚,肥實腠理,禁固津液,不得妄泄.汗者干之而出,邪氣干於衛氣,氣不能衛固於外,則皮膚爲之緩,腠理爲之疎,由是而津液妄泄,澌澌然潤,熱熱然出,謂之自汗也.

상한의 자한(自汗)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자한은 발산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땀이 나는 것이다. 《내경》에서 "양기(陽氣)는 겉을 호위하여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위(衛)가 양(陽)이 된다는 것은 위(衛)가 피부를 보호하고 주리를 충실히 살피우며 진액을 가두어 함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다. 한(汗)은 간섭 받으면〔干〕나오게 된다. 사기(邪氣)가 위기(衛氣)를 간섭하여 위기가 겉을 견고하게 호위하지 못하면 피부가 느슨해지고 주리가 성글어져 이 때문에 진액이 함부로 새어나와 축축하게〔澌澌〕 적시거나 축축하게〔熱熱〕나오는 것을 자한(自汗)이라고 한다.

如"發熱,自汗出而不愈,此衛氣不和",風邪干於衛也."太陽中喝,汗出惡寒,身熱而渴者",暑邪干於衛也."多汗出而濡,此其風濕甚者",濕邪干於衛者也.是知衛氣固護津液,不令妄泄,必爲邪氣干之而出也.風寒暑濕之毒,爲四時之氣,中人則爲傷寒,風與暑濕爲邪,皆令自汗,惟寒邪傷人,獨不汗出,寒傷榮而不傷衛,衛無邪氣所干,則皮膚得以密,津液得以固,是以汗不出也.及其寒漸入裏,傳而爲熱,則亦使自汗出也.蓋熱則榮衛通,腠理開而汗泄矣.然自汗之證,又有表裏之別焉,虛實之異焉.若汗出惡風,及微惡寒者,皆表未解也,必待發散而後愈.至於漏不止而惡風,及發汗後惡寒者,又皆表之虛也,必待溫經而後愈.諸如此,皆邪氣在表也.若汗出不惡寒者,此爲表解而裏未和也.經曰,"陽明,發熱汗出,此爲越熱<sup>1</sup>",又曰"陽明病,發熱汗多者,急下之",又非若邪氣在表而汗出之可緩也.



만약 "열이 나고 자한이 흐르는데 병이 낫지 않는 것은 위기(衛氣)가 조화롭지 못한 경우"이니 풍사(風邪)가 위기를 간섭한 것이다. "태양 중갈(中渴)에 땀과 오한이 나고 몸에서 열이 나고 갈증이 이는 경우"는 서사(暑邪)가 위기를 간섭한 것이다. "많은 땀이 나와 축축해지는 것은 풍습(風濕)이 심한 경우"로 습사(濕邪)가 위기를 간섭한 것이다. 이것으로 위기가 진액을 견고히 보호하여 함부로 세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므로 사기가 간섭해야만 땀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한·서·습의 독(毒)은 사시(四時)의 기운으로 사람에게 적중되면 상한(傷寒)이 된다. 풍(風)과 서(暑)·습(濕)의 사기는 모두 자한이 나게 하지만, 한사(寒邪)만은 사람을 손상시켜도 땀이 나지 않게 한다. 한(寒)은 영(榮)을 손상시키고 위(衛)는 손상시키지 않는다. 위기가 사기에게 간섭 받지 않으면 피부와 주리가 조밀해지고 진액이 견고해져 땀이 나오지 않다. 그러나 한(寒)이 점차 속으로 들어가 전경되어 열이 되면 다시 자한이 나게 한다. 열이 나면 영위가 통하게 되고 주리가 열려 세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한의 증상에도 표리의 구분과 허실의 차이가 있다. 땀이 나면서 오통이 들거나 약간 오한이 드는 것은 모두 표증이 다 풀리지 않은 것으로 발산시킨 뒤에 낫는다. 땀이 줄줄 흘러 그치지 않고 오통이 있는 경우와, 발한을 시킨 뒤에 오한이 있는 경우는 모두 표가 허한 것이니 온경(溫經) 시킨 뒤에 낫는다.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사기가 겉에 있는 것이다. 만약 땀이 나지만 오한이 없는 경우는 겉은 풀어졌으나 속이 조화롭지 못한 것이다. 경문에서 "양명병에 열이 나며 땀이 나는 것은 열월(熱越)이다."라고 하였고, 또 "양명병에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날 때는 급히 공하시킨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사기(邪氣)가 겉에 있어 땀이 날 때 부드럽게 치료해야 하는 경우와 같지 않다.

傷寒自汗之證爲常也,設或汗出髮潤,與其出之如油,或大如貫珠,着身出而不流,皆爲不治之證也.必手足俱周,遍身悉潤,熳熳然一時間許,煩熱已而身涼和,乃爲佳矣.此則陰陽氣和,水升火降,榮衛通流,邪氣出而解者也.內經曰,"陽之汗,以天地之兩名之",此之謂也.

상한에서 자한의 증상은 늘 나타난다. 그러나 만약 땀이 나서 머리털에서 윤이 나거나 기름처럼 나오거나, 또는 썸 구슬 크기로 몸에 들러붙어 흐르지 않는 것은 모두 불치증이다. 자한은 반드시 손발과 온 몸을 모두 적시며 축축하게〔熱熱〕2시간 정도 나다가 번열이 그친 뒤에 몸이 식으면서 편안해 지는 것이 좋다. 이러면 음양의 기운이 조화롭게 되고 수승화강(水升火降)이 이루어지며 영(榮)과 위(衛)가 소통되어서 사기(邪氣)가 배출된 뒤에 병이 풀리게 된다. 《내경》에서 "양(陽)의 땀은 천지(天地)의 비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말한다.

1. 越熱 : \*熱越 ※대성본 ↩

## 盜汗 第七 07 도한

傷寒盜汗,何以明之.盜汗者,謂睡而汗出者也.自汗則不,或睡與不睡,自然而出也,及盜汗者,不睡則不能汗出,方其睡也,湊湊然出焉,覺則止而不復出矣.

상한의 도한(盜汗)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도한은 잠이 든 뒤에 땀이 나는 것이다. 자한(自汗)은 그렇지 않아서 잠을 자든 깨어 있든 저절로 땀이 난다. 그러나 도한의 경우에는 잠이 들지 않으면 땀이 나지 않고, 잠이 들고 나서야 땀이 줄줄(湊湊) 나오며, 잠이 깨면 멈추어 다시 나지 않는다.

雜病盜汗者,責其陽虛也.傷寒盜汗者,非若雜病之虛,是由邪氣在半表半裏使然也.何者,若邪氣一切在表干於衛,則自然汗出也.此則邪氣侵行於裏,外連於表邪,及睡則衛氣行於裏,乘表中陽氣不織,津液得泄,故但睡而汗出,覺則氣散於表,而汗止矣.經曰,"微盜汗出,反惡寒者,表未解也",又"陽明病,當作裏實,而脈浮者,云必盜汗",是猶有表邪故也.又"三陽合病,目合自<sup>1</sup>汗",是知盜汗爲邪氣在半表半裏之間明矣.且自汗有爲之虛者,有爲之實者,其於盜汗之證,非若自汗有實者,悉當和表而已,不可不知也.

잡병(雜病)의 도한은 양허(陽虛) 때문이다. 그러나 상한의 도한은 잡병에서의 허증과 달리 사기(邪氣)가 반표반리에 있어서 생겨난다. 어째서인가. 만약 겉에 있던 어떤 사기(邪氣)가 위기(衛氣)를 간섭하면 자한(自汗)이 난다. 그러면 사기가 속에 침입하여 밖으로 표사(表邪)와 연결된다. 잠이 들면 위기가 속을 순행하게 되고, 그러면 겉에 있는 양기(陽氣)가 성근 틈을 타고 진액이 세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잠만 들면 땀이 나고 깨면 위기(衛氣)가 겉으로 흩어져 땀이 멈춘다. 경문에서 "도한이 약간 나고 도리어 오한이 있는 경우는 겉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양명병에 속이 실(實)해야 하는데 맥(脈)이 부(浮)한 경우는 반드시 도한이 난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표사(表邪)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삼양합병(三陽合病)에 눈을 감으면 땀이 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도한이 있으면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자한에는 허증 때문인 경우도 있고 실증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도한의 증상에 있어서는 자한에 실증이 있는 것과 달리 모두 겉을 화해시켜야만 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

1. 自 : \*則 ※상한론 ↩



## 頭汗 第八 08 두한

傷寒頭汗,何以明之.頭者諸陽之會也.邪傳諸陽,津液上湊,則汗見於頭也.邪熱內畜,蒸發腠理,遍身汗出者,謂之熱越.若身無汗,則熱不得越,熱蒸於陽,故但頭汗出也.何者,以三陰之經,皆上至頸胸中而還,不循於頭,獨諸陽脈上循於頭爾.經曰,"但頭汗出,身無汗,劑頸而還,小便不利,渴飲水漿,此爲瘀熱在裏,身必發黃",爲熱不得越而上達者也.又熱入血室,與其虛煩,或陽明被火,及水結胸,皆但頭汗出也,俱是熱鬱於內,而不得越者也.此數者,或吐或下,皆欲除其熱也.

상한의 두한(頭汗)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머리는 모든 양(陽)이 모이는 곳이다. 사기(邪氣)가 양분(陽分)에 침입하여 진액이 위로 몰리면 머리에 땀이 난다. 안에서 모인 사열(邪熱)이 주리(腠理)를 훈증시켜 온 몸에 땀이 나는 것을 열월(熱越)이라고 한다. 만약 몸에 땀이 나지 않으면 열이 흩어지지〔越〕 않고 열이 양분(陽分)에서 켜오르므로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 왜냐하면 삼음(三陰)의 경맥은 모두 위로 목과 가슴까지 이르러 돌아 나오고 머리에는 순행하지 않고, 삼양(三陽)의 경맥만이 위로 머리까지 순행하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머리에서만 땀이 나고 몸에서 땀이 나지 않으며 목까지만 땀이 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속에서 열이 응결된 것이니 반드시 몸에 발황(發黃)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열이 흩어지지 못하고 위쪽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 열입혈실(熱入血室)과 허번(虛煩), 양명병에 화법을 잘못 쓴 경우와 수결흉(水結胸)에도 모두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 이들은 안에서 열이 울체되었으나 흩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몇 가지에서 구토시키거나 설사시킨 것은 모두 그 열을 제거하고자 함이다.

或謂頭汗之證,悉屬陽明,而爲裏熱也,而有不屬陽明,屬表者乎.且邪但在表者,則無頭汗之證,必也寒濕相搏,與邪氣半在表半在裏者,乃有頭汗也."傷寒五六日,已發汗而復下之,胸脇滿微結,小便不利,渴而不嘔,但頭汗出,往來寒熱,心煩",及"傷寒五六

日,頭汗出,微惡寒,手足冷,心下滿,口不欲食,大便鞭,脈細者",皆邪氣半在表半在裏,令頭汗出也."濕家但頭汗出,欲得被覆向火者",寒濕相搏,令頭汗出也.茲數者,皆邪氣所干,令頭額自然汗出,又不謂之逆.

혹자가 "두한(頭汗)의 증상은 모두 양명(陽明)에 속하며 이열(裏熱) 때문인데, 양명에 속하지 않고 표증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사기가 단지 겉에만 있으면 두한의 증상이 없고, 한습(寒濕)이 서로 닥투거나 사기가 반표 반리에 있는 경우라야 두한이 있다. "상한 5 - 6일에 이미 땀을 내고 다시 공하시킨 뒤에 흉협(胸脇)이 그득하며 조금 맏힌 것이 있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갈증이 나고 구역질을 하지 않으며, 머리에서만 땀이 나고, 한열왕래가 있으며, 가슴이 답답한 경우"와 "상한 5 - 6일에 머리에서 땀이 나고 조금 오한이 들며 손발이 차갑고, 명치가 그득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며, 대변이 단단하고, 맥이 세(細)한 경우"는 모두 사기(邪氣)가 반표반리에 있어서 두한(頭汗)이 나는 것이다. "습이 많은 사람이 머리에서만 땀이 나고 이불을 덮고 불을 쪼이려고 하는 경우"는 한(寒)과 습(濕)이 서로 닥투어 두한(頭汗)이 나는 것이다. 이 몇 가지는 모두 사기가 간섭하여 머리와 이마에서 자연스럽게 땀이 나는 것으로 역증(逆證)이라고 하지 않는다.

其小便不利,則惡見頭汗出也,濕家下後,亦惡見頭汗出也,茲二者乃爲頭汗之逆者也.何則,以小便不利而成關格,若頭汗出陽脫也.經云,"關格不通,不得尿,頭無汗者生,有汗者死".濕家下後,若額上汗出,而微喘者,亦陽脫也.經云,"濕家下之,額上汗出,小便不利者死,下利不止者亦死".脈經曰,"陽氣上出,汗見於頭者,蓋陽脫也".則知可治而治,知其不可治而不治,皆得十全之上者,在於明辨而審的也.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머리에서 땀이 나면 좋지 않고, 습이 많은 사람이 하법을 쓴 뒤에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도 좋지 않다. 이 두 가지는 두한의 역증(逆證)이다. 왜냐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관격(關格)이 되었을 때 만약 머리카락에서 땀이 나면 양탈(陽脫)이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관격(關格)으로 막혀 소변을 보지 못할 때 머리에서 땀이 나지 않으면 살고 땀이 나면 죽는다."라고

하였다. 습이 많은 사람이 하법을 쓴 뒤에 만약 이마 위에서 땀이 나고 약간 숨을 헐떡이는 것도 양탈(陽脫)이다. 경문에서 "습이 많은 사람이 하법을 쓴 뒤에 이마 위에서 땀이 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는 경우는 죽는다. 하리(下利)가 그치지 않는 경우도 죽는다."라고 하였다. 《맥경(脈經)》에서 "양기(陽氣)가 위로 올라 머리에서 땀이 나는 것은 양탈(陽脫)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칠 수 있으면 치료하고 고칠 수 없으면 치료하지 않는 태도가 최상의 실력을 얻은 것이며, 이는 분명하게 판별하고 적확하게 살피는데 달려 있다.



## 手足汗 第九 09 수족한

傷寒手足汗出,何以明之.四肢者,諸陽之本,而胃主四肢.手足汗出者,陽明之證也,陽經邪熱,傳併陽明,則手足爲之汗出.陽明爲津液之主,病則自汗出,其汗出者,有但頭汗出者,有手足汗出者,悉屬陽明也.何以使之然也,若一身自汗出者,謂之熱越,是熱外達者也.但頭汗出者,是熱不得越,而熱氣上達者也,及手足汗出者,爲熱聚於胃,是津液之傍達也.經曰,"手足濇然汗出者,此大便必鞭也","手足皸皸汗出,大便難而譫語者,下之則愈".由此觀之,手足汗出,爲熱聚於胃可知矣.

상한의 수족한(手足汗)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사지(四肢)는 모든 양(陽)의 근본이고, 위(胃)는 사지를 주관한다. 손과 발에서 나는 땀은 양명의 병증으로, 양경(陽經)의 사열(邪熱)이 전경되어 양명에 더해지면 손발에서 땀이 난다. 양명(陽明)은 진액을 주관하므로 병이 들면 자한(自汗)이 난다. 이 때 나는 땀은 머리에서만 나는 경우도 있고 손발에서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양명에 속한다. 어쩌서 그렇게 되는가. 온 몸에서 자한(自汗)이 나는 것을 열월(熱越)이라고 하니 열(熱)이 밖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머리에서만 땀이 나는 것은 열이 흩어지지 못하여 열기가 위로 도달하는 것이다. 손과 발에서 땀이 나는 경우는 열이 위(胃)에 모인 것으로 진액이 옆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경문에서 "손발에서 축축하게 땀이 나는 경우는 대변이 반드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었고, "손발에서 축축하게 땀이 나고 대변을 보기 힘들며 섬어(譫語)가 있는 경우에 공하시키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수족한이 위(胃)에 열(熱)이 모여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或謂熱聚於胃,而手足爲之汗出,其寒聚於胃,而有手足汗出者乎.經曰,"陽明中寒者,不能食,小便不利,手足濇然汗出,此欲作痼瘕,即是中寒者也".且熱聚於胃,爲可下之證,其寒聚於胃,爲不可下,又何以明之.要明於此二者,必曰"大便初鞭後溏,以胃中冷,水穀不別故也",是以不可下者也.若大便難譫語者,爲陽明證具,則是可下之證.臨病之際,宜須兩審.



어떤 이가 열(熱)이 위(胃)에 모여서 손과 발에서 땀이 난다면 한(寒)이 위(胃)에 모여 손과 발에서 땀이 나는 경우도 있는지 물었다. 경문에서 "양명병 중한(中寒)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손발에서 축축하게 땀이 나는 것으로, 고가(痼瘕)가 생기려는 것이니 곧 중한(中寒)이다."라고 하였다. 열이 위에 모여 있는 경우는 하법을 써야하는 증상이며, 한이 위에 모여 있는 경우는 하법을 써서는 안 되는 증상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요점은, 분명 "대변이 처음에는 단단하고 나중에는 무르다. 위 속이 차가워 수곡(水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에 있으므로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만약 대변을 보기 힘들고 섬어(讖語)가 있는 것은 양명증이 갖추어진 것으로 하법을 써야하는 증상이다. 병을 대할 때는 반드시 양쪽을 살펴야 한다.

## 無汗 第十 10 무한

傷寒無汗,何以明之.腠理者,津液湊泄之所爲腠,文理縫會之中爲理.津液爲風暑濕氣所干,外湊皮膚者,則爲自汗出.若寒邪中經,腠理緻密,津液內滲,則無汗.無汗之由,又有數種,如傷寒在表,及邪行於裏,或水飲內畜,與亡陽久虛,皆令無汗.其傷寒無汗,則腠理緻密也,風中於衛,則腠理開而自汗,寒中於榮,則無汗,謂腠理閉也.

상한의 무한(無汗)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주리(腠理)에서, 진액이 모여 빠져 나가는 곳이 '주(腠)'이고, 피부 결이 모여 솔기를 이루는 곳이 '리(理)'이다. 진액(津液)이 풍·한·서·습의 기(氣)에 간섭을 받아 밖으로 피부의 주(腠)에 모이면 자한(自汗)이 나온다. 만약 한사(寒邪)가 경맥에 적중하여 주리(腠理)가 조밀해져 진액이 안으로 스며들면 땀이 나지 않는다. 땀이 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상한에 사기(邪氣)가 겹에 있는 경우, 사기가 속으로 움직이는 경우, 수음(水飲)이 안에서 쌓인 경우, 망양(亡陽)으로 오랫동안 허한 경우 모두 땀이 나지 않는다. 상한에 땀이 없는 것은 주리(腠理)가 치밀해졌기 때문이다. 풍사가 위(衛)에 적중되면 주리가 열려 땀이 나고, 한사가 영(榮)에 적중되면 땀이 나지 않으니 주리가 닫혔다고 말한다.

經所謂"太陽病,惡風,無汗而喘",及"脈浮緊,無汗,發熱",及"不汗出而煩躁", "陽明病,反無汗,而小便利,二三日嘔而欬,手足厥,苦頭痛", "鼻乾,不得汗", "脈浮,無汗而喘", 與"其剛瘧無汗",是數者,皆寒邪在表而無汗者也.

경문에서 말한 "태양병에 오풍(惡風)이 들고 땀이 나지 않으며 숨이 찬 경우", "맥이 부긴(浮緊)하고 땀이 나지 않으며 열이 나는 경우", "땀이 나지 않고 번조(煩躁)가 있는 경우", "양명병에 도리어 땀이 나지 않으나 소변이 잘 나오고 2-3일 째에 구토와 기침을 하고 손발에 귤(厥)이 있으며 머리가 아픈 경우", "코가 건조하고 땀이 나지 않는 경우", "맥이 부(浮)하고 땀이 나지 않으며 숨이 찬 경우" 및 "강치(剛瘧)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는 모두 한사가 겹에 있어 땀이 나지 않는 경우이다.

其邪氣行於裏無汗者,爲邪氣在表,薰發腠理則汗出,邪氣內傳,不外薰發者則無汗.經所謂"陽明病,無汗,小便不利,心中懊懣者,身必發黃",及"傷寒,發熱無汗,渴欲飲水,無表證者,白虎加人參湯主之",與夫三陰爲病,不得有汗,是數者皆邪行於裏而無汗者也.

사기가 속으로 움직여 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사기가 겉에 있어서 주리를 훈증시키면 땀이 나고, 사기가 안으로 전경되어 밖으로 훈증시키지 못하면 땀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양명병에 땀이 나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가슴 속이 갑갑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경우는 몸에 반드시 발황(發黃)이 생긴다.", "상한에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며 갈증으로 물을 마시고 표증이 없는 경우에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한 것과, 삼음병에 땀이 나지 않는 것 등이 몇 가지는 모두 사기가 속으로 움직여 땀이 나지 않는 경우이다.

其水飲內畜而無汗者,爲水飲散而爲津液,津液布滲而爲汗,既水飲內畜而不行,則津液不足而無汗.經所謂"服桂枝湯或下之,仍頭項強痛,翕翕發熱無汗,心下滿微痛,小便不利者,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主之",是津液內滲<sup>1</sup>而無汗者也.

수음(水飲)이 안에서 쌓여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수음이 흩어지면 진액이 되고 진액이 퍼져 스며들면 땀이 되는데, 이미 수음이 안에서 쌓여 흐르지 않으면 진액이 부족하여 땀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계지탕(桂枝湯)을 복용시키고 더러 공하시키면 머리와 뒷덜미가 뻐뻐하고 아프며, 후끈하게 열이 나지만 땀은 나지 않으며, 명치가 그득하고 조금 아프며, 소변이 시원하지 않는 경우는 계지거계가복령백출탕(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한 것이 진액이 안에서 쌓여 땀이 나지 않는 경우이다.

其陽虛無汗者,諸陽爲津液之主,陽虛則津液虛少,故無汗.經所謂"脈浮而遲,遲爲無陽,不能作汗,其身必痒", "陽明病,反無汗,其身如蟲行皮中之狀,此以久虛故也",皆陽虛而無汗者也.

양(陽)이 허하여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모든 양은 진액을 주관하므로 양이 허하면 진액이 허소(虛少)하여 땀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맥이 부(浮)하면서 지(遲)할 때, 지(遲)한 것은 양(陽)이 없는 것으로 땀이 나지 않으니 몸이 반드시 가렵다.", "양명병에 도리어 땀이 나지 않고 몸에서 벌레가 피부 속을 움직이는 듯한 것은 오래된 허증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 모두 양이 허하여 땀이 없는 경우이다.

如是者理之常也,又焉得爲異哉.一或當汗而不汗,服湯一劑,病證仍在,至於服三劑,而不汗者,死病也.又熱病,脈躁盛而不得汗者,黃帝謂陽脈之極也,死.茲二者以無汗爲眞病,詎可與其餘無汗者同日而語也.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치니 어찌 별다를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간혹 땀이 나야 하는데 땀이 나지 않아서 약을 1제 복용시켰으나 병증이 여전하고 3제까지 복용시켰으나 땀이 없는 경우는 죽을병이다. 또 열병에 맥이 빠르고 왕성하게 뛰며 땀이 나지 않는 경우를 황제(黃帝)께서 양맥(陽脈)의 기운이 다한 것(極)이라고 하였으니 죽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무한(無汗)으로 진장병(眞臟病)이 된 경우이니 어찌 땀이 나지 않는 다른 경우와 한 가지로 섞어 말할 수 있겠는가.

1. 內滲 : \*內畜 ※문맥상 <

## 頭痛 第十一 11 두통

傷寒頭痛,何以明之.頭痛謂邪氣外在經絡,上攻於頭所致也.難經曰,"三陽經受風寒,伏留而不去,則名厥頭痛",言三陽之經上於頭爾.然傷寒頭痛者,太陽專主也.何者,以太陽之經起於目內眥,上額交巔,上入絡腦.經所謂"太陽受病者,頭項痛,腰脊強",又曰"七日病衰,頭痛少愈".雖然,陽明少陽亦有頭痛,不若太陽之專主也.

상한의 두통(頭痛)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두통을, 사기(邪氣)가 밖  
에 있는 경락(經絡)에 있다가 위로 머리를 공격하여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  
《난경》에서 "삼양경(三陽經)이 풍한(風寒)의 사기(邪氣)를 받아 잠복되어 제  
거되지 않으면 꺾두통(厥頭痛)이라고 부른다."라고 한 것은 삼양경(三陽經)이  
머리까지 오르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상한의 두통은 오로지 태양(太陽)  
이 주관한다. 왜냐하면 태양경(太陽經)은 안쪽 눈초리에서 시작하여 이마를  
지나 정수리에서 교차하고 위로 뇌(腦)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태양  
이 병을 얻으면 머리와 뒷덜미가 아프고 허리와 척추가 뻣뻣하다"라고 하고,  
또 "7일이 지나 병이 가벼워지면 두통이 조금 낫는다."라고 하였다. 비록 양명  
과 소양에도 두통이 있지만 태양이 오로지 주관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蓋太陽爲病屬表,而頭痛專爲主表證,雖有風寒之不同,必待發散而後已."太陽病,頭  
痛,發熱,身疼腰痛,骨節疼痛,惡風,無汗而喘者,傷寒也,麻黃湯主之","太陽病,頭痛,發  
熱,汗出,惡風者,中風也,桂枝湯主之".雖有"傷寒六七日,不大便,頭痛有熱者,而與調  
胃承氣湯下之者",又云,若"小便清者,知熱不在裏,仍在表也,當與桂枝湯".以頭痛未  
去,雖不大便六七日,其小便清者,猶爲在表,是知頭痛屬乎表者明矣.

태양경(太陽經)의 병은 표증에 속하므로 두통에는 오로지 표증을 치료한다.  
비록 중풍(中風)과 상한(傷寒)의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발산시킨 뒤에 낮게 된  
다. "태양병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몸과 허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며 땀이  
나지 않으면서 숨이 찬 경우는 상한(傷寒)이니 마황탕(麻黃湯)으로 치료한  
다". "태양병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땀이 나고 오통이 있는 경우는 중풍

(中風)이니 계지탕(桂枝湯)으로 치료한다". 비록 "상한에 걸린지 6 - 7일이 되어 대변을 보지 못하고 머리가 아프며 열이 나는 경우에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주어 공하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만약 소변이 많으면 열이 속에 있지 않고 표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계지탕(桂枝湯)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두통이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비록 대변을 보지 못하는 6 - 7일째에 소변이 많은 경우라도 오히려 병사가 겉에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두통이 표증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頭痛一切屬三陽經也,而陰病亦有頭痛乎.太陰少陰二經之脈,皆上至頸胸中而還,不上循頭,則無頭痛之證.惟厥陰之脈,循喉嚨之後,上入顙額,連目眦上出額,與督脈會於巔,病亦有頭痛.經曰,"乾嘔吐涎沫者,吳茱萸湯主之者"是矣.

두통은 모두 삼양경(三陽經)에 속한다. 그러면 음병(陰病)에는 두통이 없는 것인가. 태음(太陰)과 소음(少陰)은 모두 위로 목과 가슴까지 이르러 되돌아가고, 위로 올라 머리를 순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두통의 증상이 없다. 그러나厥음(厥陰)의 경맥은 목구멍 뒤를 따라 위쪽 **항상(顙額)**<sup>1</sup>으로 들어간 뒤, 눈초리를 따라 위로 이마에서 나와 정수리에서 독맥(督脈)과 만난다. 그러므로 병이 들면 두통이 있다. 경문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거품 낀 침을 토하는 경우는 오수유탕(吳茱萸湯)으로 치료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夫頭者精明之府也,神明居之,小小邪氣作爲頭痛者,必曰發散而可也.其或痛甚,入連於腦,而手足寒者,又爲眞病,豈能發散而已哉.嗚呼,頭病爲外疾,猶有不可治者,又矧藏府之疾乎.

머리는 정명(精明)이 모이는 곳으로神明(神明)이 머문다. 사소한 사기(邪氣)로 생겨난 두통은 발산하면 치료된다고 분명 말하였다. 그러나 더러 통증이 심하여 뇌(腦)까지 미치고 손발이 차가운 경우는 진장병(眞臟病)이 된 것이니 어찌 발산시켜서 낫게 할 수 있겠는가. 아, 두통은 겉에서 생겨난 질병이지만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하물며 장부에서 비롯된 병은 어떠하겠는가.

- <sup>1</sup>. 항상(顙顙) : 목구멍 상부의 구멍이다. 양상선(楊上善)은 "喉嚨上孔名顙顙"이라고 하였다. [↪](#)



## 項強 第十二 12 항강

傷寒項強,何以明之.太陽脈起於目內眥,上額交巔,上入絡腦,還出別下項,循肩臂內,俠脊,抵腰中.經曰,"太陽之病,項背強痛而惡寒",以太陽感受風寒,則經脈不利,而項爲之急,頸爲之強爾.

상한의 항강(項強)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태양맥(太陽脈)은 안쪽 눈 초리에서 시작하여 이마를 지나 정수리에서 교차하고 위로 뇌(腦)에 이어지며, 돌아 나와 별도로 뒷덜미로 내려와 견갑골(肩胛骨) 안쪽을 따라 척(脊)을 끼고 허리 가운데에 이른다. 경문에서 "태양에 병들면 뒷목과 등이 뻣뻣하고 아프며 오한이 든다."고 하였으니, 태양이 풍한을 받으면 경맥(經脈)이 잘 순행하지 못하여 목이 긴장하고 뻣뻣해지기 때문이다.

傷寒頸項強急者,太陽表證也,必發散而解之可也."太陽病,項背強几几,反汗出惡風者,桂枝加葛根湯主之","太陽病項背強几几,無汗惡風者,葛根湯主之",是皆發散之劑也.二者均是項背強而發散,又有輕重者.蓋發熱汗出惡風者爲表虛,表虛者可解肌,無汗惡風者爲表實,表實者可發汗,是以爲治不同也.

상한에서 목이 뻣뻣하고 긴장되는 증상은 태양표증(太陽表證)이므로 반드시 발산시켜 풀어야 한다. "태양병에 뒷목과 등이 뻣뻣하고 도리어 땀이 나며 오향이 있을 때는 게지가갈근탕(桂枝加葛根湯)으로 치료한다." "태양병에 뒷목과 등이 뻣뻣하고 땀이 나지 않으며 오향이 있을 때는 갈근탕(葛根湯)으로 치료한다." 이들은 모두 발산시키는 처방이다. 이 두 경우는 모두 뒷목과 등이 뻣뻣하여 발산시키는 것이나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다. 열이 나고 땀이 나며 오향이 있는 경우는 표허(表虛)이니, 표허에는 해기(解肌)시켜야 한다. 땀이 나지 않고 오향이 있는 경우는 표실(表實)이니, 표실에는 발한(發汗)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치법이 다르게 된다.



桂枝加葛根湯方,是桂枝加麻黃葛根,又葛根湯方,亦是桂枝湯中加麻黃葛根.深詳究之,無汗惡風爲表實,正可發汗,則於桂枝湯中加葛根麻黃爲當矣.汗出惡風爲表虛,表虛者可解肌,恐是桂枝湯中,但加葛根,而不加麻黃也.

계지가갈근탕(桂枝加葛根湯)은 계지탕(桂枝湯)에 마황(麻黃)과 갈근(葛根)을 더한 것이고, 갈근탕(葛根湯)도 계지탕 속에 마황과 갈근을 넣은 것이다. 깊고 자세히 궁구해 보면, 땀이 없고 오풍이 있는 것은 표실(表實)로 발한시켜야 하는 정증(正證)이다. 그러므로 계지탕 속에 갈근과 마황을 넣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땀이 나고 오풍이 있는 것은 표허(表虛)이니, 표허에는 해기(解肌)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계지탕 속에 갈근만 더하고 마황은 더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几音殊,几引頸之貌,几短羽鳥也,短羽之鳥,不能飛騰,動則先伸引其頸爾.項背强者,動亦如之,非若几<sup>1</sup>按<sup>1</sup>之几而偃屈也.

'几'의 음은 '수'이다. '几'는 목을 움츠리는 모양이다. '几'는 날개가 짧은 새이다. 날개가 짧은 새는 날아오를 수 없으므로 움직이려면 먼저 머리를 늘였다 움츠렸다 한다. 뒷목과 등이 뻣뻣한 경우도 이와 같이 움직인다. 책상을 뜻하는 '几'가 아니고 구부정한 모습이다.

太陽傷寒項背强,其或太陽中風,加之寒濕而成瘧者,亦項强也.經曰,"病者身熱足寒,頸項强急,惡寒時頭熱,面赤目脈赤,獨頭面搖,卒口噤,背反張者,瘧病也",金匱要略曰,"太陽病,其證項背强几几然,脈反沈遲者,此爲瘧,桂枝加栝蒌湯主之".雖項背强,然太陽病表證,悉當發散,又有結胸病者,項亦强如柔瘧狀,下之則和,宜大陷胸丸主之.臨病之際,審其表裏,可汗可下,隨證投湯則萬全矣.

태양 상한에 뒷목과 등이 뻣뻣한데, 더러 태양 증풍에 한습(寒濕)이 더해져 경(瘧)을 이루는 경우에도 항강(項强)이 있다. 경문에서 "환자가 몸에서 열이 나지만 발은 차갑고, 목이 뻣뻣하고 당기며, 오한이 들 때 머리에서 열이 나고 얼굴은 붉으며 눈에 붉은 핏줄이 서고, 머리와 얼굴만 흔들고, 갑자기 입을 악다물고 등을 활처럼 뒤집는 것은 경병(瘧病)이다."라고 하였다. 또 《금궤요략》에

서 "태양병에 뒷덜미와 등이 뻣뻣하게 강직되고 맥이 도리어 침지(沈遲)한 경우는 경병(痙病)이다. 계지가과루탕(桂枝加栝蘘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비록 뒷목과 등이 뻣뻣한 것은 태양의 표증으로 모두 발산시켜야 하지만, 결흉병으로 유치(柔痙)처럼 뒷목이 뻣뻣한 것은 하법을 써야 풀어지므로 대함흉환(大陷胸丸)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임상에서 표리를 살피고 한법을 써야 하는지 하법을 써야 하는지 구분하여 증상에 따라 처방을 투약하면 모두 나을 것이다.

1. 按 : \*案 ※대성본 ←

## 頭眩 第十三 13 두현

傷寒頭眩,何以明之.眊非毛而見其毛,眩非玄而見其玄,眊爲眼花,眩爲眼黑.眩也運也冒也,三者形俱相近,有謂之眩運者,有謂之眩冒者,運爲運轉之運,世謂之頭旋者是矣,冒爲蒙冒之冒,世謂之昏迷者是矣.

상한의 두현(頭眩)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모(眊)'는 터럭(毛)이 아니라 터럭이 보이는 것이고, '현(眩)'은 아득함(玄)이 아니라 아득하게 보이는 것이다. 모(眊)는 안화(眼花)<sup>1</sup>이고, 현(眩)은 안흑(眼黑)<sup>2</sup>이다. '현(眩)'·'운(運)'·'모(冒)' 세 가지는 형상이 서로 비슷하여 현운(眩運)이라 말하는 경우도 있고, 현모(眩冒)라 말하는 경우도 있다. '운(運)'은 돌며 움직인다는 뜻으로 세간에서 "머리가 빙빙 돈다(頭旋)"라고 하는 증상이고, '모(冒)'는 감싼다는 뜻으로 세간에서 "정신이 맑지 못하다(昏迷)"고 하는 증상이다.

"少陽之爲病,口苦咽乾目眩",以少陽居表裏之間,表邪所傳,漸行於裏,表中陽虛,故時時目眩也."二陽併病,頭項強痛,或眩運眩冒者",以少陽與太陽併病,故眩者責其虛也."傷寒,有起則頭眩與眩冒者",皆發汗吐下後所致,是知其陽虛也.故針經有曰,"上虛則眩,下虛則厥".眩雖爲虛,而風家亦有眩者,蓋風主運動故爾."傷寒陽明病,但頭眩,不惡寒,故能食而欬,其人必咽痛",爲陽明中風,是風亦主頭眩也.

"소양(少陽)에 병이 들면 입이 쓰고 목구멍이 마르고 눈이 어지럽다." 이것은 소양이 표리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겉의 사기가 전경하여 점차 속으로 들어가면 겉의 양(陽)이 허해져서 때때로 눈앞이 아득하게 된다. "태양과 소양이 차례로 병들면 머리와 뒷목이 뻣뻣하고 아프며 더러 어지러워 눈앞이 빙빙 돌고 정신이 맑지 못하다". 이것은 소양(少陽)과 태양(太陽)이 병병(併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지러움의 원인은 허(虛)에 있다. "상한에 일어설 때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맑지 못한 경우"는 모두 한법·토법·하법을 써서 생겨나므로 양허(陽虛)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침경》에서 "위가 허(虛)하면 어지럽고, 아래가 허하면 귓(厥)이 생긴다."고 하였다. 두현(頭眩)이 비록

허(虛)로 생겨나지만 풍(風)이 많은 이에게도 생겨난다. 풍이 움직임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상한 양명병에 머리가 어지럽기만 하고 오한이 없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기침을 하면 그 환자는 분명 목이 아프다." 이것은 양명의 중풍으로, 풍(風) 역시 두현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諸如此者,皆非逆也.及"其諸逆發汗,劇者言亂,目眩者死,命將難全".嗚呼,病勢已成,可得半愈,及病勢已深,雖神醫其能已之耶.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역증(逆證)이 아니다. 그러나 "역증에 발한시킨 경우, 심해지면 난폭하게 말하고 눈앞이 아득하게 되면 죽게 되니, 생명을 보전하기 힘들다." 아, 병세가 이미 형성되면 반이라도 살릴 수 있지만, 병세가 이미 깊어지면 설사 신의(神醫)라도 낫게 할 수 있겠는가.

1. 안화(眼花) : 비문증 ←

2. 안흑(眼黑) : 눈 앞이 어두운 증상 ←

## 胸脇滿 第十四 14 흉협만

傷寒胸脇滿,何以明之.胸脇滿者,謂胸膈間氣塞滿悶也,非心下滿者也.脇滿者,謂脇肋下氣脹填滿也,非腹滿者也.

상한의 흉협만(胸脇滿)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흉협만은 흉격(胸膈) 사이에 기운이 막혀 그득하고 답답한 것으로 심하만(心下滿)과는 다르다. 협만(脇滿)은 옆구리 아래에 기운이 그득하게 차오른 것으로 복만(腹滿)과는 다르다.

邪氣自表傳裏,必先自胸膈,已次經心脇而入胃,邪氣入胃,爲入府也.是以胸滿多帶表證,脇滿者,當半表半裏證也.經曰,"下後,脈促胸滿者,桂枝去芍藥湯主之",又曰,"太陽與陽明合病,喘而胸滿者,不可下,宜麻黃湯",是胸滿屬表,而須發汗者也.

사기(邪氣)가 겉에서 속으로 전경(傳經)될 때 반드시 먼저 흉격(胸膈)에서 시작하여 점차 심(心)과 옆구리를 지나 위(胃)로 들어간다. 사기가 위(胃)로 들어가면 부(府)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흉만(胸滿)에는 표증을 낀 경우가 많고, 협만(脇滿)은 반표반리증에 해당한다. 경문에서 "공하시킨 뒤에 촉맥(促脈)과 흉만(胸滿)이 나타나면 계지거작약탕(桂枝去芍藥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고, 또 "태양과 양명의 합병(合病)에서 숨이 차고 가슴이 그득하면 공하시켜서는 안 되며 마황탕(麻黃湯)을 써야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흉만은 표증에 속하므로 발한시켜야 한다.

蓋胸中至表猶近也,及脇者則更不言發汗,但和解而已.經曰,"設胸滿脇痛者,與小柴胡湯",又曰,"胸脇滿不去者,小柴胡湯主之",本太陽病不解,傳入少陽者,脇下鞭滿,乾嘔不能食,往來寒熱,脈沈緊者,與小柴胡湯主之",是知脇滿屬半表半裏明矣.

가슴 속에서 체표까지는 이처럼 가까우나, 협만(脇滿)에는 발한시키라고 하지 않았으니 단지 화해시킬 뿐이다. 경문에서 "만약 가슴이 그득하고 옆구리가 아프면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준다."라고 하였고, 또 "흉협만(胸脇滿)이 사라

지지 않으면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본래의 태양병이 풀어지지 않고 소양으로 전경되어 들어가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헛구역질을 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한열왕래가 있으며, 맥이 침긴(沈緊)한 경우는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협만이 반표반리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大抵胸脇滿,以邪氣初入裏,未停留爲實,氣鬱積而不行,致生滿也,和解斯可矣.若邪氣留於胸中,聚而爲實者,非湧吐則不可已.故華陀曰,"四日在胸,吐之則愈",是邪氣已收斂而不散漫者,則可吐之.內經曰,"其高者,因而越之",病在胸膈之上爲高,越之爲吐也.經曰,"病在胸中,當吐之","發汗若下之而煩熱,胸中窒者,則以梔子豉湯吐之","若胸中痞鞭,氣上衝咽喉,不得息者,此爲胸中有寒也,則以瓜蒂散吐之".二者均是吐劑,梔子豉湯吐胸中虛煩客熱也,瓜蒂散吐胸中痰實宿寒也.若能審明藥劑之輕重,辨別邪氣之淺深,對證投湯,不爲效者,未之有也.

흉협만은 사기(邪氣)가 처음 속으로 들어가서 아직 머물러 실증(實證)되지 않고 기(氣)가 울체되어 흐르지 못하여 만(滿)이 생겨난 것이므로 화해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 사기가 흉중(胸中)에 머물렀다가 모여서 실증이 된 경우에는 토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타(華陀)가 "상한 4일 째는 사기가 가슴에 있으니, 토법을 사용하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기가 이미 갈무리되어 흩어지지 않으면 토하게 해야 한다. 《내경》에서 "병이 높은 데에 있는 경우(高)는 따르게 하여 올려준다(越之)."라고 한 것에서, 병이 흉격 위에 있는 것이 "높은 데에 있는 경우(高)"이고 "올려준다(越之)"는 말은 토법이 된다. 경문에서 "병이 가슴 속에 있으면 토법을 써야 한다."고 하였고,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번열(煩熱)이 나고 가슴 속이 꽉 막힌 경우에는 치자시탕(梔子豉湯)으로 구토시킨다.", "가슴 속이 막혀 단단하고, 기가 인후까지 위로 치밀어 숨을 쉬기 어려운 경우는 가슴 속에 한사(寒邪)가 있기 때문이다. 과체산(瓜蒂散)으로 구토시킨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구토시키는 처방으로, 치자시탕(梔子豉湯)은 가슴 속의 허번(虛煩)과 객역(客熱)

을 토하게 하고, 과체산(瓜蒂散)은 가슴 속에 차있는 담(痰)과 묵은 한사(寒邪)을 토하게 한다. 만약 약제의 경중을 살펴 알고 사기의 깊고 얇음을 판별할 수 있다면 증상에 맞게 처방하여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 心下滿 第十五 15 심하만

傷寒心下滿,何以明之.心下滿者,謂正當心下高起滿鞭者是矣.不經下後而滿者,則有吐下之殊,若下後心下滿者,又有結胸痞氣之別.

상한의 심하만(心下滿)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심하만은 바로 명치 부분이 높게 차올라 단단한 것이다. 하법을 쓰지 않았는데 생긴 심하만은 토법을 써야할 경우와 하법을 써야할 경우가 있고, 하법을 쓴 뒤에 생긴 심하만은 결흉(結胸)과 비기(痞氣)의 차이가 있다.

經曰,"病人手足厥冷,脈乍緊,邪結在胸中,心中滿而煩,飢不能食者,病在胸中,當須吐之",又曰,"脈浮而大,心下反鞭,有熱,屬藏者,攻之,不令發汗,屬府者,不令攻之".茲二者,爲不經汗下而心下滿者,或吐之,或下之.看其邪氣之高下,高者則因而越之,下者則因而竭之,要在泄其邪也.至於陽明病,雖心下鞭滿,又未可攻.經曰,"陽明病,心下鞭滿者,不可攻之,攻之利遂不止者死,利止者愈",是邪氣自表傳裏,至於心下留結爲實者,則不可下,乃吐之可也.若未全爲實者,則不可下,故有此戒也.

경문에서 "환자의 손과 발에 귤냉(厥冷)이 있고 맥이 잠깐씩 긴(緊)하며, 가슴 속에 사기(邪氣)가 맺혀 가슴 속이 그득하고 답답하며 주려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병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니 토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맥이 부(浮)하면서 대(大)하고, 명치가 도리어 단단하며 열이 나는 경우에, 장(藏)에서 생겨난 것은 공하시켜야지 발한시켜서는 안 되고, 부(府)에서 생겨난 것은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는 한법이나 하법을 쓰지 않았는데 심하만이 생긴 것으로 토법을 쓰거나 하법을 쓴다. 사기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보아, 위에 있는 경우에는 토법을 써주고 아래 있는 경우에는 하법을 써준다. 핵심은 사기를 배출시키는데 있다. 양명병의 경우에는 비록 심하만이 있어도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 경문에서 "양명병에 명치가 단단하고 그득할 때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 공하시킨 뒤에 하리가 멈추지 않으면 죽고, 멈추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기(邪氣)가 겉에서 속으로 전경될



때 심하에서 머물러 맺혀 실(實)해진 경우이므로, 하법을 써서는 안 되고 토법을 써야 한다. 아직 완전히 실증(實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법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두었다.

又邪氣在表,未應下而强下之,邪氣乘虛,結於心下,實者鞭滿而痛爲結胸,虛者滿而不痛爲虛痞.經曰,"嘔而發熱者,柴胡湯證具,而以他藥下之,柴胡證仍在者,復與柴胡湯,此雖已下之不爲逆,必蒸蒸而振,却復發熱,汗出而解,若心下滿而鞭痛者,此爲結胸也,但滿而不痛者,此爲虛痞".蓋實邪留結,則爲鞭爲痛,虛邪留滯,則但滿而不鞭痛也."結胸熱實,脈沈而緊,心下痛,按之石鞭者,大陷胸湯主之",明其邪實可知矣."脈浮而緊,而反<sup>1</sup>下之,緊反入裏則作痞,按之自濡,但氣痞耳",明其邪虛可知矣."病發於陽,而反下之,熱入因作結胸,病發於陰,而反下之,因作痞", "表邪未罷,醫反下之,胃中空虛,客氣動膈,陽氣內陷,心中因鞭,則爲結胸,須陷胸湯丸攻之可也", "傷寒中風,醫反下之,心下痞鞭而滿,醫見心下痞,謂病不盡,而復下之,其痞益甚,此非結熱,但以胃中空虛,客氣上逆,故使鞭也,須諸瀉心湯散可也".二者俱是心下滿鞭,一爲虛,一爲實,凡投湯者大須詳審.

또 사기가 겹에 있어서 아직 하법을 쓸 수 없는데 억지로 하법을 쓰게 되면 사기가 허한 틈을 타고 심하에 맺히게 된다. 실(實)한 경우에는 단단하게 차올라 아픈 결흉(結胸)이 되고, 허(虛)한 경우에는 차오르되 아프지 않은 허비(虛痞)가 된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구토하고 열이 나는 것은 시호탕(柴胡湯)의 병증이 갖추어진 경우인데, 다른 약으로 공하시켰을 때 시호탕의 병증이 남아 있으면 다시 시호탕을 준다. 이것은 비록 공하시켰으나 역증이 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후끈하면서 떨리고 그런 뒤에 다시 열이 났다가 땀을 흘리고 나면 낮게 된다. 만약 심하(心下)가 그득하고 단단하며 아픈 것은 결흉(結胸)이고, 그득하기만 하고 아프지 않은 것은 허비(虛痞)이다." 실사(實邪)가 머물러 맺히면 단단하고 아프며, 허사(虛邪)가 머물러 막히면 차오르기만 하고 단단하거나 아프지 않다. "결흉(結胸)에 열이 차고 맥이 침(沈)하면서 긴(緊)하고 심하(心下)가 아파 손을 대면 돌처럼 단단한 경우는 대함흉탕(大陷胸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으니 사기(邪氣)가 실(實)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

다. "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한데 도리어 공하시키면 긴맥(緊脈)이 도리어 속으로 들어가서 비(痞)가 된다. 손으로 눌렀을 때 만져지는 것이 없으니 기(氣)만 막힌(痞)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사기(邪氣)가 허(虛)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병이 양분(陽分)에서 생겼으나 도리어 공하시키면 열(熱)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로 인해 결흉(結胸)이 된다. 병이 음분(陰分)에서 생겼으나 도리어 공하시키면 이로 인해 비(痞)가 된다.", "결의 사기(邪氣)가 아직 풀어지지 않았는데 의사가 도리어 공하시키면 위(胃) 속이 비어 침입해온 사기(邪氣)가 흉격을 동요시켜 양기(陽氣)가 안으로 무너진다. 가슴 속이 이로 인해 단단해지면 결흉(結胸)이 된 것이니 반드시 대함흉탕(大陷胸湯)이나 대함흉환(大陷胸丸)으로 공하시켜야 한다.", "상한 중풍(中風)에 의사가 도리어 공하시켜 심하(心下)가 막히고 단단하며 그득하였다. 의사가 심하비(心下痞)로 보고 병이 낫지 않았다고 말하고는 다시 공하시켰더니 비(痞)가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맺힌 열 때문이 아니고 위(胃) 속이 비어서 객기(客氣)가 위로 거슬러 심하가 단단해진 것이다. 반드시 여러 사심탕(瀉心湯)으로 치료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심하가 차올라 단단한 것이나 하나는 허(虛)이고 하나는 실(實)이니 처방을 쓸 때 매우 상세히 살펴야 한다.

結胸雖爲實邪,衆皆共知,當用陷胸湯丸下之.或"脈浮大者,則不可下,下之則死",卽是猶帶表邪,未全結實,下之重虛其裏,邪深結則死.設或"結胸形證悉具,而加之煩躁者",又爲不治之疾.藥之所以能勝邪者,必待胃氣施布,藥力始能溫汗吐下之,以逐其邪氣.邪氣勝,胃氣絕者,湯藥縱下,胃氣不能施布,雖神丹莫能爲效也.

결흉은 오직 실사(實邪)이므로 모두가 알다시피 대함흉탕이나 대함흉환을 써서 공하시켜야 한다. 그러나 더러 "맥이 부대(浮大)한 경우에는 하법을 써서는 안 되며 하법을 쓰게 되면 죽게 된다." 이것은 곧 오히려 표사를 끼고 아직 완전히 결실(結實)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공하시키면 속을 한 번 더 허하게 하여 사기(邪氣)가 깊이 들어가 맺혀 죽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결흉의 증상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때 변조의 증상이 추가된 경우"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약이 병사(病邪)를 제압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위기(胃氣)가 퍼져나가기를 기

다려야만 약력(藥力)이 비로소 따뜻하게도 하고 땀을 내거나 구토시키거나 설사시키기도 하며 사기(邪氣)를 몰아낼 수 있다. 사기(邪氣)가 왕성하고 위기(胃氣)가 끊어진 경우에는 설령 탕약(湯藥)을 먹어도 위기(胃氣)가 그것을 퍼뜨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신령한 단약(丹藥)이라도 효과를 낼 수 없다.

1. 反 : \*復 ※상한론 ↩

## 腹滿 第十六 16 복만

傷寒腹滿,何以明之.腹滿者,俗謂之肚脹是也.華佗曰,"傷寒一日在皮,二日在膚,三日在肌,四日在胸,五日在腹,六日入胃".入胃謂入府也.是在腹也,猶未全入裏者,雖腹滿爲裏證,故亦有淺深之別.經曰,"表已解,而肉<sup>1</sup>不消", "非大滿,猶生寒熱,則病不除",是其未全入府."若大滿大實,堅有燥屎,自可徐<sup>2</sup>下之,雖四五日不能爲禍",謂之邪氣已入府也.

상한의 복만(腹滿)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복만은 세속에서 두창(肚脹)이라고 하는 것이다. 화타(華佗)는 "상한 1일에는 병사(病邪)가 피(皮)에 있고, 2일에는 부(膚)에 있으며, 3일에는 기(肌)에 있고, 4일에는 가슴에 있으며, 5일에는 배에 있고, 6일에는 위(胃)로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위(胃)로 들어간다는 것은 부(府)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따라서 병사가 배에 있는 것은 아직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로, 복만이 비록 이증(裏證)이지만 깊고 얇은 구분이 있다. 경문에서 "겉이 이미 풀어졌으나 안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 "크게 그득하지는 않으나 오한과 발열이 생기면 병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 것은 병사(病邪)가 아직 완전히 부(府)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이고, "크게 만(滿)하고 크게 실(實)하며 조시(燥屎)가 있어 단단하면 공하시켜 제거할 수 있으니 비록 4 - 5일이 되었더라도 화(禍)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사기(邪氣) 이미 부(府)에 들어간 경우이다.

傷寒邪入腹,是裏證已深,故腹滿乃可下之者多矣.如經曰,"其熱不潮,未可與承氣湯,若腹大滿不通者,可與小承氣湯". "發汗不解,腹滿痛者,急下之". "本太陽病,醫反下之,因而腹滿時痛者,屬太陰也,桂枝加芍藥湯主之,大實痛者,桂枝加大黃湯主之". "少陰病,腹脹,不大便者,急下之". 諸如此者,皆爲裏證是也.

상한에 사기가 배로 들어간 것은 이증(裏證)이 이미 심해진 경우이므로 복만(腹滿)에 공하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경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열(潮熱)이 아니면 아직 승기탕을 줄 수 없다. 만약 복만(腹滿)이 심하여 대

변을 보지 못하면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줄 수 있다.", "땀을 낸 뒤 풀리지 않고 배가 그득하면서 아플 때는 급히 공하시킨다.", "본래의 태양병을 의사가 도리어 공하시켜서 배가 그득하고 때때로 아픈 것은 태음에 속한다. 계지가작약탕(桂枝加芍藥湯)으로 치료한다. 매우 실(實)하고 아플 때는 계지가대황탕(桂枝加大黃湯)으로 치료한다.", "소음병에 배가 창만하고 대변을 보지 못할 때는 급히 공하시킨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이증(裏證)이 된 경우이다.

雖曰"腹中滿痛者,此爲實也,當下之",然腹滿不減者,則爲實也,若腹滿時減者,又爲虛也,則不可下.經曰,"腹滿不減,減不足言,當下之".金匱要略曰,"腹滿時減復如故".此虛寒從下上也,當以溫藥和之.蓋虛氣留滯,亦爲之脹,但比之實者,不至堅痛也.

비록 "배 속이 그득하고 아픈 것은 실증(實證)이니 하법을 써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복만(腹滿)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실증이지만 만약 복만이 때때로 줄어드는 것은 허증이므로 하법을 쓸 수 없다. 경문에서 "복만이 줄어들지 않고 줄어도 줄었다고 말할 정도가 아닐 때는 공하시켜야 한다."라고 하였고, 《금궤요략》에서는 "복만이 때때로 전과 같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하였다. 이것은 허한(虛寒)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이므로 따뜻한 약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허한 기운이 정체해도 창만하게 되지만, 실증(實證)만큼 단단하거나 아프지 않다.

大抵腹滿屬太陰證也.陽熱爲邪者,則"腹滿而咽乾",陰寒爲邪者,則"腹滿而吐,食不下,自利益甚,時腹自痛".太陰者脾土也,治中央,故專主腹滿之候.

복만은 태음증(太陰證)에 속한다. 양열(陽熱)이 병사(病邪)가 되면 "복만이 생기고 목구멍이 건조해"지고, 한음(陰寒)이 병사(病邪)가 되면 "복만이 생기고, 토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며, 하리(下利)가 더욱 심해지고 때때로 배가 아프다." 태음은 비토(脾土)로 중앙(中央)을 다스리므로 복만의 증후를 오로지 주관한다.

又發汗吐下之後,因而成腹滿者,皆邪氣乘虛內客爲之,而所主又各不同.經曰,"發汗後,腹脹滿者,厚朴生薑甘草半夏人參湯主之","傷寒,吐後,腹脹滿者,調胃承氣湯主之","傷寒,下後,心煩腹脹滿,臥起不安者,梔子厚朴湯主之".三者有當溫者,有當下者,有當吐者何,邪氣不一也.且發汗後腹滿,當溫之,邪氣在表,因發散則邪去,胃爲津液之主,發汗亡陽,則胃氣虛而不能敷布,諸氣壅滯,而爲脹滿,是當溫散可也.吐後腹滿,可下之,邪氣在胸者,則可吐之,吐之邪去則安,若吐後邪氣不去,加之腹脹滿者,是胸中之邪,下傳入胃,搖<sup>3</sup>而爲實,故生脹滿,當須下之可也.下後腹滿可吐者,邪氣在表,未傳入府,而妄下之,邪自表乘虛而入,鬱於胸中,而爲虛煩,氣上下不得通利者,腹爲之滿,故當吐之可也.

또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복만이 된 경우는 모두 사기(邪氣)가 허한 틈을 타고 침입하여 그렇게 된 것으로 치료법도 각기 다르다.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한을 시킨 뒤에 배가 창만할 때는 후박생강감초반하인삼탕(厚朴生薑甘草半夏人參湯)으로 치료한다.", "상한에 토법을 쓴 뒤에 배가 창만할 때는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으로 치료한다.", "상한에 하법을 쓴 뒤에 심번(心煩)이 있고 배가 창만하며 늘 불안할 때는 치자후박탕(梔子厚朴湯)으로 치료한다." 이 3가지는 각각 따뜻하게 해야 하는 경우, 하법을 써야 하는 경우, 토법을 써야 하는 경우이니 어째서인가. 사기(邪氣)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발한 후에 복만이 있으면 온법(溫法)을 써야 한다. 사기가 겉에 있을 때 발산시키면 사기가 제거된다. 위(胃)는 진액을 주관하므로 발한으로 망양(亡陽)에 이르면 위기(胃氣)가 허하여 온 몸으로 퍼뜨리지 못하고 모든 기운이 응체되어 창만(脹滿)하게 된다. 그러므로 온법(溫法)으로 흩어주어야만 한다. 토법을 쓴 뒤에 복만이 있으면 하법을 써야 한다. 사기가 가슴에 있으면 토법을 써야 한다. 토법을 써서 사기가 제거되면 편안해 진다. 만약 토법을 쓴 뒤에 사기가 제거되지 않고 더구나 배까지 창만한 것은 가슴 속의 사기가 아래로 전경되어 위(胃)로 들어가 응체되어 실증이 된 까닭에 창만(脹滿)이 생긴 경우이다. 그러므로 하법을 써야만 한다. 하법을 쓴 뒤에 복만이 있으면 토법을 써야 한다. 사기가 겉에 있고 아직 부(府)로 전경되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

로 하법을 쓰면 사기가 허한 틈을 타고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 가슴에 울체되어 허번(虛煩)이 생기고 기가 위와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되어 복만이 생긴다. 그러므로 토법을 써야만 한다.

凡爲醫者,要識邪氣所起所在,審其所起,知邪氣之由來,觀其所在,知邪氣之虛實,發汗吐下之不差,溫補針艾之適當,則十全之功,自可得也.

의술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사기(邪氣)가 생겨나고 머물러 있는 곳을 알아야 한다. 사기가 생겨난 곳을 살펴 사기(邪氣)의 유래(由來)를 알고, 머물러 있는 곳을 보아 사기의 허실을 안다. 그런 뒤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법·토법·하법을 쓰고 적당하게 온법·보법·침법·구법을 쓰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절로 얻게 될 것이다.

1. 肉 : \*內 ※상한론 ←

2. 徐 : \*除 ※상한론 ←

3. 搖 : \*壅 ※대성본 ←

## 少腹滿 第十七 17 소복만

傷寒少腹滿者,何以明之.少腹滿者,臍下滿是也.少腹者,下焦所治.難經曰,"下焦者,當膀胱上口,主分別清濁,其治在臍下".邪氣自上而下,至於下焦,結而不利,故少腹滿也.胸中滿,心下滿,皆氣爾,即無物也,及腹滿者,又有燥屎爲之者,至於少腹滿者,非止氣也,必有物聚於此,而爲之滿爾.所以然者,身半以上,同天之陽,清陽歸之,身半已下,同地之陰,濁陰歸之,清者在上,而濁者在下.內經謂"清陽出上竅,濁陰出下竅",當出不出,積而爲滿,是在上而滿者氣也,在下而滿者物也.所謂物者,溺與血爾,邪氣聚於下焦,則津液不得通,血氣不得行,或溺或血,留滯於下,是生脹滿,而鞭痛也.

상한의 소복만(少腹滿)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소복만은 배꼽 아래가 가득한 것이다. 소복(少腹)은 하초(下焦)가 다스리는 곳이다. 《내경》에서 "하초(下焦)는 방광(膀胱)의 위쪽 입구에 해당하고 청탁(淸濁)을 분별하는 곳으로, 치료는 배꼽 아래에서 한다."라고 하였다. 사기(邪氣)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하초에 이른 뒤에 멎혀 움직이지 않으면 소복만이 생긴다. 흉중만(胸中滿)과 심하만(心下滿)은 모두 기(氣)일 뿐으로 물질(物)은 없다. 그러나 복만(腹滿)은 조시(燥屎)로 인한 경우가 있다. 소복만의 경우에는 기(氣)만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물질(物)이 모여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상반신은 양(陽)인 하늘과 같아 청양(淸陽)이 돌아가는 곳이고 하반신은 음(陰)인 땅과 같아 탁음(濁陰)이 돌아가는 곳이므로, 맑은 것은 상부에 머물고 탁한 것은 하부에 머물기 때문이다. 《내경》에서 "청양(淸陽)은 상규(上竅)로 나오고, 탁음(濁陰)은 하규(下竅)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나와야 할 것이 나오지 않으면 쌓여서 만(滿)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상부에서 만(滿)을 이루는 것은 기(氣)이고 하부에서 만을 이루는 것은 물질(物)이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과 혈(血)이다. 사기(邪氣)가 하초에 모이면 진액이 소통되지 못하고 기혈이 움직이지 못하므로 소변이나 혈(血)이 하부에 머물러 응체되고 이것이 창만(脹滿)을 만들어 단단하며 아프게 된다.



若"從心下至少腹,皆鞭滿而痛者",是邪實也,須大陷胸湯下之.若但少腹鞭滿而痛,小便利者,則是畜血之證,小便不利者,則是溺澁之證.經曰,"少腹滿,應小便不利,今反利者,爲有血也",又曰,"少腹鞭,小便不利者,爲無血也,小便自利,其人如狂者,血證諦也".其小便利而少腹滿者,爲太陽隨經,瘀血在裏,太陽自入府者也.經曰,"太陽病不解,熱結膀胱,其人如狂,血自下,下者愈,其外未解者,尙未可攻,當先解外,外解已,但少腹急結者,乃可攻之,桃仁承氣湯主之",是少腹鞭滿,爲物聚於下可知矣.滲之利之,參酌隨宜,可爲上工.

만약 "명치에서 소복(少腹)까지 모두 단단하고 그득하며 아픈 것"은 사기가 실(實)한 경우이니 반드시 대함홍탕으로 공하시켜야 한다. 만약 소복만 단단하고 그득하며 아픈데, 소변이 잘 나오는 경우는 축혈증(蓄血證)이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는 소변이 정체된 증상이다. 경문에서 "소복이 그득하면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잘 나오는 것은 혈(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또 "소복이 단단하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것은 혈(血)이 없기 때문이다. 소변이 잘 나오고 병자가 미친 듯하다면 혈증(血證)이 갖추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변에 문제가 없으면서 소복만이 있는 경우는 태양의 경맥을 따라 어혈(瘀血)이 속에 머문 것으로 태양의 사기가 부(府)로 들어간 경우이다. 경문에서 "태양병이 풀리지 않고 열(熱)이 방광(膀胱)에 맺혀 환자가 미친 듯할 때 혈(血)이 저절로 대변으로 나온다. 대변으로 나오면 낫게 된다. 밖의 증상이 풀리지 않으면 아직 공하시킬 수 없으므로 먼저 밖의 증상을 풀어야 한다. 밖의 증상이 풀린 뒤에 소복이 당기고 그득한 증상만 있게 되면 공하시킬 수 있으니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소복이 단단하고 그득한 것이 하초에 물질이 모여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증상에 따라 참작하여 소변으로 내보내거나 대변으로 풀어주면 좋은 의사가 될 것이다.



## 煩熱 第十八 18 번열

傷寒煩熱,何以明之.煩者熱也,與發熱若同而異也.發熱者,怫怫然發於肌表,有時而已者是也.煩者,爲煩而熱,無時而歇者是也.二者均是表熱,而煩熱爲熱所煩,非若發熱而時發時止也,故謂之煩熱.經曰,"病人煩熱,汗出則解",又曰,"發汗已解,半日許復煩,脈浮數者,再與桂枝湯",又曰,"服桂枝湯,反煩不解者,先刺風池風府,却與桂枝湯則愈",即此觀之,煩爲表熱明矣.

상한의 번열(煩熱)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번(煩)은 열(熱)로 발열(發熱)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발열은 화끈화끈(怫怫) 피부 표면에서 생겨났다가 때가 되면 그친다. 번은 괴롭게 열이 나는 것으로 그치는 때가 없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표열(表熱)이지만, 번열은 열로 인해 답답해진(煩) 것으로, 생겼다가 그쳤다가 하는 발열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번열(煩熱)'이라고 하였다. 경문에서 "환자에게 번열(煩熱)이 날 때 땀이 나면 풀리게 된다."라고 하였고, 또 "땀을 내서 이미 풀린 뒤에 반일 정도 후 다시 번(煩)이 생기고 맥이 부삭(浮數)할 때는 다시 계지탕(桂枝湯)을 준다."라고 하였으며, 또 "계지탕을 복용하고 도리어 번(煩)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풍지(風池)、풍부(風府)에 자침하고 다시 계지탕(桂枝湯)을 주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번이 표열(表熱)임에 분명하다.

故又有煩疼,即是熱疼,又有煩渴,即是熱渴也,以煩爲熱,又何疑焉.至於胸中煩、心中煩、內煩、虛煩,皆以煩爲熱.設"傷寒至六七日,手足三部脈皆至,大煩而口噤不能言,其人躁擾者",與"脈和,大煩,目重,臉內際黃者",又皆爲欲解.所以言大煩者,以肌表大熱,則是邪熱欲去,泄達於外也,故爲欲解.內經曰,"謹熱陰陽","以意調之".

그러므로 또 번동(煩疼)은 곧 열이 나면서 아픈 것이고, 번갈(煩渴)은 곧 열이 나면서 목이 마른 것이니, 번이 열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심하겠는가. 흉중번(胸中煩)、심중번(心中煩)、내번(內煩)、허번(虛煩)의 경우에도 번(煩)은 모두 열이다. 만약 "상한 6·7일이 되어 손발의 삼부맥(三部脈)이 모두 뛰고 번

(煩)이 심하며 입을 악다물어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 환자가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와 "맥이 조화로우며 번(煩)이 심하고 눈이 무거우며 눈꺼풀 끝이 누렇게 된 경우"는 모두 나으려는 것이다. 여기서 번이 심하다(大煩)라고 한 까닭은, 기표에 열이 심한 것으로 곧 사열(邪熱)이 제거되려고 겉에 도달하여 배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풀리려고 한다고 하였다. 《내경》에서 "신중하고 자세하게 음양을 알아서" "마음을 다해 조리한다."고 하였다.

明理論卷一終

명리론 권1 끝

## 傷寒明理論卷二 상한명리론 권2

聊攝成無己撰

| 요섭 성무기 지음



## 虛煩 第十九 19 허번

傷寒虛煩,何以明之.虛煩者,心中鬱鬱而煩也.有胸中煩、有心中煩、有虛煩,諸如此者,皆熱也.若止云煩者,表熱也,及其邪熱傳裏,故有胸中煩、心中煩、虛煩之別.三者要在觀其熱所從來,審其虛實,而治爲不同也.

상한의 허번(虛煩)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허번은 가슴 속이 답답하며 번(煩)이 있는 것이다. 흉중번(胸中煩)、심중번(心中煩)、허번(虛煩)이 있으나 모두 열(熱)이다. 단지 번(煩)이라고만 하면 표열(表熱)이고, 그 사열(邪熱)이 안으로 전경(傳經)되었을 때 흉중번、심중번、허번의 차이가 생긴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요점은 그 열이 오는 곳을 관찰하는데 있으니, 허실을 살펴서 치법을 달리 한다.

如不經發汗吐下而煩者,則是傳經之熱,不作膈實者,但多和解而已,故經曰,"心煩喜嘔,或胸中煩而不嘔者,小柴胡湯主之","少陰病二三日,心中煩不得臥者,黃連阿膠湯主之","少陰病,胸滿心煩者,豬膚湯主之",是皆和解而徹熱者也.

만약 한법、토법、하법을 쓰지 않았는데 번(煩)이 있는 경우는 전경(傳經)하여 생긴 열로서 격실(膈實)이 생기지는 않은 것이니 주로 화해(和解)시키면 낫는다. 그러므로 경문에서 "심번(心煩)이 있고 자주 구역질을 하는데, 가슴 속에 번(煩)이 있고 구역질을 하지 않기도 할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소음병 2 - 3일에 가슴 속에 번(煩)이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황련아교탕(黃連阿膠湯)으로 치료한다.", "소음병에 가슴이 그득하고 심번(心煩)이 있을 때는 저부탕(豬膚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화해시켜서 열을 배출시킨다.

若因吐下發汗後而煩者,則是內陷之煩,但多湧吐而已."汗吐下後,虛煩不得眠,若劇者必反覆顛倒,心中懊懣者,梔子豉湯主之,若少氣者,梔子甘草豉湯主之,若嘔者,梔子生薑豉湯主之","心煩腹滿,臥起不安者,梔子厚樸<sup>1</sup>湯主之","丸藥大下後,身熱不

去,微煩者,梔子乾薑湯主之",是皆取其吐而湧其熱者也.

만약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번(煩)이 생긴 경우는 안으로 무너져 생긴 번(煩)이니 주로 토하게 하면 낫는다.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허번(虛煩)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심해지면 반드시 뒤척이며 가슴 속에 오뇌(懊惱)가 생긴다. 이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으로 치료한다. 소기(少氣)가 있으면 치자감초시탕(梔子甘草豉湯)으로 치료하고, 구역질을 하면 치자생강시탕(梔子生薑豉湯)으로 치료한다.", "심번(心煩)이 있고 복만(腹滿)이 있어서 항상 편안하지 못한 경우에는 치자후박탕(梔子厚朴湯)으로 치료한다.", "약으로 크게 공하시킨 뒤에 몸의 열이 제거되지 않고 조금 번(煩)이 있을 때는 치자건강탕(梔子乾薑湯)으로 치료한다." 이들은 모두 토하게 하여 열을 위로 내보낸 것이다.

虛煩之狀,心中溫溫然欲吐,憤憤然無奈,欲嘔不嘔,擾擾亂亂,是名煩也,非吐則不能已.經曰,"下利後,更煩,按之心下濡者,爲虛煩也,宜梔子豉湯","脈乍結,心中滿而煩,飢不能食者,病在胸中,瓜蒂散".二者證均是煩也,藥均是吐也,而又輕重之不同.吐下發汗後,邪氣乘虛而入爲煩者,則謂之虛煩,與梔子豉湯,則是吐劑之輕者,不因吐下發汗後,邪氣結於胸中,則爲膈實,與瓜蒂散,則是吐劑之重者.

허번(虛煩)의 모습은 가슴 속이 답답하여 토하고 싶고, 괴로워 어쩔 줄 모르며, 토하려고 해도 토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혼란스럽다. 이것을 번(煩)이라고 부른다. 토법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리(下利)를 한 뒤에 다시 번(煩)이 생겼을 때, 심하(心下)를 눌러 저항이 없는 것이 허번(虛煩)이다. 치자시탕(梔子豉湯)을 써야 한다.", "결맥(結脈)이 잠깐 나타나고, 가슴 속이 그득하면서 번(煩)이 있으며,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는 것은 병이 가슴 속에 있는 경우이니 과체산(瓜蒂散)을 쓴다." 이 두 가지 병증은 모두 번(煩)으로 약도 모두 토제(吐劑)이지만 경증의 차이가 있다.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사기가 허한 틈을 타고 침입하여 번(煩)이 생기면 허번(虛煩)

이라고 하며 치자시탕(梔子豉湯)을 투여한다. 이는 곧 토제 중에 약한 약이다. 한법·토법·하법을 쓰지 않았는데 사기가 가슴 속에 맺히면 격실(膈實)이 되며 과채산(瓜蒂散)을 투여한다. 이는 곧 토제 중에서 강한 약이다.

又陽明病,"不吐不下,心煩者",則是煩之實者也,與調胃承氣湯下之."傷寒二三日,心中悸而煩者",則是煩之虛者也,與小建中湯補之.煩爲熱也,悸而煩復爲主<sup>2</sup>者,以悸爲虛,悸甚而煩,故爲虛也."少陽之邪入府者,煩而悸",則爲熱也.大抵先煩而悸者,是爲熱也,先悸而煩者,是爲虛也.內經曰,治病必先求其本,誠哉是言也.

또 "양명병에 토법이나 하법을 쓰지 않았는데 심번이 있는 경우"는 번(煩)의 실증이다. 조위승기탕(調胃承氣湯)을 투여하여 공하시킨다. "상한에 걸린 지 2-3일이 되어 가슴 속이 두근거리면서(悸) 번(煩)이 있는 경우"는 번(煩)의 허증이다. 소건중탕(小建中湯)으로 보해준다. 번(煩)은 열(熱)이다. 두근거리다가 다시 번(煩)이 생기는 것이 허증인 까닭은, 계(悸)가 허증으로 계(悸)가 심해져 번(煩)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증이 된다. "소양의 사기가 부(府)로 들어가서 번(煩)과 계(悸)가 생기는 경우"는 열증이다. 먼저 번(煩)이 있다가 계(悸)가 나타나는 경우는 열증이고, 먼저 계(悸)가 있다가 번(煩)이 나타나는 경우는 허증이다. 《내경》에서 "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그 근원을 구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참으로 진실되구나.

1. 厚樸 : \*厚朴 ※상한론 ↩

2. 煩復爲主 : \*復煩爲虛 ※대성본 ↩



## 煩躁 第二十 20 번조

傷寒煩躁,何以明之.煩爲擾擾而煩,躁爲憤躁之躁.合而言之,煩躁爲熱也.析而分之,煩也躁也,有陰陽之別焉,煩陽也,躁陰也,煩爲熱之輕者,躁爲熱之甚者.經有煩疹、煩滿、煩渴、虛煩,皆以煩爲熱也.有不煩而躁者,爲怫怫然便作躁悶,此爲陰盛隔陽也,雖大躁欲於泥水中臥,但飲水不得入口者是矣.所謂煩躁者,謂先煩漸至躁也,所謂躁煩者,謂先發躁而迤邐復煩者也.

상한의 번조(煩躁)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번(煩)은 불안하면서 답답한 것이고, 조(躁)는 분주하게 부산스러운 것이다. 합쳐서 말하면 번조(煩躁)로서 열(熱)이다. 나누어 구분하면 번과 조로서 음양의 구별이 있으니 번은 양(陽), 조는 음(陰)에 해당된다. 번은 열이 가벼울 때 생기고 조는 열이 심할 때 생긴다. 경문에 있는 번동(煩疹)、번만(煩滿)、번갈(煩渴)、허번(虛煩)에서 모두 번은 열이다. 번이 없으면서 조(躁)만 있는 경우는 답답하여〔怫怫〕불안하고 갑갑하게〔躁悶〕될 때이니, 이것은 음이 왕성하여 양을 가로막은 것이다. 비록 조(躁)가 심하여 진흙탕 속에 눕고자 하지만 물은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이것이다. 번조(煩躁)라는 것은 먼저 번(煩)이 생겼다가 점차 조(躁)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조번(躁煩)이라는 것은 먼저 조(躁)가 있다가 천천히 다시 번(煩)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煩躁之由,又爲不同,有邪氣在表而煩躁者,有邪氣在裏而煩躁者,有因火劫而煩躁者,有陽虛而煩躁者,有陰盛而煩躁者,皆不同也.經曰,"當汗不汗,其人煩躁","太陽中風,脈浮而緊,不汗出而煩躁,大青龍湯主之"者,是邪氣在表而煩躁者也."病人不大便五六日,繞臍痛,煩躁,發作有時,此有燥屎也",是邪氣在裏而煩躁者也."太陽病,以火熏之,不得汗,其人必躁","太陽病二日,反躁,火熨其背,令人大汗出,大熱入胃,躁煩者",火劫令煩躁者也."陽微發汗,躁不得眠",與"之下後<sup>1</sup>,復發汗,晝日煩躁不得眠,夜而安

靜,不嘔不渴,無表證,脈沈微,身無大熱者,乾薑附子湯主之者",及"發汗若下之,病仍不去,煩躁者,茯苓四逆湯主之者",陽虛煩躁者也."少陰病,吐利,手足冷,煩躁欲死者,吳茱萸湯主之者",陰盛而煩躁者也.

번조의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사기(邪氣)가 겉에 있어 번조하는 경우, 사기가 속에 있어 번조하는 경우, 화법(火法)으로 사기를 쫓다(火劫) 번조하게 된 경우, 양허(陽虛)로 번조하는 경우, 음허(陰盛)로 번조하는 경우 등 모두 다르다. 경문에서 "땀이 나야 하는데 나지 않고 그 환자에게 번조(煩躁)가 있다.", "태양 증풍에 맥이 부(浮)하면서 긴(緊)하고 땀이 나지 않으며 번조(煩躁)가 있을 때는 대청룡탕(大靑龍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한 것이 사기가 겉에 있어 번조가 생긴 경우이다. "환자가 대변을 보지 못한 지 5 - 6일이 되어 배꼽 주변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번조(煩躁)가 때때로 발작하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사기가 속에 있어 번조가 생긴 경우이다. "태양병에 불로 훈증시켰으나 땀이 나지 않을 때는 환자에게 반드시 조증(躁證)이 생긴다.", "태양병 2일 째에 도리어 조증(躁證)이 있고 불로 등을 다림질하여 환자가 땀을 많이 흘리게 하면 많은 열이 위(胃)로 들어가 조번(躁煩)이 생긴다."라고 한 것이 화법(火法)으로 사기를 쫓다(火劫) 번조가 생긴 경우이다. "양맥(陽脈)이 미(微)한데 발한을 시키면 조증(躁證)이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공하시킨 후에 다시 발한 시켜서 낮에 번조(煩躁)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이 되면 안정되며, 구역질이나 갈증이 없고 표증도 없으며 맥이 침미(沈微)하고 몸에 심한 열이 나지 않을 때는 건강부자탕(乾薑附子湯)으로 치료한다.",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병이 여전히 낫지 않고 번조(煩躁)가 있을 때는 복령사역탕(茯苓四逆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한 것은 양허(陽虛)로 번조가 생긴 경우이다. "소음병에 구토와 설사를 하고 손발이 차며 번조(煩躁)로 죽을 것 같을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한 것은 음허(陰盛)로 번조가 생긴 경우이다.

諸如此者,證之常也,非逆也.設或"結胸證悉具,煩躁者死","發熱,下利,厥逆,躁不得臥者死","少陰病,吐利,躁煩,四逆者死","少陰病,四逆惡寒,而身輒,脈不至,不煩而躁者死","少陰病五六日,自利,復煩躁,不得臥寐者死",是數者,又皆爲不治之証.嗚呼,煩躁爲常有之疾,復有諸不治之証,臨病者之側,又當熟審焉.

이와 같은 것들은 정상적인 경우로 역증(逆證)이 아니다. 만약 "결흉의 증상이 모두 있을 때 번조(煩躁)가 있으면 죽는다.", "발열·하리(下利)·결냉(厥逆)이 있고 조증(躁證)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죽는다.", "소음병에 구토·하리·조번(躁煩)·사역(四逆)이 있으면 죽는다.", "소음병에 사역(四逆)과 오한(惡寒)이 있고 몸을 웅크리며 맥이 잡히지 않고 번(煩)은 없으나 조(躁)만 있으면 죽는다.", "소음병 5-6일에 설사를 한 뒤에 번조(煩躁)가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경우는 모두 치료할 수 없는 병증이다. 아! 번조에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 있고, 또 치료할 수 없는 증상도 있으니 환자를 진료할 때 자세히 살펴야만 한다.

1. 之下後 : \*下之後 ※상한론 ←

## 懊惱 第二十一 21 오뇌

傷寒懊惱,何以明之.懊者,懊惱之懊,惱者,鬱悶之貌,即心中懊惱惱惱,煩煩惱惱,鬱鬱然不舒暢,憤憤然無奈,比之煩悶而甚者,懊惱也.由下後,表中陽邪,乘虛內陷,鬱而不發,結伏於胸心之間,故如是也.經曰,"表未解,醫反下之,胃中空虛,客氣動膈,心中懊惱",又曰,"下之益煩,心中懊惱如飢",即是陽氣內陷,爲諸懊惱也.

상한의 오뇌(懊惱)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오(懊)는 괴로워한다는 뜻이고, 뇌(惱)는 답답해하는 모습이니, 곧 가슴 속이 괴롭고 답답하며 편안하지 못하여 어쩔 줄 모르는 것이다. 번민(煩悶)에 비해 심한 것이 오뇌이다. 하법을 쓴 뒤에 겉에 있던 양사(陽邪)가 허한 틈을 타고 안으로 들어와 울결되어 풀리지 않고 심흉 사이에 엉겨 붙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 경문에서 "표증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의사가 도리어 공하시켜 위(胃) 속이 비게 되었을 때 침입한 사기가 흥격을 동요시켜 가슴 속에 오뇌(懊惱)가 생긴다."라고 하였고, 또 "공하시키면 번(煩)이 심해지고 주린 것처럼 가슴 속에 오뇌(懊惱)가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양기가 무너져 내려 오뇌하게 된다.

其治之法,或吐之,或下之."若發汗吐下後,虛煩不得眠,劇者必反覆顛倒,心中懊惱",與"陽明病下之,其外有熱,手足溫,而不結胸,心中懊惱,飢不能食,但頭汗出".二者爲邪熱鬱於胸中,當須梔子鼓湯吐之,以湧其結熱也.

치료 방법은 토법과 하법이 있다.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허번(虛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심해지면 반드시 뒤척거리며 가슴 속에 오뇌(懊惱)가 생긴다.", "양명병에 하법을 사용하여 밖에는 열이 나고 손발이 따뜻하며 결흉은 아니나 가슴 속에 오뇌(懊惱)가 생기고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며 머리에서만 땀이 난다." 이 두 가지는 사열(邪熱)이 가슴 속에 울체된 것으로 치자시탕(梔子鼓湯)으로 토하게 하여 맺힌 열을 위로 몰아내야 한다.

"陽明病,下之,心中懊惱而煩,胃中有燥屎者",與"陽明病,無汗,小便不利,心中懊惱者,必發黃".二者爲邪熱結於胃中,當須大承氣湯、茵陳湯攻之,以滌其內熱也.識諸此者,吐下之不差,湯劑之適當,則無不愈者.或當汗反吐,療熱以溫,則變證百出,班出黃生者多矣.其爲醫者,請精究之.

"양명병에 하법을 사용하여 가슴 속에 오뇌(懊惱)가 생기고 답답하며 위 속에 조시(燥屎)가 있는 경우", "양명병에 땀이 나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가슴 속에 오뇌(懊惱)가 있으면 반드시 발황(發黃)이 된다.", 이 두 가지는 사열(邪熱)이 위(胃) 속에 맺힌 것으로 대승기탕(大承氣湯)과 인진호탕(茵陳蒿湯)으로 공하시켜 내열(內熱)을 씻어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착오 없이 토법과 하법을 쓰고 적당한 처방을 투여하면 낫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한법을 써야 할 때 도리어 토법을 쓰고, 열증을 치료할 때 따뜻한 성질의 약을 쓰면 증상이 갖가지로 변화하여 반점이 돋고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의술을 펼치는 자들은 자세히 궁리하기 바란다.

## 舌上胎 第二十二 22 설상태

傷寒舌上胎,何以明之.舌者心之官,法應南方火,本紅而澤.傷寒三四日已後,舌上有膜,白滑如胎,甚者或燥或澁,或黃或黑,是數者,熱氣淺深之謂也.邪氣在表者,舌上卽無胎,及邪氣傳裏,津液結搏,則舌上生胎也.

상한의 설상태(舌上胎)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혀(舌)는 심(心)의 대리자로 남방(南方) 화(火)의 기운을 부여받아 본래 붉고 윤택하다. 상한에 걸린 지 3 - 4일이 지나면 혀 위에 이끼처럼 희고 매끈한 막이 생기고, 심하면 메마르기도 하고 꺼끌꺼끌하기도 하며 누렇기도 하고 검기도 하다. 이들은 열기(熱氣)의 깊이를 말해준다. 사기(邪氣)가 겉에 있으면 혀 위에 태(胎)가 없고, 사기가 속으로 전경되면 진액이 결박되어 혀 위에 태가 생긴다.

寒邪初傳,未全成熟,或在半表,或在半裏,或邪氣客於胸中者,皆舌上胎白而滑也.經曰,"舌上如胎者,以丹田有熱,胸上有寒",邪初傳入裏者也."陽明病,脇下鞭滿,不大便而嘔,舌上白胎者,可與小柴胡湯",是邪氣在半表半裏者也."陽明病,若下之,則胃中空虛,客氣動膈,心中懊惱,舌上胎者,梔子豉湯主之",是邪客於胸中者也."藏結,宜若可下,舌上胎滑者,則云不可攻也",是邪未全成熟,猶帶表寒故也.

한사(寒邪)가 처음 전경되어 아직 열이 완전히 생기지 않았거나, 사기가 반표(半表)나 반리(半裏)에 있거나, 사기가 가슴 속에 침입한 경우에는 혀 위의 태가 희고 매끈하다. 경문에 "혀 위에 태가 있는 것은 단전(丹田)에 열(熱)이 있고 가슴 위에 한(寒)이 있는 경우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기(邪氣)가 속으로 막 전경된 경우이다. "양명병에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고 그득하며 대변을 보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며 혀 위에 백태가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는 경우이다. "양명병에 하법을 사용하여 위(胃) 속이 비게 되었을 때 사기(邪氣)가 침입하여 흉격을 동요시켜서 가슴 속에 오뇌(懊惱)가 생기고 혀 위에 태가 낄 때는 치자시탕(梔子豉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기가 가슴 속에 침입한 경우

이다. "장결(藏結)을 공하시킬 수 있으나 혀 위에 태가 미끈하면 공하시킬 수 없다고 한다."라고 한 것은 사기가 아직 열을 만들지 않고 도리어 겉에 한사가 있기 때문이다.

及其邪傳爲熱,則舌之胎,不滑而澀也.經曰,"傷寒七八日不解,熱結在裏,表裏俱熱,時時惡風大渴,舌大乾燥而煩,欲飲水數升者,白虎加人參湯主之",是熱耗津液,而滑者已乾也.若熱聚於胃,則舌爲之黃,是熱已深也.金匱要略曰,"舌黃未下者下之,黃自去".

사기가 전경되어 열이 되면, 혀 위의 태가 매끈하지 않고 꺼끌꺼끌하다. 경문에서 "상한 7-8일에 병이 풀어지지 않고 속에 열이 맺혀서, 겉과 속에 열이 있고 때때로 오풍과 심한 갈증이 일며 혀가 매우 건조하고 답답하여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할 때는 백호가인삼탕(白虎加人參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열(熱)이 진액을 소모시켜 매끈하던 혀가 건조해진 경우이다. 열이 위(胃)에 모이면 혀가 누렇게 되는데, 열이 이미 심한 경우이다. 《금궤요략》에서 "혀가 누런데 아직 공하시키지 않은 경우에 공하시키면 누런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若舌上色黑者,又爲熱之極也.黃帝鍼經曰,"熱病口乾舌黑者死".以心爲君主之官,開竅於舌,黑爲腎色,見於心部,心者火,腎者水,邪熱已極,鬼賊相刑,故知必死.觀其口舌,亦可見其逆順矣.

혀 표면의 색이 검은 것은 열이 극심한 경우이다. 《황제침경》에서 "열병(熱病)에 입이 건조하고 혀가 검으면 죽는다."라고 하였다. 심(心)은 군주(君主)의 관직으로 혀에 구멍을 열고 있다. 검은 색은 신(腎)의 색으로 심(心)의 부위에 드러났다. 심은 화(火)에 해당하고 신은 수(水)에 해당하므로, 사열(邪熱)이 이미 극심하여 수(水)가 화(火)를 형벌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과 혀를 보면 순증(順證)인지 역증(逆證)인지 알 수 있다.





## 衄血 第二十三 23 육혈

傷寒衄者,何以明之.鼻中血出者是也.雜病衄者,責熱在裏,傷寒衄者,責熱在表.何以言之,病源曰,"心主血,肝藏血,肺主氣,開竅於鼻,血得熱則散,隨氣上從鼻中出,則爲衄",是雜病者,責在裏熱也.經曰,"傷寒,脈浮緊,不發汗,因致衄者,宜麻黃湯","傷寒,不大便六七日,頭痛有熱者,與小承氣湯,其小便清者,知不在裏,仍在表也,當須發汗,若頭痛者必衄,宜桂枝湯",以此觀之,是傷寒衄者,責其表熱也.

상한의 육혈(衄血)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육혈은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이다. 잡병의 코피는 속에 열이 있기 때문이고 상한의 코피는 표에 열이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제병원후론》에서 "심(心)은 혈(血)을 주관하고, 간(肝)은 혈(血)을 저장한다. 폐(肺)는 기(氣)를 주관하고 코에 구멍을 열고 있다. 혈(血)이 열을 얻으면 흩어지고 기(氣)를 좇아 코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코피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잡병의 경우로, 원인이 이열(裏熱)에 있다.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한에 맥이 부건(浮緊)하고 땀이 나지 않으면 코피가 나게 된다. 마황탕(麻黃湯)을 써야 한다.", "상한에 대변을 보지 못한 지 6 - 7일이 되어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날 때는 소승기탕(小承氣湯)을 준다. 소변이 맑으면 사기(邪氣)가 속이 아니라 겉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발한시켜야 한다. 만약 머리가 아프면 반드시 코피가 난다. 계지탕(桂枝湯)을 써야 한다." 이들을 보면 상한의 코피는 표열 때문이다.

千金翼曰,吐血有三種,一曰肺疽,二曰傷胃,三曰內衄.既吐血家謂之內衄,則其鼻中出血者,可謂之外衄.是經絡之血妄行也,經絡熱盛,陽氣擁重,迫血妄行,出於鼻則爲衄.經曰,"其人發煩目瞑,劇者必衄,衄乃解,所以然者,陽氣重故也",又曰,"陽盛則欲衄,陰虛小便難",言衄爲經中陽盛也.凡傷寒,脈浮,鼻中燥,"口燥,但欲漱水,不欲嚥者",是欲衄也.經曰,"陽明病,口乾鼻燥,能食者則衄".

《천금익방》에서 "토혈(吐血)에는 3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폐저(肺疽)이고, 둘째는 상위(傷胃)이며, 셋째는 내륙(內衄)이다."라고 하였다. 피를 토하는 경우를 이미 내륙(內衄)이라고 하였으니,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외륙(外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락의 혈이 함부로 움직이는 것으로, 경락에 열이 차면 양기(陽氣)가 많이 모이고, 이것이 혈(血)을 뿔박해 함부로 움직여 코로 나오는 것을 코피라고 한다. 경문에서 "환자에게 번(煩)이 생기고 눈이 아득할 때, 심해지면 반드시 코피를 흘리고 그러면 낮게 된다. 그 이유는 양기(陽氣)가 거듭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양(陽)이 왕성하면 코피가 나려고 하고, 음(陰)이 허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경락 중에 양(陽)이 왕성하여 코피라 생긴 것을 말한다. 상한에 맥이 부(浮)하고 코 속이 건조하며 "입도 건조하지만 물로 입을 적실 뿐 삼키려고 하지 않을 때"는 코피가 나려는 것이다. 경문에서 "양명병에 입이 건조하고 코가 마르며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는 코피가 난다."라고 하였다.

又有不應發汗而強發汗,因致衄者.經曰,"少陰病,但厥無汗,而強發之,必動其血,未知從何道出,或從口鼻,或從目出,是名下厥上竭,爲難治"是也.衄家雖爲邪熱在經,而又不可發汗.經曰,"衄家不可發汗,發汗則額上陷,脈急緊,直視不能眴,不得眠".前云桂枝湯麻黃湯治衄者,非治衄也,卽是發散經中邪氣耳.若邪氣不得發散,擁盛於經,逼迫於血,則因致衄也,卽非桂枝湯麻黃湯專治衄也."太陽病,脈浮緊,發熱,身無汗,自衄者愈",是經中之邪,隨而散則解矣.故知衄者,不待桂枝湯麻黃湯發散之也.

또 발한시켜서는 안 될 때 억지로 발한시켜서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 경문에서 "소음병에 곁(厥)만 있고 땀이 나지 않는데 억지로 발한시키면 반드시 혈(血)을 요동시켜 어떤 길을 따라 나가는지 알 수 없게 된다. 입과 코를 따라 나가거나 눈을 따라 나가는데, 이것을 '하곁상갈(下厥上竭)'이라고 부른다.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이다. 코피는 비록 열사(邪熱)가 경락에 있어서 생기지만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경문에서 "평소 자주 코피가 나는 환자에게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발한시키면 이마 위쪽이 꺼지고, 맥이 급하고 긴(緊)해지며, 직시(直視)가 생겨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앞

에서 계지탕(桂枝湯)·마황탕(麻黃湯)으로 코피를 치료한 것은 코피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경락 속의 사기(邪氣)를 발산시킨 것뿐이다. 만약 사기가 발산되지 않고 경락에 왕성하게 모여 있어 혈(血)을 뿔박하면 그로 인해 코피가 난다. 그러므로 계지탕·마황탕이 전적으로 코피를 치료한 것이 아니다. "태양병에 맥이 부긴(浮緊)하고 열이 나고 몸에서 땀이 나지 않을 때 저절로 코피가 나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경락 가운데 사기가 코피를 따라 흘러져서 병이 풀린 것이다. 그러므로 코피가 계지탕과 마황탕에 의지하지 않고 발산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衄者.若但頭汗出,身無汗,及汗出不至足者死,黃帝又皆以爲不治之疾.臨病之際,審而治之,則不失矣.

머리에서만 땀이 나고 몸에서 땀이 나지 않을 때나 발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코피가 나면 죽는다. 황제(黃帝)도 모두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임상에서 살펴서 치료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 噦 第二十四 24 열

傷寒噦者,何以明之.噦者俗謂之欬逆者是也.飢(音噎)近於噦,飢者但胸喉間氣,飢塞不得下通,然而無聲也,若噦則吃吃然有聲者是也.噦者成金也,胃受疾故噦.噦也、飢也,皆胃之疾,但輕重有差爾."虛寒相搏,反飲水,令汗大出,水得寒氣,冷必相搏,其人即飢,言胃氣虛竭也","傷寒大吐大下之後,極虛,復極汗出者,其人外氣怫鬱,復與之水,以發其汗,因得噦,所以然者,胃中寒冷故也","又胃中虛冷,不能食者,飲水則噦",即是觀之,噦、飢皆胃疾可知矣.

상한의 열(噦)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열은 세속에서 해역(欬逆)이라고 하는 것이다. 열(飢)은 열과 유사하지만, 열(飢)은 가슴과 목구멍 사이의 기운이 막혀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열(噦)은 딸꾹하고(吃吃然) 소리가 난다. 열(噦)은 금기(金氣)를 키운다. 위(胃)가 병들어서 열이 생긴다. 열(噦)과 열(飢)은 모두 위(胃)의 병으로 경증이 다를 뿐이다. "허(虛)와 한(寒)이 서로 다투는데, 도리어 물을 마시게 하고 땀을 많이 내어 수(水)가 한기(寒氣)를 얻으면 차가운 기운과 반드시 다투게 되어 환자에게 곧 열(飢)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위기(胃氣)가 허약하여 고갈된 경우라고 한다.", "상한에 토법이나 하법을 심하게 사용한 뒤에 매우 허해져서 다시 땀을 심하게 흘렸을 때, 환자의 외기(外氣)가 울체되어 다시 따뜻한 물을 주고 땀을 내면 열(噦)이 생기게 된다. 그 이유는 위 속이 차기 때문이다.", "또 위 속이 허하고 서늘하여 음식을 먹지 못할 때 물을 마시면 열(噦)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열(噦)과 열(飢)이 위(胃)의 병임을 알 수 있다.

經曰,"趺陽脈浮,則爲氣飢,脈滑則爲噦,此爲醫咎,責虛取實之過也".大抵妄下之後,胃虛氣逆,則成噦也.經曰,"濕家,若下之太早則噦","本虛,攻其熱則噦",而"陽明病,不能食,攻其熱,必噦".諸如此者,皆下之後,胃虛而噦者也.

경문에서 "부양맥이 부(浮)하면 숨 쉴 때 열(飢)이 되고, 맥이 활(滑)하면 열(嘔)이 된다. 이것은 의사의 잘못으로 허증을 실증처럼 치료한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보통 함부로 공하시킨 뒤에 위(胃)가 허해지고 기가 거슬러 오르면 열(嘔)이 된다. 경문에서 "습(濕)이 많은 이에게 합법을 너무 일찍 사용하면 열(嘔)이 생긴다.", "본래 허한데 열을 공하시키면 열(嘔)이 생긴다.", "양명병에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열(熱)을 공하시키면 반드시 열(嘔)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모두 하법을 쓴 뒤에 위(胃)가 허하여 열(嘔)이 생긴 경우이다.

然飢者,正爲水寒相搏,必曰"小青龍湯去麻黃加附子而可矣".至於嘔者,則又熱氣擁鬱,氣不得通而成者也.輕者有和解之證,重者有攻下之候.經曰,"有潮熱,時時嘔,與小柴胡湯者",即是和解之證也,"嘔而腹滿,視其前後,知何部不利,利之則愈",即可攻下之候也.

열(飢)은 바로 수(水)와 한(寒)이 서로 다투는 것이므로 분명 "소청룡탕(小青龍湯)에서 마황(麻黃)을 빼고 부자(附子)를 더하여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열(嘔)의 경우는 또 열기(熱氣)가 울체되어 기가 통하지 못하여 생긴다. 가벼운 경우는 화해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공하시킨다. 경문에서 "조열이 있고 때때로 열(嘔)이 나타나는 경우에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준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화해시키는 경우이다. 또 "열(嘔)과 복만(腹滿)이 있을 때 대변과 소변 상태를 보고 어느 쪽이 잘 나오지 않는지 안 뒤에 그것을 날 나가게 하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공하시키는 경우이다.

傷寒至於嘔,則病已極也,非若渴煩等輕緩之候.如"太陽中風,以火劫發汗,陰陽俱虛竭,身體枯燥,但頭汗出,劑頸而還,腹滿微喘,口乾咽爛,或不大便,久則譫語,甚者至嘔",是言其極也.又"不尿腹滿加嘔者,不治",是爲眞病.其若是者,雖有神醫之術,當斯脫絕之候,又何以措其手足哉.

상한에 열이 생긴 것은 병이 이미 매우 위독해진 경우로 갈증이나 번(煩)은 가볍고 위급하지 않은 증상과는 다르다. "태양 중풍에 화(火)로 사기를 쫓아 발한시키면 음양이 모두 허하고 고갈되어, 몸이 마르고, 머리에서 목까지만 땀이

나며, 배가 그득하여 조금 숨이 차고,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혈며, 더러 대변을 보지 못하다. 오래 되면 섬어(讖語)가 생기고 심해지면 열(噦)까지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는 병이 매우 위독한 것을 말한다. 또 "소변을 보지 못하고 배가 그득한데 열(噦)까지 생긴 것은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진장병(眞臟病)이다. 이처럼 신의(神醫)의 숨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운이 다하여 끝어진 상태를 만난다면 또 어찌 손을 쓸 수 있겠는가.



## 欬 第二十五 25 해

傷寒欬者,何以明之.欬者,聲欬之欬,俗謂之嗽者是也.肺主氣,形寒飲冷則傷之,使氣上而不下,逆而不收,衝擊膈咽,令喉中淫淫如痒,習習如梗,是令欬也.甚者續續不已,連連不止,坐臥不安,語言不竟,動引百骸,聲聞四近矣.欬之由來,有肺寒而欬者,有停飲而欬者,有邪氣在半表半裏而欬者,雖同曰欬,而治各不同也.

상한의 해(欬)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해(欬)는 소리 내어 기침한다〔聲欬〕는 뜻으로, 사람들이 수(嗽)라고 말하는 것이다. 폐(肺)는 기(氣)를 주관하므로 몸이 추울 때 차가운 것을 마시면 폐를 상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기가 올라가 내려오지 않고, 거슬러 수렴되지 않아서 흉격과 목구멍을 치받아 목 안이 가려운 듯이 간질간질하고 막힌 듯이 칼칼하여 기침(欬)을 하게 된다. 심하면 끊이지 않고 계속 기침을 하여 앓으나 누우나 편안하지 않고 말을 끝내지 못하며 온몸을 요동시키고 소리가 사방으로 미친다. 해(欬)의 원인은, 폐가 한기(寒氣)를 받아 기침하는 경우, 음(飲)이 정체되어 기침하는 경우, 사기(邪氣)가 반표반리에 있어서 기침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기침을 하게 하지만 치법은 각기 다르다.

內經曰,"肺之令人欬,何也,皮毛者,肺之合也,皮毛先受寒氣,以從其合也,其寒飲食入胃,從肺脈上至於肺,肺寒則外內合邪,因而客之,則爲欬嗽"者,是肺寒而欬也."傷寒,表不解,心下水氣,乾嘔,發熱而欬,小青龍湯主之","少陰病,腹痛,小便不利,四肢沈重疼痛,自下利者,此爲有水氣,其人或欬者,眞武湯加五味子細辛乾薑主之",二者是停飲而欬者也.雖皆爲水飲所作,而小青龍湯所主,爲水飲與表寒相合而欬者,眞武湯所主,爲水飲與裏寒相合而欬者,又不可不知也."傷寒中風,往來寒熱,胸脇苦滿,默默<sup>1</sup>不欲飲食,心煩喜嘔,或欬者,小柴胡湯去人參大棗生薑加乾薑五味子主之","少陰病,四逆,其人或欬者,四逆散加乾薑五味子主之",二者是邪氣自表傳裏而欬者.雖皆

爲邪氣傳裏,而小柴胡湯所主,爲陽邪傳裏,動肺而欬者,四逆散所主,爲陰邪傳裏,動肺而欬者,又不可不識也.表寒也、裏寒也,恊水飲則必動肺,以"形寒寒飲則傷肺"故也.陽邪也、陰邪也,自表傳裏,則必動肺,以"藏眞高於肺"故也.

《내경》에서 말하였다. "폐 때문에 사람이 기침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피부와 터럭은 폐와 짝이 되므로 피부와 터럭이 먼저 한기(寒氣)를 받으면 그 짝에 영향을 줍니다. 차가운 음식이 위(胃)에 들어가면 폐맥(肺脈)을 따라 위로 폐에 이르고, 폐가 차가워지면 안팎의 사기(邪氣)가 합쳐져 이로 인해 폐로 침범하면 해수(咳嗽)가 됩니다." 이것은 폐가 한기(寒氣)를 받아 기침하는 경우이다. "상한에 겹이 풀리지 않고 심하(心下)에 수기(水氣)가 있으며 헛구역질을 하고 열이 나며 기침을 할 때 소청룡탕(小青龍湯)으로 치료한다.", "소음병에 배가 아프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팔다리가 무겁고 아프며 하리(下利)가 있는 것은 수기(水氣)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환자에게 해(欸)가 있다면 진무탕(眞武湯)에 오미자(五味子)·세신(細辛)·건강(乾薑)을 더하여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는 음(飲)이 정체되어 기침하는 경우이다. 비록 모두 수음(水飲)으로 발생하지만 소청룡탕(小青龍湯)으로 치료하는 것은 수음과 표한(表寒)이 서로 만나 기침하는 경우이고, 진무탕(眞武湯)으로 치료하는 것은 수음과 이한(裏寒)이 서로 만나 기침하는 경우이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상한 증풍에 한열왕래(往來寒熱)와 흉협고만(胸脇苦滿)이 있고, 입을 다물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으며 심번(心煩)이 있고 쉽게 구역질 할 때, 해(欸)가 있다면 소시호탕(小柴胡湯)에서 인삼(人蔘)·대조(大棗)·생강(生薑)을 빼고 건강(乾薑)·오미자(五味子)를 더하여 치료한다.", "소음병(少陰病)에 사역(四逆)이 있을 때 환자에게 해(欸)가 있다면 사역산(四逆散)에 건강(乾薑)·오미자(五味子)를 더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 두 가지는 사기(邪氣)가 겹에서 속으로 전경되어 기침하는 경우이다. 비록 모두 속으로 전경되어 생겨난 기침이지만,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치료하는 것은 양사(陽邪)가 속으로 전경되어 폐를 요동시켜 기침하는 경우이고, 사역산(四逆散)으로 치료하는 것은 음사(陰邪)가 속으로 전경되어 폐를 요동시켜 기침하는 경우이다. 이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표한(表寒)과 이한(裏寒)이 수음(水飲)과 만나면 반드시 폐(肺)를 요동시키는 까닭은 "몸이 추울 때 차가운 것을 마시면 폐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양사(陽邪)와 음사(陰邪)가 겹에서 속으로 전경되면 반드시 폐를 요동시키는 까닭은 "오장의 진기가 폐에서 높아지기" 때문이다.

欬爲肺疾,治之必發散而可矣,而又有不可發汗者.經曰,"欬而小便利者,不可發汗,發汗則四肢厥逆冷",又曰,"欬而發汗,蹠而苦滿,腹中復堅",茲爲逆也.又"脈散者",爲心火刑於肺金,鬼賊相刑必死.臨病之側,可不察之.

해(欬)는 폐의 질환으로 반드시 발산시켜 치료해야 하나 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해(欬)가 있을 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발한시키면 팔다리에 꺾(厥)이 생겨 말단부터 차가워진다.", "해(欬)가 있을 때 발한을 시키면 몸을 웅크리고 그득하여 괴로워하며 배 속도 단단해진다." 이들은 역증(逆證)이다. 또 "맥이 흩어지는 경우"는 심화(心火)가 폐금(肺金)을 형벌한 것으로 화(火)가 금(金)을 형벌하였으므로 반드시 죽게 된다. 환자를 진료할 때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1. 默默 : \*嘿嘿 ※상한론 ↩

## 喘 第二十六 26 천(喘)

傷寒喘者,何以明之.肺主氣,形寒飲冷則傷肺,故其氣逆而上行,衝衝而氣急,喝喝而息數,張口擡肩,搖身滾肚,是爲喘也.

상한의 천(喘)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폐(肺)는 기(氣)를 주관한다. 몸이 추울 때 차가운 것을 마시면 폐를 상한다. 그로 인해 기가 거슬러 오르게 되면 치받아 숨이 차고 헉헉 숨을 몰아쉬며,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흔들고 배를 출렁이는 것이 천(喘)이다.

傷寒喘者,有邪氣在表,氣不利而喘者,有水氣之氣,射肺而喘者,各不同也."喘家作,桂枝加厚朴杏仁湯","太陽病,頭痛發熱,身疼腰痛,骨節疼痛,惡風,無汗而喘者","發汗後,飲水多必喘,以水灌之亦喘","傷寒,心下有水氣,乾嘔,發熱而欬,或喘者,小青龍湯去麻黃加杏仁主之",是欲發散水寒也.

상한의 천(喘)은, 사기(邪氣)가 겉에 있어 기운이 순조롭지 못하여 천이 생기는 경우, 수기(水氣)의 기운이 폐(肺)를 압박하여 천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각기 다르다. "평소 천(喘)이 있는 사람이 발작 하였을 때 계지가후박행자탕(桂枝加厚朴杏仁湯)을 쓴다.", "태양병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몸이 쭉시고 허리가 아프며 뼈마디가 쭉시고 아프며 오풍이 들고 땀이 나지 않으며 천(喘)이 있는 경우", "발한을 시킨 뒤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천(喘)이 생긴다. 물을 뿌려주어도 천(喘)이 생긴다.", "상한에 심하(心下)에 수기(水氣)가 있고 헛구역질을 하며 열이 나고 해(欬)가 있을 때, 천(喘)이 있다면 소청룡탕(小青龍湯)에서 마황(麻黃)을 빼고 행인(杏仁)을 더하여 치료한다." 이것은 수(水)와 한(寒)을 발산시키려는 것이다.

經曰,"喘而汗出者,與葛根黃芩黃連湯以利之","汗出而喘者,與麻黃杏子甘草石膏湯以發之".二者如何而然也.且邪氣內攻,氣逆不利而喘者,因喘而汗出,見其邪氣在裏也,雖表未解,未可和之.若邪氣外盛壅遏,使氣不利而喘者,雖汗而喘不已,見其邪氣

在表也,雖經汗下,亦可發之.此亦古人之奧義.

경문에서 말하였다. "천(喘)이 있고 땀이 날 때는 갈근황금황련탕(葛根黃芩黃連湯)으로 하리시킨다", "땀이 나고 천(喘)이 있을 때는 마황행인감초석고탕(麻黃杏仁甘草石膏湯)으로 발산시킨다." 이 두 가지는 어째서 그러한가. 사기가 안에서 공격하면 기운이 거슬러 올라 순조롭지 못하여 천(喘)이 생긴다. 이때 천(喘)이 있고 땀이 나는 것으로 사기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아직 표증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해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사기가 밖에서 왕성하여 응체되고 막히면 기운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어 천(喘)이 생긴다. 이때 땀이 나더라도 천(喘)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사기가 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비록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라도 발산시켜야 한다. 이 역시 고인들의 심오한 뜻이다.

傷寒止於邪氣在表而喘者,心腹必濡而不堅,設或腹滿而喘,則又爲可下之證.經曰,"短氣,腹滿而喘,有潮熱者,此外欲解,可攻裏也",爲因滿脹而喘矣.又或邪氣內盛,正氣欲脫,氣壅上逆,亦主喘也.經曰,"直視譫語喘滿者,死",又"汗出髮潤,喘不休者,此爲肺絕", "身汗如油,喘而不休,此爲命絕",皆爲不治之喘也.省疾問病,更宜消息.

상한에 단지 사기(邪氣)가 겉에 있어 천(喘)이 있는 경우는 심복(心腹)이 부드럽고 단단하지 않다. 그런데 만약 복만(腹滿)과 함께 천(喘)이 있다면 하법을 써야 하는 증후이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단기(短氣)와 복만(腹滿)이 있으면서 천(喘)이 있을 때 조열(潮熱)이 있다면 겉이 풀리려는 것이니 속을 공하시켜야 한다." 이것은 배가 창만하여 천(喘)이 생긴 경우이다. 또 사기(邪氣)가 안에서 왕성하고 정기(正氣)가 모두 빠져나가려 할 때, 응체된 기운이 위로 거슬러 오르는 경우도 천(喘)이 생긴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눈을 곧추 뜨고 섬어(譫語)와 천만(喘滿)이 있으면 죽는다.", "땀이 나서 터럭이 축축하고 천(喘)이 멈추지 않는 것은 폐절(肺絕)이다.", "몸에서 기름 같은 땀이 나고 천(喘)이 멈추지 않는 것은 명절(命絕)이다." 이들은 모두 치료할 수 없는 천(喘)의 증상이다. 질병을 살피고 증상을 물어서 더욱 잘 살펴야 한다.



## 嘔吐 第二十七 27 구토

傷寒嘔吐,何以明之.嘔者有聲者也,俗謂之哕,吐者吐出其物也,故有乾嘔,而無乾吐.是以於嘔則曰食穀欲嘔,及吐則曰飲食入口卽吐.則嘔吐之有輕重可知矣.

상한의 구토(嘔吐)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구(嘔)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헛구역질(哕)이라고 하는 것이고, 토(吐)는 구토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구(乾嘔)"라고는 하지만 "건토(乾吐)"라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嘔)에 대해서는 음식을 먹을 때 구(嘔)한다고 하고, 토(吐)에 대해서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토(吐)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구토에 경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傷寒嘔,有責於熱者,有責於寒者,至於吐家,則悉言虛冷也.經曰,"太陰之爲病,腹滿而吐,食不下,自利益甚,時腹自痛",又曰,"胃中虛冷,故吐也".嘔家則不然,嘔有熱者,有寒者,有停飲者,有胃脘有膿者,皆當明辨之."嘔而發熱者,柴胡湯證具",與"其嘔不止,心下急,鬱鬱微煩,大柴胡湯主之"者,是邪熱爲嘔者也."膈上有寒飲,乾嘔者,不可吐也,當溫之",與"其乾嘔吐涎沫,頭痛者,吳茱萸湯主之",是寒邪爲嘔者也."先嘔後渴者,此爲欲解,先渴後嘔者,爲水停心下,此屬飲家",是停飲嘔者."嘔家有癰膿,不須治,膿盡自愈",是胃脘有膿而嘔也.

상한의 구(嘔)는 열(熱) 때문인 것과 한(寒) 때문인 것이 있지만, 토(吐)의 경우에는 모두 허랭(虛冷)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문에서 "태음에 병이 들면 배가 그득하고 토하며,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설사가 더욱 심해지며 때때로 배가 아프다."라고 하였고, 또 "위 속이 허하고 서늘하므로 토한다."라고 하였다. 구(嘔)는 그렇지 않아서 열사(熱邪)로 인한 경우, 한사(寒邪)로 인한 경우, 음(飮)이 정체된 경우, 위완(胃脘)에 고름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두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구(嘔)가 있고 발열이 나는 것은 소시호탕(小柴胡湯)의 증상이 갖추어진 경우이다.", "구(嘔)가 멈추지 않고 심하(心下)가 당기며 조금 번(煩)이 있어 답답할 때는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

열(邪熱)로 구(嘔)가 생긴 것이다. "흉격 위에 한음(寒飲)이 있어 헛구역질 할 때는 구토시켜서는 안 되고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헛구역질을 하고 거품 섞인 침을 토하며 머리가 아플 때는 오수유탕(吳茱萸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한사(寒邪)로 구(嘔)가 생긴 것이다. "먼저 구(嘔)가 있는 뒤에 갈증이 생긴 것은 병이 풀리려는 것이다. 먼저 갈증이 있다가 뒤에 구가 생긴 것은 수(水)가 심하(心下)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 평소 음(飲)이 있어 생긴 병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음(飲)이 정체되어 구(嘔)가 생긴 것이다. "구(嘔)가 있는 환자에게 옹저로 고름이 차 있으면 반드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고름이 사라지면 저절로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위완(胃脘)에 고름이 있어서 구(嘔)가 생긴 것이다.

諸如此者,雖有殊別,大抵傷寒表邪欲傳裏,裏氣上逆,則爲嘔也,是以半表半裏證,多云嘔也."傷寒三日,三陽爲盡,三陰當受邪,其人反能食而不嘔,此爲三陰不受邪",是知邪氣傳裏者,必致嘔也.至於"乾薑附子湯證云,不嘔不渴",爲裏無熱,十棗湯證云,"乾嘔短氣,汗出不惡寒"者,此表解裏未和也.卽此觀之,其嘔爲裏熱明矣.

이와 같은 것들은 비록 차이가 있지만 대개 상한에서 걸의 사기가 속으로 전경 되려고 할 때 이기(裏氣)가 거슬러 오르면 구(嘔)가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반표반리의 증상에 구(嘔)를 많이 언급되었다. "상한 3일에 삼양(三陽)을 모두 거치면 삼음(三陰)이 병사(病邪)를 받게 된다. 그런 환자가 도리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구(嘔)가 없는 것은 삼음(三陰)이 병사를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사기(邪氣)가 속으로 전경되면 반드시 구(嘔)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부자탕(乾薑附子湯)이 치료하는 증상에서 "구(嘔)도 없고 갈증도 없다."라고 한 것은 속에 열이 없다는 것이고, 십조탕(十棗湯)이 치료하는 증상에서 "헛구역질과 단기(短氣)가 있고 땀이 나며 오한이 든다."라고 한 것은 표증은 풀렸으나 이증(裏證)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이를 보면, 구(嘔)는 속의 열(熱)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嘔家之爲病,氣逆者必散之,痰飲者必下之.千金曰,"嘔家多服生薑,此是嘔家聖藥",是要散其逆氣也.金匱要略曰,"嘔家用半夏以去其水,水去嘔則止",是要下其痰飲也."嘔多,雖有陽明證,不可攻"者,謂其氣逆而未收斂爲實也."其嘔而脈弱,小便復利,身有微熱,見厥者,已爲難治",蓋謂其虛寒之甚也.醫者,必審其邪氣之虛實,疾證之逆順,爲施藥丸,治則當矣.

평소 구(嘔)가 있는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기운이 거슬러 올라간 경우(氣逆)에는 반드시 흠어주고, 담음(痰飲) 때문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려 보내야 한다. 《천금방》에서 "평소 구(嘔)가 있는 사람은 생강(生薑)을 많이 복용한다. 이것은 구(嘔)에 사용하는 성약(聖藥)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거스르는 기운을 흠어주는데 요점이 있다. 《금궤요략》에서 "평소 구(嘔)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하를 써서 수(水)를 제거한다. 수가 제거되면 구(嘔)가 멈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담음을 내려 보내는 데에 요점이 있다. "구(嘔)가 많을 때는 비록 양명증이 있다 해도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기운이 거슬러 올라 수렴되지 못하여 실증(實證)이 된 경우를 말한다. "구(嘔)가 있고 맥이 약(弱)하며 소변이 다시 잘 나오고 몸에 조금 열이 있으며 꺄(厥)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허한(虛寒)이 심한 경우이다. 의원은 반드시 사기(邪氣)의 허실과 증상의 역순(逆順)을 살펴서 약을 써야한다. 그렇게 치료하면 합당할 것이다.

## 悸 第二十八 28 계

傷寒悸者,何以明之.悸者心忪是也,築築踢踢然動,怔忡忪忪,不能自安者是矣.悸之由,不越二種,一者氣虛也,二者停飲也."傷寒二三日,心中悸而煩者,小建中湯主之","少陰病,四逆,其人或悸者,四逆散加桂五分",是氣虛而悸者也."飲水多,必心下悸",是停飲而悸者也.其氣虛者,由陽氣內弱,心下空虛,正氣內動而爲悸也.其停飲者,由水停心下,心爲火而惡水,水既內停,心不自安,則爲悸也.

상한의 계(悸)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계(悸)는 가슴이 뛰는 것으로, 두근두근 쿵쿵쿵쿵 뛰고 두렵고 당황스러워 편안하지 못한 상태이다. 계(悸)의 원인은 두 가지에 지나지 않으니, 첫째는 기허(氣虛)이고 둘째는 정음(停飲)이다. "상한 2-3일에 가슴 속에 계(悸)와 번(煩)이 있을 때는 소건중탕(小建中湯)으로 치료한다.", "소음병에 사역증(四逆證)이 있을 때, 그 환자에게 계(悸)가 있다면 사역산(四逆散)에 계지(桂)를 5푼 더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기허(氣虛)로 계(悸)가 생긴 경우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반드시 심하(心下)에 계(悸)가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정음(停飲)으로 계가 생긴 경우이다. 기허로 인한 경우는, 양기가 안에서 약하고 심하(心下)가 공허하여, 정기(正氣)가 안에서 요동쳐 계(悸)가 된 것이다. 정음으로 인한 경우는, 수(水)가 심하에 정체되면 화(火)에 해당하는 심(心)이 수(水)를 싫어하므로, 이미 안에서 정체된 수 때문에 심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계(悸)가 생긴다.

又有汗下之後,正氣內虛,邪氣交擊,而令悸者,與氣虛而悸者,則又甚焉."太陽病,發汗過多,其人叉手自冒心,心下悸","太陽病,若下之,身重,心下悸者,不可發汗","少陽病,不可吐下,吐下則悸而驚","少陽病,不可發汗,發汗則譫語,此屬胃,胃和則愈,胃不和則煩而悸".是數者,皆汗後協邪者,與其氣虛而悸者,有以異也.或鎮固,或化散之,皆須定其氣浮也.



또 한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정기(正氣)가 안에서 허해져서 사기(邪氣)가 들어와 공격하여 계(悸)가 생긴 경우가 있다. 이것은 기허(氣虛)로 계(悸)가 생긴 경우에 비해 더 심하다. "태양병에 지나치게 발한 시켜 환자가 손을 교차해 가슴을 감싸고 심하(心下)에 계(悸)가 있는 경우", "태양병에 하법을 쓴 뒤에 몸이 무겁고 심하(心下)에 계가 있을 때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소양병에는 토법과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쓰게 되면 계(悸)와 경(驚)이 생긴다.", "소양병에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발한시키면 섬어(讖語)가 생긴다. 이것은 위(胃)에 속하므로 위(胃)가 조화로우면 낫고, 조화롭지 않으면 번(煩)과 계(悸)가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 몇 가지는 모두 땀을 낸 뒤에 사기(邪氣)가 끼어든 것으로, 기허(氣虛)로 계(悸)가 생긴 것과는 다르다. 진정시켜 주거나 흠어주거나 하는데, 모두 기(氣)가 떠오르는 것을 안정시켜야하기 때문이다.

又飲水過多,水飲不爲宣布,留心下,甚者則悸.金匱要略曰,"食少飲多,水停心下,甚者則悸".飲之爲悸,甚於他邪,雖有餘邪,必先治悸.何者,以水停心下,若水氣散,則無所不之,浸於肺則爲喘爲欬,傳於胃則爲噦爲噎,溢於皮膚則爲腫,漬於腸間則爲利下,不可緩之也.經曰,"厥而心下悸,宜先治水,與茯苓甘草湯,後治其厥,不爾,水漬於胃,必作利也".厥爲邪之深者,猶先治水,況其邪氣淺者乎,醫者可不深究之.

또 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 수음(水飲)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심하(心下)에 머물러 심하게 되면 계(悸)가 생긴다. 《금궤요략》에서 "적게 먹고 많이 마시면 수(水)가 심하(心下)에 머무르게 되고 심하면 계(悸)가 생긴다."라고 하였다. 음(飲)으로 생긴 계(悸)는 다른 사기(邪氣)보다 심하다. 비록 다른 사기가 있더라도 반드시 먼저 계(悸)를 치료해야 한다. 어째서인가. 수(水)가 심하에 머물렀을 때 만약 수기(水氣)가 흠어지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폐(肺)에 침입하면 천(喘)과 해(欬)가 되고, 위(胃)로 전해지면 열(噦)이나 열(噎)이 되며, 피부로 흘러넘치면 붓고, 장(腸) 사이로 흘러들면 설사하게 된다. 느긋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궤(厥)과 심하(心下)의 계(悸)가 함께 있을 때 먼저 수(水)를 치료해야 하므로 복령감초탕(茯苓甘草湯)을 주고 그런 뒤에 궤(厥)을 치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水)가 위(胃)로 스며들어 반드시 하리(下

利)가 생긴다." 궤(厥)은 사기가 깊은 경우인데 오히려 수(水)를 먼저 치료하였다. 하물며 사기가 얇은 경우에는 어떠하겠는가. 의원이 깊이 궁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渴 第二十九 29 갈

傷寒渴者,何以明之.渴者,裏有熱也.傷寒之邪,自表傳至裏,則必有名證,隨其邪淺深而見焉.雖曰"一日在皮,二日在膚,三日在肌,四日在胸,五日在腹,六日入胃",其傳經者,又有證形焉.太陽主氣,而先受邪,當一二日發,頭項痛而腰脊强者是矣.太陽傳陽明,則二三日發,身熱目疼,鼻乾不得臥也.陽明傳少陽,則三四日發,胸脇痛而耳聾.此三陽皆受病,爲邪在表,而猶未作熱,故不言渴.至四五日,少陽傳太陰經,邪氣漸入裏,寒邪漸成熟,當是時也,津液耗少,故腹滿而噎乾.至五六日,太陰傳少陰,是裏熱又漸深也,當此之時,則津液爲熱所搏,漸耗而乾,故口燥舌乾而渴.及至六七日,則少陰之邪,傳於厥陰,"厥陰之爲病,消渴",爲裏熱已極矣.所謂消渴者,飲水多而小便少者是矣,謂其熱能消水也.所以傷寒病至六七日,而渴欲飲水,爲欲愈之病,以其傳經盡故也,是以厥陰病云,"渴欲飲水,少少與之,愈"者是也.

상한의 갈증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갈증은 속에 열이 있는 것이다. 상한의 병사(病邪)가 겉에서 속으로 전경되면 반드시 명칭과 증상이 있으니 사기(邪氣)의 깊이에 따라서 나타난다. 비록 "상한 1일에는 병사(病邪)가 피(皮)에 있고, 2일에는 부(膚)에 있으며, 3일에는 기(肌)에 있고, 4일에는 가슴에 있으며, 5일에는 배에 있고, 6일에는 위(胃)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으나, 전경(傳經)이 되면 증상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태양은 기(氣)를 주관하여 먼저 사기(邪氣)를 받으므로 1 - 2일에 발생하며 머리와 뒷덜미가 아프고 허리와 척추가 뻣뻣한 것이 그것이다. 태양에서 양명으로 전경이 되면 2 - 3일에 발생하며 몸에서 열이 나고 눈이 아프며 코가 건조하고 눅지 못한다. 양명에서 소양으로 전경이 되면 3 - 4일에 발생하며 가슴과 옆구리가 아프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태양·양명·소양 모두 병을 얻으면 사기가 겉에 있어서 아직은 열이 나지 않으므로 갈증을 언급하지 않았다. 4 - 5일에 소양에서 태음으로 전경이 되어 사기(邪氣)가 점차 속으로 들어가면 한사(寒邪)가 점차 열이 된다. 이때에 진액이 조금 소모되므로 배가 아프고 목구멍이 마른다. 5 - 6일에 태음

에서 소음으로 전경이 되면 이열(裏熱)이 더욱 점차 깊어진다. 이때 진액이 열에 의해 빼앗겨지면 점차 소모되어 건조해지므로 입과 혀가 마르고 갈증이 난다. 6 - 7일에는 소음의 사기(邪氣)가 꺾음으로 전경되는데, "꺾음에 병이 들면 소갈(消渴)이 생기"는 것은 이열(裏熱)이 이미 지극하기 때문이다. 소갈(消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많이 마시지만 소변을 적게 보는 것으로, 전경이 되어 생겨난 열(熱)이 수(水)를 소모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상한을 얻은 지 6 - 7일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이 병이 나으려는 경우인 까닭은 전경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꺾음병에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조금씩 마시게 하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邪氣初傳入裏,熱氣散漫未收斂,成熱熏蒸焦膈,搏耗津液,遂成渴也.病人雖渴,欲得飲水,又不可多與之,若飲水過多,熱少不能消,故復爲停飲諸疾.經曰,"凡得時氣病至五六日,而渴欲飲水,飲不能多,勿多與也,何者,以腹中熱尚少,不能消之,使更與人作病也,若大渴欲飲水,猶當依證與之,與之常令不足,勿極意也,言能飲一斗,與五升",又曰"渴欲飲水,少少與之,但以法救之,渴者宜五苓散", "至於大渴欲飲水數升者,白虎湯加人參湯主之",皆欲潤其燥而生津液也.

사기(邪氣)가 처음 전경되어 속으로 들어가면 열기(熱氣)가 사방으로 퍼져 수렴되지 못하다가, 열을 이루어 흉격(胸膈)을 훈증시켜서 진액을 말리고 소모시키면 마침내 갈증이 생긴다. 병자가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하더라도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물을 지나치게 마시면 적은 열로 소화시킬 수 없어서 도리어 정체된 음(飲)으로 갖은 질병이 생긴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시기병(時氣病)을 얻은 지 5 - 6일이 되어,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 할 때 많이 마실 수 없으니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 어째서인가. 배 속에는 열이 오히려 적어 물을 소화시킬 수 없어서 환자에게 다른 병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만약 심한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 하면 증상에 따라 주어야만 하며, 항상 부족하게 주어서 만족시켜서는 안 된다. 1말을 마실 수 있다고 말하면 5되만 준다.",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조금씩 주고 적당한 방법에 따라서 치료한다. 갈증에는

오령산(五苓散)을 쓴다.", "갈증이 심해 여러 되의 물을 마시려고 할 때는 백호가인삼탕(白虎湯加人參湯)으로 치료한다." 이들은 모두 마른 것을 적셔서 진액이 생겨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凡得病反能飲水,此爲欲愈之病.其不曉病者,但聞病飲水自差,小渴者乃強與飲之,因成大禍,不可復救.然則悸動也,支結也,喘咳噎噦,乾嘔腫滿,下利小便不利,數者皆是飲水過傷,而診病之工,當須識此,勿令誤也.

병이 생겼을 때 도리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병이 나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병에 밝지 못한 자가, 물을 마시면 나으려는 것이라는 말만 듣고 갈증이 조금 있을 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하면 이로 인해 큰 화가 생겨 다시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계(悸)、동(動)、지(支)、결(結)、천(喘)、해(咳)、열(噎)、얼(噦)、건구(乾嘔)、종만(腫滿)、하리(下利)、소변불리(小便不利) 등은 모두 마신 물이 지나쳐 손상된 것이다. 병을 진찰하는 의원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 振 第三十 30 진

傷寒振者,何以明之.振者,森然若寒,聳然振動者是也.傷寒振者,皆責其虛寒也.至於欲汗之時,其人必虛,必蒸蒸而振,却發熱汗出而解.振近戰也,而輕者爲振矣.戰爲正與邪爭,爭則爲鼓慄而戰,振但虛而不至爭,故止聳動而振也."下後,復發汗,振寒"者,謂其表裏俱虛也,"亡血家,發汗,則寒慄而振"者,謂其血氣俱虛也.諸如此者,止於振聳爾.

상한의 진(振)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진(振)은 추울 때처럼 쭈뼛하면서 바르르 떨리는 것이다. 상한의 진(振)은 모두 허한(虛寒) 때문이다. 땀이 나려고 할 때에는 환자가 분명 허(虛)하므로 반드시 후끈하면서 떨리고(振) 그런 뒤에 열이 나고 땀이 난 다음 풀리게 된다. 진(振)은 전(戰)과 비슷하나 진(振)이 더 가볍다. 전(戰)은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다투기 때문인데, 다투면 벌벌 떨게 된다. 진(振)은 정기가 허하기만 하고 사기와 다투지는 않으므로 단지 바르르 떨리기만 한다. "하법을 쓴 뒤에 다시 발한시켜서 진(振)이 생기고 추운 것"은 겉과 속이 모두 허한 경우를 말하였고, "망혈(亡血)에 발한시켜서 추위로 울(慄)과 진(振)이 생기는 것"은 기와 혈이 모두 허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모두 바르르 떨리는 진(振)이다.

其振振欲擗地者,有身爲振振搖者,二者皆發汗過多,亡陽經虛,不能自主持,故身爲振搖也,又非若振慄之比.經曰,"若吐若下後,心下逆滿,氣上衝胸,起則頭眩,發汗則動經,身爲振振搖者,茯苓桂枝白朮甘草湯主之","太陽病,發汗不解,其人仍發熱,心下悸,頭眩身瞤動,振振欲擗地者,真武湯主之".二湯者,皆溫經益陽,滋血助氣之劑,經虛陽弱得之,未有不獲全濟之功者.

"덜덜 떨면서 땅에 넘어지려고 하는 것"과 "몸이 덜덜 떨리고 흔들리는 것" 두 가지는 모두 지나치게 발한시켜서 망양(亡陽)이 되고 경맥(經脈)이 허하여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몸이 떨리고 흔들리는 것이다. 이것은 진율(振慄)과 견줄 것이 아니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토법이나 하법을 쓴

뒤에 심하(心下)가 치밀며 그득하고, 기운이 가슴으로 치받으며, 일어서면 머리가 어지럽고, 땀을 내면 경맥을 동요시켜 몸이 덜덜 떨리고 흔들릴 때는 복령계지백출감초탕(茯苓桂枝白朮甘草湯)으로 치료한다.", "태양병에 땀을 내도 풀리지 않고, 환자에게 여전히 열이 나고 심하(心下)에 계(悸)가 있으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푸들거리며 덜덜 떨면서 땅에 넘어지려고 할 때는 진무탕(眞武湯)으로 치료한다." 두 가지 처방은 모두 경(經)을 따뜻하게 하고 양(陽)을 더하며, 혈(血)을 자양하고 기(氣)를 돕는 처방이다. 경맥(經脈)이 허하고 양기(陽氣)가 약할 때 투약하면 모두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



## 戰慄 第三十一 31 전을

傷寒戰慄,何以明之.戰慄者,形相類而實非一也,合而言之,戰慄非二也,析而分之,有內外之別焉.戰者身爲之戰搖者是也,慄者心戰是也.戰之與慄,內外之診也.昧者通以爲戰慄也,通爲戰慄,而不知有逆順之殊.經曰,"胃無穀氣,脾瀉不通,口急不能言,戰而慄者",卽此觀之,戰之與慄,豈不異哉.

상한의 전(戰)과 울(慄)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전(戰)과 울(慄)은 형상이 서로 비슷하나 사실은 다르다. 합하여 말하면 전과 울은 두 가지가 아니지만, 나누어 구분하면 안팎의 차이가 있다. 전(戰)은 몸이 떨리는 것이고 울(慄)은 마음이 떨리는 것이다. 전과 울로 안과 밖을 진단한다. 이치에 어두운 이는 뭉뚱그려 전을(戰慄)이라고 하는데, 뭉뚱그려 전을(戰慄)이라고 하고 역순(逆順)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위(胃)에 곡기(穀氣)가 없으면 비기(脾氣)가 막혀 통하지 못하여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하며 전(戰)과 울(慄)이 생긴다." 이를 보면 전과 울이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戰之與振,振輕而戰重也,戰之與慄,戰外而慄內也.戰慄者,皆陰陽之爭也.傷寒欲解,將汗之時,正氣內實,邪不能與之爭,則便汗出而不發戰也,邪氣欲出,其人本虛,邪與正爭,微者爲振,甚者則戰,戰退正勝而解矣.經曰,"病有戰而汗出,因得解者何也,其人本虛,是以發戰者"是也.

전(戰)과 진(振)을 비교하면 진이 경증이고 전이 중증이다. 전(戰)과 울(慄)을 비교하면 전은 외증이고 울은 내증이다. 전과 울은 모두 음양이 다투는 것이다. 상한이 풀리려고 하여 땀이 나려고 할 때 정기(正氣)가 안에서 충실하면 사기(邪氣)가 이와 다퉴 수 없으므로 곧 땀이 나면서 전(戰)이 생기지 않는다. 사기(邪氣)가 나가려고 할 때 환자가 본디 허약하면 사기와 정기가 다투는데, 가벼우면 진(振)이 생기고 심하면 전(戰)이 생긴다. 전(戰)이 물러나고 정기가 이



기면 병이 풀린다. 경문에서 "병에 전(戰)이 있다가 땀이 나고 나서 병이 풀리는 것은 어째서인가. 병자가 본래 허약하여 이 때문에 전(戰)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한 경우이다.

邪氣外與正氣爭則爲戰,戰其愈者也,邪氣內與正氣爭則爲慄,慄爲甚者也.經曰,"陰中於邪,必內慄也,表氣微虛,裏氣不守,故使邪中於陰也",方其裏氣不守,而爲邪中於正氣,正氣怯弱,故成慄也.戰者正氣勝,慄者邪氣勝也.

사기(邪氣)가 밖에서 정기(正氣)와 다투면 전(戰)이 생기는데 나으려는 경우이고, 사기(邪氣)가 안에서 정기(正氣)와 다투면 울(慄)이 생기는데 심한 경우이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음분(陰分)에 사기(邪氣)가 적중되면 반드시 안에서 울(慄)이 생긴다. 표기(表氣)가 조금 허하고 이기(裏氣)가 지키지 못하므로 사기가 음분에 적중된 것이다." 바로 이기(裏氣)가 지키지 못하여 사기가 정기(正氣)에 적중되고, 정기가 유약한 까닭에 울(慄)이 된다. 전(戰)은 정기(正氣)가 이긴 것이고 울(慄)은 사기(邪氣)가 이긴 것이다.

傷寒六七日,欲解之時,當戰而汗出,其有但心慄而鼓頤,身不戰者,已而遂成寒逆.似此證多不得解,何者.以陰氣內盛,正氣太虛,不能勝邪,反爲邪所勝也.非大熱劑,與其灼艾,又焉得而禦之.

상한이 든 지 6 - 7일 쯤 나으려는 때에 전(戰)이 있으면서 땀이 나야 하는데, 심(心)에 울(慄)이 생겨 턱을 부딪칠 뿐 몸에 전(戰)이 없는 경우는 이미 한역(寒逆)이 된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대개 낫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음기(陰氣)가 안에서 성하데 정기(正氣)가 매우 허하여 사기(邪氣)를 이길 수 없고 도리어 사기에게 굴복한 것이다. 매우 뜨거운 성질의 처방이나 뜸법이 아니면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는가.

## 四逆 第三十二 32 사역

傷寒四逆,何以明之.四逆者,四肢逆而不溫者是也.積涼成寒,積溫成熱,非一朝一夕之故,其所由來者漸矣.傷寒始者邪在皮膚,當太陽陽明受邪之時,則一身手足盡熱,當少陰太陰受邪之時,則手足自溫,是表邪漸緩而欲傳裏也.經曰,"傷寒四五日,手足溫而渴者,小柴胡湯主之",是太陽之邪,傳之少陽也."傷寒,脈浮,手足自溫"者,是爲繫在太陰,是少陽邪傳於太陰也,是知邪氣在半表半裏,則手足不熱而自溫也.

상한의 사역(四逆)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사역(四逆)은 팔다리가 거스르면서 따뜻하지 않은 것이다. 서늘한 기운이 쌓여 한(寒)이 되고 따뜻한 기운이 쌓여 열(熱)이 되는 것은 하루 밤낮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므로 점차 그렇게 된 것이다. 상한은 처음에 사기(邪氣)가 피부에 있다가 태양과 양명이 사기를 받는 때가 되면 온몸과 팔다리에서 모두 열이 나고, 소음과 태음이 사기를 받는 때가 되면 손과 발이 저절로 따뜻하게 된다. 이것은 겉의 사기가 점차 풀어지고 속으로 전경되고자 하는 것이다. 경문에서 "상한 4 - 5일에 손발이 따뜻하고 갈증이 있을 때는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태양의 사기가 소양으로 전경된 경우이다. "상한에 맥이 부(浮)하고 손발이 따뜻한 것은 태음과 관련된 증상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소양의 사기가 태음으로 전경된 경우이다. 이로써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으면 손과 발에서 열이 나지 않고 따뜻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至於邪傳少陰,爲裏證已深,雖未至厥,而手足又加之不溫,是四逆也.若至厥陰,則手足厥冷矣.經曰,"少陰病,四逆,其人或欬或悸,或小便不利,或腹中痛,或泄利下重者,四逆散主之".方用柴胡、枳實、芍藥、甘草,四者皆是寒冷之物,而專主四逆之疾,是知四逆非虛寒之證也.又有四逆諸湯,亦治四逆手足寒,方用乾薑、附子熱藥者,厥有旨哉.若手足自熱而至溫,從四逆而至厥者,傳經之邪也,四逆散主之.若始得之手足便厥而不溫者,是陰經受邪,陽氣不足,可用四逆湯溫之.大須識此,勿令誤也.

사기가 소음으로 전경되면 이증(裏證)이 이미 심해져 아직 궤(厥)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발이 더욱 따뜻하지 않게 되니, 이것이 사역(四逆)이다. 사기가 궤음(厥陰)에 이르게 되면 손과 발이 궤증으로 싸늘해진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소음병에 사역(四逆)이 있는데, 환자가 해(欸)나 계(悸)가 있거나,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배 속이 아프거나, 설사를 하고 뒤가 무거울 때는 사역산(四逆散)으로 치료한다." 사역산에 사용된 시호(柴胡)·지실(枳實)·작약(芍藥)·감초(甘草) 네 가지는 모두 차가운 성질의 약재이나 오로지 사역의 증상을 치료한다. 이로써 사역이 허한(虛寒)의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역탕(四逆湯) 역시 사역(四逆)으로 손발이 차가운 것을 치료한다. 처방에 사용된 건강(乾薑)·부자(附子)는 뜨거운 성질의 약으로 궤(厥)을 목적으로 한다. 만약 손과 발에서 열이 나다가 따뜻해졌거나 사역(四逆)의 증상이 궤(厥)로 변하는 것은 전경된 사기(邪氣) 때문이니 사역산(四逆散)으로 치료한다. 만약 처음부터 손발이 궤(厥)이 있어 따뜻하지 않는 것은 음경(陰經)이 사기를 받아 양기(陽氣)가 부족한 것이니 사역탕(四逆湯)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를 반드시 알아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四逆與厥相近而非也。經曰，"諸四逆厥者，不可下"，是四逆與厥有異也。

사역(四逆)과 궤(厥)은 서로 유사하지만 다르다. 경문에서 "모든 사역(四逆)과 궤(厥)은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으니 사역과 궤는 다르다.

"吐利煩躁，見四逆者，死"，是惡見其四逆也。診視之間，熟詳究之。

"구토하고 설사하며 번조(煩躁)가 있을 때 사역(四逆)이 나타나면 죽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역(四逆)이 나타나서 좋지 않은 경우이다. 병을 살필 때 면밀하고 자세하게 이것을 살펴야 한다.

## 厥 第三十三 33 厥

傷寒厥者,何以明之.厥者冷也,甚於四逆也.經曰,"厥者陰陽氣不相順接,便爲厥,厥者手足逆冷是也",謂陽氣內陷,熱氣逆伏,而手足爲之冷也.經曰,"傷寒一二日至四五日,厥者必發熱,前熱者後必厥,厥深者熱亦深,厥微者熱亦微",是知內陷者,手足爲厥矣."少陰病,但厥無汗,而強發之,必動其血,未知從何道出,或從口鼻,或從目出,是名下厥上竭",亦是言發動其熱也.

상한의 厥(厥)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厥(厥)은 차가운 것으로 사역(四逆)보다 심하다. 경문에서 "厥(厥)은, 음기와 양기가 서로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아서 厥이 된다. 厥은 손발이 말단부터 차가운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기(陽氣)가 무너져 내리고, 열기가 거슬러 잠복하여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것을 말한다. 경문에서 "상한 1 - 2일에서 4 - 5일에 厥(厥)이 있으면 반드시 열이 난다. 먼저 열이 있으면 다음에 분명 厥(厥)이 생긴다. 厥(厥)이 심하면 열도 심하고, 厥이 약하면 열도 약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에서 양기가 무너져 내리면 손발에 厥(厥)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음병에 厥(厥)만 있고 땀이 나지 않는데 억지로 발한시키면 반드시 혈(血)을 동요시켜 어디를 따라 나갈지 알 수 없게 된다. 입이나 코를 따라 나가거나 눈을 따라 나가기도 한다. 이것을 '하厥상갈(下厥上竭)'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 또한 열(熱)을 동요시킨다는 점을 말하였다.

先熱而後厥<sup>1</sup>者,熱伏於內也.先厥而後熱者,陰退而陽氣得復也.若始得之便厥者,則是陽氣不足,而陰氣勝也.

먼저 열(熱)이 난 후에 厥(厥)이 생긴 것은 열(熱)이 안에 잠복해 있는 경우이고, 먼저 厥(厥)이 생긴 후에 열(熱)이 나는 것은 음(陰)이 물러나고 양기(陽氣)가 회복된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厥(厥)만 있는 것은 양기(陽氣)가 부족하고 음기(陰氣)가 왕성한 것이다.

大抵厥逆爲陰所主,寒者多矣,而又有進退之別.經曰,"病厥五日,熱亦五日,設六日當復厥,不厥者自愈","發熱四日,厥反三日,復<sup>2</sup>厥四日,厥少熱多,其病自愈","厥四日,熱反三日,復厥五日,其病爲進,寒多熱少,陽氣退,故爲進也".病至厥陰,傳經盡也.當是之時,陽氣勝陰,厥少熱多,其病則愈.若或陰氣反勝,陽不得復,厥多熱少,其病則逆.厥爲陰氣至也,熱爲陽氣復也.至於下利,則曰"先厥後發熱,而利必自止,見厥復利".厥者復爲熱,爲陽氣得復,而利必自止,熱者便爲厥,是陰氣還勝也,故復下利矣.

궤역(厥逆)은 음(陰)이 주관하는 것으로 한(寒)이 많다. 그러나 병이 깊어지고 가벼워지는 차이가 있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병에 궤(厥)이 5일 동안 있고 열(熱)도 5일 동안 있으면 6일째 다시 궤가 나타나야 하지만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절로 낫게 된다.", "열이 4일 동안 나고, 궤가 반대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열이 4일 동안 나는 것은 궤가 적고 열이 많은 것이니 병이 절로 낫게 된다.", "궤가 4일 동안 있다가, 열이 반대로 3일 동안 나고, 다시 궤가 5일 동안 있으면 병이 깊어지는 것이다. 한(寒)이 많고 열이 적은 것으로 양기가 물러나기 때문에 병이 깊어진다." 병이 궤음에 이르면 모두 전경된 것이다. 이때가 되어 양기(陽氣)가 음기(陰氣)를 억눌러 궤(厥)이 적고 열(熱)이 많아지면 병이 낫는다. 만약 음기가 도리어 왕성하고 양기가 회복되지 못하여 궤(厥)이 많고 열(熱)이 적으면 역증(逆證)이 된다. 궤(厥)은 음기(陰氣)가 지극한 것이고, 열(熱)은 양기(陽氣)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리(下利)의 경우에, "먼저 궤(厥)이 있다가 뒤에 열이 나면 하리(下利)가 반드시 절로 그친다. 궤가 나타나면 다시 하리가 생긴다."라고 하였다. 궤(厥)이 있다가 다시 열(熱)이 나는 것은 양기(陽氣)가 회복된 경우이므로 하리가 저절로 그치게 되고, 열(熱)이 곧 궤(厥)이 되면 음기(陰氣)가 도로 왕성해진 경우이므로 다시 하리(下利)가 생긴다.

諸陽受氣於胸中,邪氣客於胸中,鬱鬱留結,則陽氣不得敷布,而手足爲之厥.經曰,"手足厥冷,脈乍緊,邪結在胸中,心中滿而煩,飢不能食,病在胸中,當吐之者"是矣.

모든 양(陽)은 가슴 속에서 기운을 받으므로 사기(邪氣)가 가슴 속에 침입하여 답답하게 머물러 맏히면 양기(陽氣)가 퍼져나가지 못해 손발에 결(厥)이 생긴다. 경문에서 "손발에 결냉(厥冷)이 있고 맥(脈)이 잠깐씩 긴(緊)한 것은 사기(邪氣)가 가슴 속에 맏힌 것이다. 가슴 속이 그득하고 번(煩)이 있으며 배가 곱파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 병이 가슴 속에 있는 것이니 토법을 써야 한다."라고 한 경우이다.

厥爲陰之盛也,若更加之惡寒而蹇者,陰氣之極也,則難可制.經曰,"少陰病,惡寒,身蹇而利,手足厥冷者,不治",是厥冷之逆者,神丹其能生乎.

결(厥)은 음(陰)이 왕성한 것이다. 만약 여기에 오한(惡寒)과 몸을 움츠리는 증상이 더해지면 음기(陰氣)가 극에 달한 경우로 다스리기 어렵다. 경문에서 "소음병에 오한이 들고 몸을 움츠리며 하리(下利)가 있고 손발에 결냉(厥冷)이 있으면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결냉의 역증(逆證)을 신령한 약이 있다 한들 살릴 수 있겠는가.

1. 厥厥 : \*厥 ※대성본 ←

2. 厥 : \*熱 ※상한론 ←

## 鄭聲 第三十四 34 정성

傷寒鄭聲,爲邪音也.孔子曰,"惡鄭聲之亂雅樂也",又曰,"放鄭聲,遠佞人,鄭聲淫,佞人殆",是謂鄭聲,爲不正之音也.傷寒鄭聲者,則其聲如鄭衛之音,轉不正也.經曰,"虛則鄭聲".今汗後或病久,人聲轉者是也,以此爲虛,從可知矣.

상한의 정성(鄭聲)은 바르지 못한 소리이다. 공자가 말하였다. "정(鄭)나라 음악이 아악(雅樂)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한다.", "정(鄭)나라 음악을 물리치고 말 잘하는 이를 멀리할 것이니, 정나라 음악은 음란하고 말 잘하는 이는 위태롭다." 이것은 정성(鄭聲)이 올곧지 못한(不正) 소리임을 말한다. 상한의 정성(鄭聲)은 그 소리가 정(鄭)나라나 위(衛)나라의 음악과 같이 올곧지 못하게 변한 것이다. 경문에서 "허하면 정성(鄭聲)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막 땀을 내었거나 병이 오래된 경우에 환자의 목소리가 바뀐 것이 이것이다. 정성이 허증임을 알 수 있다.

又鄭聲者,重語也,正爲聲轉也.若聲重而轉其本音者亦是矣.昧者殊不知此,妄以重爲重疊之語,與譫語混而莫辨.遂止以身熱脈數,煩渴便難而多言者,爲譫語,以身涼脈小,自利不渴而多言者,爲鄭聲.如此則有失仲景之本意.兼鄭聲淫則語以正之,則鄭聲不爲重疊,正爲不正也.況仲景之書,三百九十餘證,曲盡傷寒形候,未有脫落而不言者.若是鄭聲爲多言,則於三陰門中,亦須條見.所以鄭聲別無證治者,是不與譫語爲類也.雖曰虛矣,止爲正氣虛而不全,故使轉聲而不正也.明者鑑此,幸詳究之.

또 정성(鄭聲)은 잠긴 소리(重語)로 원래 목소리가 변한 것이다. 목소리가 잠겨(重) 본래 소리에서 달라진 것도 정성이다. 이치에 어두운 이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여 '중(重)'을 함부로 말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섬어와 혼동하여 변별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끝내 몸에서 열이 나고 맥이 삭(數)하며 번갈(煩渴)이 있고 대변을 보기 어려우면서 말이 많은 것을 섬어(譫語)라고 하고, 몸이 차갑고 맥이 소(小)하며 설사를 하고 갈증이 없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정성(鄭聲)이라고 한다. 이는 중경의 본래 뜻과 어긋난 것이다. 아울러 "정나

라 음악은 음란하다"고 하였으니 이 말로 바로 잡으면 정성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곧지 못한 것이 된다. 하물며 중경의 책에 390여 병증에서 상한(傷寒)의 증후(證候)를 자세히 설명하여 빠뜨리거나 말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만약 정성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면 삼음병 조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나타내야 한다. 정성에 대한 병증과 치법이 별도로 없는 것은 섬어와 다르기 때문이다. 비록 허증이라고 하였으나 단지 정기(正氣)가 허하여 완전하지 않은 까닭에 목소리가 변하여 평소와 다른 것이다. 이치에 밝은 이들은 이를 살피 교훈으로 삼아 자세히 궁리하기를 바란다.





## 譫語 第三十五 35 섬어

傷寒譫語,何以明之.譫者謂呢喃而語也,又作讖,謂妄有所見而言也.是皆真氣昏亂,神識不清之所致.夫心藏神而主火,病則熱氣歸焉.傷寒胃中熱盛,上乘於心,心爲熱冒,則神昏亂而語言多出,讖昏不知所以然,遂言無次而成譫妄之語.輕者睡中呢喃,重者不睡亦語言差謬.

상한의 섬어(譫語)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섬(譫)은 중얼거리는 말이다. "讖"이라고도 쓰는데, 헛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모두 진기(眞氣)가 어지럽고 신지(神識)가 분명하지 못해 생긴다. 심(心)은 신(神)을 저장하며 화(火)를 주관하므로 병이 들면 열기(熱氣)가 심으로 돌아간다. 상한으로 위(胃) 속의 열(熱)이 치성하면 위로 심(心)을 위협한다. 심이 열(熱)에 둘러싸이면 신(神)이 어지럽혀져 말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의식이 혼미하여 그러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서없이 말하고 중얼거리며 허망한 말을 만들어 낸다. 가벼운 경우에는 자는 중에 중얼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리 없이 말한다.

有譫語者,有獨語者,有狂語者,有語言不休者,有言亂者.此數者,見其熱之輕重也.譫語與獨語,雖間有妄錯之語,若與人言有次,是熱未至於極者也.經曰,"獨語如見鬼狀,若劇者,發則不識人",是病獨語未爲劇也.狂語者熱甚者也,由神昏而無所見覺,甚則至於喊叫而言語也.言語不休者,又其甚也.至於亂言者,謂妄言罵詈,善惡不避親疎,爲神明已亂也.經曰,"諸逆發汗,微者難差,劇者言亂",是難可復制也.

섬어(譫語), 독어(獨語), 광어(狂語), 씬 없이 말하기, 난폭하게 말하기가 있다. 이들은 열(熱)의 경중을 보여준다. 섬어(譫語)와 독어(獨語)는 중간에 터무니 없는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두서가 있는 것으로 열이 아직 지극하지는 않은 것이다. 경문에서 "귀신을 만난 듯이 홀로 말을 하고, 심해지면 발작했을 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독어(獨語)가 있는 병은 아직 심하지 않은 것이다. 광어(狂語)는 열(熱)이 심한 것으로 의식이 흐리고 지

각이 무디어서 심하면 소리 지르며 말을 한다. '섬 없이 말하기'는 이것이 더욱 심해진 증상이다. '난폭하게 말하기'는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친소(親疎)를 가리지 않고 낯설거나 무례한 말을 하는 것으로, 정신이 이미 혼미해진 것이다. 경문에서 "역증(逆證)에 땀을 내면, 가벼운 경우는 호전시키기 어렵고, 심한 경우는 난폭하게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치료하기 힘들다.

譫語之由,又自不同,皆當明辨之.有被火劫譫語者,有汗出譫語者,有下利譫語者,有下血譫語者,有燥屎在胃譫語者,有三陽合病譫語者,有過經譫語者,有亡陽譫語者.經曰,"大熱入胃中,水竭躁煩,必發譫語",又"腹滿微喘,口乾咽爛,或不大便,久則譫語",是因被火劫譫語也."汗出譫語,此爲風也,須下之,過經乃可下之,下之若早,語言必亂,以表虛裏實故也",是汗出譫語者也."下利譫語者,有燥屎也,小承氣湯主之",是下利譫語者也."下血譫語者,此爲熱入血室,當刺期門,隨其實而瀉之",是下血譫語者也."譫語,有潮熱,反不能食者,胃中必有燥屎五六枚也",是謂燥屎在胃譫語者也."腹滿身重,難以轉側,口不仁而面垢,譫語遺尿",是三陽合病譫語者也."過經譫語者熱也,當以湯下之",是過經譫語者也."發汗多亡陽譫語者,不可下,與柴胡桂枝湯,和其榮衛,是以有通津液後自愈",是亡陽譫語也.

섬어(譫語)의 원인도 하나가 아니므로 모두 반드시 분명하게 변별해야 한다. 화법(火法)으로 사기를 제거하다 섬어가 생긴 경우, 땀이 나며 섬어가 있는 경우, 하리(下利)를 하며 섬어가 있는 경우, 하혈(下血)을 하며 섬어(譫語)가 있는 경우, 조시(燥屎)가 위(胃)에 있어 섬어를 하는 경우, 삼양합병(三陽合病)으로 섬어를 하는 경우, 과경(過經)으로 섬어를 하는 경우, 망양(亡陽)으로 섬어가 생긴 경우가 있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심한 열이 위(胃) 속으로 들어가서 수(水)가 고갈되어 조번(躁煩)이 있으면 반드시 섬어(譫語)가 생긴다.", "복만(腹滿)과 가벼운 천(喘)이 있고, 입이 마르고 목구멍이 험하며 더러 대변을 보지 못하면, 오래되어 섬어(譫語)가 생긴다." 이는 화법(火法)으로 사기를 제거하다 섬어가 생긴 경우이다. "땀이 나고 섬어(譫語)가 있는 것은 풍(風) 때문이다. 공하시키는 것은 반드시 태양경에서 양명경으로 넘어와야만 공하시킬 수 있다. 그 전에 하법을 쓰면 분명 난폭하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니, 겉은 허하고 속

은 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땀이 나며 섬어가 있는 경우이다. "하리(下利)와 섬어(讖語)가 있는 것은 조시(燥屎)가 있는 경우이니 소승기탕(小承氣湯)으로 치료한다." 이것은 하리(下利)를 하며 섬어가 있는 경우이다. "하혈(下血)을 하며 섬어(讖語)가 있는 것은 열입혈실(熱入血室) 때문이니 기문(期門)에 자침하여 실한 곳을 따라 사법을 써야 한다." 이것은 하혈(下血)을 하며 섬어(讖語)가 있는 경우이다. "섬어(讖語)를 할 때 조열(潮熱)이 있고 도리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위(胃) 속에 반드시 조시 5 - 6개가 있는 경우이다." 이것은 위(胃)에 조시(燥屎)가 있어 섬어를 하는 경우이다. "배가 그득하고 몸이 무거워 몸을 뒤척이기 어렵고, 입맛이 없고 얼굴에 떼가 낀 듯하며, 섬어와 유뇨(遺尿)가 있다." 이것은 삼양합병(三陽合病)으로 섬어를 하는 경우이다. "과경(過經)으로 섬어(讖語)를 하는 것은 열(熱) 때문이니 약으로 공하시켜야 한다." 이것은 과경(過經)으로 섬어를 하는 경우이다. "많이 흘린 땀으로 망양(亡陽)이 되어 섬어(讖語)가 생겼을 때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 시호계지탕(柴胡桂枝湯)을 주어 영위를 조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면 진액이 소통된 뒤에 절로 낫는다." 이것은 망양(亡陽)으로 섬어가 생긴 경우이다.

諸如此者,脈短則死,脈自和則愈.又身微熱,脈浮大者生,逆冷脈沈細,不過一日死."實則讖語",氣收斂在內而實者,本病也.或氣上逆而喘滿,或氣下奪而自利者,皆爲逆也.經曰,"直視讖語喘滿者死,下利者亦死",謂其正氣脫絕也.能知虛實之診,能識逆從之要,治病療病,則不失矣.

이러할 때에 맥이 단(短)하면 죽고 조화로우면 낫는다. 또 몸에서 조금 열이 나고 맥이 부대(浮大)하면 살고, 손발이 차고 맥이 침세(沈細)하면 하루가 못되어 죽는다. "실(實)하면 섬어(讖語)"가 생기므로, 기(氣)가 안으로 수렴되어 실(實)한 것이 순증(順證)이다. 기(氣)가 위로 거슬러 올라 숨이 그득하게 차오르거나, 기(氣)가 아래로 모두 빠져나가 설사를 하는 것은 모두 역증(逆證)이다. 경문에서 "직시(直視)와 섬어(讖語)와 천만(喘滿)이 있으면 죽는다. 하리(下

利)가 있어도 죽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정기(正氣)가 다하여 끊어진 것을 말한 것이다. 허실을 가리는 방법과 예후를 판단하는 요지를 알고 병을 치료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 短氣 第三十六 36 단기

傷寒短氣,何以明之.短氣者,氣短而不能相續者是矣.似喘而非喘,若有氣上衝,而實非氣上衝也.喘者,張口擡肩,搖身滾肚,謂之喘也.氣上衝者,腹裏氣時時上衝也.所謂短氣者,呼吸雖數,而不能相續,似喘而不搖肩,似呻吟而無痛者,短氣也.經所謂短氣者衆,實爲難辨之証,愚醫莫識之,爲治有誤者多矣.要識其短氣之眞者,氣急而短促,謂之氣短者是也.

상한의 단기(短氣)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단기(短氣)는 숨이 짧아서 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천(喘)과 같은 듯하나 다르고 기운이 위로 치미는 듯하나 실제로 치미는 것은 아니다. '천(喘)'은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몸을 흔들고 배를 출렁이는 것을 가리킨다. '기운이 위로 치미는 것'은 배 속 기운이 때때로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단기(短氣)'라는 것은 빠르게 숨 쉬지만 숨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고, 천(喘)과 유사하나 어깨를 움직이지 않으며, 신음(呻吟)을 내는 듯하나 통증이 없는 것이다. 경문에서 단기를 말한 곳이 많아서 실로 변별하기 어려운 증상이니 우매한 의원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잘못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 단기(短氣)를 알아내는 요점은 숨이 급하고 짧은 것으로, '숨이 짧다'(氣短)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短氣有責爲虛者,有責爲實者,要當明辨之.經曰,"趺陽脈微而緊,緊則爲寒,微則爲虛,微緊相搏,則爲短氣",此爲短氣之虛者也."短氣,腹滿而喘,有潮熱,此外欲解,可攻裏也",此爲短氣之實者也.

단기(短氣)는 허(虛) 때문인 경우도 있고 실(實) 때문인 경우도 있으니 분명히 변별해야 한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부양맥(趺陽脈)이 미(微)하면서 긴(緊)할 때, 긴맥(緊脈)은 한(寒)이고, 미맥(微脈)은 허(虛)이다. 두 맥이 서로 다투면 단기(短氣)가 된다." 이것은 허증의 단기이다. "단기(短氣)와 복만(腹滿)과 천(喘)이 있을 때 조열(潮熱)이 생기면 걸이 풀어지려는 것이니 속을 공하시켜야 한다." 이것은 실증(實證)의 단기이다.

又有屬表,又有屬裏者,要當審視之.經曰,"短氣但坐,以汗出不徹故也,更發汗則愈",與"其風濕相搏,汗出短氣,小便不利,惡風不欲去衣,甘草附子湯主之"者,是邪氣在表而短氣者也."乾嘔短氣,汗出不惡寒者,此表解裏未和也,十棗湯主之",與"其太陽病,醫反下之,短氣躁煩,心中懊憹,陽氣內陷,心下因鞭,則爲結胸,大陷胸湯主之",是邪氣在裏而短氣者也.

또 표증에 속하는 경우와 이증에 속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살펴야 한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단기(短氣)가 있어 앉아만 있을 수 있는 것은 발한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발한시키면 낫는다.", "풍(風)과 습(濕)이 서로 닥투어 땀이 나고 단기(短氣)가 있으며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오풍(惡風)으로 옷을 벗으려 하지 않을 때는 감초부자(甘草附子湯)으로 치료한다." 이것은 사기(邪氣)가 겉에 있어 단기(短氣)가 생긴 경우이다. "허구역질과 단기(短氣)가 있고 땀이 나며 오한(惡寒)이 없는 것은 겉이 풀어지고 속은 조화롭지 못한 경우이다. 십조탕(十棗湯)으로 치료한다.", "태양병에 의사가 반대로 공하시켜서 단기(短氣)와 조번(躁煩)이 생기고 가슴 속이 괴로우며 양기(陽氣)가 안으로 내려 앉아 심하(心下)가 단단해지면 결흉(結胸)이 된 것이다. 대함흉탕(大陷胸湯)으로 치료한다." 이것은 사기(邪氣)가 속에 있어 단기(短氣)가 생긴 경우이다.

虛也,實也,在表也,在裏也,皆作短氣,又何以辨其虛實也.大凡心腹脹滿而短氣者,邪在裏而爲實也,腹濡滿而短氣者,邪在表而爲虛也.大抵短氣爲實,金匱要略曰,"短氣不足以息者實"也.又水停心下,亦令短氣,金匱要略曰,"食少飲多,水停心下,微者短氣".卽此觀之,短氣之由亦衆矣.必審其形候,使的而不惑,必審其邪氣,在表裏之不差,隨症攻之,了無不愈者矣.

허증과 실증, 표증과 이증에서 모두 단기(短氣)가 생길 수 있으니 어떻게 허실을 변별해야 하는가. 가슴과 배가 창만하면서 단기(短氣)가 있는 경우는 사기(邪氣)가 속에 있고 실증이다. 배가 그득하지만 말랑하면서 단기(短氣)가 있는 경우는 사기(邪氣)가 겉에 있고 허증이다. 단기(短氣)가 실증이 되는 경우를

《금궤요략》에서 "단기(短氣)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것은 실증이다."라고 하였다. 또 수(水)가 심하(心下)에 정체되어 단기(短氣)가 생기는 경우를 《금궤요략》에서 "적게 먹고 많이 마셔서 수(水)가 심하(心下)에 머물렀을 때, 가벼운 경우는 단기(短氣)가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단기의 원인은 매우 많다. 그러므로 반드시 몸에 나타난 증후를 살핀 후에 분명히 하여 의심 없도록 하고, 반드시 사기(邪氣)를 살피서 겉에 있는지 속에 있는지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뒤에 증상에 따라 치료하면 마침내 모두 나을 것이다.

#### 傷寒明理論卷二終

상한명리론 권2 끝

## 傷寒明理論卷三 상한명리론 권3

金聊攝成無己撰

| 금 요섭 성무기 지음





## 搖頭 第三十七 37 요두

傷寒搖頭,何以明之.頭者諸陽之會也,諸陽之脈,皆上於頭,諸陰脈皆至頸胸中而還,陽脈不治,則頭爲之搖.傷寒搖頭有三,皆所主不同也.有曰"搖頭言者,裏痛"也.以裏有痛者,語言則劇,欲言則頭爲之戰搖也.有曰"獨搖頭,卒口噤,背反張者,瘕病"也.以風盛於上,風主動搖故也.裏痛非邪也,痛使之然,瘕病非逆也,風使之然.至於"陽反獨留,形體如煙熏,直視搖頭者,又謂之心絕".蓋心藏神,而爲陰之本,陽根於陰,陰根於陽,陰陽相根,則榮衛上下相隨矣,絕則神去而陰竭,陽無根者,則不能自主持,故頭爲之搖矣.王冰曰,"滋苗者以固其根,伐下者必枯其上,內絕其根,外作搖頭",又何疑焉.心絕者眞病也,風頸<sup>1</sup>裏痛者,邪氣也.觀其頭搖,又當明其臧否焉.

상한의 요두(搖頭)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머리는 모든 양이 모이는 곳이다. 모든 양의 경맥(經脈)은 모두 머리로 올라오며 모든 음의 경맥은 목과 가슴까지 왔다가 되돌아간다. 양맥(陽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머리를 흔들게 된다. 상한의 요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인이 모두 다르다. "머리를 흔들면서 말을 하는 것은 속에 통증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속에 통증이 있는 경우로, 말을 하면 심해져서 말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덜덜 떨리게 된다. "홀로 머리를 흔들면서 갑자기 입을 악다물고 각궁반장이 생기는 것은 경병(瘕病)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상부에서 풍(風)이 치성한 경우로, 풍이 움직임이나 흔들림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속의 통증은 사기(邪氣) 때문이 아니고 통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경병(瘕病)은 치밀어 오르는 기운 때문이 아니라 풍사(風邪)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양(陽)이 도리어 홀로 남아 몸이 연기에 그을린 듯하고 눈을 곧추 뜨며 머리를 흔드는 것을 심절(心絕)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심(心)은 신(神)을 갈무리하고 음(陰)의 근원이다. 양(陽)은 음에 뿌리를 두며 음(陰)은 양에 뿌리를 두어 음양이 서로 뿌리로 삼기 때문에 영(榮)과 위(衛)가 위 아래로 서로 연결된다. 이것이 끊어지면 신(神)이 떠나고 음(陰)이 고갈되어 양(陽)이 뿌리내릴 곳이 없어지면 스스로 버티지 못하므로

머리가 흔들리게 된다. 왕빙(王氷)이 "삿을 기르려면 그 뿌리를 튼튼히 하고, 뿌리를 훼손시키면 반드시 줄기와 잎이 마르게 된다. 안에서 그 뿌리가 끊어지면 밖에서 머리를 흔드는 증상이 생긴다."라고 말하였으니 어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심절(心絶)은 진장병(眞臟病)이고, 풍(風)으로 인한 경병(瘕病)과 속의 통증은 사기(邪氣) 때문이다.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고서도 병의 예후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1. 頸 : \*瘕 ※대성본 ↩

## 痙瘓 第三十八 38 계종

傷寒痙瘓,何以明之.痙者筋脈急也,瘓者筋脈緩也.急者則引而縮,緩者則縱而伸,或縮或伸,動而不止者,名曰痙瘓,俗謂之搐者是也.黃帝內經曰,"病筋脈相引而急,名曰痙瘓".痙謂若契合之契也,行則緩,臥則緊,從則縱.瘓疾之縱者,謂若放縱之縱也.以急爲痙,以緩爲瘓,理至明矣.

상한의 계종(痙瘓)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계(痙)는 근맥(筋脈)이 팽팽한 것(急)이고, 종(瘓)은 근맥이 늘어진 것(緩)이다. 팽팽한 것(急)은 당겨져 수축된 것이고, 늘어진 것(緩)은 이완되어 퍼진 것이다. 수축되고 이완되는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것을 계종이라고 부른다. 세상 사람들이 축(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황제내경》에서 말하였다. "병으로 근맥(筋脈)이 서로 당겨 팽팽해진 것을 계종(痙瘓)이라고 한다." 계(痙)는 꼭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움직이면 늘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수축되며 의도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종(瘓)은 종(縱)과 같아 멋대로 한다는 뜻이다. 팽팽해진 것을 계(痙)라고 하고 늘어진 것은 종(瘓)이라고 하니 이치가 지극히 분명하다.

痙瘓者,風疾也,而癲癇則痙瘓焉.傷寒痙瘓者,邪熱氣極也,熱盛則風搏併經絡,風主動,故四肢痙瘓而不寧也.故"風溫被火者,目發微黃色,劇者如驚癇,時痙瘓",言其熱氣之劇盛也.

계종(痙瘓)은 풍(風)으로 인한 질병으로 전간(癲癇)이 생기면 계종(痙瘓)이 나타난다. 상한의 계종(痙瘓)은 사기(邪氣)가 열(熱)로 변해 극에 달한 것이다. 열이 치성하면 풍(風)이 경락(經絡)을 손상시킨다. 풍은 움직임을 주관하므로 팔다리에 계종(痙瘓)이 나타나 편안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풍온(風溫)에 화법을 쓰면 눈이 조금 누렇게 되고, 심해지면 경간(驚癇)과 같아지며 때때로 계종(痙瘓)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열기(熱氣)가 매우 치성한 경우를 말한다.

傷寒病至於發痲痺者,疾勢已過矣,多難可治.內經曰,"太陽終者,戴眼,反折,痲痺,絕汗乃出,大如貫珠,著身不流",是見其痲痺,爲已過之疾也.又有四肢𩇕習,爲四肢動而不止,似痲痺而無力,不得伸縮者也,此爲肝絕.痲痺之證雖難已,若能以祛風滌熱之劑,折其大熱,則痲痺亦有生者,若妄加灼火,或飲以發表之藥,則死不旋踵.經曰,"一逆尙引日,再逆促命期".

상한병이 계종이 생길 정도가 되면 병세가 이미 지나쳐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내경》에서 말하였다. "태양(太陽)의 맥(脈)이 끊어지면 눈을 치켜뜨고 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며 계종(痲痺)이 생기고 절한(絶汗)이 나서 구슬 크기로 몸에 맺혀 흘러내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계종(痲痺)이 이미 지나치게 심해진 병임을 알 수 있다. 또 '사지칩습(四肢𩇕習)'은 팔다리를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으로 계종(痲痺)과 비슷하나 힘이 없어 굽히고 펴지 못하는 것으로 간절(肝絶)의 증상이다. 계종(痲痺)의 증상은 치료하기 어렵다. 그러나 풍(風)을 제거하고 열(熱)을 씻어내는 약으로 심해진 열을 꺾으면 계종이 나타나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만약 함부로 화법(火法)을 쓰거나 표사를 흘리는 약재를 복용시키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경문에서 "한 번 거스르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두 번 거스르면 생명을 재촉한다."라고 하였다.

## 不仁 第三十九 39 불인

傷寒不仁,何以明之.仁柔也,不仁謂不柔和也.痒不知也,痛不知也,寒不知也,熱不知也,任其屈伸灸刺,不知所以然者,是謂不仁也.由邪氣擁盛,正氣爲邪氣閉伏,鬱而不發,榮衛血氣虛少,不能通行,致斯然也.內經曰,"榮氣虛則不仁",針經曰,"衛氣不行,則爲不仁",經曰,"榮衛不能相將,三焦無所仰,身體痺不仁",即是言之,知榮衛血氣虛少,不能通行,爲不仁者明矣.

상한의 불인(不仁)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인(仁)은 부드럽다(柔)는 뜻이니 불인(不仁)은 부드럽고 온화하지 않다는 말이다. 가려움과 통증과 차가움과 뜨거움을 알지 못하고, 굽혔다 펴거나 침이나 뜸을 써도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을 불인(不仁)이라고 한다. 사기(邪氣)가 정체되어 왕성해지면 정기(正氣)가 사기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고, 울체되어 펼쳐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영(榮)·위(衛)·혈(血)·기(氣)가 적어져서 흐르지 못하게 되므로 불인이 생겨난다. 《내경》에서 "영기(榮氣)가 허하면 불인(不仁)이 된다."라고 하였고, 《침경》에서 "위기(衛氣)가 흐르지 않으면 불인(不仁)이 된다."라고 하였으며, 경문에서 "영위(榮衛)가 서로 함께하지 못하여 삼초(三焦)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몸에 비(痺)와 불인(不仁)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 말에서 영·위·혈·기가 적어져서 흘러 다니지 못하여 불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經曰,"諸乘寒者則爲厥,鬱冒不仁",言此厥者,是正氣爲寒氣所乘,爲厥氣也,非四肢逆冷之厥也.何者,蓋以鬱冒爲昏冒,不仁爲不知痛痒,得不爲尸厥之厥耶.經曰,"少陰脈不至,腎氣微,少精血,奔氣促迫,上入胸膈,宗氣反聚,血結心下,陽氣退下,熱歸陰股,與陰相動,令身不仁,此爲尸厥".其乘寒之厥,鬱冒不仁,卽此尸厥可知矣.昔越人入虢診太子爲尸厥,以鬱冒不仁爲可治,刺之而得痊濟者,實神醫之診也.嗚呼,設或脈浮而洪,身汗如油,喘而不休,水漿不下,形體不仁,此又爲命絕,雖越人豈能起之歟.

경문에서 말하였다. "한(寒)이 침입하면 꺼(厥)이 되어 울모(鬱冒)와 불인(不仁)이 생긴다." 여기서 말한 꺼(厥)은 정기(正氣)가 한기(寒氣)에 억눌려 꺼기(厥氣)가 된 것으로 팔다리가 말단부터 차가워지는 꺼증(厥證)이 아니다. 어째서인가. 울모(鬱冒)는 의식이 희미한 것이고, 불인(不仁)은 통증이나 가려움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시꺼(尸厥)이라고 할 때의 꺼(厥)이 아니겠는가. 경문에서 말하였다. "소음맥이 이르지 않으면 신기(腎氣)가 미약하고 정기(精血)가 적어지며, 급히 혈떡이는 숨이 위쪽 흉격으로 들어가서 종기(宗氣)가 도리어 멎치고 혈(血)이 심하(心下)에 맏히며 양기(陽氣)가 아래로 물러나고 열(熱)이 사타구니로 돌아가서 음(陰)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면 몸에 불인(不仁)이 생긴다. 이것이 시꺼(尸厥)이다." 이것으로 "한(寒)이 억누르면 꺼(厥)이 되어 울모(鬱冒)와 불인(不仁)이 생긴다."는 말이 곧 이 시꺼임을 알 수 있다. 예전에 진월인(秦越人)이 곽(號)나라에 들어가 태자를 시꺼(尸厥)이라고 진단하고, 울모(鬱冒)와 불인(不仁)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겨 침을 놓아 모두 낫게 하였으니, 참으로 신의(神醫)의 솜씨이다. 아, 만약 맥이 부(浮)하면서 홍(洪)하고 몸에서 기름 같은 땀이 흐르며 설 새 없이 숨 차 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며 몸에 불인(不仁)이 있는 경우라면 목숨이 끊어질 것이니 진월인(秦越人)이라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는가.

## 直視 第四十 40 직시

傷寒直視,何以明之.直視者,視物而目精不轉動者是也,若目精轉者,非直視也.水之精爲志,火之精爲神,目者心之使也,神所寓焉,肝之外候也,精神榮焉.鍼經曰,"五臟六腑之氣,皆上注於目,而爲之精,精之窠爲眼,之睛精<sup>1</sup>爲瞳子,筋之精爲黑睛,血之精爲絡,氣之精爲白睛,肌肉之精爲約束,裹擷筋骨血氣之精,與脈竝爲系,上屬於腦".五臟血氣調和精氣充榮,則目和而明矣.

상한의 직시(直視)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직시(直視)는 사물을 보지만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만약 눈동자를 움직이면 직시가 아니다. 수(水)의 정(精)은 지(志)이고 화(火)의 정(精)은 신(神)이다. 눈은 심(心)의 대리자로 신(神)이 머물고, 간(肝)의 외후(外候)로 정(精)과 신(神)이 깃든다. 《침경》에서 말하였다. "오장육부의 정기(精氣)가 모두 눈으로 올라가 그 정이 눈에 드러난다. 정(精)의 보금자리가 안구가 되므로, 골(骨)의 정은 눈동자가 되고, 근(筋)의 정은 검은자위가 되며, 혈(血)의 정은 혈락(血絡)이 되고, 기(氣)의 정은 흰자위가 된다. 기육(肌肉)의 정은 눈꺼풀이 되어 근골혈기의 정을 모아 맥(脈)과 함께 연결되어 뇌로 올라간다." 오장의 혈(血)과 기(氣)가 조화롭고 정(精)과 기(氣)가 충만하면 눈이 맑고 밝다.

傷寒目直視者,邪氣擁盛,冒其正氣,使神智不慧,臟精之氣不上榮於目,則目爲之直視.傷寒至於直視,爲邪氣已極,證候已逆,多難治.經曰,"衄家,不可發汗,汗出則額上陷,脈急緊,直視不能眴,不得眠".以肝受血而能視,亡血家肝氣已虛,目氣已弱,又發汗亡陽,則陰陽俱虛所致也.此雖錯逆,其未甚也.逮乎"狂言,反目直視",又爲腎絕,"直視搖頭",又爲心絕,皆臟氣脫絕也."直視譫語,喘滿者死,下利者亦死",又"劇者,發則不識人,循衣摸床,惕而不安,微喘直視,脈弦者生,濇者死",皆邪氣盛而正氣脫也.其或有"目中不了了,睛不和,無表裏證,大便難,身微熱者",是非直視也.此爲內實也,可用大承氣湯、大柴胡湯下之.直視爲不治之疾,目中不了了爲可治之候,二者形證相近,其爲工者,宜熟視之.

상한의 직시(直視)는 모여 왕성해진 사기(邪氣)가 정기(正氣)를 뒤덮어 정지(神智)를 어둡게 한 것으로, 오장(五臟)의 정기(精氣)가 올라가 눈에 갇힐지 못하면 눈에 직시가 생긴다. 상한에 직시가 생기면 사기(邪氣)가 이미 극에 달하여 증후가 벌써 역증(逆證)이 된 것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문에서 "평소 자주 코피를 흐릴 때는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땀을 내면 이마 위쪽이 꺼지고 맥이 급(急)하고 긴(緊)하며, 직시(直視)가 생겨 눈을 깜빡이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간(肝)이 혈(血)을 받아야 볼 수 있다. 망혈(亡血)한 환자는 간기(肝氣)가 이미 허(虛)하고 눈의 기운이 약하다. 이때 다시 발한시켜 망양(亡陽)이 되면 음양이 모두 허해져 직시가 생겨난다. 이것은 비록 잘못된 경우이나 아직 심해지 것은 아니다. "미친 듯 말하고 눈동자가 뒤집히며 직시(直視)하는 것"은 또 신절(腎絕)이고, "직시(直視)가 있고 머리를 흔드는 것"은 또 심절(心絕)이다. 모두 장기(臟氣)가 모두 소진되어 끊어진 것이다. "직시(直視)와 섬어(讖語)가 있고 숨이 차고 그득하면 죽는다. 하리(下利)가 있어도 죽는다."라고 하였고, 또 "심한 경우에는 발작 했을 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웃과 침상을 더듬으며 놀라 불안해하고 조금 숨 차 하며 직시(直視)가 있다. 이 때 맥이 현(弦)하면 살고 삼(瀉)하면 죽는다."라고 하였다. 모두 사기(邪氣)가 왕성하고 정기(正氣)는 소모된 경우이다. 더러 "눈앞이 맑지 않고(目中不了了) 눈동자가 잘 움직여지지 않으며(睛不和) 표리의 증상이 없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으며 몸에서 조금 열이 나는 경우"는 직시(直視)가 아니다. 이것은 안에서 사기(邪氣)가 실(實)해진 경우이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이나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공하시킬 수 있다. 직시(直視)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지만, "눈앞이 맑지 않은 것(目中不了了)"은 치료할 수 있는 증후이다. 두 가지는 드러나는 증상이 서로 비슷하므로 의원들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한다.

1. 之睛精 : \*骨之精 ※대성본 ←





## 鬱冒 第四十一 41 울모

傷寒鬱冒,何以明之.鬱爲鬱結而氣不舒也,冒爲昏冒而神不清也,世謂之昏迷者是也.鬱冒之來,皆虛極而乘寒,則有之矣.經曰,"諸乘寒者則爲厥,鬱冒不仁",又曰,"太陽病,先下之而不愈,因復發汗,以此表裏俱虛,其人因致冒,冒家汗出自愈,所以然者,汗出表和故也",是知因虛乘寒,乃生鬱冒.金匱要略曰,"新產婦人有三病,一者病瘕,二者病鬱冒,三者大便難,亡血復汗,寒多,故令鬱冒",又曰,"產婦鬱冒,其脈微弱,嘔不能食,大便堅,所以然者,血虛而厥,厥而必冒,冒家欲解,必大汗出".即此觀之,鬱冒爲虛寒可知矣.又或"少陰病,下利止而頭眩,時時自冒者",又爲死證,蓋謂其虛極而脫也.觀其鬱冒,幸無忽焉.

상한의 울모(鬱冒)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울(鬱)은 울결(鬱結)되어 기(氣)가 편안하지 못한 것이고, 모(冒)는 혼모(昏冒)하여 신(神)이 맑지 못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혼미(昏迷)"라고 하는 것이다. 울모의 원인은 모두 허증(虛證)이 극에 달했을 때 침입한 한(寒) 때문에 생겨난다. 경문에서 "한(寒)이 침입하면 궤(厥)이 되어 울모(鬱冒)와 불인(不仁)이 생긴다."라고 하였고, 또 "태양병에 먼저 하법을 썼으나 낫지 않아서 다시 발한시키면, 이 때문에 표리가 모두 허해져 환자에게 모(冒)가 생긴다. 평소 모(冒)가 있는 이가 땀을 흘리면 절로 낫는다. 그 이유는 땀이 나면 궤이 조화로워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허(虛)를 틈 타 침입한 한(寒) 때문에 울모(鬱冒)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궤요략》에서 말하였다. "새로 출산한 부인에게 3가지 병이 있다. 첫째는 경병(瘕病), 둘째는 울모(鬱冒), 셋째는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망혈(亡血)한 상태에서 다시 땀을 내고 한(寒)이 많으므로 울모(鬱冒)가 생긴다.", "출산한 부인의 울모(鬱冒)가 있으면 맥(脈)이 미약하고 구역질로 음식을 먹지 못하며 대변이 단단하다. 그 이유는 혈허(血虛)하면 궤(厥)이 생기고, 궤(厥)이 생기면 반드시 모(冒)가 생긴다. 모(冒)가 풀어지려면 반드시 크게 땀을 내야 한다." 이를 보면 울모는 허한(虛寒)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 더러 "소

음병에 하리(下利)가 멈추었으나 머리가 어지럽고 때때로 모(冒)가 생기는 경우"가 사증(死證)이 되는 것도 허(虛)가 극심하여 정기가 소모된 경우를 말한 것이다. 울모를 보거든 소홀히 하지 말기 바란다.



## 動氣 第四十二 42 동기

傷寒動氣,何以明之.動氣者,爲築築然動於腹中者是矣.臟氣不治,隨臟所主,發泄於臍之四旁,動跳築築然,謂之動氣.難經曰,"肝內證,臍左有動氣,按之牢若痛,心內證,臍上有動氣,按之牢若痛,肺內證,臍右有動氣,按之牢若痛,腎內證,臍下有動氣,按之牢若痛",是臟氣不治,腹中氣候發動也.

상한의 동기(動氣)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동기(動氣)는 배 속에서 공이질 하듯 움직이는 것이다. 오장(五臟)의 기운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오장이 주관하는 곳을 따라 배꼽 사방으로 새어 나와 공이질 하듯 뛰는 것을 동기(動氣)라고 한다. 《난경》에서 말하였다. "간(肝)의 내증(內證)은 배꼽 왼쪽에 동기(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단단하여 아프다. 심(心)의 내증(內證)은 배꼽 위쪽에 동기(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단단하여 아프다. 폐(肺)의 내증(內證)은 배꼽 오른쪽에 동기(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단단하여 아프다. 신(腎)의 내증(內證)은 배꼽 왼쪽에 동기(動氣)가 있으며, 누르면 단단하여 아프다." 이것은 오장의 기운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배 속의 기(氣)의 상황이 드러나 움직이는 것이다.

動氣應臟,是皆眞氣虛,雖有表裏攻發之證,即不可汗下.經曰,"動氣在左,不可發汗,汗則頭眩,汗不止,筋惕肉瞤",是發汗而動肝氣者也."動氣在左,不可下,下之則腹內拘急,食不下,動氣更劇,雖有身熱,臥則欲蹠",是下之而動肝氣者也.

동기(動氣)가 장(臟)에 상응하는 것은 모두 진기(眞氣)가 허(虛)한 경우이므로 사기(邪氣)가 겹이나 속에 있어서 공하시키거나 발한시켜야 하는 증상이 있더라도 발한시키거나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 경문에서 "배꼽 왼쪽에 동기(動氣)가 있을 때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발한시키면 머리가 어지럽고 땀이 멈추지 않으며 근척육순(筋惕肉瞤)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발한시켜서 간기(肝氣)를 동요시킨 경우이다. "배꼽 왼쪽에 동기(動氣)가 있을 때 공하시켜서

는 안 된다. 공하시키면 배 속이 당기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며 동기가 더 심해지고, 몸에 열이 있으나 누우면 몸을 웅크리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하시켜 간기(肝氣)를 동요시킨 경우이다.

"動氣在上,不可發汗,汗則氣上衝,正在心端",是發汗而動心氣者也."動氣在上,不可下,下之則掌握熱煩,身上浮冷,熱汗自泄,欲得水自灌",是下之而動心氣者也.

"배꼽 위쪽에 동기(動氣)가 있을 때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발한시키면 기(氣)가 위로 치밀어 심장 끝에 있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발한시켜 심기(心氣)를 동요시킨 경우이다. "배꼽 위쪽에 동기(動氣)가 있을 때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 공하시키면 손바닥에서 열이 나서 답답하고 몸에 냉기가 떠오르며 뜨거운 땀이 절로 나오며 물을 마시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하시켜 심기(心氣)를 동요시킨 경우이다.

"動氣在右,不可發汗,汗則衄而渴,心苦煩,飲即吐水",是發汗而動肺氣者也."動氣在右,不可下,下之則津液內竭,咽燥鼻乾,頭眩心悸",是下之而動肺氣者也.

"배꼽 오른쪽에 동기(動氣)가 있을 때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발한시키면 코피와 갈증이 나고 가슴이 매우 답답하며 물을 마시면 바로 토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발한시켜 폐기(肺氣)를 동요시킨 경우이다. "배꼽 오른쪽에 동기(動氣)가 있을 때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 공하시키면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어 목구멍과 코가 마르고 어지러우며 가슴이 두근거린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하시켜 폐기(肺氣)를 동요시킨 경우이다.

"動氣在下,不可發汗,汗則無汗,心中大煩,骨節苦痛,目運惡寒,食則反吐,穀不得下",是發汗而動腎氣者也."動氣在下,不可下,下之則腹脹滿,卒起頭眩,食則下清穀,心下痞",是下之而動腎氣者也.

"배꼽 아래쪽에 동기(動氣)가 있을 때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발한시켜도 땀이 나지 않고 가슴속이 몹시 답답하며 뼈마디가 몹시 아프고 눈앞이 어지러우며 오한이 나고 먹으면 토하여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발한시

켜 신기(腎氣)를 동요시킨 경우이다. "배꼽 아래쪽에 동기(動氣)가 있을 때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 공하시키면 창만이 되고 갑자기 어지러우며, 먹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설사하며, 심하(心下)에 비(痞)가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공하시켜 신기(腎氣)를 동요시킨 경우이다.

且脾內證,當臍有動氣.經特曰臍之四傍動氣,不可汗下,獨不言脾候.當臍有動氣者,以脾者中州,爲胃以行津液,發汗吐下,獨先動脾,況脾家發動氣者,詎可動之也,所以特不言之也.

또 비(脾)의 내증(內證)은 배꼽에서 동기(動氣)가 나타나는 것이다. 경문에서 특별히 배꼽 사방의 동기에 대해 발한시키거나 공하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비(脾)의 증후로 배꼽에서 동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다. 비(脾)는 중양을 관장하여 위(胃)로 하여금 진액(津液)을 순행시키므로, 한법(汗法)·토법(吐法)·하법(下法)을 쓰면 홀로 먼저 비(脾)를 동요시킨다. 하물며 비의 내증으로 동기가 있는 경우에 어찌 비를 동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굳이 말하지 않은 것이다.

傷寒所以看外證爲當者,蓋不在脈之可見,必待問之可得者.發汗吐下,務要審諦,舉此動氣,類可知矣.

상한에서 외증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맥으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증상을 물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법(汗法)·토법(吐法)·하법(下法)을 쓸 때 자세하게 살피는데 힘써야 한다는 점은, 이 동기(動氣)의 예를 통해 유사한 경우까지 미루어 알 수 있다.

## 自利 第四十三 43 자리

傷寒自利,何以明之.自利者,有不經攻下,自然溏泄者,謂之自利也.傷寒自利多種,須知冷熱虛實,消息投湯,無致失差.雜病自利,多責爲寒,傷寒下利,多由協熱,其與雜病有以異也.表邪傳裏,裏虛<sup>1</sup>熱則利,不應下而便攻之,內虛協熱遂利,是皆協熱矣.

상한의 자리(自利)를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자리(自利)는, 공하(攻下)하지 않았으나 저절로 하는 묽은 설사를 자리(自利)라고 한다. 상한의 자리(自利)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냉(冷)·열(熱)·허(虛)·실(實)을 안 뒤에 병세를 살펴 약을 주어야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잡병(雜病)의 자리(自利)는 대개 한(寒) 때문이고, 상한(傷寒)의 하리(下利)는 대개 협열(協熱) 때문으로 잡병과 차이가 있다. 걸의 사기(邪氣)가 속으로 전경되어, 속이 허(虛)한데 열이 겹해지면〔協熱〕설사하게 된다. 또 하법을 쓸 때가 아닌데 공하시켜 속이 허한데 열이 겹해져〔協熱〕마침내 설사하게 된다. 이것이 모두 협열(協熱)이다.

又邪<sup>2</sup>病家,皆作自利."太陽與陽明合病,必自下利,葛根湯主之","太陽與少陽合病,必自下利,黃芩湯主之","陽明與少陽合病,必自下利,大承氣湯主之".三者皆合病下利,一者發表,一者攻裏,一者和解,所以不同者,蓋六經以太陽陽明爲表,少陽太陰爲在半表半裏,少陰厥陰爲在裏.太陽陽明合病,爲在表者也,雖曰下利,必發散經中邪氣而後已,故與葛根湯以汗之,太陽與少陽合病,爲在半表半裏者也,雖曰下利,必和解表裏之邪而後已,故與黃芩湯以散之.陽明少陰合病,爲少陽邪氣入府者也,雖曰下利,必逐去胃中之實而後已,故與承氣湯以下之,是三者所以有異也.

또 합병(合病)에도 모두 자리(自利)가 나타난다. "태양과 양명의 합병에 반드시 하리가 있으니 갈근탕(葛根湯)으로 치료한다.", "태양과 소양의 합병에 반드시 하리가 있으니 황금탕(黃芩湯)으로 치료한다.", "양명과 소양의 합병에 반드시 하리가 있으니 대승기탕(大承氣湯)으로 치료한다." 이 3가지는 모두 합병(合病)에서의 하리(下利)이다. 치법이 발표(發表)·공리(攻裏)·화해(和

解)로 각기 다른 것은, 육경(六經)에서 태양과 양명이 표(表)에 있고, 소양과 태음이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으며, 소음과 궤음이 이(裏)에 있기 때문이다. 태양과 양명의 합병(合病)이 표(表)에 있으므로 비록 하리(下利)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맥 가운데 사기(邪氣)를 발산시킨 뒤에야 낮게 된다. 그러므로 갈근탕(葛根湯)을 주어 땀을 낸다. 태양과 소양의 합병은 반표반리(半表半裏)에 있으므로 비록 하리(下利)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표(表)와 이(裏)의 사기를 화해(和解)시킨 뒤에야 낮게 된다. 그러므로 황금탕(黃芩湯)을 주어 흘린다. 양명과 소음의 합병은 소양의 사기(邪氣)가 부(府)로 들어간 것이므로 비록 하리(下利)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위(胃) 속의 실사(實邪)를 제거한 뒤에야 낮게 된다. 그러므로 승기탕(承氣湯)을 주어 공하시킨다. 이 세 가지는 차이가 있다.

下利家,何以明其寒熱耶.且"自利不渴屬太陰,以其臟寒故也","下利欲飲水者,以有熱也".故"大便溏小便自可者",此爲有熱,"自利小便色白者,少陰病形悉具",此爲有寒,"惡寒脈微,自利清穀",此爲有寒,"發熱後重,泄色黃赤",此爲有熱,皆可理其寒熱也.

하리(下利)를 할 때 어떻게 한증과 열증을 알 수 있는가. "자리(自利)가 있고 갈증이 없는 것은 태음에 속한다. 장(臟)에 한(寒)이 있기 때문이다.", "하리(下利)에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은 열(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변이 묽고 소변이 잘 나온다."고 한 것은 열(熱)이 있는 경우이고, "자리(自利)가 있고 소변 색이 흰 것은 소음병의 형증(形證)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라고 한 것은 한(寒)이 있는 것이며, "오한이 들고 맥이 미(微)하며 자리(自利)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나온다."고 한 것은 한(寒)이 있는 경우이고, "열이 나고 뒤가 무거우며 누르고 붉은 색의 설사를 한다."라고 한 것은 열(熱)이 있는 경우이다. 이것으로 한열을 구분할 수 있다.

凡"腹中痛,轉氣下趣少腹者,此欲自利也".自利家,身涼脈小爲順,身熱脈大爲逆."少陰病,脈緊,下利,脈暴微,手足反溫,脈緊反去者,此爲欲解","下利,脈大者爲未止,脈微弱數者,爲欲自止,雖發熱不死",是知下利脈大爲逆,而脈小爲順也.



"배 속이 아프고 기가 쏠려 아랫배로 내려가면 자리하려는 것"이다. 평소 자리(自利)가 있는 경우 몸이 차고 맥이 소(小)하면 순증(順證)이고, 몸이 뜨겁고 맥이 대(大)하면 역증(逆證)이다. "소음병에 맥이 긴(緊)하고 하리(下利)를 하다가 맥이 갑자기 미(微)해지고 손발이 도리어 따뜻해지며 긴맥(緊脈)이 도리어 사라지면 병이 풀리려는 것이다.", "하리(下利)에 맥이 대(大)하면 아직 멈추지 않은 것이고, 맥이 미약(微弱)하며 삭(數)하면 절로 그치려는 것이니 발열이 나더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하리(下利)에서 맥이 대(大)한 것이 역증(逆證)이고, 맥이 소(小)한 것이 순증(順證)임을 알 수 있다.

自利宜若可溫,理中、白通、諸四逆輩,皆溫臟止利之劑.又有腸胃有積結,與下焦客邪,皆溫劑不能止之,必也或攻泄之,或分利之而後已.經曰,"理中者,理中焦,此利在下焦,宜赤石脂禹餘糧湯,復不止,當利其小便",是泄在下焦,滲泄而聚利者也."少陰病,自利清水,色純青,心下必痛,口乾燥",與"下利,三部皆平,按之心下鞭",或"脈沈<sup>3</sup>而滑",或不欲食而譫語,或差後至年月日復發,此數者,皆腸胃有積結,而須攻泄者也.內經有曰,"大熱內結,注泄不止,熱宜寒療,結伏須除,以寒下之,結散利止", "大寒凝內,久利泄瀉,愈而復發,綿歷歲年,以熱下之,寒去利止",謂之通因通用.下利雖有表證,又不可發汗,以下利爲邪氣內攻,走津液而胃虛也,故經曰,"下利,不可攻其表,汗出必脹滿者"是矣.

자리(自利)에는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중탕(理中湯)·백통탕(白通湯)·사역탕류(四逆湯類)는 모두 장(臟)을 따뜻하게 하여 설사를 멈추는 처방이다. 또 장위(腸胃)에 적(積)이 맺힌 경우와 하초(下焦)에 사기(邪氣)가 침범한 경우가 있으니, 모두 따뜻하게 하는 처방으로는 설사를 멈출 수 없고 반드시 공하시키거나 분리(分利)시킨 뒤에야 낫는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이중탕의 '이중(理中)'은 중초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하리의 원인이 하초(下焦)에 있으면 적석지우여량탕(赤石脂禹餘糧湯)을 써야 한다. 그런 뒤에도 그치지 않으면 소변을 내보내야 한다." 이것은 하초에서 생긴 설사로 소변을 내보내 설사를 멈추는 경우이다. "소음병에 자리(自利)로 푸른색의 맑은 물이 나오고 심하(心下)가 반드시 아프며 입이 건조한 경우", "하리(下利)를 하고 삼부맥은 모두 평

(平)한데 심하를 누르면 단단한 경우", "맥이 지(遲)하면서 활(滑)한 경우", 또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섬어(讖語)가 있는 경우, 또는 나은 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생긴 경우가 있다. 이 몇 가지는 모두 장위(腸胃)에 적(積)이 맺혀 공하시켜야만 하는 경우이다. 《내경》에서 왕빙(王冰)이 "큰 열(熱)이 안에서 맺혀 설사가 멈추지 않을 때, 열(熱)은 한(寒)으로 치료해야 하고, 맺혀 잠복되어 있는 것은 제거해야만 한다. 차가운 기운의 약으로 공하시키면 맺힌 것이 풀리고 설사가 멈춘다.", "큰 한(寒)이 안에서 응어리져 오래도록 설사를 하고 나았다가 다시 설사를 하며 수년 동안 지속되었을 때, 뜨거운 성질의 약으로 공하시키면 한(寒)이 제거되며 설사가 멈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설사할 때 설사시키는 치법(通因通用)"을 말한 것이다. 하리(下利)에는 표증(表證)이 있다 하더라도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하리(下利)로 사기(邪氣)가 안을 공격하여 진액을 내달리게 하고 위(胃)를 허(虛)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문에서 "하리(下利)에는 걸의 사기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땀이 나면 반드시 창만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大抵下利脫氣至急,五奪之中,此爲甚者.其或邪盛正虛,邪擁正氣下脫,多下利而死.何以言之,經曰,"下利日十餘行,脈反實者死","發熱,下利至甚,脈不止者死","直視讖語下利者死","下利手足厥冷無脈者,灸之不溫,脈不還死","少陰病,自利,復煩躁不得臥寐者死",此數者,皆邪擁正氣下脫而死者也.金匱要略曰,"六腑氣絕於外者,手足寒,五臟氣絕於內者,利下不禁".嗚呼,疾成而後藥,雖神醫不可爲已,氣既脫矣,孰能治之.

하리(下利)는 매우 급격하게 기(氣)를 소모시키므로 **오탈(五奪)**<sup>4</sup> 가운데 심한 경우이다. 더러 사기(邪氣)가 왕성하고 정기(正氣)가 허할 때 사기가 정기를 억눌러 아래로 모두 빠져나가게 하면 설사를 많이 한 뒤에 죽게 된다. 어째서 그러한가. 경문에서 말하였다. "하루에 십 여 차례 하리(下利)를 할 때 맥이 도리어 실(實)하면 죽는다.", "열이 나며 하리가 매우 심하고 궤(厥)이 그치지 않으면 죽는다.", "직시(直視)와 섬어(讖語)와 하리(下利)가 있으면 죽는다.", "하리(下利)에 손발에 궤냉(厥冷)이 있고 맥이 없을 때 땀을 떠도 따듯해지지 않고 맥이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소음병에 자리(自利)가 있고 번조(煩躁)까

지 생겨 잠을 이루지 못하면 죽는다." 이들은 모두 사기가 정기를 억눌러 아래로 모두 빠져나가게 하여 죽게 된 경우이다. 《금궤요략》에서 "육부(六腑)의 기운이 밖에서 끊어지면 손발이 차갑고, 오장(五臟)의 기운이 안에서 끊어지면 하리(下利)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아! 병이 왕성해진 뒤에 약을 쓰면 비록 신의(神醫)라도 낫게 할 수 없으니, 정기(正氣)가 이미 모두 빠져나갔다면 누가 이것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1. 습 : \*協 ※대성본 ←

2. 邪 : \*습 ※대성본 ←

3. 沈 : \*遲 ※금궤요략 ←

4. 오탈(五奪) : 《영추(靈樞)》에서 말한 다섯 가지 병증으로, 정기(精氣)가 심하게 손상되어 사법(瀉法)을 쓸 수 없다고 하였다. ←

## 筋惕肉瞤 第四十四 44 근척육순

傷寒筋惕肉瞤,何以明之.傷寒頭痛身疼,惡寒發熱者,必然之證也,其於筋惕肉瞤,非常常有之者,必待發汗過多亡陽,則有之矣.內經曰,"陽氣者,精則養神,柔則養筋",發汗過多,津液枯少,陽氣太虛,筋肉失所養,故惕惕然而跳,瞤瞤然而動也."太陽病,脈微弱,汗出惡風者,不可<sup>1</sup>張大青龍湯,服之則厥逆,筋惕肉瞤,此爲逆也","太陽病,發汗,汗出不解,其人仍發熱,頭眩,身瞤動振振欲擗地者,眞武湯主之","動氣在左,不可發汗,發汗則頭眩,汗不止,筋惕肉瞤",即是觀之,筋惕肉瞤,由發汗多亡陽,陽虛可見矣.茲雖逆也,止於發汗亡陽而表虛,治以溫經益陽則可矣.

상한의 근척육순(筋惕肉瞤)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상한에서 두통(頭痛), 신동(身疼), 오한(惡寒), 발열(發熱)은 반드시 생겨나는 증상이다. 그러나 근척육순(筋惕肉瞤)은 항상 있는 증상이 아니다. 반드시 지나치게 발한을 시켜 망양(亡陽)이 되어야 생긴다. 《내경》에서 "양기(陽氣) 가운데 정미로운 것은 신(神)을 기르고 부드러운 것은 근(筋)을 기른다."라고 하였다. 지나치게 발한을 시켜 진액(津液)이 마르면 양기(陽氣)가 매우 허해져 근육이 길러지지 못하므로 푸들푸들(惕惕然) 뛰고 움찔움찔(瞤瞤然) 움찔거린다. "태양병에 맥이 미약(微弱)하고 땀이 나며 오통이 들 때는 대청룡탕(大靑龍湯)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복용하면 궤냉(厥逆)과 근척육순(筋惕肉瞤)이 생긴다. 이것은 역증(逆證)이다.", "태양병에 발한 시켰는데 땀이 나도 풀리지 않고 환자에게 여전히 열이 나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떨어져 땅으로 넘어질 것 같을 때는 진무탕(眞武湯)으로 치료한다.", "왼쪽에 동기(動氣)가 있으면 발한시켜서는 안 된다. 발한시키면 머리가 어지럽고 땀이 그치지 않으며 근척육순(筋惕肉瞤)이 생긴다." 이를 보면, 근척육순이 발한을 많이 시켜 망양이 되어 생겨나는 증상으로, 양허(陽虛)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록 역증(逆證)이지만 발한으로 망양이 되었거나 겉이 허한 경우에 지나치 않으므로 경맥을 따뜻하게 하고(溫經) 양을 더하여(益陽) 치료하면 된다.

或因吐下發汗,表裏俱虛,而有此狀者,又非若但發汗後所可同也.經曰,"傷寒,吐下後發汗,虛煩,脈甚微,八九日心下痞鞭,脇下痛,氣上衝咽喉,眩冒,筋脈動惕者,久而成痿",此爲逆之甚者也,"太陽病,發汗,復下之後,表裏俱虛,復加燒針,因胸煩,面色青黃,膚瞤者難治",茲爲逆之甚者也.發汗吐下,庸可忽諸.

더러 토법·하법·한법을 써서 겉과 속이 모두 허하여 이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은 단지 발한을 시킨 후에 그러하게 된 것과는 같지 않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상한에 구토하고 설사한 뒤에 발한을 시켜서 허번(虛煩)이 생기고 맥이 매우 미(微)할 때, 8-9일이 되어 심하(心下)가 막혀 단단하고 옆구리 아래가 아프며 기(氣)가 인후까지 위로 치밀고 머리가 어지러우며, 근맥(筋脈)이 푸들푸들 움직이면, 오랜 뒤에 위(痿)가 된다." 이것은 역증(逆證)이 심한 경우이다. "태양병에 발한을 시키고 다시 하법을 쓴 뒤에 다시 불에 달군 침을 놓아서 가슴에 번(煩)이 생기고, 얼굴이 누렇게 푸르며, 피부가 움찔거리면 치료하기 힘들다." 이것도 역증이 심한 경우이다. 한법·토법·하법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1. 脹 : \*服 ※상한론 ↩

## 熱入血室 第四十五 45 열입혈실

傷寒熱入血室,何以明之.室者屋室也,謂可以停止之處,人身之血室者,榮血停止之所,經脈留會之處,即衝脈是也.衝脈者,奇經八脈之一脈也,起於腎下,出於氣衝,竝足陽明經,夾臍上行至胸中而散,爲十二經脈之海.王冰曰,"衝爲血海,言諸經之血,朝會於此,男子則運行生精,女子則上爲乳汁,下爲月水".內經曰,"任脈通,衝脈盛,月事以時下"者是也.王冰曰,"陰靜海滿而去血",謂衝脈盛,爲海滿也.即是觀之,衝是血室可知矣.

상한의 열입혈실(熱入血室)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실(室)'은 집에 있는 방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사람 몸에서 혈실(血室)은 영혈(榮血)이 머무르는 곳이자 경맥이 만나 모이는 곳이니 곧 충맥(衝脈)이다. 충맥은 기경팔맥(奇經八脈) 가운데 하나로 신(腎) 아래에서 시작되어, 기충(氣衝)에서 나오고, 족양명경(足陽明經)과 함께 배꼽 옆을 지나 위로 가슴에 이르러 펼쳐지므로 십이경맥(十二經脈)의 바다(海)가 된다. 왕빙은 "충맥(衝脈)은 혈해(血海)이다. 모든 경맥의 혈이 여기에 모인다는 의미이다. 남자에게는 운행하여 정액을 만들고, 여자에게는 위로 올라가 젖이 되고 아래로 내려가 월경이 된다."라고 하였다. 《내경》에서 "임맥(任脈)이 소통되고 충맥(衝脈)이 가득차면 월경이 때에 맞추어 나온다."라고 한 것이다. 왕빙은 "음(陰)은 고요하여 혈해(血海)가 가득차면 혈(血)을 제거한다."라고 하였는데, '충맥이 가득 찬' 것을 '혈해가 가득 찬'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충맥이 혈실(血室)임을 알 수 있다.

傷寒之邪,婦人則隨經而入,男子由陽明而傳.以衝之脈,與少陰之絡起於腎,女子感邪,太陽隨經,便得而入.衝之經,竝足陽明,男子陽明內熱,方得而入也.衝之得熱,血必妄行,在男子則下血譫語,在婦人則月水適來."陽明病,下血譫語,此爲熱入血室"者,斯蓋言男子,不止謂婦人而言也.婦人傷寒,經水適來,與經水適斷者,皆以經氣所虛,宮室不闢<sup>1</sup>,邪得乘虛而入.針經有言曰,"邪氣不得其虛,不能獨傷人者"是矣.

상한의 사기(邪氣)가, 부인에게는 태양경을 따라 충맥으로 침입하고, 남자에게는 양명으로부터 충맥에 전해진다. 충맥은 소음의 낙맥(絡脈)과 함께 신(腎)에서 시작되므로 여자가 사기에 감촉되면 태양의 사기가 소음경을 따라 곧 충맥으로 들어가게 된다. 충맥은 족양명경과 함께 유주하므로 남자의 양명경 속에 열(熱)이 있으면 곧 충맥으로 침입하게 된다. 충맥이 열을 얻게 되면 혈(血)이 반드시 멋대로 흘러서 남자에게는 하혈(下血)과 섬어(譫語)가 생기고, 부인에게는 월경이 시작된다. "양명병에 하혈(下血)과 섬어(譫語)가 있는 것은 열이 혈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남자를 말한 것으로 여자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부인의 상한에 월경이 때마침 시작되거나 때마침 멈추는 것은 모두 경맥의 기운이 허하여 자궁(宮室)이 닫히지 못하고 사기(邪氣)가 허한 틈을 타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침경》에서 "정기가 허하지 않으면 사기(邪氣) 홀로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것이다.

婦人熱入血室,有須治而愈者,有不須治而愈者,又各不同也."婦人中風,發熱惡寒,經水適來,得之七八日,熱除而脈遲,身涼和,胸脇下滿,如結胸狀,譫語者,此爲熱入血室,當刺期門,隨其實而瀉之"與"其婦人中風七八日,續得寒熱,發作有時,經水適斷者,此爲熱入血室,其血必結,故使如瘕狀,發作有時,小柴胡湯主之",二者是須治而愈者也."婦人傷寒,發熱,經水適來,晝則明了,暮則譫語,如見鬼狀者,此爲熱入血室,無犯胃氣及上二焦,必自愈",是不須治而愈者也.

부인의 열입혈실에는 치료해야 낫는 경우와 치료하지 않아도 낫는 경우가 있으니 각기 다르다. "부인 중풍에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며 월경이 때마침 시작되었는데, 7 - 8일째가 되어 열이 내리고 맥이 지(遲)하며 몸이 식어 편안하지만, 결흉처럼 가슴과 옆구리 아래가 그득하며, 섬어(譫語)가 있는 것은 열이 혈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기문(期門)에 자침하고 실한 부분을 따라 사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또 "부인 중풍 7 - 8일에 여전히 오한과 발열이 있어 때때로 증상이 나타나고 월경이 때마침 끝나는 것은 열이 혈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혈이 반드시 멎히므로 학질과 같이 오한과 발열의 증상이 시간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치료해야 낫는 경우이다. "부인 상한에 열이 나고 월경이 때마침 시작되어 낮에는 정신이 맑으나 밤에는 귀신을 본 듯이 섬어(譫語)를 하는 것은 열이 혈실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위기(胃氣)와 상초·중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절로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치료하지 않아도 낫는 경우이다.

譫語爲病邪之甚者,何不須治而愈耶.且"胸脇滿如結胸,譫語",是邪氣留結於胸脇而不去者,必刺期門,隨其實而瀉之."寒熱如瘧,發作有時者",是血結而不行者,須小柴胡湯散之.二者既有留邪,必須治之可也.若"發熱經水適來,晝則明了,暮則譫語",此則經水既來,以裏無留邪,但不妄犯,熱隨血散,必自愈.經曰,"血自下,下者愈",故"無犯胃氣,及上二焦,必自愈".所謂妄犯者,謂恐以譫語爲陽明內實,攻之犯其胃氣也.此無胸脇之邪,恐刺期門犯其中焦也.此無血結,恐與小柴胡湯犯其上焦也.小柴胡湯解散,則動衛氣,衛出上焦,動衛氣是犯上焦也.刺期門則動榮氣,榮出中焦,動榮氣是犯中焦也.脈經有曰,"無犯胃氣及上二焦,豈謂藥不謂針耶",此其是歟.

섬어(譫語)는 병사(病邪)가 심한 것인데 어떻게 치료하지 않아도 낫는가. "결흉(結胸)처럼 가슴과 옆구리가 그득하고 섬어(譫語)를 하는 것"은 사기(邪氣)가 흉협에 맺혀 제거되지 않는 것이니 반드시 기문(期門)에 자침하여 실한 곳을 따라 사법을 써야한다. 또 "학질과 같이 오한과 발열이 시간에 따라 발작하는 것"은 혈(血)이 맺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니 반드시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병사를 흩어주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사기(邪氣)가 맺혀 있는 것으로 반드시 치료해야만 한다. "열이 나고 월경이 때마침 시작되어 낮에는 정신이 맑으나 밤에는 섬어가 생기는 경우"는 월경이 이미 시작되어 속에 맺힌 사기가 없는 것이니 함부로 위기(胃氣)나 상초(上焦)를 범하지만 않으면 열(熱)이 혈(血)을 따라 흩어져 분명 저절로 낫게 된다. 그래서 경문에서 "혈(血)이 절로 아래로 나오고, 나오면 낫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위기와 상초·중초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절로 낫는다."라고 하였다. '함부로 손상시킨다(妄犯)'라고 한 것은, 섬어가 안에서 실(實)한 양명의 증상이므로 공하시켜 위기(胃氣)를 손상시킬까 염려한 말이다. 이 때 가슴과 옆구리에 사기가 없으므로 기문(期門)에 자침하여 중초를 손상시킬까 경계하였고, 맺힌 혈(血)이 없으므로



로 소시호탕을 주어 상초(上焦)를 손상시킬까 염려하였다. 소시호탕으로 풀어서 풀어주면 위기(衛氣)를 동요시키는데, 위기가 상초로 나오므로 위기를 동요시키는 것이 상초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기문(期門)에 자침하면 영기(榮氣)를 동요시키는데, 영기가 중초에서 나오므로 영기를 동요시키는 것이 중초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맥경》에서 "'위기(胃氣)와 상초、중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약만 해당하고 침은 해당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였으니, 이를 말한 것이지 않겠는가.

1. 關 : \*關 ※문맥상 ←

## 發黃 第四十六 46 발황

傷寒發黃,何以明之.經曰,"濕熱相交,民當病瘧",瘧者黃也,單陽而無陰者也.傷寒至於發黃,爲疾之甚也.濕也熱也,甚者則發黃,內熱已盛,復被火者,亦發黃也."邪風被火熱,兩陽相熏灼,其身必發黃", "陽明病,被火,額上微汗出,小便不利者,必發黃",是由內有熱而被火,致發黃者也."陽明病,無汗,小便不利,心中懊憹者,必發黃",是由陽明熱盛,致發黃者也."傷寒,發汗已,身目爲黃,所以然者,寒濕在裏不解故也,以爲不可下也,於寒濕中求之",是由寒濕致發黃者也.

상한의 발황(發黃)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내경》에 "습과 열이 서로 만나면 단병(瘧病)이 생긴다."고 하였다. 단(瘧)이란 황달을 말하는 것으로 양만 있고 음은 없는 것이다. 상한에 발행까지 이른 경우는 병이 심한 것이다. 습(濕)과 열(熱)이 심하면 발황이 되고, 내열(內熱)이 이미 성한데 다시 화법(火法)을 써도 발황이 된다. "사풍(邪風)을 화열(火熱)로 치료하면 두 양(陽)이 서로 불타올라 몸에 반드시 발황(發黃)이 생긴다.", "양명병(陽明病)을 화(火)로 치료하고 나서 이마에서 약간 땀이 나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발황(發黃)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안에 열이 있는데 화법(火法)을 써서 발황에 이른 경우이다. "양명병에 땀이 나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가슴속이 괴로우면 반드시 발황(發黃)이 생긴다." 이것은 양명에 열이 성하여 발황이 된 경우이다. "상한에 발한을 시킨 뒤에 몸과 눈이 누렇게 된 것은 속에 있는 한습(寒濕)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하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로 여기고 한습(寒濕)을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습(寒濕)으로 인해 발황이 된 경우이다.

濕亦令黃也,熱亦令黃也,其能辨之乎.二者非止根本來有異,而色澤亦自不同.濕家之黃也,身黃如似薰黃,雖黃而色暗不明也.至於熱盛之黃也,必身黃如橘子色,甚者勃勃出,染着衣正黃如蘗,是其正黃色也.由是觀之,濕之與熱,豈不異哉.

습(濕)도 발황을 일으킬 수 있고, 열(熱)도 발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원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빛깔도 다르다. 습(濕)으로 인해 생긴 발황은 그을려 누렇게 된 듯 몸이 누렇다. 비록 누렇지만 색이 밝지 않고 어둡다. 열(熱)이 왕성하여 생긴 발황은 굴색처럼 몸이 누렇다. 심한 경우에는 격렬하게 올라와 입고 있는 옷을 황벽나무 색처럼 순수한 노란색으로 물들인다. 이때의 색은 순수한 노란색이다. 이를 보면 습과 열이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大抵黃家屬太陰,太陰者脾之經也.脾者土,黃土色也.脾經爲濕熱蒸之,則色見於外,必發身黃.經曰,"傷寒,脈浮緩,手足自溫者,是爲繫在太陰,太陰當發身黃者"是矣.熱雖內盛,若已自汗出,小便利者,則不能發黃必也."頭汗出,身無汗,劑頸而還,小便不利,渴飲水漿,此爲瘀熱在裏,身必發黃".

발황은 태음에 속하고, 태음은 비(脾)의 경맥이다. 비는 토(土)에 해당하며 누런색은 토(土)의 색이다. 비경(脾經)이 습열(濕熱)에 훈증 받으면 색이 겉에서 드러나 반드시 몸이 누렇게 된다. 경문에서 "상한에 맥이 부완(浮緩)하고 손발이 따뜻한 것은 태음(太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태음은 몸에 발황을 만든다."라고 한 것이다. 열(熱)이 비록 안에서 왕성하더라도 만약 이미 자한(自汗)이 나고 소변이 잘 나오면 발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머리에서 땀이 나고 몸에서는 땀이 나지 않고 목 위까지만 땀이 나며,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것은 속에서 열(熱)이 응결된 것이니 때문이니 몸에 반드시 발황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黃家爲熱盛,而治法亦自有殊."傷寒八九日,身如橘子色,小便不利,少腹滿者,茵陳蒿湯主之",此欲泄滌其熱也."傷寒,身黃發熱者,梔子蘗皮湯主之",此欲解散其熱也."傷寒,瘀熱在裏,身必發黃,麻黃連翹赤小豆湯主之",此欲解散其熱也.此數者,泄滌解散,乃爲之不同,亦皆折火徹熱之劑也.一或"身黃,脈沈結,少腹鞭而小便自利,其人如狂者,又爲畜血在下焦,使之黃也,必須抵當湯下之而愈".

발황은 열(熱)이 왕성하여 생기지만 치법은 여러 가지이다. "상한 8 - 9일에 몸이 굴색과 같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며 아랫배가 그득하면 인진호탕(茵陳蒿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열을 씻어 내리려는 방법이다. "상한에 몸이 누르고 열이 날 때는 치자벽피탕(梔子蘗皮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열을 풀어 흘으려는 방법이다. "상한에 응결된 열(熱)이 속에 머무르면 몸에 반드시 발황이 생긴다. 마황연교적소두탕(麻黃連翹赤小豆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열을 풀어 흘으려는 방법이다. 이들은 열을 씻어 내리거나 풀어 흘는 것으로 같지 않지만 모두 화(火)의 세력을 꺾어 열을 제거하는 처방이다. 더러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몸이 누르고 맥이 침결(沈結)하며 아랫배가 단단하지만 소변이 시원하게 나올 때, 그 환자가 미친 듯하면 하초에 축혈(畜血)이 있기 때문이니 발황이 나타나게 된다. 반드시 저당탕(抵當湯)으로 공하시킨 뒤에 낫는다."

黃家既是病之已極,是以有不治之者多矣.非止"寸口近掌無脈,鼻氣出冷",爲不治之疾,又"若形體如煙薰,直視搖頭者,是爲心絕", "環口鰲黑,柔汗發黃,是爲脾絕",皆不治之診<sup>1</sup>.醫者更詳視之.

발황은 이미 병이 극심한 것이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촌구(寸口) 근처 손바닥에 맥이 뛰지 않고 코에서 차가운 숨이 나오는 경우"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될 뿐 아니라, "몸이 연기에 그을린 듯하고 직시(直視)가 있으며 머리를 떠는 심절(心絶)", "입 주위가 검고 끈적한 땀이 나며 발황(發黃)이 생기는 비절(脾絶)"도 모두 치료할 수 없는 병증이다. 의원은 이를 다시 상세히 살펴야 한다.

1. 診 : \*症 ※대성본 ←



## 既發狂 第四十七 47 발광

傷寒發狂,何以明之.狂者猖狂也,謂其不寧也.難經曰,"狂之始發也,少臥不飢,而自高賢也,自辨智也,自貴倨也,妄笑好歌樂也,妄行走不休也".

상한의 발광(發狂)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광(狂)은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난경》에서 말하였다. "광증이 처음 발작할 때는 잠을 적게 자고 배가 고프지 않으며, 스스로 위대하고 현명하며 판단을 잘하고 지혜로우며 존귀하다 여기고 거만하게 행동한다. 또 아무 때나 웃고 노래를 즐겨 부른다. 또 쉽 없이 함부로 돌아다닌다."

狂家所起,皆陽盛致然.內經曰,"陰不勝其陽,脈留<sup>1</sup>薄疾,病<sup>2</sup>乃狂也".又曰,"邪入於陽則狂,邪入於陰則瘖".難經曰,"重陽者狂,重陰者癲".脈經曰,"陰附陽則狂,陽附陰則癲".病源曰,"陽邪併於陽則狂,陰邪併於陰則癲".即諸經之狂爲陽盛也,明矣.又"陽明之病,惡人與火,聞木音則惕然而驚,心欲動,獨閉戶牖而處,甚則欲上高而歌,棄衣而走,踰垣上屋,其所上之處,皆非素能者",是謂陽邪併於陽明也.傷寒熱毒在胃,併於心藏,使神不寧,而志不定,遂發狂也.傷寒至於發狂,爲邪熱至極也,非大吐下則不能已.

광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양(陽)이 치성하여 그러하다. 《내경》에서 "음(陰)이 양(陽)을 이기지 못하면 맥의 흐름이 급박하고 빨라지다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광증이 된다."라고 하였고, 또 "사기(邪氣)가 양(陽)으로 들어가면 광증이 생기고, 음(陰)으로 들어가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瘖)."라고 하였다. 《난경》에서 "양을 거둡하면 광증(狂證)이 되고, 음을 거둡하면 전증(癲證)이 된다."라고 하였고, 《맥경》에서 "음(陰)이 양(陽)에 의지하면 광증(狂證)이 되고, 음이 양에 의지하면 전증(癲證)이 된다."라고 하였으며, 《제병원후론》에서 "양사(陽邪)가 양분(陽分)에 더해지면 광증(狂證)이 되고, 음사(陰邪)가 음분(陰分)에 더해지면 전증(癲證)이 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모든 서적에서 광(狂)을 양(陽)이 치성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뜻이 분명하다. 또 말하였다. "족양병(足陽病)이 병들면 사람과 불을 싫어하고, 목음(木音)을 들으면 두려워하면서 놀라

심장이 뛰며, 문을 닫고 혼자 있으려 한다. 병이 심해지면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달리며, 담을 뛰어 넘고 지붕 위에 올라간다. 올라가는 곳이 모두 평소에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다." 이것은 양사(陽邪)가 양명에 더해진 것이다. 상한에 위(胃)에 있던 열독(熱毒)이 심장(心藏)에 더해져 신(神)을 불안하게 하고 지(志)를 불안정하게 하여 마침내 광증이 된다. 상한에서 발광이 생기는 경우는 사열(邪熱)이 이미 지극한 것으로 토법이나 하법을 크게 쓰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

又有熱在下焦,其人如狂者.經曰,"熱入膀胱,其人如狂".謂之如狂,則未至於狂,但臥起不安爾."其或狂言,目反直視,又爲腎之絕","汗出輒復熱,狂言,不能食",又"爲失志,死",若此則殆非藥石之所及,是爲眞病焉.

또 열이 하초(下焦)에 있어 환자가 미친 듯한 경우가 있다. 경문에서 "열이 방광(膀胱)에 침입하여 환자가 미친 듯하다."고 하였다. '미친 듯하다'고 하였으므로 아직 광증에 이르지 않고 다만 항상 불안한 상태이다. "미친 듯 말하기도 하고, 눈을 뒤집으며 곧추 뜨는 것은 신절(腎絶)이다.", "땀이 난 뒤에 바로 다시 열이 나고 미친 듯이 말하며 먹지 못한다.", "정신이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약이나 침석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진장병(眞臟病)이다.

1. 留 : \*流 ※내경 ←

2. 病 : \*并 ※내경 ←

## 霍亂 第四十八 48 곽란

傷寒霍亂,何以明之.上吐而下利,揮霍而撩亂是也.邪在上焦者,但吐而不利,邪在下焦者,但利而不吐,若邪在中焦,胃氣不治,爲邪所傷,使陰陽乖隔,遂上吐而下利.若止嘔吐而利,經止得之吐利,必也上吐下利,躁擾煩亂,乃謂之霍亂,其與但稱吐利者,有以異也.

상한의 곽란(霍亂)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곽란은 위로 토하며 아래로 설사하는 증상이 매우 빠르고〔揮霍〕뒤엉켜 있는〔撩亂〕 것이다. 사기(邪氣)가 상초(上焦)에 있으면 토하기만 하고 설사하지 않고, 사기가 하초(下焦)에 있으면 설사하기만 하고 토하지 않는다. 만약 사기가 중초(中焦)에 있을 때 위기(胃氣)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기로 손상 받아 음양(陰陽)이 이어지지 못하여 마침내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한다. 구토와 설사만 한다면 경문에서 단지 토리(吐利)라고 하였고, 위로 토하고 아래로 설사하여 번조(躁煩)가 심한 경우에만 곽란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곽란은 단지 토리(吐利)라고 부르는 것과 차이가 있다.

傷寒吐利者,邪氣所傷,霍亂吐利者,飲食所傷也.其有兼傷寒之邪,內外不和者,加之頭痛發熱而吐利也.經曰,"病發熱頭痛,身疼惡寒,吐利者,此屬何病,答曰,此名霍亂,自吐下又利止,復更發熱也",是霍亂兼傷寒者也."霍亂,頭痛發熱,熱多欲飲水者,五苓散主之,寒多不飲水者,理中丸主之".以其中焦失治,陰陽乖隔,必有偏之者,偏陽則多熱,偏陰則多寒.

상한의 토리(吐利)는 사기(邪氣)에 상한 것이고, 곽란(霍亂)의 토리(吐利)는 음식에 상한 것이다. 곽란에 상한의 사기가 겹쳐져 내외가 조화롭지 못하면 두통(頭痛)과 발열(發熱)이 더해져 구토하고 설사하게 된다. 경문에서 "병들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몸이 쭈시고 오한이 들며 구토하고 설사하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답하기를, 이것은 곽란(霍亂)이라고 부릅니다. 절로 구토하고 설사하는데, 설사가 멈추면 다시 열이 납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곽란에 상한



을 겸한 경우이다. "곽란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날 때, 열이 많이 나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오령산(五苓散)으로 치료하고, 오한이 많이 나고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 이중환(理中丸)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중초(中焦)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음양이 어그러져서 분명 치우침이 생겼기 때문이다. 양(陽)에 치우치면 발열이 더 심하고, 음(陰)에 치우치면 오한이 더 심하다.

許仁則曰, "病有乾霍亂, 有濕霍亂, 乾霍亂死者多, 濕霍亂死者少, 蓋吐利, 則所傷之物, 得以出泄, 雖霍亂甚則止於胃中水穀泄盡則止矣, 所以死者少, 及其乾霍亂而死者多者, 以其上不得吐, 下不得利, 則所傷之物, 不得出泄, 擁閉正氣, 關隔陰陽, 煩擾悶亂, 躁無所安, 喘脹, 乾霍亂而死". 嗚呼, 食飲有節, 起居有常者, 豈得致霍亂耶. 飲食自倍, 腸胃乃傷, 喪身之由, 實自致爾.

허인척이 말하였다. "곽란에는 건곽란과 습곽란이 있다. 건곽란으로 죽는 사람은 많고, 습곽란으로 죽는 사람은 적다. 토하고 설사하면 상하게 한 음식물이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곽란이 심하더라도 위(胃) 속의 수곡이 다 빠져 나가면 멎는다. 그러므로 죽는 사람이 적다. 건곽란에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은, 위로 토하지 않고 아래로 설사하지 않으면 상하게 한 음식물이 빠져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기(正氣)가 가로막히고 대소변이 나오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여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하여 조급해하며, 숨이 차고 배가 불러 올라 건곽란으로 죽게 된다."고 하였다. 아, 음식을 적당히 먹고 정해진 곳에서 기거하면 어찌 곽란에 걸리겠는가. 음식을 곱절로 먹어서 장위(腸胃)가 손상되었으니, 몸을 망치는 빌미를 참으로 자초한 것이다.

## 畜血 第四十九 49 축혈

傷寒畜血,何以明之.畜血者,血在下焦,結聚而不行,畜積而不散者是也.血菀於上,而吐血者,謂之薄厥,留於下而瘀者,謂之畜血.此由太陽隨經,瘀熱在裏,血爲熱所搏,結而不行,畜於下焦之所致.經曰,"太陽病六七日,表證仍在,脈微而沈,反不結胸,其人發狂者,以熱在下焦,少腹當鞕滿,小便自利者,下血乃愈,抵當湯主之"者是也.

상한의 축혈(畜血)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축혈(畜血)은 하초(下焦)에 있던 혈(血)이 엉기어 움직이지 않고 쌓여서 흩어지지 않는 것이다. 혈(血)이 위로 몰려 피를 토하는 것을 박결(薄厥)이라고 하고, 아래에 머물러 엉긴 것을 축혈(畜血)이라고 한다. 이것은, 태양의 사기(邪氣)가 경맥을 따라 속에서 열(熱)로 응결되고, 혈이 이 열에 손상되어 엉기고 움직이지 못한 채 하초에 쌓여 그렇게 된 것이다. 경문에서 "태양병 6 - 7일에 표증(表證)이 여전히 있고 맥이 미(微)하면서 침(沈)한데, 도리어 결흉(結胸)이 없고 환자에게 광증(狂證)이 생긴 것은 열이 하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아랫배가 단단하고 그득할 것이다. 소변이 시원하면 혈(血)을 공하시킨 뒤 낮게 되므로 저당탕(抵當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한 것이다.

大抵看傷寒,必先觀兩目,次看口舌,然後自心下至少腹,以手攝按之,覺有滿鞕者,則當審而治之.如少腹覺有鞕滿,便當問其小便,若小便不利者,則是津液留結,可利小便,若小便自利者,則是畜血之證,可下瘀血.經曰,"傷寒,有熱,少腹滿,應小便不利,今反利者,爲有血也",又曰,"太陽病,身黃,脈沈結,少腹鞕,小便不利者,爲無血也,小便自利,其人如狂者,血證諦也",皆須抵當丸下之愈."陽明證,其人喜忘,屎雖鞕,大便反易,其色必黑",亦是畜血之證.畜血於下,所以如狂者,經所謂"熱結膀胱,其人如狂者"是也.血瘀於下,所以喜忘者,內經曰,"血竝於下,亂而喜忘"者是也.二者若有其一,則爲畜血證明矣.

무릇 상한을 진찰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두 눈을 살피고 다음으로 입과 혀를 본다. 그런 뒤에 명치에서 아랫배까지 손으로 만져 촉진하여 그득하거나 단단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자세히 살펴 치료한다. 만약 아랫배에 단단하고 그득한 것이 느껴지면 곧 반드시 소변 상태를 물어야 한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진액(津液)이 맺힌 것이니 소변을 잘 나오게 해야 한다. 만약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면 축혈(畜血)의 증상이니 어혈(瘀血)을 공하시켜야 한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상한에 열이 나고 아랫배가 그득하면 소변이 시원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시원한 것은 어혈(瘀血)이 있기 때문이다.", "태양병에 몸이 누르고 맥이 침결(沈結)하며 아랫배가 단단할 때,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것은 어혈(瘀血)이 없기 때문이고, 소변이 시원하고 그 환자가 미친 듯하다면 혈증(血證)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들 모두 저당환(抵當丸)으로 공하시켜서 나았다. "양명증에 환자가 잘 잊고 대변이 단단하지만 도리어 쉽게 나오면 대변 색이 분명 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들도 축혈의 증상이다. 하초에 축혈(畜血)이 있으면 광증(狂證)처럼 되는데, 경문에서 "열(熱)이 방광(膀胱)에 맺히면 환자가 미친 듯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하초에 어혈(血瘀)이 있으면 잘 잊게 되는데, 내경에서 "혈(血)이 아래쪽에 더해지면 심란하고 잘 잊는다."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축혈증이 분명하다.

畜血之證,又有輕重焉.如狂也,喜忘也,皆畜血之甚者,須抵當湯丸以下之.如外已解,但少腹急結者,則爲畜血之輕也,須桃仁承氣湯以利之.

축혈(畜血)의 증상에도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이 있다. 광증 같거나 잘 잊는 것은 모두 축혈(畜血)이 심한 경우로 반드시 저당탕(抵當湯)이나 저당환(抵當丸)으로 공하시켜야 한다. 외증(外證)이 이미 풀어지고 단지 아랫배만 당기고 맺힌 것은 축혈이 가벼운 경우이니 반드시 도인승기탕(桃仁承氣湯)으로 배출시킨다.

醫之妙者何也,在乎識形證,明脈息,曉虛實,知傳變.其於形證之明者,衆人所共識,又何以見其妙.必也形證之參差,衆人所未識,獨先識之,乃所以爲妙.且如"病人無表裏證,發熱七八日,雖脈浮數者,可下之,假令已下,脈數不解,合熱則消穀<sup>1</sup>飢,至六七日,不大便者,此有瘀血,抵當湯主之".當不大便六七日之際,又無喜忘如狂之證,亦無少腹鞭滿之候,當是之時,與承氣湯下者多矣,獨能處以抵當湯下之者,是爲醫之妙者也.若是者,何以知其有畜血也.且脈浮而數,浮則傷氣,數則傷血,熱客於氣則脈浮,熱客於血則脈數.因下之後,浮數俱去則已,若下之後數去,其脈但浮者,則榮血間熱去,而衛氣間熱在矣.爲邪氣獨留心中則飢,邪熱不殺穀,潮熱發渴也.及下之後,浮脈去而數不解者,則衛氣間熱去,而榮血間熱在矣.熱氣合竝,迫血下行,胃虛協熱,消穀喜飢.血至下焦,若下不止,則血得以去,泄必便膿血也.若不大便六七日,則血不得出泄,必畜在下焦爲瘀血,是須抵當湯下之.此實疾證之奇異,醫法之玄微,能審諸此者,眞妙醫也.

의술의 신묘함은 어디에 있는가. 몸의 증상, 맥과 호흡, 허실(虛實), 병의 전변(傳變)을 분명하게 아는 것에 있다. 분명히 나타나는 몸의 증상은 모두가 아는 것인데 어찌 신묘함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분명 몸의 증상이 작은 차이를 모두가 아직 알지 못했을 때 홀로 먼저 안다면 신묘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표증과 이증이 없고 열이 난지 7-8일이 되었다면 비록 맥이 부삭(浮數)하더라도 하법을 써야 한다. 만약 이미 공하 시켰는데 삭맥(數脈)이 풀리지 않고 열이 나며 소화가 잘 되어 쉽게 배가 고프며 6-7일이 되어도 대변을 보지 못한다면 어혈(瘀血)이 있는 것이니 저당탕(抵當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대변을 못 본지 6-7일이 되었을 때 잘 잊거나 미친 듯한 증상도 없고 아랫배가 단단하고 그득한 증후도 없다면 이 때 승기탕으로 공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때에 홀로 저당탕을 처방하여 공하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의술의 신묘함이 된다. 여기서 어떻게 축혈(畜血)이 있음을 알 수 있는가. 맥(脈)이 부(浮)하면서 삭(數)한데, 부맥은 기(氣)를 상한 것이고 삭맥은 혈(血)을 상한 것이다. 열(熱)이 기분(氣分)에 침입하면 맥이 부하고 열이 혈분(血分)에 침입하면 맥이 삭하다. 하법을 쓴 뒤에 부맥과 삭맥이 모두 사라지면 낫는

다. 그런데 만약 하법을 쓴 뒤에 삭맥만 사라지고 맥이 부하기만 하다면 영혈(榮血) 속의 열은 제거되었으나 위기(衛氣) 속의 열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기(邪氣)가 홀로 심(心) 속에 머물면 배가 고프지만 사열(邪熱)이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조열과 갈증이 생긴다. 만약 하법을 쓴 뒤에 부맥만 사라지고 맥이 삭하기만 하다면 위기(衛氣) 속의 열은 제거되었으나 영혈(榮血) 속의 열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열기(熱氣)가 합쳐져 혈(血)을 괴롭혀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위(胃)가 허한데 열이 합쳐져 소화가 잘 되고 쉽게 주리게 된다. 혈(血)이 하초에 이르렀을 때 설사가 멈추지 않으면 혈(血)이 제거될 수 있으므로 설사에 반드시 피고름이 나온다. 만약 대변을 보지 못한지 6-7일이 되면 혈(血)이 설사로 나오지 못하므로 반드시 하초에 쌓여 어혈(瘀血)이 된다. 이 때 반드시 저당탕(抵當湯)으로 공하시켜야 한다. 이것은 정말로 기이한 병증이요 현묘한 치법이니 이를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신묘한 의사이다.

1. 흠 : \*품 ※대성본 ↩

## 勞復 第五十 50 노복

傷寒勞復,何以明之.勞爲勞動之勞,復爲再發也,是傷寒差後,因勞動再發者是也.傷寒新差後,血氣未平,餘熱未盡,勞動其熱,熱氣還經絡,遂復發也.此有二種,一者因勞動外傷,二者因飲食內傷.其勞動外傷者,非止強力搖體,持重遠行之勞,至於梳頭洗面則動氣,憂悲思慮則勞神,皆能復也,況其過用者乎.其飲食內傷者,爲"多食則遺,食肉則復"者也.內經曰,"熱病已愈,而時有遺者何也,以熱甚而強食之,病已衰而熱有所藏,因其穀氣<sup>1</sup>薄,兩陽相合,故有所遺".經曰,"病已差,尚微煩,設不了了者",以新虛"不勝穀氣,故令微煩,損穀則愈".

상한의 노복(勞復)을 어떻게 분명히 설명할 것인가. '노(勞)'는 고단하게 움직인다(勞動)고 할 때의 노(勞)이고, '복(復)'은 다시 생겨난다는 뜻이니, 노복(勞復)은 상한이 나은 뒤에 몸을 고단하게 움직여 병이 도지는 것이다. 상한이 막 나은 뒤에 혈기(血氣)가 아직 균형을 찾지 못하고 여열(餘熱)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몸을 고단하게 움직여 그 열을 동요시키면 열기가 경락으로 돌아가 마침내 도지게 된다. 노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단하게 몸을 움직여 겉을 상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으로 속을 상한 것이다. 고단하게 몸을 움직여 겉을 상한 것은 억지로 힘을 써서 몸을 움직이거나 무거운 것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고단함뿐만 아니다. 머리를 빗거나 세수를 하여 기(氣)를 동요시키거나 슬픔이나 걱정으로 신(神)을 지치게 하는 것까지도 모두 노복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하니 힘을 지나치게 사용한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음식으로 속을 상할 때는, "많이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고기를 먹으면 병이 재발"한다. 《내경》에서 말하였다. "열병(熱病)이 이미 나았는데도 때때로 여열(餘熱)이 남게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열이 심할 때 억지로 먹어서이다. 병세가 이미 쇠퇴하였으나 열이 감추어져 있을 때 곡기(穀氣)와 사기(邪氣)가 서로 다투어서 두 양기(陽氣)가 서로 합해졌기 때문에 여열(餘熱)이 남겨진 것이다." 경문에

서 말하였다. "병이 이미 나았으나 오히려 조금 번(煩)이 있고 시원하지 않은 경우"는 막 허해진 비위(脾胃)의 기가 "곡기(穀氣)를 감당하지 못하여 조금 번(煩)하게 된 것이므로, 음식을 줄이면 낫는다."

夫傷寒邪氣之傳,自表至裏,有次第焉,發汗吐下,自輕至重,有等差焉.又其勞復則不然,見其邪氣之復來也,必迎奪之,不待其傳也.經曰,"大病差後勞復者,枳實梔子豉湯主之,若有宿食加大黃".且枳實梔子豉湯則吐之,豈待虛煩懊懣之證,加大黃則下之,豈待腹滿譫語之候.經曰,"傷寒差後更發熱者,小柴胡湯主之,脈浮以汗解之,脈沈實者,以下解之",亦是便要折其邪也.蓋傷寒之邪,自外入也,勞復之邪,自內發也,發汗吐下,隨宜施用焉.

상한에서 사기(邪氣)의 전경은 겉에서 속까지 차례가 있고, 한법·토법·하법은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까지 차등이 있다. 그러나 노복은 그렇지 않아서 사기가 다시 찾아온 것을 보면 반드시 그것을 맞아들여 제거해야 하며 전경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문에서 "큰 병이 나은 뒤에 노복(勞復)이 생기면 지실치자시탕(枳實梔子豉湯)으로 치료한다. 속식(宿食)이 있는 경우에는 대황(大黃)을 더한다."라고 하였다. 지실치자시탕(枳實梔子豉湯)으로 토하게 할 때 어찌 허번(虛煩)과 오뇌(懊懣)의 증상을 기다릴 것이며, 대황을 더하여 공하시킬 때 어찌 복만(腹滿)과 섬어(譫語)의 증후를 기다릴 것인가. 경문에서 "상한이 나은 뒤에 다시 열이 나면 소시호탕(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 맥이 부(浮)하면 땀을 내서 풀어주고 맥이 침실(沈實)하면 공하시켜 풀어준다."라고 하였다. 이 역시 사기(邪氣)를 걷는데 요점이 있다. 상한의 사기(邪氣)는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고, 노복의 사기는 안에서 생겨나므로 한법·토법·하법을 증상에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嗚呼,勞復也,食復也,諸勞皆可及,御內則死矣.若男女相易,則爲陰陽易,其不易自病者,謂之女勞復.以其內損眞氣,外動邪熱,眞虛邪盛,則不可治矣.昔督郵顧子獻,不以華敷之診爲信,臨死致有出舌數寸之驗,由此觀之,豈不與後人爲鑑誠哉.

아. 노복(勞復)이든 식복(食復)이든 피로하여 생긴 경우는 모두 치료할 수 있지만, 성교로 인한 경우는 죽게 된다. 남녀의 병이 서로 전염되는 것을 음양역(陰陽易)이 되고, 전염되지 않고 홀로 병드는 것을 여로복(女勞復)이라고 한다. 안에서 진기(眞氣)가 손상되고 밖에서 사열(邪熱)이 요동하여 진기가 허하고 사기가 성하면 치료할 수 없다. 옛날에 독우(督郵)<sup>2</sup> 고자헌(顧子獻)이 화타(華佗)의 진단을 믿지 않아서 허를 몇 치 내밀고 죽었던 예가 있다. 이를 보고 어찌 뒷사람들이 경계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 傷寒明理論卷三終

상한명리론 권3 끝

1. 留 : \*相 ↩

2. 독우(督郵) : 관직명 ↩



## 傷寒明理藥方論卷四 상한명리약방론 권4

金聊攝成無己撰

| 금 요섭 성무기 지음



## 傷寒明理藥方論序<sup>1</sup> 상한명리학방론 서문

制方之體,宜通補瀉輕重澁滑燥濕十劑是也,制方之用,大小緩急奇耦複七方是也.是以制方之體,欲成七方之用者,必本於氣味生成,而制方成焉.其寒熱溫涼四氣者生乎天,酸苦辛鹹甘淡六味者成乎地,生成而陰陽造化之機存焉.是以一物之內,氣味兼有,一藥之中,理性具矣.主對治療,由是而出,斟酌其宜,參合爲用,君臣佐使,各以相宜,宣攝變化,不可勝量,一千四百五十三病之方,悉自此而始矣.

처방을 만드는 체(體)는 의제(宣劑)·통제(通劑)·보제(補劑)·사제(瀉劑)·경제(輕劑)·중제(重劑)·삽제(澁劑)·활제(滑劑)·조제(燥劑)·습제(濕劑)의 십제(十劑)이고, 처방을 만드는 용(用)은 대방(大方)·소방(小方)·완방(緩方)·급방(急方)·기방(奇方)·우방(耦方)·복방(複方)의 칠방(七方)이다. 따라서 처방을 만드는 체(體)로 칠방(七方)의 용(用)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약재의 기(氣)가 생겨나고 미(味)가 만들어진 것에 근본을 둔 뒤에야 처방을 만드는 방법이 완성된다. 한(寒)·열(熱)·온(溫)·량(涼) 사기(四氣)는 하늘에서 생겨나고, 산(酸)·고(苦)·신(辛)·함(鹹)·감(甘)·담(淡)의 육미(六味)는 땅에서 만들어진단다. 이렇게 기가 생겨나고 미가 만들어진 뒤에 음양 조화의 기틀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의 재료 속에 기(氣)와 미(味)가 함께 있고, 하나의 약재 속에 이(理)와 성(性)이 갖추어져 있다. 증상에 맞는 약으로 치료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나왔으니 알맞은 것을 따져보아 함께 섞어 사용하면 군(君)·신(臣)·좌(佐)·사(使)가 각각 서로 합당하게 되고, 퍼뜨리고 수렴하며 변화되는 것이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1453가지 병에 쓰는 처방이 모두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其所謂君臣佐使者,非特謂上藥一百二十種爲君,中藥一百二十種爲臣,下藥一百二十五種爲佐使,三品之君臣也.制方之妙,的與病相對,有毒無毒,所治爲病主.主病之謂君,佐君之謂臣,應臣之謂使.擇其相須相使,制其相畏相惡,去其相反相殺,君臣有

序,而方道備矣.

군(君)·신(臣)·좌(佐)·사(使)라고 하는 것은 상약(上藥) 120종이 군약(君藥)이 되고, 중약(中藥) 120종이 신약(臣藥)이 되며, 하약(下藥) 125종이 좌약(佐藥)과 사약(使藥)이 되는, 삼품(三品)과 관련된 군약과 신약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처방을 만드는 오묘함은 병에 적합하게 맞추는 것이니, 독(毒)이 있든 없든 치료하는 것을 병을 주관하는 약으로 삼는다. 병을 주관하는 것을 군약(君藥)이라고 하고, 군약을 돕는 것을 신약(臣藥)이라고 하며, 신약에 호응하는 것을 사약(使藥)이라고 한다. 상수(相須)와 상사(相使)를 고르고, 상외(相畏)와 상오(相惡)를 피하며, 상반(相反)과 상살(相殺)을 제거한 뒤 군신이 차례를 이루면 처방의 의미〔方道〕가 갖추어진다.

方宜一君二臣,三佐五使,又可一君三臣,九佐使也.多君少臣,多臣少佐,則氣力不全.君一臣二,制之小也,君一臣三佐五,制之中也,君一臣三佐九,制之大也.君一臣二,奇之制也,君二臣四,耦之制也,君二臣三,奇之制也,君二臣六,耦之制也.

처방은 군약(君藥) 1개, 신약(臣藥) 2개, 좌약(佐藥) 3개, 사약(使藥) 5개이거나, 군약(君藥) 1개, 신약(臣藥) 3개, 좌약(佐藥)과 사약(使藥) 9개여야 한다. 군약(君藥)이 많고 신약(臣藥)이 적거나, 신약(臣藥)이 많고 사약(使藥)이 적으면 약의 기운과 힘이 온전하지 않다. 군약(君藥) 1개와 신약(臣藥) 2개로 이루어진 것을 소방(小方)이라고 하고, 군약(君藥) 1개와 신약(臣藥) 3개와 좌약(佐藥) 5개로 이루어진 것을 중방(中方)이라고 하며, 군약(君藥) 1개와 신약(臣藥) 3개와 좌약(佐藥) 9개로 이루어진 것을 대방(大方)이라고 한다. 군약(君藥) 1개와 신약(臣藥) 2개로 이루어진 것을 기방(奇方)이라고 하고, 군약(君藥) 2개와 신약(臣藥) 4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방(耦方)이라고 하며, 군약(君藥) 2개와 신약(臣藥) 3개로 이루어진 것을 기방(奇方)이라고 하고, 군약(君藥) 2개와 신약(臣藥) 6개로 이루어진 것을 우방(耦方)이라고 한다.

近者奇之,遠者耦之.所謂遠近者,身之遠近也.在外者身半以上,同天之陽,其氣爲近,在內者身半以下,同地之陰,其氣爲遠.心肺位膈上,其藏爲近,腎肝位膈下,其藏爲遠.近而奇耦,制小其服,遠而奇耦,制大其服.腎肝位遠,數多則其氣緩,不能速達於下,必劑大而數少,取其氣迅急,可以走下也.心肺位近,數少則其氣急,不能發散於上,必劑少而數多,取其氣易散,可以補上也.所謂數者,腎一、肝三、脾五、心七、肺九,爲五藏之常制,不得越者.

가까운 경우는 기방(奇方)으로 치료하고, 먼 경우는 우방(耦方)으로 치료한다. 가깝고 먼 몸에서의 가깝고 먼 것이다. 병사가 밖에 있는 것은 상반신에 있는 경우로 양(陽)인 하늘과 같아서 그 기운이 가깝고, 병사가 안에 있는 것은 하반신에 있는 경우로 음(陰)인 땅과 같아서 그 기운이 멀다. 심(心)과 폐(肺)는 흉격 위에 위치하므로 그 장기는 가까운 것이 되고, 신(腎)과 간(肝)은 흉격 아래에 위치하므로 그 장기는 먼 것이 된다. 가까운 경우에는 기방(奇方)이든 우방(耦方)이든 소제(小劑)로 복용하고, 먼 경우에 기방이든 우방이든 대제(大劑)로 복용한다. 신(腎)과 간(肝)은 멀리 위치하므로 약재 수가 많으면 처방의 기운이 완만하여 아래쪽에 빠르게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제(大劑)를 쓰되 약재 수를 적게 하여 빠르고 날랜 처방의 기운을 취해야 아래로 내달릴 수 있다. 심(心)과 폐(肺)는 가까이 위치하므로 약재 수가 적으면 약재의 기운이 급하여 위로 발산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소제(小劑)를 쓰되 약재 수를 많게 하여 쉽게 흩어지는 처방의 기운을 얻어야 상반신을 보할 수 있다. 약재 수라고 한 것은, 신(腎)이 1, 간(肝)이 3, 비(脾)가 5, 심(心)이 7, 폐(肺)가 9가 오장(五藏)의 일반적인 제법이 되니, 이를 넘겨서는 안 된다.

補上治上制以緩,補下治下制以急,又急則氣味厚,緩則氣味薄,隨其攸利而施之,遠近得其宜矣.奇方之制,大而數少,以取迅走於下,所謂下藥不以耦,耦方之制,少而數多,以取發散於上,所謂汗藥不以奇.經曰,"汗者不以奇,下者不以耦",處方之制,無逾是也.

상반신을 보하거나 치료할 때는 완방(緩方)으로 하고, 하반신을 보하거나 치료할 때는 급방(急方)으로 한다. 급방은 기미가 두텁고 완방은 기미가 얇으므로 그 이로운 바에 따라 치료하면 가깝거나 멀거나 알맞게 될 것이다. 기방(奇方)을 만들 때는 대제(大劑)로 하되 약재 수를 적게 하여 아래로 빠르게 내달리는 성질을 취하므로, 공하시키는 약은 우방(耦方)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우방(耦方)을 만들 때는 소제(小劑)로 하되 약재 수를 많게 하여 위에서 발산시키는 성질을 취하므로, 발한시키는 약은 기방(奇方)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문》에서 "발한시킬 때는 기방(奇方)을 쓰지 않고, 공하시킬 때는 우방(耦方)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처방을 만드는 방법이 이것에 지나지 않는다.

然自古諸方，歷歲浸遠，難可考評，惟張仲景方一部，最爲衆方之祖，是以仲景本伊尹之法，伊尹本神農之經，醫帙之中，特爲樞要，參今法古，不越毫末，實乃大聖之所作也。一百一十二方之內，擇其醫門常用者方二十首，因以方制之法明之，庶幾少發古人之用心焉。

예로부터 여러 방서들이 지나온 세월이 아득히 오래되어 고찰하고 평가하기 어려우나 오직 장중경방(張仲景方) 한 가지만은 바로 모든 처방들의 효시가 된다. 중경(仲景)은 이윤(伊尹)의 방법에 뿌리를 두었고, 이윤은 신농(神農)의 경문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의서 가운데 가장 요체가 되고, 지금 것을 참고하여 옛것을 본받으며 조금도 지나침이 없으니 진실로 큰 성인의 저작이다. 이 책에 실린 112가지 처방 가운데 의문(醫門)에서 항상 사용한 처방 20가지를 골라 처방이 만들어진 이치를 밝혔으니 고인의 마음 씀씀이를 조금 이나마 드러냈기를 바란다.

1. 모본에는 卷一 첫머리에 있으나, 책 전반의 구성과 대성본을 참고하여 위치를 옮겼다. ↩



## 諸湯方論 제탕방론



## 桂枝湯方 계지탕방

經曰, "桂枝本爲解肌, 若其人脈浮緊, 發熱汗不出者, 不可與也, 常須識此, 勿令誤也". 蓋桂枝湯, 本專主太陽中風, 其於腠理緻密, 榮衛邪實, 津液禁固, 寒邪所勝者, 則桂枝湯不能發散, 必也皮膚疎湊, 又自汗, 風邪干於衛氣者, 乃可投之也. 仲景以解肌爲輕, 以發汗爲重, 是以發汗吐下後, 身疼不休者, 必與桂枝湯, 而不與麻黃湯者, 以麻黃湯專於發汗, 其發汗吐下後, 津液內耗, 雖有表邪, 而止可解肌, 故須桂枝湯小和之也.

경문에서 말하였다. "계지탕(桂枝湯)은 본래 해기(解肌)시킨다. 만약 환자가 맥이 부긴(浮緊)하고 열이 나며 땀이 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반드시 이를 알아서 잘못 치료하지 말라." 계지탕은 본래 전적으로 태양 중풍(中風)을 치료한다. 주리(腠理)가 치밀하고 영위(榮衛)에 사기(邪氣)가 실(實)하며 진액(津液)이 갇혀 있고 한사(寒邪)가 왕성한 경우에는 계지탕으로 발산시킬 수 없다. 반드시 피부가 성글어지고 또 자한(自汗)이 나며 풍사(風邪)가 위기(衛氣)에 간섭한 경우에 치료할 수 있다. 중경(仲景)은 해기(解肌)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발한(發汗)을 무거운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몸의 통증이 멈추지 않을 때 반드시 계지탕을 주고 마황탕을 주지 않은 것은 마황탕이 오로지 발한(發汗)시키기 때문이다.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는 진액이 안에서 고갈되어 표사(表邪)가 있다 하더라도 해기(解肌)시킬 수만 있으므로 반드시 계지탕으로 약간 화해시킨 것이다.

桂味辛熱, 用以爲君, 必謂桂猶圭也, 宣道諸藥, 爲之先聘, 是猶辛甘發散爲陽之意. 蓋發散風邪, 必以辛爲主, 故桂枝所以爲君也. 芍藥味苦酸微寒, 甘草味甘平. 二物用以爲臣佐者, 內經所謂"風淫所勝, 平以辛, 佐以苦, 以甘緩之, 以酸收之", 是以芍藥爲臣, 而甘草爲佐也. 生薑味辛溫, 大棗味甘溫. 二物爲使者, 內經所謂"風淫於內, 以甘緩之, 以辛散之", 是以薑棗爲使者也. 薑棗味辛甘, 固能發散, 而此又不特專於發散之用, 以脾主爲胃行其津液, 薑棗之用, 專行脾之津液, 而和榮衛者也. 麻黃湯所以不用薑棗者, 謂專於發汗, 則不待行化, 而津液得通矣. 用諸方者, 請熟究之.



계지의 기미(氣味)는 맵고 뜨거워 군약(君藥)으로 사용되었다. 분명 흠(圭)의 의미로 '계(桂)'라고 하였으니 모든 약재를 이끄는 선빙(先聘)<sup>1</sup>이 된다. 이는 "매운맛이나 단맛은 발산(發散) 작용을 하여 양(陽)이 된다."고 한 의미와 같다. 풍사(風邪)를 발산시키는데 반드시 매운 맛을 주제(主劑)로 삼아야 하므로 계지를 군약으로 삼았다. 작약의 기미는 쓰고 시며 약간 차고, 감초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다. 이 두 가지는 신약(臣藥)·좌약(佐藥)으로서 사용되었다. 《내경》에서 "풍사(風邪)가 침입하면 매운맛으로 평정하고 쓴맛으로 도우며 단맛으로 완화시킨다."라고 하였으므로 작약은 신약(臣藥)이 되고 감초는 좌약(佐藥)이 된다. 생강(生薑)의 기미는 따뜻하고, 대조(大棗)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이 두 가지는 사약(使藥)이 된다. 《내경》에서 "풍사(風邪)가 안으로 침입하면 단맛으로 완화시키고 매운 맛으로 흠어준다."라고 하였으므로 생강과 대조가 사약(使藥)이 된다. 생강과 대조는 기미가 맵고 달아 분명 발산시킬 수 있으나, 발산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비(脾)의 주관 아래 위(胃)가 진액을 운행시키므로 생강과 대조의 역할은 오직 비(脾)의 진액을 운행시켜 영위(榮衛)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마황탕(麻黃湯)에서 생강과 대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오직 발산시키기만 하겠다는 의미로, 운행시켜 조화롭게 하지 않아도 진액이 소통되기 때문이다. 처방을 사용하는 이는 부디 깊이 연구하기 바란다.

桂枝(君, 三兩, 去皮) 芍藥(臣佐, 三兩) 甘草(臣佐, 二兩, 炙) 生薑(使, 三兩, 切) 大棗(使, 十二枚, 擘)

계지(군약, 3냥, 껍질을 벗긴다) 작약(신좌약, 3냥) 감초(신좌약, 2냥, 굽는다)  
생강(사약, 3냥, 썬다.) 대조(사약, 12매, 찢는다)

右五味㕮咀, 以水七升, 微火煮取三升, 去滓, 適寒溫, 服一升, 服已須臾, 歠熱稀粥一升餘, 以助藥力. 溫覆令一時許, 遍身皰皰微似有汗者益佳, 不可令如水流漓, 病必不除. 若一服汗出病差, 停後服, 不必盡劑. 若不汗更服, 依前法, 又不汗, 後服小促役其間<sup>2</sup>, 半日許令三服盡. 若病重者, 一日一夜服, 周時觀之, 服一劑盡, 病証猶在者, 更作服, 若汗不出, 乃服至二三劑. 禁生冷粘滑肉麵五辛酒酪臭惡等物.

이 5가지 약재를 거칠게 썰어 물 7되에 넣고 약한 불로 3되가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적당한 온도로 1되 썩 복용한다. 복용하고 조금 있다가 뜨거운 죽 1되 정도를 먹여 약력을 돕는다. 2시간 정도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는데, 온 몸에 촉촉(熱熱)하게 조금 땀이 나는 듯하면 더욱 좋다. 물이 흘러내리듯이 땀을 내서는 안 되니, 그러면 분명 병이 낫지 않는다. 만약 한 번 복용하고 땀이 나서 병이 나으면 다시 복용시키지 않으므로 약을 모두 복용시킬 필요가 없다. 만약 땀이 나지 않으면 앞의 방법대로 다시 복용시키고, 그래도 땀이 나지 않으면 복약 간격을 줄여 다음 약을 복용시켜서 반일 동안 3번 모두 복용시킨다. 병이 위중한 경우에는 하루 낮밤으로 복용시키고 계속해서 증상을 관찰하며 1제 모두 복용시킨다. 그런 뒤에도 병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시 달여 복용시킨다. 만약 땀이 나지 않으면 2 - 3제까지 복용시킨다. 날 것, 차가운 것, 끈적한 것, 미끈한 것, 고기, 면, 다섯 가지 매운 것, 술, 유제품,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 등을 멀리한다.

1. 선빙(先聘) : 사신단의 선발대 ↩

2. 小促役其間 : \*小促其間 ※송본상한론 ↩

## 麻黃湯方 마황탕방

本草有曰, "輕可去實", 卽麻黃葛根之屬是也. 實爲寒邪在表, 皮腠堅實, 榮衛勝, 津液內固之表實, 非腹滿便難之內實也. 聖濟經曰, "汗不出而腠密, 邪氣勝而中蘊, 輕劑所以揚之", 卽麻黃葛根之輕劑耳.

《본초》에서 "가벼운 성질〔輕〕이 실〔實〕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마황(麻黃)과 갈근(葛根) 같은 것이다. '실(實)'은 한사(寒邪)가 겉에 있어 피부의 주리가 단단하고 충실하며 영위(榮衛)가 왕성하여 진액이 안에서 견고해진 표실(表實)이다. 복만(腹滿)으로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내실(內實)과는 다르다. 《성제경(聖濟經)》에서 "땀이 나지 않고 주리가 치밀하며, 사기(邪氣)가 성하여 속에서 쌓이면 경제(輕劑)로 발산시켜준다."라고 하였다. 마황(麻黃)과 갈근(葛根)이 곧 경제(輕劑)이다.

麻黃味甘苦, 用以爲君者, 以麻黃爲輕劑, 而專主發散, 是以爲君也. 桂枝爲臣者, 以風邪在表, 又緩而膚理疎者, 則必以桂枝解其肌, 是用桂枝爲臣. 寒邪在經, 表實而腠密者, 則非桂枝所能獨散, 必專麻黃以發汗, 是當麻黃爲主, 故麻黃爲君, 而桂枝所以爲臣也. 內經曰, "寒淫于內, 治以甘熱, 佐以辛苦"者, 茲是類歟. 甘草味甘平, 杏仁味甘苦溫, 用以爲佐使者. 內經曰, "肝苦急, 急食甘以緩之". 肝者榮之主也. 傷寒榮勝衛固, 血脈不利, 是專味甘之物以緩之, 故以甘草杏仁爲之佐使.

마황(麻黃)의 기미는 달고 써서 군약(君藥)으로 사용되었다. 마황이 경제(輕劑)로서 오로지 발산을 주관하므로 군약이 된 것이다. 계지(桂枝)는 신약(臣藥)이 된다. 풍사(風邪)가 겉에 있어서 겉이 이완되고 주리가 성글어지면 반드시 계지로 해기(解肌)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계지를 신약으로 사용하였다. 한사(寒邪)가 경맥에 있어서 겉이 실(實)해지고 주리가 치밀해지면 계지가 홀로 발산시킬 수 없고 반드시 오직 마황으로 발한시켜야 하므로 마황을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황이 군약이 되고 계지가 신약이 된다. 《내경》에서 "한사(寒邪)가 안에 침입하면 달고 뜨거운 성질로 치료하고 맵고 쓴 맛으로 돕는

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 예이다. 감초(甘草)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며, 행인(杏仁)의 기미는 쓰고 따뜻하여 좌약(佐藥)과 사약(使藥)으로 사용되었다. 《내경》에서 "간(肝)은 긴급함을 괴로워하므로 급히 단맛을 먹어 완화시킨다."라고 하였다. 간(肝)은 영(榮)을 주관한다. 상한(傷寒)에서 영(榮)이 왕성하고 위(衛)가 견고하면 혈맥(血脈)이 흐르지 못한다. 이것은 오직 단맛의 약재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초와 행인이 좌약과 사약이 되었다.

且桂枝湯主中風,風則傷衛,風邪併於衛,則衛實而榮弱.仲景所謂"汗出惡風<sup>1</sup>者,此爲榮弱衛強"者是矣.故桂枝湯佐以芍藥,用和榮也.麻黃湯主傷寒,寒則傷榮,寒邪併於榮,則榮實而衛虛.內經所謂"氣之所並爲血虛,血之所併爲氣虛"者是矣.故麻黃佐以杏仁,用利氣也.若是之論,實處方之妙理,制劑之淵微,該通君子,熟明察之,乃見功焉.

계지탕(桂枝湯)은 중풍(中風)을 치료한다. 풍(風)은 위(衛)를 손상시키므로, 풍사(風邪)가 위(衛)에 더해지면 위(衛)가 실하고 영(榮)이 허약해진다. 중경이 "땀이 나고 오통이 있다고 한 것이 영이 허약하고 위가 강한 상태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지탕에서 좌약을 좌약(佐藥)으로 삼아 영(榮)을 조화롭게 하였다. 마황은 상한(傷寒)을 치료한다. 한(寒)은 영(榮)을 손상시키므로, 한사(寒邪)가 영(榮)에 침입하면 영(榮)이 실해지고 위(衛)가 허해진다. 《내경》에서 "기(氣)에 치우치면 혈(血)이 허해지고, 혈(血)에 치우치면 기(氣)가 허해진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황탕(麻黃湯)에서 행인으로 좌약을 삼아 기(氣)를 순조롭게 하였다. 이와 같은 설명은 참으로 처방의 현묘한 이치이자 처방이 만들어진 오묘한 뜻이니, 두루 깨우친 이들이 자세하고 밝게 살핀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다.

麻黃(君,三兩,去節) 桂枝(臣,二兩,去皮) 甘草(佐使,二兩,炙) 杏仁(佐使,七十枚,去皮尖)

마황(군약, 3냥, 마디를 제거한다.) 계지(신약, 2냥, 껍질을 제거한다.) 감초(좌사약, 2냥, 굽는다.) 행인(좌사약, 70매,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右四味,以水九升,先煮麻黃,減二升,去上沫,內諸藥,煮取二升半,去滓,溫服八合,緩取微汗,並不須啜粥,餘如桂枝法將息.

이 4가지 약재에서, 물 9되로 먼저 마황을 달여 2되를 줄이고 뜬 거품을 제거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 약을 넣고 2되 반이 되도록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듯하게 8홉씩 복용시킨다. 천천히 조금씩 땀을 내되 죽을 먹일 필요는 없다. 나머지는 계지탕의 조리법과 같다.

---

<sup>1</sup>. 汗出惡風 : 發熱汗出 ※상한론 ↩

## 大靑龍湯 대청룡탕

靑龍,東方甲乙木神也,應春而主肝,專發<sup>主</sup><sup>1</sup>之令,爲敷榮之主.萬物出甲開甲,則有兩歧,肝有兩葉,以應木葉.所以謂之靑龍者,以發散榮衛兩傷之邪,是應肝木之體耳.桂枝湯主中風,麻黃湯主傷寒,二者發散之純者也.及乎大靑龍湯則不然,雖爲發汗之劑,而所主又不一.必也中風脈浮緊,爲中風見寒脈,是風寒兩傷也.傷寒脈浮緩,爲傷寒見風脈,是風寒兩傷也.風兼寒,寒兼風,乃大靑龍湯專主之也.見茲脈證,雖欲與桂枝湯解肌以祛風,而不能已其寒,則病不去,或欲以麻黃湯發汗以散寒,而不能去其風,則病仍在,茲仲景所以特處大靑龍湯,以兩解之.

청룡(靑龍)은 동방(東方)·갑을(甲乙)·목(木)의 신(神)이다. 봄에 상응하고, 간(肝)을 주관하며, 발생(發生)의 전령을 전달하고, 만물을 꽃피운다. 만물이 싹틀 때 양 갈래로 나오는 법이니 간(肝)에도 두 엽(葉)이 있어 나뭇잎에 상응한다. 청룡(靑龍)이라고 말한 것은, 영(榮)과 위(衛) 두 가지를 모두 손상시킨 사기(邪氣)를 발산시키기 때문이니, 간목(肝木)의 본체와 상응한다. 계지탕(桂枝湯)은 중풍(中風)을 치료하고, 마황탕(麻黃湯)은 상한(傷寒)을 치료한다. 이 두 가지는 순수하게 발산시킨다. 대청룡탕(大靑龍湯)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발한시키는 처방이지만 치료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다. 분명 중풍(中風)에 맥이 부긴(浮緊)한 것은 중풍에 한(寒)의 맥이 드러나는 것으로 풍(風)과 한(寒)에 모두 손상된 것이다. 상한(傷寒)에 맥이 부완(浮緩)한 것은 상한에 풍(風)의 맥이 드러나는 것으로 풍과 한에 모두 손상된 것이다. 풍에 한을 겹쳤거나, 한에 풍을 겹친 것을 대청룡탕이 오로지 치료한다. 이러한 맥과 증을 만났을 때, 비록 계지탕을 주어 해기(解肌)시켜서 풍(風)을 제거하려 해도 한(寒)을 낮게 할 수 없으므로 병이 제거되지 않는다. 또 마황탕으로 발한(發汗)시켜서 한(寒)을 흠으려고 해도 풍(風)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병이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중경(仲景)께서 특별히 대청룡탕을 처방하여 이 두 가지를 해소하려 하신 이유이다.

麻黃味甘溫,桂枝味辛熱.寒則傷榮,必以甘緩之,風則傷衛,必以辛散之.此風寒兩傷,榮衛俱病,故以甘辛相合,而爲發散之劑.表虛膚緩者,則以桂枝爲主,此以表實腠理密,則以麻黃爲主,是先麻黃後桂枝,茲麻黃爲君,桂枝爲臣也.甘草味甘平,杏仁味甘苦,苦甘爲助,佐麻黃以發表.大棗味甘溫,生薑味辛,溫辛甘相合,佐桂枝以解肌.石膏味甘辛微寒.風陽邪也,寒陰邪也,風則傷陽,寒則傷陰,榮衛陰陽,爲風寒兩傷,則非輕劑所能獨散也,必須輕重之劑以同散之,乃得陰陽之邪俱已,榮衛之氣俱和,是以石膏爲使.石膏爲重劑,而又專達肌表者也.

마황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며, 계지의 기미는 맵고 뜨겁다. 한(寒)이 영(榮)을 손상시키면 반드시 단맛으로 이완시켜야 하고, 풍(風)이 위(衛)를 손상시키면 반드시 매운맛으로 흠어야 한다. 이 처방은 풍(風)과 한(寒) 두 가지에 모두 손상되어 영(榮)과 위(衛)가 모두 병들었으므로 단맛과 매운맛을 서로 합하여 발산시키는 처방으로 삼은 것이다. 겉이 허하여 피부가 느슨하면 계지(桂枝)를 위주로 하고, 겉이 실하여 주리가 치밀하면 마황(麻黃)을 위주로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마황을 앞세우고 계지를 따르게 하였으니 마황이 군약이 되고 계지가 신약이 된다. 감초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며, 행인의 기미는 달고 쓰다. 쓴맛과 단맛으로 도와 마황을 보좌하여 겉의 사기를 발산시켰다. 대조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며, 생강의 기미는 맵다. 따뜻한 성질과 매운맛·단맛을 서로 합하여 계지를 도와 해기(解肌)시켰다. 석고의 기미는 달고 매우며 조금 차다. 풍(風)은 양사(陽邪)이고 한(寒)은 음사(陰邪)이다. 풍은 양(陽)을 손상시키고 한(寒)은 음(陰)을 손상시킨다. 음(陰)인 영(榮)과 양(陽)인 위(衛)가 풍(風)과 한(寒) 두 가지에 모두 손상 받으면 경제(輕劑)만으로 흠어낼 수 없다. 반드시 경제(輕劑)와 중제(重劑)를 함께 써서 흠어야 음과 양의 병사(病邪)를 모두 낮게 하고 영기(榮氣)와 위기(衛氣)를 모두 조화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석고(石膏)를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석고(石膏)는 중제(重劑)이고 또 약력이 오로지 기표(肌表)에 도달한다.

大靑龍湯,發汗之重劑也,非桂枝湯之所同,用之稍過,則又有亡陽之失.經曰,"若脈微弱,汗出惡風者,不可服,服之則厥逆,筋惕肉瞤,此爲逆也",又曰,"一服汗者停後服,若復服,汗多亡陽,遂虛惡風,煩躁不得眠也",卽此觀之,劑之輕重可見矣.其用湯者,宜詳審之.

대청룡탕(大靑龍湯)은 발한시키는 약 가운데 중제(重劑)로서 계지탕(桂枝湯)과 같지 않다. 조금 지나치게 사용하면 망양(亡陽)시키는 실수가 생길 수 있다. 경문에서 말하였다. "만약 맥이 미약(微弱)하고 땀이 나며 오풍이 있을 때 복용시켜서는 안 된다. 복용시키면 궤역(厥逆)·근척육순(筋惕肉瞤)이 생기게 되어 역증(逆證)이 된다." 또 말하였다. "한 번 복용하고 땀이 나면 다시 복용시키지 않는다. 만약 다시 복용시켰을 때 땀을 많이 흘려 망양(亡陽)이 생기면 허해져 오풍(惡風)이 들고 번조(煩躁)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를 보면 경제(輕劑)와 중제(重劑)를 알 수 있다. 처방을 사용하는 이는 자세히 살펴야만 한다.

麻黃(君,六兩,去節) 桂枝(臣,二兩,去皮) 甘草(佐,一兩,炙) 杏仁(佐,四十枚,去皮尖) 生薑(佐,三兩,切) 大棗(佐,十枚,擘) 石膏(使,如鷄子大,碎)

마황(군약, 6냥, 마디를 제거한다.) 계지(신약, 2냥, 껍질을 벗긴다.) 감초(좌약, 1냥, 굽는다.) 행인(좌약, 40매, 껍질과 뾰족한 끝을 제거한다.) 생강(좌약, 3냥, 썬다.) 대조(좌약, 10매, 찢는다.) 석고(사약, 달걀크기, 부순다.)

右七味,以水九升,先煮麻黃,減二升,去上沫,內諸藥,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取微似汗.汗出多者,溫粉止之.一服汗者,停後服.若服,汗多亡陽,遂虛(一作逆),惡風,煩躁不得眠也.

이 7가지 약재에서, 물 9되로 먼저 마황을 달여 2되를 줄인 뒤에 위로 뜯 거품을 제거하고 나머지 약제를 넣어 3되가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듯하게 1되씩 복용한다.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온분(溫粉)으로 그치게 한



다. 한 번 복용하고 땀이 나면 다시 복용시키지 않는다. 만약 복용하고 땀을 많이 흘려 망양(亡陽)이 되면 마침내 허증이 되어 오풍(惡風)이 생기고 번조(煩躁)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又溫粉方,白朮 藁本 川芎 白芷(各等分)

온분방(溫粉方) 백출 고본 천궁 백지(각 같은 양)

右搗羅爲細末,每末一兩,入米粉三兩,和令勻,粉撲周身止汗.無藁本亦得.

이 약재를 찧은 뒤 채로 쳐서 가루 1냥씩에 쌀가루 3냥을 넣고 잘 섞는다. 이 분가루를 온 몸에 바르면 땀이 멎는다. 고본을 넣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1. 主 : \*生 ※대성본 ↩

## 小青龍湯 소청룡탕

靑龍象肝木之兩歧,而主兩傷之疾,中風見寒脈,傷寒見風脈,則爲榮衛之兩傷,故以靑龍湯主之.傷寒表不解,則麻黃湯可以發,中風表不解,則桂枝湯可以散.惟其表且不解,而又加之心下有水氣,則非麻黃湯所能發,桂枝湯所能散,乃須小青龍湯,始可祛除表裏之邪氣爾.

청룡(靑龍)은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간목(肝木)을 상징하며 두 가지로 손상된 질병을 치료한다. 중풍(中風)에 한(寒)의 맥이 드러나고, 상한(傷寒)에 풍(風)의 맥이 드러나면 영위(榮衛)가 모두 손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청룡탕(靑龍湯)으로 치료한다. 상한(傷寒)에서 걸이 풀리지 않으면 마황탕(麻黃湯)으로 발산시킬 수 있고, 중풍(中風)에서 걸이 풀리지 않으면 계지탕(桂枝湯)으로 흠을 수 있다. 걸이 풀리지 않고 다시 여기에 더하여 심하(心下)에 수기(水氣)가 있으면 마황탕(麻黃湯)으로 발산시키거나 계지탕(桂枝湯)으로 흠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소청룡탕(小青龍湯)으로만 비로소 표리(表裏)의 사기(邪氣)를 제거할 수 있다.

麻黃味甘辛溫,爲發散之主.表不解,應發散之,則以麻黃爲君.桂味辛熱,甘草味甘平,甘辛爲陽,佐麻黃表散之,用二者所以爲臣.芍藥味酸微寒,五味子味酸溫.二者所以爲佐者,寒飲傷肺,咳逆而喘,則肺氣逆.內經曰,"肺欲收,急食酸以收之",故用芍藥五味子爲佐,以收逆氣.乾薑味辛熱,細辛味辛熱,半夏味辛微溫.三者所以爲使者,心下有水,津液不行,則腎氣燥.內經曰,"腎苦燥,急食辛以潤之",是以乾薑細辛半夏爲使,以散寒水.逆氣收,寒水散,津液通行,汗出而解矣.

마황(麻黃)의 기미는 달고 매우며 따뜻하여 발산시키는 주제(主劑)가 된다. 표가 풀리지 않으면 발산시켜야 하므로 마황(麻黃)으로 군약(君藥)을 삼는다. 계지(桂枝)의 기미는 맵고 뜨거우며, 감초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다. 단맛과 맵운맛은 양(陽)이므로 마황(麻黃)을 도와 표사(表邪)를 흠는다. 이 두 가지는 신약(臣藥)으로 사용되었다. 작약의 기미는 시고 조금 차갑고, 오미자의 기미는

시고 따뜻하다. 이 두 가지가 사약(使藥)으로 쓰인 것은 한음(寒飲)이 폐(肺)를 손상시켜 해역(咳逆)과 천(喘)이 생기면 폐기(肺氣)가 거슬러 오르기 때문이다. 《내경》에서 "폐(肺)는 수렴하고자 하니 급히 신맛을 먹어 수렴시킨다."라고 하였으므로, 작약과 오미자를 좌약(佐藥)으로 삼아 거스르는 기운(逆氣)을 수렴시켰다. 건강(乾薑)의 기미는 맵고 뜨겁고, 세신의 기미는 맵고 뜨거우며, 반하의 기미는 맵고 조금 따뜻하다. 이 세 가지가 사약(使藥)으로 쓰인 것은 심하(心下)에 수(水)가 있어 진액(津液)이 운행하지 못하면 신기(腎氣)가 마르기 때문이다. 《내경》에서 "신(腎)은 건조함을 고통스러워하므로 급히 매운맛을 먹어 적셔준다."라고 하였으므로 건강·세신·반하를 사약(使藥)으로 삼아 한수(寒水)를 흠었다. 거스르는 기운이 수렴되고 한수(寒水)가 흠어지면 진액이 소통되어 땀이 나오고 병이 풀어진단다.

心下有水氣散行,則所傳不一,故又有增損之證.若渴者,去半夏,加瓜樓根.水畜則津液不行,氣燥而渴.半夏味辛溫,燥津液者也,去之則津液易復.栝樓根味苦微寒,潤枯燥者也,加之則津液通行,是爲渴所宜也.若微利,去麻黃,加芫花.水氣下行,瀆入腸間,則爲利.下利者不可攻其表,汗出必脹滿,麻黃專爲表散,非下利所宜,故去之.芫花味苦寒,酸苦爲湧泄之劑,水去利則止,芫花下水,故加之.若噎者,去麻黃,加附子.經曰,"水得寒氣,冷必相搏,其人即餒",又曰,"病人有寒,復發汗,胃中冷,必吐蚘".噎爲胃氣虛竭,麻黃發汗,非胃虛冷所宜,故去之.附子辛熱,熱則溫其氣,辛則散其寒,而噎者爲當,兩相佐之,是以祛散冷寒之氣.若小便不利,少腹滿,去麻黃,加茯苓.水畜在下焦不行,爲小便不利,少腹滿.凡邪客於體者,在外者可汗之,在內者下之,在上者可湧之,在下者可泄之.水畜下焦,滲泄可也,發汗則非所當,故去麻黃.而茯苓味甘淡,專行津液.內經曰,"熱淫於內,以淡滲之".滲瀉行水,甘淡爲所宜,故加茯苓.若喘者,去麻黃,加杏仁.喘爲氣逆,麻黃發陽,去之則氣易順.杏仁味甘苦溫,加之以泄逆氣.金匱要略曰,"其形腫者,故不內麻黃,乃內杏子,以麻黃發其陽".故喘逆形腫,標本之疾,加減所同,蓋其類矣.

심하(心下)에 수기(水氣)가 흠어져 움직이면 전해지는 곳이 한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더 생겨나거나 사라진다. 만약 갈증이 있으면 반하를 빼고 과루근을 더한다. 수(水)가 모이면 진액이 흐르지 않아서 건조해지고 갈증이 생긴다. 반하(半夏)의 기미는 맵고 따뜻하여 진액을 말린다. 이것을 빼면 진액이 쉽게 회복된다. 과루근의 기미는 쓰고 조금 차가워 마른 것을 촉촉하게 해준다. 이것을 더하면 진액을 소통시킨다. 이렇게 하면 갈증에 적합하게 된다. 만약 조금 하리(下利)를 하면 마황(麻黃)을 빼고 원화(芫花)를 더한다. 수기(水氣)가 아래로 내려와 장(腸) 사이에 스며들면 하리(下利)하게 된다. 하리(下利)에는 표사(表邪)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땀을 내면 반드시 창만(脹滿)하기 때문이다. 마황(麻黃)은 오로지 표사를 흠으므로 하리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뺐다. 원화(芫花)의 기미는 쓰고 차갑다. 신맛과 쓴맛은 용설(湧泄)시키는 약재이다. 수(水)가 제거되면 하리가 멈추는데, 원화는 수(水)를 내려 보내므로 더하였다. 만약 열증(嘔證)이 있으면 마황(麻黃)을 빼고 부자(附子)를 더한다. 경문에서 "수(水)가 한기(寒氣)를 얻으면 냉기(冷氣)와 반드시 서로 다투게 되어 환자에게 열(飢)이 생긴다."라고 하였고, 또 "한사(寒邪)가 있는 환자에게 발한을 시키면 위(胃) 속이 차가워져 반드시 회충(虯)을 토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열(嘔)은 위기(胃氣)가 허하여 고갈되어 생겨난다. 마황(麻黃)은 발한시키므로 위(胃)가 허하고 서늘한 경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뺐다. 부자(附子)의 기미는 맵고 뜨겁다. 뜨거운 성질은 기(氣)를 따뜻하게 하고 매운맛은 한(寒)을 흠으므로 열증(嘔證)에 적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서로 보좌하여 차가운 기운을 흠었다. 만약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소복(少腹)이 그득하면 마황(麻黃)을 빼고 복령(茯苓)을 더한다. 수(水)가 하초(下焦)에 쌓여 움직이지 않으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소복(少腹)이 그득하게 된다. 사기(邪氣)가 몸에 침입했을 때, 사기가 겉에 있으면 한법(汗法)을 써야 하고 속에 있으면 하법(下法)을 써야 하며 위에 있으면 용토(涌吐)시키고 아래에 있으면 설사 시켜야 한다. 수(水)가 하초(下焦)에 쌓였으므로 삼설(滲泄)시켜야 하고, 한법(汗法)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마황(麻黃)을 뺐다. 복령(茯苓)의 기미는 달고 담담하여 오로지 진액을 운행시킨다. 《내경》에서 "열사(熱邪)가 안으로 침입하면 담담

한 맛으로 스며 나오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소변으로 내보내 수(水)를 움직이려면 달고 담담한 기미가 적당하기 때문에 복령을 더하였다. 천증(喘證)이 있으면 마황(麻黃)을 빼고 행인(杏仁)을 더한다. 천(喘)은 기(氣)가 거스르는 것이다. 마황(麻黃)은 양(陽)을 발산시키므로 이것을 빼면 기(氣)가 쉽게 순조로워진다. 행인(杏仁)의 기미는 달고 쓰며 따뜻하므로 이것을 더해 거스르는 기운을 배출시켰다. 《금궤요략》에서 "몸이 붓기 때문에 마황을 넣지 않고 행인을 넣는다. 마황이 양기를 발산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천(喘)과 부종(形腫)은 서로 표본이 되는 질환으로 가감법이 같으니 이것이 그러한 예이다.

麻黃(君,三兩,去節) 甘草(臣,三兩,炙) 桂枝(臣,三兩,去皮) 芍藥(佐,三兩) 五味子(佐,半升) 細辛(使,二兩) 乾薑(使,三兩) 半夏(使,半升,洗)

마황(군약, 3냥, 마디를 제거한다.) 감초(신약, 3냥, 굽는다.) 계지(신약, 3냥, 껍질을 벗긴다.) 작약(좌약, 3냥) 오미자(좌약, 반 되) 세신(사약, 2냥) 건강(사약, 3냥) 반하(사약, 반 되, 흐르는 물에 씻는다.)

右八味,以水一斗,先煮麻黃,減二升,去上沫,內諸藥,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

이 8가지 약재에서, 물 1말로 먼저 마황을 달여 2되를 줄이고 위에 뜬 거품을 제거한 뒤 나머지 약을 넣고 3되가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1되씩 복용한다.

## 大承氣湯方 대승기탕방

承順也,傷寒邪氣入胃者,謂之入府,府之爲言聚也.胃爲水穀之海,榮衛之源,水穀會聚於胃,變化而爲榮衛.邪氣入於胃也,胃中氣鬱滯,糟粕秘結,壅而爲實,是正氣不得舒順也.本草曰,"通可去滯,洩可去邪<sup>1</sup>",塞而不利,閉而不通,以湯蕩滌,使塞者利而閉者通,正氣得以舒順,是以承氣名之.

'승(承)'은 순조롭다는 뜻이다. 상한(傷寒)의 사기(邪氣)가 위(胃)로 들어간 것을 '입부(入府)'라고 한다. '부(府)'는 모인다(聚)는 말이다. 위(胃)는 수곡(水穀)의 바다이고, 영위(榮衛)의 근본이다. 수곡(水穀)이 위(胃)에서 모인 뒤 변화되어 영위(榮衛)가 된다. 사기(邪氣)가 위(胃)로 들어가면 위 속의 기(氣)가 울체되어 대변이 나오지 않고, 맏히고 응체되어 실증(實證)이 된다. 따라서 정기(正氣)가 편안하고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본초》에서 "정체된 것을 소통시키고, 막힌 것을 내보낸다."라고 하였다. 막혀서 나오지 않고 닫혀서 통하지 않을 때 약으로 씻어내려(蕩滌) 막힌 것을 나오게 하고 닫힌 것을 통하게 하면 정기가 편안하고 순조롭게 된다. 이런 이유로 '승기(承氣)'라고 이름 붙였다.

王氷曰,"宜下必以苦,宜補必以酸",言酸收而苦泄也.枳實苦寒.潰堅破結,則以苦寒爲之主,是以枳實爲君.厚朴味苦溫.內經曰,"燥淫於內,治以苦溫".洩滿除燥,則以苦溫爲輔,是以厚朴爲臣.芒硝味鹹寒.內經曰,"熱淫於內,治以鹹寒".人傷於寒,則於病熱,熱氣聚於胃,則謂之實.鹹寒之物,以除消熱實,故芒硝爲佐.大黃味苦寒.內經曰,"燥淫所勝,以苦下之".熱氣內勝,則津液消而腸胃燥.苦寒之物,以蕩滌燥熱,故以大黃爲使,是以大黃有將軍之號也.

왕빙(王氷)은 "공하시킬 때는 반드시 쓴맛으로 하고, 보할 때는 반드시 신맛으로 한다."라고 하여 신맛은 수렴시키고 쓴맛은 배설시킨다고 말하였다. 지실(枳實)의 기미는 쓰고 차다. 단단한 것을 무너뜨리고 맏힌 것을 부술 때는 쓰고 차가운 성질로 치료한다. 그러므로 지실(枳實)을 군약(君藥)으로 삼았다. 후박(厚朴)의 기미는 쓰고 따듯하다. 《내경》에서 "조사(燥邪)가 안으로 침입하면

쓰고 따뜻한 성질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그득한 것을 배출시키고 메마른 것을 제거할 때는 쓰고 따뜻한 성질로 돕는다. 그러므로 후박(厚朴)을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망초(芒硝)의 기미는 짜고 차갑다. 《내경》에서 "열사(熱邪)가 안으로 침입하면 짜고 찬 성질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한(寒)에 손상 받게 되면 열이 나게 되고, 위(胃)에 열기(熱氣)가 모인 것을 실(實)이라고 말한다. 짜고 차가운 성질의 약재로 열실(熱實)을 제거하므로 망초(芒硝)를 좌약(佐藥)으로 삼았다. 대황(大黃)의 기미는 쓰고 차갑다. 《내경》에서 "조사(燥邪)가 왕성하면 쓴맛으로 공하시킨다."라고 하였다. 열기(熱氣)가 안에서 왕성하면 진액이 줄어 장위(腸胃)가 메마른다. 쓰고 차가운 성질의 약재로 조열(燥熱)을 씻어내므로 대황(大黃)을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대황(大黃)에는 "장군(將軍)"이라는 호칭이 있다.

承氣湯下藥也,用之尤宜審焉.審知大滿大實,堅有燥屎,乃可投之也.如非大滿,則猶生寒熱,而病不除.況無滿實者,而結胸痞氣之屬,由是而生矣.是以脈經有曰,"傷寒有承氣之戒",古人亦特謹之.

승기탕(承氣湯)은 공하시키는 약으로, 사용할 때 더욱 주의해야만 한다. 매우 그득하고〔大滿〕 매우 실〔大實〕하며 조시(燥屎)가 있어 단단한 것을 살펴서 확인한 뒤에야 투여할 수 있다. 만약 매우 그득하지 않을 때 쓰면 도리어 한열(寒熱)이 생겨 병이 제거되지 않는다. 하물며 만(滿)과 실(實)이 없으면 결흉(結胸)이나 비기(痞氣)와 같은 것들이 이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 때문에 《맥경》에서, "상한에서 승기탕에 대한 경계를 두었다."고 말하였으니, 옛사람 역시 이를 매우 조심하였다.

枳實(君,炙,五枚) 厚朴(臣,半斤,炙去皮) 芒硝(佐,三合) 大黃(使,四兩,酒洗)

지실(군약, 굽는다. 5매) 후박(신약, 반근, 구워서 껍질을 벗긴다.) 망초(좌약, 3홉) 대황(사약, 4냥, 술로 씻는다)

右四味,以水一斗,先煮二物,取五升,去滓,內大黃,更煮取二升,去滓,內芒硝,更上微火一兩沸,分溫再服.得下餘勿服.

이 4가지 약재에서, 먼저 두 약재를 물 1말로 5되가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다. 여기에 대황(大黃)을 넣고 다시 2되가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다. 여기에 망초(芒硝)를 넣고 다시 약한 불로 한 소금 끓인다. 이것을 따 뜻하게 하여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대변을 보면 더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

---

1. 邪 : \*閉 ※증류본초 [↗](#)





## 大柴胡湯方 대시호탕방

虛者補之,實者瀉之,此言所共知,至如峻緩輕重之劑,則又臨時消息焉.大滿大實,堅有燥屎,非駛劑則不能泄,大小承氣湯峻,所以泄堅滿者也.如不至大堅滿邪熱甚,而須攻下者,又非承氣湯之可投,必也輕緩之劑攻之,大柴胡湯緩,用以逐邪熱也.經曰,"傷寒,發熱七八日,雖脈浮數者,可下之,宜大柴胡湯",又曰,"太陽病過經十餘日,反二三下之,後四五日,柴胡證仍在者,先與小柴胡,嘔不止,心下急,鬱鬱微煩者,爲未解也,可大柴胡下之則愈",是知大柴胡爲下劑之緩也.

허(虛)하면 보하고 실(實)하면 사한다는 말은 모두 아는 것이다. 그러나 준제(峻劑)·완제(緩劑)·경제(輕劑)·중제(重劑)를 임상에서는 참작해야 한다. 매우 그득하고(大滿) 매우 실(大實)하며 조시(燥屎)가 있어 단단하면 맹렬한 처방이 아니고서는 배설시킬 수 없다. 대승기탕과 소승기탕은 성질이 맹렬하여 견(堅)·만(滿)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견(堅)·만(滿)이 많지 않고 사열(邪熱)도 심하지 않을 때 공하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기탕을 투약할 수 없으니 반드시 경제(輕劑)와 완제(緩劑)로 공하(攻下)해야 한다. 대시호탕은 완제(緩劑)로서 사열(邪熱)을 몰아낼 수 있다. 경문에서 "상한으로 열이 난지 7-8일이 되었을 때 비록 맥이 부삭(浮數)하더라도 공하시켜야 한다. 대시호탕(大柴胡湯)을 쓴다."라고 하였고, 또 "태양병이 10여일이 되어 경맥을 지난을 때 도리어 2-3번 공하시키고, 그 후 4-5일이 지나 시호증이 있다면 먼저 소시호탕(小柴胡湯)을 준다. 구토가 멈추지 않고 심하(心下)가 켕기며 울체되어 조금 답답한 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경우이다. 대시호탕(大柴胡湯)으로 공하시키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시호탕이 하제(下劑) 가운데 완제(緩劑)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柴胡味苦平微寒.傷寒至於可下,則爲熱氣有餘,應火而歸心,苦先入心,折熱之劑,必以苦爲主,故以柴胡爲君.黃芩味苦寒.王冰曰,"大熱之氣,寒以取之".推除邪熱,必以寒爲助,故以黃芩爲臣.芍藥味酸苦微寒,枳實味苦寒.內經曰,"酸苦湧泄爲陰".泄實折

熱,必以酸苦,故以枳實芍藥爲佐.半夏味辛溫,生薑味辛溫,大棗味甘溫.辛者散也,散逆氣者,必以辛,甘者緩也,緩正氣者,必以甘,故半夏生薑大棗爲之使也.一方加大黃,以大黃有將軍之號,而功專於蕩滌.不加大黃,恐難攻下,必應以大黃爲使也.用湯者,審而行之,則十全之功可得矣.

시호(柴胡)는 기미가 쓰고 평(平)하며 조금 차갑다. 상한에 하법을 써야 하는 경우는 열기(熱氣)가 많을 때이다. 화(火)에 응한 것은 심(心)으로 돌아가고, 쓴맛은 먼저 심(心)으로 들어가므로, 열을 꺾는 처방은 반드시 쓴 성질의 약을 위주로 한다. 그러므로 시호를 군약(君藥)으로 삼았다. 황금(黃芩)의 기미는 쓰고 차갑다. 왕빙(王氷)은 "심한 열기(熱氣)는 차가운 성질로 제거한다."라고 하였다. 사열(邪熱)을 제거하는데 반드시 차가운 성질로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황금(黃芩)을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작약(芍藥)의 기미는 시고 쓰며 조금 차갑고, 지실(枳實)의 기미는 쓰고 차갑다. 《내경》에서 "신맛과 쓴맛은 용설(湧泄)시키므로 음(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실(實)을 배설하고 열을 꺾을 때는 반드시 신맛과 쓴맛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실(枳實)과 작약(芍藥)을 좌약(佐藥)으로 삼았다. 반하(半夏)의 기미는 맵고 따뜻하며, 생강(生薑)의 기미는 맵고 따뜻하고, 대조(大棗)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매운맛은 흠으므로 거스르는 기운을 흠어낼 때는 반드시 매운맛으로 한다. 단맛은 이완시키므로 정기(正氣)를 이완시킬 때는 반드시 단맛으로 한다. 그러므로 반하·생강·대조를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어떤 곳에는 대황(大黃)을 더한다고 하였다. 대황(大黃)에게 있는 "장군(將軍)"이라는 호칭처럼, 대황의 약효는 오로지 씻어 내리는데(蕩滌) 있다. 대황을 더하지 않으면 아마도 공하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황(大黃)을 사약(使藥)으로 삼아야 한다. 처방을 쓰는 이가 자세히 살펴서 치료한다면 최상의 실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柴胡(君,半斤) 黃芩(臣,三兩) 枳實(佐,四枚,炙) 芍藥(佐,三兩) 生薑(使,五兩,切) 半夏(使,半升,洗) 大棗(使,十二枚,擘)

시호(군약, 반 근) 황금(신약, 3냥) 지실(좌약, 4매, 굽는다.) 작약(좌약, 3냥) 생강(사약, 5냥, 썬다.) 반하(사약, 반 되, 흐르는 물에 씻는다.) 대조(사약, 12매, 찢는다.)

右件七味,以水一斗二升,煮取六升,去滓,再煎,溫服一升,日三服.一方加大黃二兩,若不加,恐不名大柴胡湯.

이 7가지 약재를 물 1말 2되로 6되가 될 때까지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한 뒤 다시 달여 따뜻하게 하루 3번 1되씩 복용시킨다. 어떤 곳에는 대황(大黃)을 2냥 더한다고 하였다. 대황을 더하지 않으면 아마도 대시호탕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 小柴胡湯方 소시호탕

傷寒邪氣在表者,必漬形以爲汗,邪氣在裏者,必蕩滌以爲利,其於不外不內,半表半裏,既非發汗之所宜,又非吐下之所對,是當和解則可矣.小柴胡爲和解表裏之劑也.

상한의 사기(邪氣)가 겉에 있으면 반드시 땀을 내어 몸을 적셔주어야 하고, 사기가 속에 있으면 반드시 설사시켜 씻어내야 한다. 사기가 겉도 아니고 속도 아닌 반표반리에 있으면 이미 발한법도 적당하지 않고 또 토법이나 하법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화해(和解)시켜야만 한다. 소시호탕(小柴胡湯)은 표리(表裏)를 화해시키는 처방이다.

柴胡味苦平微寒,黃芩味苦寒.內經曰,"熱淫於內,以苦發之".邪在半表半裏,則半成熱矣,熱氣內傳之不可,則迎而奪之,必先散熱,是以苦寒爲主,故以柴胡爲君,黃芩爲臣,以成徹熱發表之劑.人參味甘溫,甘草味甘平.邪氣傳裏,則裏氣不治,甘以緩之,是以甘物爲之助,故用人參甘草爲佐,以扶正氣而復之也.半夏味辛微溫.邪初入裏,則裏氣逆,辛以散之,是以辛物爲之助,故用半夏爲佐,以順逆氣而散邪也.裏氣平正,則邪氣不得深入,是以三味佐柴胡以和裏.生薑味辛溫,大棗味甘溫.內經曰,"辛甘發散爲陽".表邪未已,迤邐內傳,既未作實,宜當兩解,其在外者,必以辛甘之物發散,故生薑大棗爲使,輔柴胡以和表.七物相合,兩解之劑當矣.

시호(柴胡)의 기미는 쓰고 평(平)하며 조금 차갑고, 황금의 기미는 쓰고 차갑다. 《내경》에서 "열사(熱邪)가 안으로 침입하면 쓴맛으로 발산시킨다."라고 하였다. 사기가 반표반리에 있으면 절반 정도 열이 생겨난 것이다. 열기(熱氣)가 안으로 전경(傳經)되어서는 안 되므로 미리 맞아들여 빼앗는다. 반드시 먼저 열을 흠어야 하므로 쓰고 차가운 성질의 약을 위주로 치료하였다. 그러므로 시호를 군약으로 삼고 황금(黃芩)을 신약(臣藥)으로 삼아 열(熱)을 제거하고 발표(發表)시키는 처방을 만들었다. 인삼(人蔘)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며, 감초(甘草)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다. 사기(邪氣)가 속으로 전경(傳經)되면 이기(裏氣)가 다스려지지 않으므로 단맛으로 느슨하게 한다. 이것이 단맛의 약재

로 돕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인삼·감초를 좌약(佐藥)으로 삼아 정기(正氣)를 북돋아 회복시켰다. 반하(半夏)의 기미는 맵고 조금 따뜻하다. 사기가 처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기(裏氣)가 거슬러 오르므로 매운맛으로 흠어준다. 이것이 매운맛의 약재로 돕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반하를 좌약(佐藥)으로 삼아 거스르는 기운을 내리고 사기(邪氣)를 흠었다. 이기(裏氣)가 바르게 정리되면 사기(邪氣)가 깊이 침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약재로 시호를 도와 이기(裏氣)를 조화롭게 하였다. 생강(生薑)의 기미는 맵고 따뜻하며, 대조(大棗)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내경》에서 "매운맛과 단맛은 발산시키므로 양(陽)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표사(表邪)가 아직 제거되지 않았고, 점차 안으로 전경(傳經)되어 실증(實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풀어야 한다. 겉에 있는 사기는 반드시 맵고 단맛의 약재로 발산시켜야 하므로 생강과 대조로 사약(使藥)을 삼아 시호를 도와 겉을 조화롭게 하였다. 일곱 가지 약재가 서로 합쳐져 겉과 속을 함께 푸는 처방으로 손색이 없게 되었다.

邪氣自表未斂爲實,乘虛而湊,則所傳不一,故有增損以禦之.胸中煩而不嘔,去半夏人參,加栝蒌實.煩者熱也,嘔者氣逆也.胸中煩而不嘔,則熱聚而氣不逆,邪氣欲漸成實也.人參味甘爲補劑,去之使不助熱也.半夏味辛爲散劑,去之以無逆氣也.栝蒌實味苦寒,除熱必以寒,泄熱必以苦,加栝蒌實以通胸中鬱熱.若渴者去半夏,加人參栝蒌根.津液不足則渴.半夏味辛性燥,滲津液物也,去之則津液易復.人參味甘而潤,栝蒌根味苦而堅,堅潤相合,津液生而渴自已.若腹中痛者,去黃芩,加芍藥.宜通而塞爲痛.邪氣入裏,裏氣不足,寒氣壅之,則腹中痛.黃芩味苦寒,苦性堅而寒中,去之則中氣易和.芍藥味酸苦微寒,酸性泄而利中,加之則裏氣得通,而痛自已.若脇下痞鞭,去大棗,加牡蠣.內經曰,"甘者令人中滿".大棗味甘溫,去之則鞭浸散."鹹以溼之".牡蠣味酸鹹寒,加之則痞者消,而鞭者溼.若心下悸,小便不利者,去黃芩,加茯苓.心下悸小便不利,水蓄而不行也.內經曰,"腎欲堅,急食苦以堅之".堅腎則水益堅.黃芩味苦寒,去之則蓄水浸行.內經曰,"淡味滲泄爲陽".茯苓味甘淡,加之則津液通流.若不渴,外有微熱,去人參,加桂.不渴則津液足,去人參,以人參爲主內之物也.外有微熱,則表證多,加桂以取汗,發散表邪也.若欬者,去人參大棗生薑,加五味子乾薑,肺氣逆則咳,甘補中,則肺氣愈

逆,故去人參大棗之甘.五味子酸溫."肺欲收,急食酸以收之".氣逆不收,故加五味子之酸.生薑乾薑一物也,生者溫而乾者熱.寒氣內淫,則散以辛熱,蓋諸欬皆本於寒,故去生薑,加乾薑,是相假之,以正溫熱之功.識諸此者,小小變通,觸類而長焉.

겉에서부터 아직 수렴되어 실(實)해지지 않은 사기(邪氣)가 허(虛)한 틈을 타고 모이면 전해지는 곳이 한결같지 않다. 그러므로 약재를 가감하여 이를 막는다. 가슴 속이 답답하지만 구역(嘔逆)이 없는 경우에는 반하·인삼을 빼고 과루실을 더한다. 번(煩)은 열(熱)이다. 구(嘔)는 기운이 거슬러 오르는 것이다. 가슴 속이 답답하지만 구역(嘔逆)이 없으면 열(熱)이 모였으나 기(氣)가 거스르지 않아서 사기(邪氣)가 점차 실(實)해지려고 한다. 인삼(人蔘)의 기미는 단맛으로 보제(補劑)이다. 이것을 빼면 열(熱)을 조장하지 않는다. 반하의 기미는 매운맛으로 산제(散劑)이다. 이것을 뺀 것은 역기(逆氣)가 없기 때문이다. 과루실(枳實)의 기미는 쓰고 차다. 열(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차가운 기운으로 하고, 열(熱)을 배출시킬 때는 반드시 쓴맛으로 한다. 그러므로 과루실을 더하여 가슴 속의 울열(鬱熱)을 소통시켰다.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하를 빼고 인삼과 과루근을 더한다. 진액(津液)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긴다. 반하(半夏)의 기미는 맵고 성질은 건조하여 진액을 삼출(滲出)시키는 약재이다. 이것을 제거하면 진액이 쉽게 회복된다. 인삼(人蔘)의 기미는 달고 성질은 촉촉하다. 과루근의 기미는 쓰고 성질은 단단하다. 단단하고 촉촉한 성질이 서로 합쳐지면 진액이 생겨나서 갈증이 저절로 낮게 된다. 배 속이 아픈 경우에는 황금을 빼고 작약을 더한다. 소통되어야 하는데 막히면 통증이 된다. 사기(邪氣)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기(裏氣)가 부족하여 한기(寒氣)가 이것을 막으면 배 속이 아프다. 황금(黃芩)의 기미는 쓰고 차갑다. 쓴맛은 단단하게 하고 속을 차게 한다. 이것을 제거하면 중기(中氣)가 쉽게 조화를 이룬다. 작약(芍藥)의 기미는 시고 쓰며 조금 차갑다. 신맛으로 배설시키고 속을 이롭게 한다. 이것을 더하면 이기(裏氣)가 소통되므로 통증이 낮게 된다. 만약 옆구리 아래가 단단하게 막힌 경우에는 대조(大棗)를 빼고 모려(牡蠣)를 더한다. 《내경》에서 "단맛은 사람의 속을 그득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대조(大棗)의 기미는 달고 따

뜻하다. 이것을 빼면 단단한 것이 녹아 흩어진다. "짠맛은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였다. 모려(牡蠣)의 기미는 시고 짜며 차다. 이것을 더하면 비기(痞氣)가 사그라지어 단단한 것이 부드럽게 된다. 심하(心下)에 계(悸)가 있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황금(黃芩)을 빼고 복령(茯苓)을 더한다. 심하의 계(悸)와 잘 나오지 않는 소변은 수(水)가 축적되어 움직이지 않을 때 생긴다. 《내경》에서 "신(腎)은 단단하고자 하니 급히 쓴맛을 먹어 단단하게 해준다."라고 하였다. 신(腎)을 견고히 하면 수(水)는 더욱 견실해진다. 황금(黃芩)의 기미는 쓰고 차다. 이것을 빼면 쌓였던 물이 녹아 흐른다. 《내경》에서 "담담한 맛은 스며나가게 하므로 양(陽)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복령(茯苓)의 기미는 달고 담박하다. 이것을 더하면 진액(津液)이 흘러나온다. 만약 갈증이 없고 겉에서 미열(微熱)이 나는 경우에는 인삼(人蔘)을 빼고 계지(桂枝)를 더한다. 갈증이 없는 것은 진액(津液)이 충분한 것이다. 인삼을 뺀 것은 인삼이 속을 치료하는 약재이기 때문이다. 겉에서 미열이 나면 표증(表證)이 많은 것이므로 계지(桂枝)를 더하여 땀을 내고 표사(表邪)를 발산시켰다. 만약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인삼(人蔘)、대조(大棗)、생강(生薑)을 빼고 오미자(五味子)、건강(乾薑)을 더한다. 폐기(肺氣)가 거슬러 오르면 기침을 한다. 단맛으로 중기(中氣)를 보하면 폐기가 더욱 거슬러 오른다. 그러므로 단맛을 지닌 인삼、대조를 뺐다. 오지마의 기미는 시고 따듯하다. "폐(肺)는 수렴하려고 하므로 급히 신맛을 먹어 수렴시킨다."라고 하였다. 기(氣)가 거슬러 올라 수렴되지 않으므로 신맛을 지닌 오미자를 더하였다. 생강(生薑)과 건강(乾薑)은 기원이 같으나 생강은 성질이 따듯하고 건강은 성질이 뜨겁다. 한기(寒氣)가 안에 모였을 때는 맵고 뜨거운 성질로 흩어준다. 기침은 한(寒)에서 기원하므로 생강(生薑)을 빼고 건강(乾薑)을 넣었다. 이렇게 서로 대신하여 온열(溫熱)의 효과를 바로잡았다. 이것을 아는 이는 조금씩 변화에 응용하여 같은 종류의 일에 확장하여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柴胡(君,半斤) 黃芩(臣,二兩) 人蔘(佐,一兩) 甘草(佐,三兩炙) 半夏(使,半升,洗) 生薑(使,三兩,切) 大棗(使,十二枚,擘)

시호(군약, 반근) 황금(신약, 2냥) 인삼(좌약, 1냥) 감초(좌약, 3냥, 굽는다.) 반하(사약, 반 되, 흐르는 물에 씻는다.) 생강(사약, 3냥, 썬다.) 대조(사약, 12매, 찢는다.)

右七味,以水一斗二升,煮取六升,去滓再煎,取三升,溫服一升,三日服.

이 7가지 약재를 물 1말 2되로 6되가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한다. 3되를 덜어, 따뜻하게 하여 1되씩 하루 3번 복용한다.





## 梔子豉湯方 치자시탕방

內經曰,"其高者,因而越之,其下者,引而竭之,中滿者,瀉之於內,其有邪者,瀆形以爲汗,其在皮者,汗而發之".治傷寒之妙,雖有變通,終不越此數法也.傷寒邪氣自表而傳裏,留於胸中,爲邪在高分,則可吐之,是越之之法也.所吐之證,亦自不同,如不經汗下,邪氣蘊鬱於膈,則謂之膈實,應以瓜蒂散吐之,瓜蒂散吐胸中實邪者也.若發汗吐下後,邪氣乘虛留於胸中,則謂之虛煩,應以梔子豉湯吐之,梔子豉湯吐胸中虛煩者也.

《내경》에서 "병이 높은 곳에 있는 경우는 따르게 하여 올려주고, 병이 아래에 있는 경우는 끌어 당겨 없애주며, 속이 그득한 경우는 안에서 그것을 쏟아낸다. 사기(邪氣)가 있는 경우는 땀을 내서 몸을 적시고, 병사(病邪)가 피부에 있는 경우는 땀을 내어 쫓아 버린다."라고 하였다. 상한을 치료하는 오묘함은 변화가 있더라도 끝내 이 몇 가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한의 사기(邪氣)가 겉에서 속으로 전경(傳經)될 때, 가슴 속에 머물러 병사(病邪)가 높은 곳에 있으면 토법을 써야 한다. 이것이 "넘겨 올려주는(越之)" 방법이다. 구토의 증상은 동일하지 않다. 만약 한법이나 하법을 쓰지 않았는데 사기(邪氣)가 흥격에 울체된 것을 격실(膈實)이라고 한다. 이때는 과체산(瓜蒂散)으로 구토시켜야 한다. 과체산은 가슴 속의 실사(實邪)를 토해내게 한다. 만약 한법·토법·하법을 쓴 뒤에 사기(邪氣)가 허한 틈을 타고 가슴 속에 머무르게 된 것을 허번(虛煩)이라고 한다. 이때는 반드시 치자시탕(梔子豉湯)으로 구토시킨다. 치자시탕은 가슴 속의 허번(虛煩)을 토해내게 하는 처방이다.

梔子味苦寒.內經曰,"酸苦湧泄爲陰".湧者吐之也.湧吐虛煩,必以苦爲主,是以梔子爲君.煩爲熱盛也.湧熱者,必以苦,盛熱者,必以寒.香豉味苦寒,助梔子以吐虛煩,是以香豉爲臣.內經曰,"氣有高下,病有遠近,證有中外,治有輕重,適其所以爲治<sup>1</sup>",依而行之,所謂良矣.

치자(梔子)의 기미는 쓰고 차갑다. 《내경》에서 "신맛과 쓴맛은 뱉어내고 배설 시키므로 음(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뱉어내는 것(湧)은 토법이다. 허번을 구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쓴맛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치자를 군약(君藥)으로 삼았다. 번(煩)은 열(熱)이 왕성한 것이다. 열을 뱉어낼 때는 반드시 쓴맛으로 해야 한다. 왕성한 열에는 반드시 차가운 성질을 써야 한다. 향시(香豉)의 기미는 쓰고 차서 치자를 도와 허번을 토하게 한다. 그러므로 향시를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내경》에서 "기(氣)에 고하(高下)가 있고, 병에 원근(遠近)이 있으며, 증(證)에는 중외(中外)가 있고, 치방(治方)에 경중이 있으므로 원인에 맞추어 치료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치료하면 잘했다고 할 수 있다.

梔子(君, 四枚, 擘) 香豉(臣, 四合, 綿裹)

치자(군약, 4매, 찢는다) 향시(신약, 4홉, 면으로 싸다.)

右二味,以水四升,煮梔子,取二升半,去滓,內豉,更煮取一升半,去滓,分二服,溫進一服.得快吐者,止後服.

이 2가지 약재에서, 물 4되로 2되 반이 될 때까지 치자를 달이고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런 뒤 향시를 넣고 다시 1되 반이 될 때까지 달이고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것을 2번 분량으로 나누어 따뜻하게 1번 복용한다. 복용하고 시원하게 토하고 나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다.

1. 適其所以爲治 : 適其至所爲故也 ※《황제내경소문》↩

## 瓜蒂散 과체산

華陀曰,"四日在胸,則可吐之",此迎而奪之之法也.千金方曰,"氣浮上部,填塞心胸,胸中滿者,吐之則愈",此隨證治之之法也.大約傷寒四五日,邪氣客於胸中之時也,加之胸中煩滿,氣上衝咽喉,不得息者,則爲吐證具,乃可投諸吐藥,而萬全之功有之矣.

화타(華陀)가 "4일에는 병사(病邪)가 가슴이 있으므로 토법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미리 맞아들여 빼앗는 방법이다. 《천금방》에서 "사기(邪氣)가 상부(上部)로 떠올라 가슴을 막아서 가슴 속이 그득할 때 구토시키면 낫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증상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이다. 대개 상한 4 - 5일째에 사기(邪氣)가 가슴 속에 침입하였을 때 가슴 속이 답답하며 그득하고, 기운이 거슬러 목구멍을 치받아 숨을 쉬기 어려운 증상이 있다면 토법을 쓸 증상이 갖추어진 것이므로 구토시키는 약을 투여해야만 모두 치료할 수 있다.

瓜蒂味苦寒.內經曰,"濕氣在上,以苦吐之".寒濕之氣,留於胸中,以苦爲主,是以瓜蒂爲君.赤小豆味酸寒.內經曰,"酸苦湧泄爲陰".分湧膈實,必以酸爲主,是以赤小豆爲臣.香豉味苦寒.苦以湧泄,寒以勝熱,去上膈之熱,必以苦寒爲輔,是以香豉爲使.酸苦相合,則胸中痰熱湧吐而出矣.

과체(瓜蒂)의 기미는 쓰고 차다. 《내경》에서 "습기(濕氣)가 위쪽에 있으면 쓴맛으로 구토시킨다."라고 하였다. 한습(寒濕)의 기운이 가슴 속에 머무른 경우는 쓴맛으로 치료하므로 과체(瓜蒂)를 군약(君藥)으로 삼았다. 적소두(赤小豆)의 기미는 시고 차다. 《내경》에서 "신맛과 쓴맛은 용설(湧泄)시키므로 음(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격실(膈實)을 풀어서 용토(湧吐)시킬 때는 반드시 신맛을 위주로 한다. 그러므로 적소두를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향시(香豉)의 기미는 쓰고 차다. 쓴맛은 용설(湧泄)할 수 있고 찬 기운은 열(熱)을 억제하므로 상격(上膈)의 열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고한(苦寒)한 성질의 약으로 돕는다. 그러므로 향시(香豉)를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신맛과 쓴맛이 서로 합쳐지면 가슴 속의 담열(痰熱)이 토해져 나온다.

其於亡血虛家,所以不可與者,以瓜蒂散爲駛劑,重亡津液之藥,亡血虛家,補養則可,更亡津液,必不可全.用藥君子,必詳究焉.

망혈(亡血)이 생겼거나 혈허(血虛)한 환자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과체산이 성질이 사나운 처방이므로 진액(津液)을 거둬 소실시키기 때문이다. 망혈(亡血)하거나 혈허(血虛)할 때 보양(補養)시켜야 하며, 다시 진액을 소실시키면 분명 낮게 할 수 없다. 약을 쓰는 이들은 반드시 자세하게 궁리해야 한다.

瓜蒂(君,一分,熬黃) 赤小豆(臣,分<sup>1</sup>)

과체(군약, 1푼, 누렇게 볶는다.) 적소두(신약, 1푼)

右二味,各別搗篩爲散已,合治之,取一錢匕.以香豉一合,用熟湯七合,煮作稀糜,去滓,取汁,和散,溫頓服之.不吐者少少加,得快吐乃止.諸亡血虛家,不可與瓜蒂散.

이 2가지 약재를 각각 따로 찧고 체로 쳐서 가루로 만든 다음 섞어서 1전시(錢匙) 만큼 덜어 둔다. 향시(香豉) 1홉을 뜨거운 물 7홉으로 달여 묽은 미음으로 만든 뒤 찌꺼기를 제거하고 국물을 취해 덜어 둔 가루와 섞어 따뜻하게 단번에 복용한다. 복용하고 토하지 않으면 조금씩 더 복용한다. 시원하게 토하면 복용을 멈춘다. 망혈(亡血)하거나 혈허(血虛)한 환자에게는 과체산을 주어서는 안 된다.

1. 分 : \*一分 ※대성본 ↩

## 大陷胸湯方 대함흉탕

結胸,由邪在胸中.處身之高分,邪結於是,宜若可汗.然所謂結者,若繫結之結,不能分解者也.諸陽受氣於胸中,邪氣與陽氣相結,不能分解,氣不通,壅於心下,爲鞭爲痛,是邪正固結於胸中,非虛煩膈實之所同,是須攻下之物可理.低者舉之,高者陷之,以平爲正.結胸爲高邪,陷下以平之,故治結胸,曰陷胸湯.

결흉(結胸)은 사기(邪氣)가 가슴 속에 있어 생긴다. 몸의 윗부분에 사기(邪氣)가 맺히면 땀을 내야만 한다. 그런데 '결(結)'이라는 것은 "묶는다(繫結)"고 할 때의 '결(結)'로서 풀어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양(陽)은 가슴 속으로부터 기(氣)를 받는데, 사기(邪氣)와 양기(陽氣)가 서로 묶여 풀리지 않으면 기(氣)가 소통되지 않고 심하(心下)에 응결되어 단단하고 아프게 된다. 이것은 사기와 정기(正氣)가 가슴 속에서 묶인 것으로 허번(虛煩)이나 격실(膈實)의 원인과는 같지 않다. 이때는 반드시 공하시키는 약재로 치료해야 한다. 아래 있는 것은 올려주고(舉), 높이 있는 것은 함락시켜서(陷) 고르게 하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긴다. 결흉은 높은 곳에 사기가 있으므로 함락시켜 고르게 한다. 그러므로 결흉을 치료하는 처방을 함흉탕(陷胸湯)이라고 하였다.

甘遂味苦寒.苦性泄,寒勝熱.雖曰泄熱,而甘遂又若夫間之遂,直達之氣,陷胸破結,非直達者不能透,是以甘遂爲君.芒硝味鹹寒.內經曰,"鹹味下泄爲陰",又曰,"鹹以堯之".氣堅者,以鹹堯之,熱勝者,以寒消之,是以芒硝爲臣.大黃味苦寒,將軍也.蕩滌邪寇,除去不平,將軍之功也.陷胸滌熱,是以大黃爲使.

감수의 기미는 쓰고 차다. 쓴맛은 배출시키고 찬 기운은 열을 억제한다. 비록 열을 배출시킨다고 하였으나 부(夫)<sup>1</sup> 사이의 도랑(遂)<sup>2</sup>과도 같아서 곧바로 흐르는 기운이 가슴에 맺힌 것을 함락시켜(陷) 깨부순다. 곧게 흐르는 것이 아니면 뚫을 수 없으므로 감수(甘遂)를 신약(君藥)으로 삼았다. 망초(芒硝)의 기미는 짜고 차다. 《내경》에서 "짠맛은 아래로 설사시키므로 음(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고, 또 "짠맛은 무르게 한다."라고 하였다. 기(氣)가 견고하면 짠

맛으로 무르게 하고, 열(熱)이 왕성하면 찬 기운으로 사그라뜨린다. 그러므로 망초(芒硝)를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대황(大黃)의 기미는 쓰고 차서 장군(將軍)과 같다. 나쁜 도적을 몰아내고 고르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장군(將軍)의 역할이다. 가슴을 함락시켜 열을 씻어내야 하므로 대황(大黃)을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利藥之中,此爲駛劑.傷寒錯惡,結胸爲甚,非此湯則不能通利之.劑大而數少,取其迅疾,分解結邪,此奇方之治也.黃帝鍼經曰,"結雖大<sup>3</sup>,猶可解也".在傷寒之結,又不能久,非陷胸湯,孰可解之矣.

설사시키는 처방 가운데 대함흉탕은 사나운 성질의 처방이다. 상한을 잘못 치료하여 결흉이 심해지면 이 처방이 아니고서는 소통시켜 설사시킬 수 없다. 대제(大劑)로 하되 약재 수를 적게 하여 아래로 빠르게 내달리는 성질을 취하여서 맺힌 사기(邪氣)를 풀어내는 것이 이 기방(奇方)의 치료법이다. 《황제침경》에서 "맺힌 것(結)이 오래되었더라도 풀 수 있다."라고 하였다. 상한에서 맺힌 것(結)이 있을 때도 오래 둘 수 없으니, 함흉탕(陷胸湯)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겠는가.

甘遂(君,一錢匕) 芒硝(臣,一升) 大黃(使,六兩,去皮)

감수(군약, 1전시) 망초(신약, 1되) 대황(사약, 6냥, 껍질을 벗긴다.)

右三味,以水六升,先煮大黃,取二升,去滓,內芒硝,煮一兩沸,內甘遂末,溫服一升.得快利,止後服.

이 3가지 약재에서, 물 6되로 먼저 대황을 달이다가 2되가 되면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망초를 넣고 다시 한소끔 끓인다. 여기에 감수를 가루 내어 넣고 따뜻하게 1되 복용한다. 복용하고 시원하게 설사를 하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다.

<sup>1</sup>. 부(夫) : 정전제(井田制)에서 토지의 단위 ↩

<sup>2</sup>. 도랑〔遂〕 : 《주례(周禮)》〈지관(地官) 수인(遂人)〉 "전야(田野)를 다스릴 때 부(夫) 사이에는 수(遂)가 있고 수 위에는 경(徑)이 있다.〔凡治野, 夫間有遂, 遂上有徑〕" ←

<sup>3</sup>. 大 : \*久 ※《영추》 ←



## 半夏瀉心湯方 반하사심탕

凡陷胸湯攻結也,瀉心湯攻痞也.氣結而不散,壅而不通爲結胸.陷胸湯爲直達之劑.塞而不通,否而不分爲痞.瀉心湯爲分解之劑.所以謂之瀉心者,謂瀉心下之邪也.痞與結胸,有高下焉.結胸者,邪結在胸中,故治結胸曰陷胸湯.痞者,留邪在心下,故治痞曰瀉心湯.

함흉탕(陷胸湯)은 결(結)을 치료하고, 사심탕(瀉心湯)은 비(痞)를 치료한다. 기(氣)가 맺혀 흠어지지 않고 정체되어 소통되지 못하면 결흉(結胸)이 된다. 함흉탕(陷胸湯)은 곧바로 뚫어주는 처방이다. 막혀서 통하지 않고 닫혀서 트이지 않는 것이 비(痞)이다. 사심탕(瀉心湯)은 나누어 풀어주는 처방이다. '사심(瀉心)'이라고 한 까닭은 심하(心下)의 사기(邪氣)를 사(瀉)하기 때문이다. 비(痞)와 결흉(結胸)에는 높고 낮음이 있다. 결흉(結胸)은 사기가 가슴 속에 맺힌 것이다. 그러므로 결흉을 치료하는 것을 함흉탕(陷胸湯)이라고 하였다. 비(痞)는 심하(心下)에 사기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痞)를 치료하는 것을 사심탕(瀉心湯)이라고 하였다.

黃連味苦寒,黃芩味苦寒.內經曰,"苦先入心,以苦泄之".瀉心者,必以苦爲主,是以黃連爲君,黃芩爲臣,以降陽而升陰也.半夏味辛溫,乾薑味辛熱.內經曰,"辛走氣,辛以散之".散痞者必以辛爲助,故以半夏乾薑爲佐,以分陰而行陽也.甘草味甘平,大棗味甘溫,人參味甘溫.陰陽不交曰痞,上下不通爲滿.欲通上下,交陰陽,必和其中.所謂中者,脾胃是也.脾不足者,以甘補之,故用人參甘草大棗爲使,以補脾而和中.中氣得和,上下得通,陰陽得位,水升火降,則痞消熱已,而大汗解矣.

황련(黃連)의 기미는 쓰고 차며, 황금(黃芩)의 기미도 쓰고 차다. 《내경》에서 "쓴맛은 먼저 심(心)으로 들어가므로 쓴맛으로 병사(病邪)를 배출시킨다."라고 하였다. 심(心)을 사(瀉)할 때에는 반드시 쓴맛을 위주로 하여야 하므로 황련을 군약(君藥)으로 삼고 황금(黃芩)을 신약(臣藥)으로 삼아서 양(陽)을 내리고 음(陰)을 올렸다. 반하(半夏)의 기미는 맵고 따뜻하며, 건강의 기미는 맵고



뜨겁다. 《내경》에서 "매운맛은 기(氣)를 내달리게 하므로 매운맛으로 발산시킨다."라고 하였다. 비(痞)를 흠을 때에는 반드시 매운맛으로 도와야 하므로 반하와 건강을 좌약(佐藥)으로 삼아서 음(陰)을 터서 양(陽)을 통하게 하였다. 감초(甘草)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며, 대조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며, 인삼(人蔘)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음(陰)과 양(陽)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비(痞)라고 한다. 위와 아래가 소통되지 못하는 것을 만(滿)이라고 한다. 위와 아래를 소통시키고 음과 양을 사귀게 하려면 반드시 중양을 평안하게 해야 한다. '중양'이라는 것은 곧 비위(脾胃)이다. 비(脾)가 부족하면 단맛으로 보하므로 인삼·감초·대조를 사약(使藥)으로 삼아서 비(脾)를 보하여 중양을 편안하게 하였다. 중기(中氣)가 편안해지면 위와 아래가 소통되고 음양이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리하여 수(水)가 오르고 화(火)가 내려가면 비(痞)가 사그라지고 열(熱)이 그치게 되어 크게 땀이 난 뒤 병이 낫게 된다.

黃連(君, 一兩) 黃芩(臣, 三兩) 半夏(佐, 半升, 洗) 乾薑(佐, 三兩) 人蔘(使, 三兩) 甘草(使, 三兩, 炙) 大棗(使, 十二枚, 擘)

황련(군약, 1냥) 황금(신약, 3냥) 반하(좌약, 반되, 씻는다) 건강(좌약, 3냥) 인삼(사약, 3냥) 감초(사약, 3냥, 굽는다) 대조(사약, 12매, 찢는다.)

右七味, 以水一斗, 煮取六升, 去滓再煎, 取三升, 溫服一升, 日三服.

이 7가지 약재를 물 1말로 6되가 될 때까지 달인 뒤 찌꺼기를 제거한다. 3되를 취해 따뜻하게 1되씩 하루 3번 복용한다.

## 茵陳蒿湯方 인진호탕방

王氷曰,"小熱之氣,涼以和之,大熱之氣,寒以取之".發黃者,熱之極也,非大寒之劑,則不能徹其熱.

왕빙(王氷)은 "작은 열기(熱氣)는 시원한 성질로 조화시키고, 큰 열기는 차가운 성질로 제압한다."라고 말하였다. 발황(發黃)은 열(熱)이 극심한 것으로 매우 찬 성질의 처방이 아니면 그 열을 제거할 수 없다.

茵陳蒿味苦寒.酸苦湧泄爲陰,酸以湧之,苦以泄之.泄甚熱者,必以苦爲主,故以茵陳蒿爲君.心法南方火而主熱.梔子味苦寒.苦入心而寒勝熱.大熱之氣,必以苦寒之物勝之,故以梔子爲臣.大黃味苦寒.宜補必以酸,宜下必以苦.推除邪熱,必假將軍攻之,故以大黃爲使.苦寒相近,雖甚熱大毒必祛除,分泄前後,復得利而解矣.

인진호(茵陳蒿)의 기미는 쓰고 차다. 신맛과 쓴맛은 용설(湧泄)하므로 음(陰)에 해당한다. 신맛으로 구토시키고, 쓴맛으로 설사시킨다. 심한 열을 배출할 때는 반드시 쓴맛을 위주로 하여야 하므로 인진호를 군약(君藥)으로 삼았다. 심(心)은 남방(南方) 화(火)의 기운을 부여받아 열(熱)을 주관한다. 치자(梔子)의 기미는 쓰고 차다. 쓴맛은 심(心)으로 들어가고 찬기운은 열(熱)을 억누른다. 그러므로 치자를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대황(大黃)의 기미는 쓰고 차다. 보할 때는 반드시 신맛으로 하고 공하시킬 때는 반드시 쓴맛으로 한다. 사열(邪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장군(將軍)의 힘을 빌려 공격하므로 대황(大黃)을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쓰고 찬 성미가 서로 비슷하므로 비록 심한 열에 섯독(毒)이라도 반드시 제거되는데, 전음(前陰)과 후음(後陰)으로 나뉘어 배설되므로 설사를 한 뒤 낫게 된다.

茵陳蒿(君,六兩) 梔子(臣,十四枚,擘) 大黃(使,二兩,去皮)

인진호(군약, 6냥) 치자(신약, 14매, 찢는다) 대황(사약, 2냥, 껍질을 벗긴다)

右三味,以水一斗二升,先煮茵陳蒿,減六升,內二味,煮取三升,去滓,分三服.小便當利,尿如皂莢汁狀,色正赤,一宿腹減,則黃從小便去也.

이 3가지 약재에서, 물 1말 2되로 먼저 인진호를 달이다가 6되가 되면 치자와 대황을 넣고 3되가 될 때까지 달인 다음 찌꺼기를 제거한다. 이것을 3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소변이 잘 나오게 되는데, 소변이 조협즙(皂莢汁)과 같고 색은 새빨갳다. 하루가 지나 배가 줄어들면 발황이 소변을 따라 제거된 것이다.



## 白虎湯方 백호탕

白虎,西方金神也,應秋而歸肺.熱甚於內者,以寒下之,熱甚於外者,以涼解之,其有中  
外俱熱,內不得泄,外不得發者,非此湯則不能解之也.夏熱秋涼,暑喝之氣,得秋而止,  
秋之<sup>1</sup> 今曰處暑,是湯以白虎名之,謂能止熱也.

백호(白虎)는 서방(西方) 금(金)의 신(神)으로, 가을에 상응하며 폐(肺)로 돌아  
간다. 열(熱)이 안에서 심하면 찬기운으로 공하시키고, 열이 밖에서 심하면 서  
늘한 기운으로 풀어준다. 그러나 안팎에 모두 열이 있으면 안으로 배출시킬 수  
없고 밖으로 발산시킬 수 없으므로 이 처방이 아니면 낮게 할 수 없다.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다. 서갈(暑渴)의 기운이 가을이 되면 그치므로 가을의 시  
령(時令)을 처서(處暑)라고 하였다. 이 처방을 '백호(白虎)'라고 이름 붙인 것은  
열(熱)을 그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知母味苦寒.內經曰,"熱淫所勝,佐以苦甘",又曰,"熱淫於內,以苦發之".欲徹表熱,必  
以苦爲主,故以知母爲君.石膏味甘微寒."熱則傷氣,寒以勝之,甘以緩之".熱勝其氣,  
必以甘寒爲助,是以石膏甘寒爲臣.甘草味甘平,粳米味甘平."脾欲緩,急食甘以緩之".  
熱氣內餘,消燥津液,則脾氣燥,必以甘平之物緩其中,故以甘草粳米爲之使.是太陽中  
喝,得此湯則頓除之,即熱見白虎而盡矣.

지모(知母)의 기미는 쓰고 차다. 《내경》에서 "열사(熱邪)가 왕성하면 쓰고 단  
맛으로 돕는다."라고 하였고, 또 "열사(熱邪)가 안에 침입하면 쓴맛으로 발산  
시킨다."라고 하였다. 표열(表熱)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쓴맛을 위주로 한다.  
그러므로 지모를 군약(君藥)으로 삼았다. 석고(石膏)의 기미는 달고 조금 차  
다. "열사(熱邪)는 기(氣)를 손상시키므로 차가운 성질로 억제하고 단맛으로  
완화시킨다."라고 하였다. 열(熱)이 기(氣)를 억누르면 반드시 달고 찬기운으  
로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달고 차가운 기미의 석고로 신약(臣藥)을 삼았다. 감  
초(甘草)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며, 갱미(粳米)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다. "비  
(脾)는 느슨해지고자 하므로 급히 단맛을 먹어 완화시킨다."라고 하였다. 열기

(熱氣)가 안에 남아 진액을 말리면 비기(脾氣)가 건조하게 되므로 반드시 달고 평(平)한 성질의 약재로 중양을 느슨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감초(甘草)·갱미(粳米)를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태양중갈(太陽中渴)의 병이 이 처방을 복용하면 단번에 제거된다. 곧 열(熱)이 백호를 만나면 소진되는 것이다.

立秋後不可服,以秋則陰氣<sup>2</sup>矣.白虎爲大寒劑,秋王之時,若不能食,服之而爲嘔逆不能食,成虛羸者多矣.〔春沂云,立秋後至多矣四十二字,疑後人所加.〕

입추(立秋) 뒤에 복용해서는 안 된다. 가을에 음기(陰氣)가 반(半)이 되기 때문이다. 백호탕은 매우 차가운 성질의 처방이므로 가을의 기운이 왕성한 때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 복용하면 열역(嘔逆)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 파리하게 허약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용춘기(鎔春沂)<sup>3</sup>는 "'立秋' 뒤로 '至多'까지 42자는 후인이 첨가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말하였다.〕

知母(君,六兩) 石膏(臣,一斤,碎) 甘草(使,二兩,炙) 粳米(使,六合)

지모(군약, 6냥) 석고(신약, 1근, 부순다.) 감초(사약, 2냥, 굽는다) 갱미(사약, 6홉)

右四味,以水一斗,煮,米熟湯成,去滓,溫服一升,日三服.

이 4가지 약재를 물 1말을 넣고 달인다. 쌀이 익으면 탕(湯)이 다 된 것이니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1되 씩 하루 3번 복용한다.

1. 今 : \*令 ※대성본 ←

2. 半 : \*平 ※대성본 ←

3. 용춘기(鎔春沂) : 오면학(吳勉學) 간본 간행 시 응천서(應天徐)와 함께 교감(校勘)에 참여하였다. ←



## 五苓散方 오령산

苓令也,號令之令矣.通行津液,剋伐腎邪,專爲號令者,苓之功也.五苓之中,茯苓爲主,故曰五苓散.

'령(苓)'은 명령이라는 뜻으로, 호령(號令)한다는 뜻이다. 진액(津液)을 소통시켜 흐르게 하고, 신사(腎邪)를 제압할 때 전적으로 호령하는 것이 복령(茯苓)의 역할이다. 오령산에서 복령(茯苓)이 중요하므로 오령산이라고 하였다.

茯苓味甘平,猪苓味甘平,甘雖甘也,終歸甘淡.內經曰,"淡味滲泄爲陽".利大便曰攻下,利小便曰滲泄.水飲內畜,須當滲泄之,必以甘淡爲主,是以茯苓爲君,猪苓爲臣.白朮味甘溫,脾惡濕,水飲內畜,則脾氣不治,益脾勝濕,必以甘爲助,故以白朮爲佐.澤瀉味鹹寒.內經曰,"鹹味下泄爲陰".泄飲導溺,必以鹹爲助,故以澤瀉爲使.桂味辛熱.腎惡燥,水畜不行,則腎氣燥.內經曰,"腎惡燥,急食辛以潤之".散濕潤燥,可以桂枝爲使.多飲煖水,令汗出愈者,以辛散水氣外泄,是以汗潤而解也.

복령(茯苓)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고, 저령(猪苓)의 기미도 달고 평(平)하다. 달기는 달지만 결국 달면서 담담한 맛이다. 《내경》에서 "담담한 맛은 스며나가게 하므로 양(陽)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대변을 나가게 하는 것을 공하(攻下)라고 하고, 소변을 나가게 하는 것을 삼설(滲泄)이라고 한다. 수음(水飲)이 안에 쌓이면 삼설시켜야 하는데, 반드시 달고 담담한 약재를 위주로 한다. 그러므로 복령을 군약(君藥)으로 삼고 저령(猪苓)을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백출(白朮)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비(脾)는 습(濕)을 싫어한다. 수음(水飲)이 안에 쌓이면 비기(脾氣)가 다스려지지 못한다. 비(脾)를 돕고 습(濕)을 억누르려면 반드시 단맛으로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백출(白朮)을 사약(佐藥)으로 삼았다. 택사(澤瀉)의 기미는 짜고 차다. 《내경》에서 "짠맛은 아래로 배설시킴으로 음(陰)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수음(水飲)을 삼설(滲泄)시켜 소변으로 내보낼 때는 반드시 짠맛으로 돕는다. 그러므로 택사(澤瀉)를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계지(桂枝)의 기미는 맵고 뜨겁다. 신(腎)은 건조함을 싫어한다. 수음(水

飲)이 쌓여 흐르지 못하면 신기(腎氣)가 건조해진다. 《내경》에서 "신(腎)은 건조함을 싫어하므로 급히 매운맛을 먹어 축여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습(濕)을 흘리고 조(燥)를 적실 때는 계지(桂枝)를 사약(使藥)으로 삼아야 한다. "따뜻한 물을 많이 먹고 땀을 내면 낫는다."고 한 것은 매운맛으로 수기(水氣)를 흘려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땀으로 축축해진 뒤에 낫는 것이다.

茯苓(君,十八銖) 猪苓(臣,十八銖,去皮) 白朮(佐,十八銖) 澤瀉(使,一兩六錢) 桂枝(使,五錢,去皮)

복령(군약, 18수) 저령(신약, 18수, 껍질을 벗긴다.) 백출(좌약, 18수) 택사(사약, 1냥 6돈) 계지(사약, 5돈, 껍질을 벗긴다.)

右五味,搗爲散,以白飲和服方寸匕,日三服.多飲煖水,汗出愈,如法將息.

이 5가지 약재를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 끓인 물에 섞어서 1방촌시(方寸匙) 씹 하루 3번 복용한다.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땀이 나면 낫는다. 일반적인 방법처럼 조리한다.



## 理中丸方 이중환

心肺在膈上爲陽,腎肝在膈下爲陰,此<sup>1</sup>止下藏也.脾胃應土,處在中州,在五藏曰孤藏,屬三焦曰中焦.自三焦獨治在中,一有不調,此丸專治,故名曰理中丸.

심(心)·폐(肺)는 흉격 위에 있어 양(陽)이 되고, 신(腎)·간(肝)은 흉격 아래 있어 음(陰)이 된니, 이것이 위와 아래의 장기이다. 비위(脾胃)는 토(土)에 상응하여 중앙에 위치하므로 오장(五藏)에서는 '고장(孤藏)'이라고 하고 삼초(三焦)에서는 '중초(中焦)'라고 한다. 삼초(三焦)가 다스려지는 가는 오직 중초에 달려 있으므로, 한 가지라도 고르지 못하면 이 처방으로 오로지 치료한다. 그러므로 이중환(理中丸)이라고 하였다.

人參味甘溫.內經曰,"脾欲緩,急食甘以緩之".緩中益脾,必以甘爲主,是以人參爲君.白朮味甘溫.內經曰,"脾惡<sup>2</sup>", "甘溫勝濕<sup>3</sup>".溫中勝濕,必以甘爲助,是以白朮爲臣.甘草味甘平.內經曰,"五味所入,甘先入脾", "脾不足者,以甘補之".補中助脾,必先甘劑,是以甘草爲佐.乾薑味辛熱.喜溫而惡寒者胃也,胃寒則中焦不治.內經曰,"寒淫所勝,平以辛熱".散寒溫胃,必先辛劑,是以乾薑爲使.

인삼(人蔘)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내경》에서 "비(脾)는 느슨해지고자 하므로 급히 단맛을 먹어 완화시켜준다."라고 하였다. 중앙을 느슨히 하여 비(脾)를 도울 때는 반드시 단맛을 위주로 하므로 인삼(人蔘)으로 군약(君藥)을 삼았다. 백출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내경》에서 "비(脾)는 습을 싫어하고, 단맛은 습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중앙을 따뜻하게 하여 습(濕)을 억제할 때는 반드시 단맛으로 도와야 하므로 백출(白朮)을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감초(甘草)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다. 《내경》에서 "오미(五味)가 오장으로 들어가는 데, 단맛이 먼저 비(脾)로 들어간다.", "비(脾)가 부족하면 단맛으로 보한다."라고 하였다. 중앙을 보하여 비(脾)를 도울 때는 반드시 단맛의 약재를 우선해야 하므로 감초(甘草)를 좌약(佐藥)으로 삼았다. 건강(乾薑)의 기미는 맵고 뜨겁다. 따뜻함을 좋아하고 차가움을 싫어하는 것이 위(胃)이다. 위가 차면

중초(中焦)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내경》에서 "한사(寒邪)가 왕성하면 맵고 뜨거운 성질로 평정한다."라고 하였다. 찬 기운을 흠어 위(胃)를 따뜻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매운맛의 약재를 우선해야 하므로 건강(乾薑)을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脾胃居中,病則邪氣左右上下,無病不至,故又有諸加減焉.若臍<sup>4</sup>築者,腎氣動也,去白朮加桂.氣壅而不泄,則築然動.白朮味甘,補氣,去白朮則氣易散.桂辛熱.腎氣動者,欲作奔豚也,必服辛味以散之,故加桂以散腎氣.經曰,"以辛入腎,能泄奔豚氣"故也.吐多者,去白朮,加生薑.氣上逆者,則吐多,朮甘而壅,非氣逆者之所宜也.千金方曰,"嘔家多服生薑,此是嘔家聖藥".生薑辛散,是於吐多者加之.下多者,選用朮.氣泄而不收,則下多.朮甘壅補,使正氣收而不泄也.或曰"濕勝則濡泄.朮專除濕,是於下多者加之".悸者,加茯苓.飲聚則悸.茯苓味甘,滲泄伏水,是所宜也.濕<sup>5</sup>欲得水者,加朮.津液不足則渴,朮甘以補津液.腹中痛者,加入參.虛則痛.本草曰,"補可去弱,即人參羊肉之屬是也".寒多者,加乾薑,辛能散也.腹滿者,去白朮,加附子.內經曰,"甘者令人中滿".朮甘壅補,於腹滿家則去之.附子味辛熱,氣壅鬱爲之腹滿,以熱勝寒,以辛散滿,故加附子.內經曰,"熱者寒之,寒者熱之",此之謂也.

비위(脾胃)는 중앙에 위치하므로 병이 들면 사기(邪氣)가 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으로 움직여 병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가감법이 있다. 만약 배꼽 위가 쿵쿵 뛰는 것은 신기(腎氣)가 움직이는 경우로, 백출(白朮)을 빼고 계지를 넣었다. 기(氣)가 막혀 나가지 못하면 쿵쿵거리며 요동친다. 백출(白朮)의 기미는 달아서 기(氣)를 보한다. 백출을 빼면 기(氣)가 쉽게 흠어진다. 계지의 기미는 맵고 뜨겁다. 신기(腎氣)가 요동치는 것은 분돈(奔豚)이 생기려 하는 것이니 반드시 매운맛을 복용하여 그것을 흠어야 하므로 계지를 더하여 신기(腎氣)를 흠었다. 《내경》에서 "매운맛은 신(腎)으로 들어가 분돈(奔豚)을 제거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구토를 많이 할 때는 백출(白朮)을 빼고 생강(生薑)을 더한다. 기(氣)가 위로 거슬러 오르면 구토를 많이 한다. 백출의 기미는 달아서 기운을 막히게 하므로 기운이 거슬러 오를 때 적합하지 않다. 《천금방》에서 "자주 구토하는 환자에게는 생강을 많이 복용시

킨다. 생강은 자주 구토하는 경우의 성약(聖藥)이다."라고 하였다. 생강(生薑)의 기미는 맵고 흠는다. 그러므로 구토를 많이 할 때 이것을 더하였다. 설사를 많이 할 때에는 도리어 백출을 사용하였다. 기(氣)가 배출되어 수렴되지 못하면 설사를 많이 한다. 출(朮)은 달아서 정체시키고 보하므로 정기(正氣)가 수렴되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어떤 이는 "습(濕)이 왕성하면 설사를 하는데 백출이 오로지 습을 제거한다. 그러므로 설사를 많이 할 때 이것을 더하였다."라고 하였다. 계(悸)가 있을 때 복령(茯苓)을 더하였다. 음(飮)이 모이면 계(悸)가 된다. 복령(茯苓)의 기미는 달아서 잠복한 수(水)를 배출시키므로 이에 적당하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 할 때는 출(朮)을 더한다. 진액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긴다. 출의 기미는 달아서 진액을 보한다. 뱃속이 아플 때는 인삼(人蔘)을 더한다. 허(虛)하면 아프다. 《본초》에서 "보하는 효능은 약해서 생긴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곧 인삼(人蔘)、양육(羊肉) 등이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오한(惡寒)이 많으면 건강(乾薑)을 더한다. 매운맛이 흠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만(腹滿)이 있으면 백출을 빼고 부자(附子)를 더한다. 《내경》에서 "단맛은 사람의 속을 그득하게 만든다."라고 하였다. 백출은 달아서 정체시키고 보하므로 복만이 있는 이에게는 뺀다. 부자(附子)의 기미는 맵고 뜨겁다. 기(氣)가 울체되면 복만(腹滿)이 된다. 열(熱)은 한(寒)을 이기고 매운맛은 만(滿)을 흠으므로 부자(附子)를 더하였다. 《내경》에서 "뜨거운 것은 차갑게 하고, 차가운 것은 뜨겁게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人參(君) 白朮(臣) 甘草(佐,炙) 乾薑(使,各二兩)

인삼(군약) 백출(신약) 감초(좌약, 굽는다.) 건강(사약, 각 2냥)

右四味,搗篩,密丸如鷄子黃許大.以沸湯數合,和一丸,研碎,溫服之,日三四,夜二服.

이 4가지 약재를 빻고 체로 쳐서 계란 노른자 크기 정도로 꿀로 환을 만든다. 끓인 물 몇 홑에 한 알을 넣고 녹여 따뜻하게 복용한다. 낮에 3 - 4번, 밤에 2번 복용한다.

1. 止 : \*上 ※대성본 ←

2. 脾惡 : \*脾惡濕 ※대성본 ←

3. 甘溫勝濕 : \*甘勝濕 ※대성본 ←

4. 下 : \*上 ※상한론 ←

5. 濕 : \*渴 ※상한론 ←



## 四逆湯方 사역탕

四逆者,四肢逆而不溫也.四肢者,諸陽之本,陽氣不足,陰寒加之,陽氣不相順接,是致手足不溫,而成四逆.此湯申發陽氣,却散陰寒,溫經暖肌,是以四逆名之.

사역(四逆)은 팔다리가 거슬러 오르면서 따뜻하지 않은 것이다. 사지(四肢)는 모은 양(陽)의 근본으로, 양기(陽氣)가 부족하면 음한(陰寒)이 더해지고, 양기(陽氣)가 서로 이어지지 못하면 손발이 따뜻하지 못하게 되어 사역(四逆)이 된다. 이 처방은 양기(陽氣)를 퍼뜨리고 한음(陰寒)을 제거하여 경맥(經脈)과 기육(肌肉)을 따뜻하게 하므로 사역(四逆)이라고 불린다.

甘草味甘平.內經曰,"寒淫於內,治以甘熱".却陰扶陽,必以甘爲主,是以甘草爲君.乾薑味辛熱.內經曰,"寒淫所勝,平以辛熱".逐寒正氣,必先辛熱,是以乾薑爲臣.附子味辛大熱.內經曰,"辛以潤之,開發腠理,致津液通氣也".暖肌溫經,必憑大熱,是以附子爲使.此奇制之大劑也,四逆屬少陰,少陰者腎也,腎肝位遠,非大劑則不能達.內經曰,"遠而奇耦,制大其服",此之謂也.

감초(甘草)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다. 《내경》에서 "한사(寒邪)가 안에 침입하면 달고 뜨거운 성질로 치료한다."라고 하였다. 음(陰)을 제거하고 양(陽)을 복돋을 때는 반드시 단맛을 위주로 하므로 감초(甘草)를 군약(君藥)으로 삼았다. 건강(乾薑)의 맛은 맵고 뜨겁다. 《내경》에서 "한사(寒邪)가 왕성하면 맵고 뜨거운 성질로 평정한다."라고 하였다. 한(寒)을 쫓고 기(氣)를 바로잡을 때는 반드시 맵고 뜨거운 성질을 우선해야 하므로 건강(乾薑)을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부자(附子)의 기미는 맵고 매우 뜨겁다. 《내경》에서 "매운맛으로 적시는 데, 주리(腠理)를 열어 진액(津液)이 이르게 하고 기(氣)를 소통시킨다."라고 하였다. 기육과 경맥을 따뜻하게 할 때는 반드시 매우 뜨거운 성질에 의지하므로 부자(附子)를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이 처방은 기방(奇方) 가운데 대제(大劑)이다. 사역(四逆)은 소음(少陰)에 속하고, 소음(少陰)은 신(腎)이다. 신(腎)

과 간(肝)의 위치는 멀기 때문에 대제(大劑)가 아니면 도달시킬 수 없다. 《내경》에서 "병소가 먼 곳에 기방(奇方)이나 우방(偶方)을 쓸 경우에는 대제(大劑)를 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甘草(君, 二兩) 乾薑(臣, 一兩半) 附子(使, 一枚, 生用去皮八片)

감초(군약, 2냥) 건강(신약, 1냥반) 부자(사약, 1매, 날것에서 껍질을 벗겨 8편으로 자른다.)

右三味,以水三升,煮取一升二合,去滓,分溫再服.强人可大附子一枚,乾薑三兩.

이 3가지 약재를 물 3되로 1되 2홉이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2번에 나누어 복용한다. 체력이 강인한 사람에게는 큰 부자 1매, 건강 3냥까지 쓸 수 있다.

## 眞武湯方 진무탕

眞武,北方水神也,而屬腎,用以治水焉.水氣在心下,外帶表而屬陽,必應發散,故治以眞武湯.靑龍湯主太陽病,眞武湯主少陰病,少陰腎水也,此湯可以和之,眞武之名得矣.

진무(眞武)는 북방(北方) 수(水)의 신(神)으로, 신(腎)에 속하여 수(水)를 다스리는데 사용한다. 수기(水氣)가 심하(心下)에 있고 겉으로 표증을 끼고서 양(陽)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발산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진무탕으로 치료하였다. 청룡탕(靑龍湯)은 태양병(太陽病)을 치료하고, 진무탕(眞武湯)은 소음병(少陰病)을 치료한다. 소음(少陰)은 신수(腎水)이다. 이 처방으로 조화롭게 할 수 있으므로 진무(眞武)라는 이름을 얻었다.

茯苓味甘平,白朮味甘溫.脾惡濕,腹有水氣,則脾不治."脾欲緩,急食甘以緩之".滲水緩脾,必以甘爲主,故以茯苓爲君,白朮爲臣.芍藥味酸微寒,生薑味辛溫.內經曰,"濕淫所勝,佐以酸辛".除濕正氣,是用芍藥生薑酸辛爲佐也.附子味辛熱.內經曰,"寒淫所勝,平以辛熱".溫經散濕,是以附子爲使也.

복령(茯苓)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다. 백출(白朮)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비(脾)는 습(濕)을 싫어하므로 배에 수기(水氣)가 있으면 비(脾)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비(脾)는 느슨해지고자 하므로 급히 단맛을 먹어 느슨하게 한다." 수(水)를 스며나가게 하고 비(脾)를 느슨하기 할 때는 반드시 단맛을 위주로 하므로 복령(茯苓)을 군약(君藥)으로 삼고 백출(白朮)을 신약(臣藥)으로 하였다. 작약(芍藥)의 기미는 달고 조금 차며, 생강(生薑)의 기미는 맵고 따뜻하다. 《내경》에서 "습사(濕邪)가 왕성하면 시고 매운맛으로 돕는다."라고 하였다. 습(濕)을 제거하고 기(氣)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시고 매운 작약(芍藥)과 생강(生薑)을 좌약(佐藥)으로 삼았다. 부자(附子)의 기미는 맵고 뜨겁다. 《내경》에서 "한사(寒邪)가 왕성하면 맵고 뜨거운 성질로 평정한다."라고 하였다. 경맥을 따뜻하게 하여 습(濕)을 흩어야 하므로 부자(附子)를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水氣內漬,至於散則所行不一,故有加減之方焉.若欬者,加五味子細辛乾薑.欬者水寒射肺也.肺氣逆者,以酸收之,五味子酸而收也.肺惡寒,以辛潤之,細辛乾薑辛而潤也.若小便利者,去茯苓.茯苓專滲泄者也.若下利者,去芍藥,加乾薑.酸之性泄,去芍藥以酸泄也.辛之性散,加乾薑以散寒也.嘔者,去附子,加生薑.氣上逆則嘔.附子補氣,生薑散氣,兩不相損,氣則順矣.增損之功,非大智孰能貫之.

수기(水氣)가 안으로 스며들면 흠었을 때 가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가감법을 두었다.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오미자(五味子)·세신(細辛)·건강(乾薑)을 더한다. 기침은 수한(水寒)에 적중된 것이다. 폐기(肺氣)가 거스르면 신맛으로 수렴시키므로 오미자의 신맛으로 수렴시켰다. 폐(肺)는 한(寒)을 싫어하여 매운맛으로 폐를 적셔주어야 하므로 세신(細辛)·건강(乾薑)의 매운맛으로 적시었다. 소변이 잘 나오면 복령(茯苓)을 뺀다. 복령은 오로지 소변으로 배출시킨다. 만약 설사를 하면 작약(芍藥)을 빼고 건강(乾薑)을 더한다. 신맛의 성질은 배설시키므로 신맛으로 배설시키는 작약을 뺐다. 매운맛의 성질은 발산시키므로 한(寒)을 발산시키는 건강을 더하였다. 구역질 하는 경우에는 부자(附子)를 빼고 생강(生薑)을 더하였다. 기(氣)가 위로 거스르면 구역질을 한다. 부자(附子)는 기(氣)를 보하고, 생강(生薑)은 기(氣)를 흠는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약성을 해치지 않으면 기(氣)가 고르게 된다. 약재들 사이에는 서로 더하거나 해치는 효과가 있으니, 매우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꿰뚫을 수 있을 것인가.

茯苓(君,三兩) 白朮(臣,二兩) 芍藥(佐,三兩) 生薑(佐,三兩,切) 附子(使,一枚,炮去皮臍作八片)

복령(군약, 3냥) 백출(신약, 2냥) 작약(좌약, 3냥) 생강(좌약, 3냥, 썬다.) 부자(사약, 1매, 구운 것에서 겹질과 배꼽을 제거하고 8편으로 저민다.)

右五味,以水八升,煮取三升,去滓,溫服七合,日三服.

이 5가지 약재를 물 8되로 3되가 될 때까지 달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7홉씩 하루 3번 복용한다.





## 建中湯方 건중탕

內經曰,"肝生於左,肺藏於右,心位在上,腎處在下",左右上下,四藏居焉.脾者土也,應中央,處四藏之中,爲中州,治中焦,生育榮衛,通行津液.一有不調,則榮衛失所育,津液失所行,必以此湯溫建中藏,是以建中名焉.

《내경》에서 "간(肝)은 왼쪽에서 생겨나게 하고, 폐(肺)는 오른쪽에서 갈무리하며, 심(心)은 위쪽에 위치하고, 신(腎)은 아래쪽에 거처한다."라고 하였다. 왼쪽·오른쪽·위쪽·아래쪽에 네 장기가 위치한다. 비(脾)는 토(土)로 중앙(中央)에 상응하며, 네 장기 가운데 위치하여 중주(中州)가 되고, 중초(中焦)를 다스리고, 영위(榮衛)를 낳고 기르며, 진액을 흐르게 한다. 한 번이라도 다스려지지 못하면 영위(榮衛)가 길러지지 못하고 진액이 흐르지 못한다. 이 때 반드시 이 처방으로 중앙의 장기를 따뜻하고 굳건히 해야 하므로 '건중(建中)'이라고 이름하였다.

膠飴味甘溫,甘草味甘平."脾欲緩,急食甘以緩之".建脾者,必以甘爲主,故以膠飴爲君,甘草爲臣.桂辛熱.辛,散也,潤也.榮衛不足,潤而散之.芍藥味酸微寒.酸,收也,泄也.津液不逮,收而行之,是以桂芍藥爲佐.生薑味辛溫,大棗味甘溫.胃者衛之源,脾者榮之本.黃帝鍼經曰,"榮出中焦,衛出上焦"是矣.衛爲陽,不足者益之必以辛,榮爲陰,不足者補之必以甘.辛甘相合,脾胃健而榮衛通,是以薑棗爲使.

교이(膠飴)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며, 감초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다. "비(脾)는 느슨해지고자 하므로 급히 단맛을 먹어 느슨하게 한다." 비(脾)를 굳건히 할 때는 반드시 단맛을 위주로 하므로 교이(膠飴)를 군약(君藥)으로 삼고 감초(甘草)를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계지(桂枝)의 기미는 맵고 뜨겁다. 매운맛은 흘리고 적서준다. 영위(榮衛)가 부족하면 적서서 흘려준다. 작약(芍藥)의 기미는 시고 조금 차다. 신맛은 수렴하고 배출시킨다. 진액이 이르지 못하면 수렴하여 흐르게 해야 하므로 계지와 작약을 좌약(佐藥)으로 삼았다. 생강(生薑)의 기미는 맵고 따뜻하며, 대조(大棗)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위(胃)는 위(衛)의 근

원이고, 비(脾)는 영(榮)의 근원이다. 《황제침경》에서 "영기(榮氣)는 중초(中焦)에서 나오고, 위기(衛氣)는 상초(上焦)에서 나온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위(衛)는 양(陽)으로, 부족하면 반드시 매운맛으로 도와야 한다. 영(榮)은 음(陰)으로, 부족하면 반드시 단맛으로 보해야 한다. 매운맛과 단맛이 서로 합쳐지면 비위(脾胃)가 굳건하고 영위(榮衛)가 소통되게 되므로 생강과 대조를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或謂桂枝湯解表,而芍藥數少,建中湯溫裏,而芍藥數多,殊不知二者遠近之制.皮膚之邪爲近,則制小其服也.桂枝湯芍藥佐桂枝<sup>1</sup>同用散<sup>1</sup>,非與建中同體爾.心腹之邪爲遠,則制大其服也.建中湯芍藥佐膠飴以建脾,非與桂枝同用爾.內經曰,"近而奇耦,制小其服,遠而奇耦,制大其服",此之謂也.

어떤 이가 "계지탕은 겉을 푸는데 작약(芍藥)의 분량이 적고, 건중탕은 속을 덥히는데 작약의 분량이 많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 두 처방이 사기(邪氣)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쓰는 처방임을 전혀 모르는 말이다. 피부(皮膚)의 사기(邪氣)는 가까운 곳에 있으므로 소제(小劑)로 복용한다. 계지탕에서 작약은 계지를 도와 병사(病邪)를 흠으므로, 소건중탕의 구성(體)과 같지 않다. 심복(心腹)의 사기는 먼 곳에 있으므로 대제(大劑)로 복용한다. 소건중탕에서 작약은 교이를 도와 비(脾)를 굳건히 하므로, 계지탕의 쓰임(用)과 같지 않다. 《내경》에서 "사기가 가까이 있으면 기방(奇方)이나 우방(偶方)을 쓸 때 소제(小劑)로 복용하고, 멀리 있으면 기방이나 우방을 쓸 때 대제(大劑)로 복용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膠飴(君,一升) 甘草(臣,一兩,炙) 桂枝(佐,三兩,去皮) 芍藥(佐,六兩) 大棗(使,十二枚,擘) 生薑(使,三兩,切)

교이(군약, 1승) 감초(신약, 1냥, 굽는다) 계지(좌약, 3냥, 껍질을 벗긴다) 작약(좌약, 6냥) 대조(사약, 12매, 찢는다) 생강(사약, 3냥, 썬다.)

右六味,以水七升,煮取三升,去滓,內膠飴,更上微火消解,溫服一升,日三服.嘔家不用建中湯,以甜故也.

이 6가지 약재를 물 7되로 3되가 될 때까지 달인 다음 찌꺼기를 제거한다. 여기에 교이(膠飴)를 넣고 다시 약한 불 위에서 녹인 다음 따뜻하게 1되씩 하루 3번 복용한다. 자주 구토하는 환자에게는 건중탕(建中湯)을 쓰지 않는다. 맛이 달기 때문이다.

---

1. 同用散 : \*以發散 ※대성본 ↗



## 脾約丸方 비약환

約者結約之約,又約束之約也.內經曰,"飲入於胃,遊溢精氣,上輸於脾,脾氣散精,上歸於肺,通調水道,下輸膀胱,水精四布,五經並行",是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今胃强脾弱,約束津液,不得四布,但輸膀胱,致小便數而大便鞭,故曰其脾爲約.

약(約)는 묶거나 맨다는 뜻이다. 《내경》에서 "수음(水飮)이 위(胃)에 들어오면, 정기(精氣)를 흘려넘치게 하여 위로 비(脾)까지 운반되고, 비기(脾氣)가 정(精)을 퍼뜨리면 위로 폐(肺)까지 돌아가서 물길을 틔우고 조절하여 아래로 방광까지 운반된다. 진액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이 다섯 경맥이 함께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비(脾)의 주관 아래 위(胃)가 진액을 운행한다. 지금 위(胃)가 강하고 비(脾)가 약하면 진액이 묶여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방광(膀胱)에만 운반되어 소변이 잦고 대변이 단단하므로 비(脾)가 묶였다(約)고 하였다.

麻仁味甘平,杏仁味甘溫.內經曰,"脾欲緩,急食甘以緩之".麻仁杏仁,潤物也.本草曰,"潤可去枯".脾胃乾燥,必以甘潤之物爲之主,是以麻仁爲君,杏仁爲臣.枳實味苦寒,厚朴味苦溫.潤燥者必以甘,甘以潤之,破結者必以苦,苦以泄之.枳實厚朴爲佐,以散脾之結約.芍藥味酸微寒,大黃味苦寒."酸苦湧泄爲陰".芍藥大黃爲使,以下脾之結燥.腸潤結化,津液還入胃中,則大便利,小便少而愈矣.

마인(麻仁)의 기미는 달고 평(平)하며, 행인(杏仁)의 기미는 달고 따뜻하다. 《내경》에서 "비(脾)는 느슨해지고자 하므로 급히 단맛을 먹어 완화시킨다."라고 하였다. 마인(麻仁)과 행인(杏仁)은 윤기 있는 약재이다. 《본초》에서 "윤기 있는 것은 메마른 성질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비위(脾胃)가 건조할 때는 반드시 달고 윤기 있는 약재를 위주로 하여야 하므로 마인(麻仁)을 군약(君藥)으로 삼고 행인(杏仁)을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지실(枳實)의 기미는 쓰고 차며, 후박(厚朴)의 기미는 쓰고 따뜻하다. 마른 것을 적시려면 반드시 단맛을 써야 한다. 단맛이 적셔주기 때문이다. 맷힌 것을 부수려면 반드시 쓴맛을 써야 한

다. 쓴맛이 배출시켜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실(枳實)과 후박(厚朴)을 작약(佐藥)으로 삼아 비(脾)에 묶여 있는 기운을 흘렸다. 작약(芍藥)의 기미는 시고 조금 차며, 대황(大黃)의 기미는 쓰고 차다. "신맛과 쓴맛은 용설(湧泄)시키므로 음(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작약(芍藥)과 대황(大黃)을 사약(使藥)으로 삼아 비(脾)에 맺히고 메마른 것을 공하시켰다. 장(腸)이 적셔지고 맺힌 것이 풀어져서 진액(津液)이 위(胃) 속으로 다시 들어오면 대변이 잘 나오고 소변이 줄어들면서 낫는다.

麻仁子<sup>1</sup> (君, 二兩)杏仁(臣, 一升, 去皮尖, 熬別作脂)枳實(佐, 半斤, 炙)厚朴(佐, 一尺, 炙去皮)芍藥(使, 半斤)大黃(使, 一斤, 去皮)

마자인(군약, 2냥) 행인(신약, 1되, 껍질과 꼬트머리를 제거한 뒤 볶아서 기름을 처리한다.) 지실(좌약, 반 근, 굽는다.) 후박(좌약, 1척, 구워서 껍질을 벗긴다.) 작약(사약, 반 근) 대황(사약, 1근, 껍질을 벗긴다.)

右六味, 蜜和丸梧桐子大, 飲服十丸, 日三服, 漸加, 以知爲度.

이 6가지 약재를 꿀로 오동자(梧桐子) 크기의 환으로 만들어 물로 10환 씩 하루 3번 복용한다. 점차 늘려가면서 반응이 올 때까지 복용한다.

<sup>1</sup>. 麻仁子 : \*麻子仁 ※대성본 ←

## 抵當湯方 저당탕

人之所有者,氣與血也.氣爲陽氣,流而不行者,則易散,以陽病易治故也.血爲陰血,畜而不行者,則難散,以陰病難治故也.血畜於下,非大毒駛劑,則不能抵當其甚邪,故治畜血曰抵當湯.

사람에게는 기(氣)와 혈(血)이 있다. 기(氣)는 양기(陽氣)로서, 흐르다가 정체되어도 쉽게 흩어진다. 그러므로 양병(陽病)은 쉽게 치료된다. 혈(血)은 음혈(陰血)로서, 쌓여 있다가 정체되면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병(陰病)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 혈(血)이 하초(下焦)에 쌓이면 매우 독하고 맹렬한 처방이 아니고서는 그 심한 사기(邪氣)를 감당할(抵當) 수 없다. 그러므로 축혈(畜血)을 치료하는 처방을 저당탕(抵當湯)이라고 하였다.

水蛭味鹹苦微寒.內經曰,"鹹勝血".血畜於下,勝血者,必以鹹爲主,故以水蛭爲君.虻蟲味苦微寒."苦走血".血結不行,破血者,必以苦爲助,是以虻蟲爲臣.桃仁味苦甘平.肝者血之源,血聚則肝氣燥."肝苦急,急食甘以緩之".散血緩急,是以桃仁爲佐.大黃味苦寒."濕氣在下,以苦泄之".血亦濕類也.蕩血逐熱,是以大黃爲使.四物相合,而方劑成.病與藥對,藥與病宜,雖奇<sup>1</sup>毒重疾,必獲全濟之功矣.

수질(水蛭)의 기미는 짝고 쓰며 조금 차다. 《내경》에서 "짠맛은 혈(血)을 억제한다."라고 하였다. 혈(血)이 하초(下焦)에 쌓여서 혈(血)을 억제할 때는 반드시 짠맛을 위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질(水蛭)을 군약(君藥)으로 삼았다. 맹충(虻蟲)의 기미는 쓰고 조금 차다. "쓴맛은 혈(血)을 내달리게 한다." 혈이 멎혀 움직이지 않아서 멎힌 혈을 부술 때는 반드시 쓴맛으로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맹충(虻蟲)을 신약(臣藥)으로 삼았다. 도인(桃仁)의 기미는 쓰고 달며 평(平)하다. 간(肝)은 혈(血)의 근원이므로 혈(血)이 멎히면 간기(肝氣)가 마른다. "간(肝)은 긴급함을 괴로워하므로 급히 단맛을 먹어 완화시킨다." 혈을 흘리고 급한 것을 느슨히 해야 하므로 도인(桃仁)을 사약(佐藥)으로 삼았다. 대황(大黃)의 기미는 쓰고 차다. "습기(濕氣)가 아래에 있으면 쓴맛으로 배출시킨

다." 혈(血)도 습(濕)의 부류이다. 맷힌 혈(血)을 씻어내고 열(熱)을 몰아내야 하므로 대황(大黃)을 사약(使藥)으로 삼았다. 이렇게 네 가지 약재가 서로 합쳐져 처방을 이루었다. 병과 약이 맷은 짝이 합당하면 혹독하고 심한 병이라도 반드시 모두 낫게 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水蛭(君,三十枚,熬) 虻蟲(臣,三十個,去翅足熬) 桃仁(佐,三<sup>1</sup>十<sup>2</sup>,去皮熬) 大黃(使,三兩,去皮酒洗)

수질(군약, 30매, 볶는다.) 맹충(신약, 30개, 날개와 다리를 제거하고 볶는다.) 도인(좌약, 30개, 껍질을 벗기고 볶는다.) 대황(사약, 3냥, 껍질을 벗기고 술로 씻는다.)

右四味,剉如麻豆大,以水五升,煮取三升,去滓,溫服一升,未利再服.

이 4가지 약재를 마두(麻豆) 크기로 썰어서 물 5되로 3되가 될 때까지 달인 뒤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뜻하게 1되 복용한다. 설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복용한다.

#### 傷寒明理論卷四終

상한명리론 권4 끝

1. 奇 : \*奇 ※대성본 ↩

2. 三十 : \*三十個 ※대성본 ↩



## 상한명리론 해제

《상한명리론(傷寒明理論)》은 금나라 의학자 성무기(成無己)가 대략 1142년에 저술한 의학서적이다.

### 저자

저자 성무기(成無己)는 요섭(聊攝) 출신으로 대대로 유의를 지낸 집안에서 태어나 의학에 밝은 인물이었다. 그는 대략 1064년 태어나 78세가 되던 1142년 《상한명리론》을 저술하고, 두 해 뒤인 1144년에는 《주해상한론(注解傷寒論)》을 완성하였다. 그런 뒤 약 1156년 90세의 나이로 영면하였다.

### 구성

이 책은 모두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권1에서 권3까지는 《상한잡병론》 및 《금궤요략》에 등장하는 주요 병증 50가지에 대하여 병인과 병리, 치법을 《내경(內經)》( 지금의 《소문(素問)》 ), 《침경(鍼經)》( 지금의 《영추(靈樞)》 ), 《난경(難經)》, 《맥경(脈經)》, 《본초(本草)》 등 의학의 전범(典範)을 근거로 풀이하여 담고 있다. 권4에는 《상한잡병론》에 나오는 주요 처방 20가지에 대하여 처방의 의미와 약재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였다. 각 권에 수록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1 : 발열(發熱), 오한(惡寒), 오흔(惡風), 한열(寒熱), 조열(潮熱), 자한(自汗), 도한(盜汗), 두한(頭汗), 수족한(手足汗), 무한(無汗), 두통(頭痛), 항강(項強), 두현(頭眩), 흉협만(胸脇滿), 심하만(心下滿), 복만(腹滿), 소복만(少腹滿), 번열(煩熱)

권2 : 허번(虛煩), 번조(煩躁), 오뇌(懊惱), 설상태(舌上胎), 늑(衄), 열(噦), 해(咳), 천(喘), 구토(嘔吐), 계(悸), 갈(渴), 진(振), 전율(戰慄), 사역(四逆), 귤(厥), 정성(鄭聲), 섬어(譫語), 단기(短氣)

권3 : 요두(搖頭), 계종(痙瘕), 불인(不仁), 직시(直視), 울모(鬱冒), 동기(動氣), 자리(自利), 근척육순(筋惕肉瞤), 열입혈실(熱入血室), 발황(發黃), 발광(發狂), 광란(霍亂), 축혈(畜血), 노복(勞復)

권4 : 계지탕방(桂枝湯方), 마황탕방(麻黃湯方), 대청룡탕(大靑龍湯), 소청룡탕(小靑龍湯), 대승기탕방(大承氣湯方), 대시호탕방(大柴胡湯方), 소시호탕(小柴胡湯方), 치자시탕방(梔子豉湯方), 과체산(瓜蒂散), 대함흉탕(大陷胸湯方), 반하사심탕(半夏瀉心湯方), 인진호탕방(茵陳蒿湯方), 백호탕(白虎湯方), 오령산(五苓散方), 이중환(理中丸方), 사역탕(四逆湯方), 진무탕(眞武湯方), 건중탕(建中湯方), 비약환(脾約丸方), 저당탕(抵當湯方),

## 의의

성무기는 상한론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남긴 인물이다. 그의 《주해상한론》은 상한론 전체를 주석한 최초의 서적으로 후대에 사실상 《상한론》 연구의 텍스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상한론》 연구에서 그의 입지는 《내경》 연구에서 왕빙(王冰)에 비견될 만하다.

《상한명리론》은 《주해상한론》이 저술되기 2년 전에 완성된 서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논리를 담고 있다. 즉, 성무기는 병증과 치법으로 구성된 《상한론》의 내용을 《내경》의 논리를 근거로 설명해 내고자 하였다. 그의 시도는 《상한론》을 연구하고자 하였던 후대 의가들에게 《상한론》 조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논리를 제공하였다. 장원소(張元素, 1151-1234)의 《의학개원(醫學啓源)》, 왕호고(王好古, 1200-1264)의 《탕액본초(湯液本草)》 등에서 성무기의 설명을 활용된 예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그는 《상한론》의 병증을 사기(邪氣)가 표(表), 반표반리(半表半裏), 리(裏)를 거쳐 전경(傳經)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풀이하였고, 처방을 각 층차에 맞게 사기(邪氣)를 몰아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풀이하였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그의 설명은 후대 의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상한론》을 이해하는 주류 사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 《상한론》 연구가 다소 사변적으로 흐르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설명은 《상한론》 조문의 내용을 이치적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환자를 살피 처방을 선택해야 하는 임상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요시마스 토도(吉益東洞, 1702-1773)를 필두로 《상한론》을 이해할 때 사변적인 학설을 배제하고자 했던 일본 고방파(古方派)의 등장은 이러한 학풍에 대한 반동으로 볼 수 있다.

## 판본

이 책은 태화(泰和) 5년(1205) 초간되었고, 현재 20여종의 판본이 전해진다.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송(宋) 경정(景定) 2년(1261) 각본
- 명(明) 가정(嘉靖) 44년(1565) 파응규교보간본(巴應奎校補刊本)
- 명(明) 만력(萬曆) 29년(1601) 고금의통정맥전서본(古今醫統正脈全書)
- 청(淸) 옹정(雍正) 6년(1726) 낙양만권당각본(洛陽萬卷堂刻本)

참고로, 청말 장서가이자 역사지리학자였던 양수경(楊守敬, 1839-1915)은 《관해당서목(觀海堂書目)》에서 이 책의 조선 활자본을 언급하였으나, 오카니시(岡西為人)와 마야나기(真柳誠)는 일본 간본을 오인한 듯하다고 보았다.

## ※ 참고문헌

- 真柳誠, 『傷寒明理論』『傷寒明理論藥方論』解題, 『和刻漢籍圖書集成』第1輯所収、エンタプライズ, 1988.
- 진대순(맹웅재 외 역), 각가학설(중국편), 대성의학사, 2001.
- 中国医籍大辞典编纂委员会编, 中国医籍大辞典, 上海科学技术出版社, 2002.
  - 작성자. 오준호



## 일러두기

- 책의 구성은 최대한 저본을 좇았으나 줄이 나뉘는 부분이 어색한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 없이 수정하였다.
- 원본에 제목이 없는 경우라도 가독성을 위하여 목차 혹은 문맥을 참고하여 임의로 제목을 추가하였다.
  - **임의제목** : 임의 제목 표시
- 글자의 오류가 있는 경우 교감기로 제시하였고, 교감 결과를 번역에 반영한 경우는 \* 로 표시하였다.
- 열람의 편의를 위해 속자, 이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표시 없이 정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 湿 => 濕, 宜 => 宜
- 입력이 어려운 글자는 파자로 입력하였다.
  - 예시)【口+八/豕】
-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기호가 사용되었다.
  - ㉔ : 판독 안되는 글자
  - {} : 소주(小註)
  - { } : 양각
  - 【】: 음각
  - \_ : 격자(隔字)
  - **제목 설명** : 제목에 대한 설명문



## 출판사항

서명 : 국역 상한명리론 傷寒明理論

원저자 : 성무기 成無己

국역 및 해제 : 오준호

발행인 : 김종열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8년 12월 12일

Renewal : 2019년 7월 31일

Renewal : 2020년 12월 31일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하여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오준호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8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학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지원과제 : 《K18201》한의 고문헌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도구 개발

---



ISBN : 978-89-5970-397-5 [PDF]

